

第2編 政治 및 行政

- 第1章 地方行政制度 및 疆域
- 第2章 原州郡時代 坊里
- 第3章 市와 郡의 略史
- 第4章 人口의 發達과 姓氏分布
- 第5章 科擧制度와 原州登第人物
- 第6章 獨立運動과 原州
- 第7章 民族解放
- 第8章 自主獨立과 政治
- 第9章 民主政治와 選舉
- 第10章 行 政

第 1 章 地方行政制度 및 疆域

第 1 節 員 制 度

江原監營의 觀察使 곧 監司는 從 2 品의 堂上官으로서 江原道 觀察使, 都巡察使, 兵馬 및 水軍 節度使 등 여러 가지 官職을 兼職한 것이다. 오늘날의 官名에 比하면 江原道를 統轄하는 道知事가 法院長, 檢事長, 稅務署長 등을 兼하고 또 道內의 陸軍을 統할하는 師團長, 水軍을 統制하는 海軍提督, 이와 같이 政務, 民情을 巡察하는 特使로서 地方의 政治와 兵權을 장악하는 觀察使는 六曹의 各判書로 榮轉도 되었고 判書에서 觀察使로 轉轉되기도 하였다. 이 制度의 沿革을 보면 李太祖時代에는 麗制를 그대로 답습하여 按察使를 두었고 그 뒤 數次 變遷하여 1895年(高宗 32年)에 이르러 廢止하게 되었다. 그런데 옛날의 우리나라 行政制度는 國家形態가 專制君主國家인 단치 위로부터 下向的인 行政이었으며 地方行政은 制度上으로는 單一機構에 依한 絕對的인 官僚行政이었다. 國家行政 全部가 徵稅社會, 秩序維持, 或은 약간의 勸業 등이었으니 극히 단순한 것이었다. 우리나라 歷代 王朝의 政治制度의 本質은 亦是 貴族政治였다. 地方制度는 中央政治制度의 縮小版이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地方土豪의 拔호와 階級意識은 李氏 王朝 末期에서 본 바와 같이 指導階層은 國亂을 당하고도 솔선 實踐哲學의 行動意識보다 觀念哲學의 我執에 사로잡혀 國家의 衰亡을 座視할 수 밖에 없었다 할 것이다. 地方制度의 實情을 보면 다음과 같다. 一郡의 守令이 中央政府나 監營처럼 吏, 戶, 禮, 兵, 刑, 工 등의 6房을 設置하여 管區內에 節度使, 僉節度使, 萬戶, 都尉, 防禦使 등이 設置되어 있을 때도 守令이 着任하여 武官職을 兼하고 行政을 執行하였던 것이다. 그後 倭人이 侵略하자 武斷政治를 敢行하여 地方行政을 警察이 左右하였던 것이다. 祖國光復과 더불어 民主 法治行政이 實施됨에 따라 地方自治制가 實現되어 今 日에 發展하고 있는 것이다.

※ 高宗改制 以前의 府 郡等 守令은 다음과 같다.

觀察使 = 府尹 = 大都護府 = 牧使 = 都護府使 = 郡守 = 縣令 = 縣監. 其他 漢城府尹 開城留守

(가) 鄉 任

座首 1人, 別監 3人 · 斗米廳監官 20人 · 官廳監官 1人 · 軍器監官 1人 · 約正은 各里에 1人 · 都將 2人 · 里正(區長) 各里에 1人 · 風憲(各面의長) · 大同都監 · 所耕都監 · 雇馬監 · 賑恤倉都監도 後에 있게 되었다.

(나) 儒 林

校任 5人 · 民庫都有司 1人 · 養士齊有司 2人 · 別庫有司 2人 · 會儒所有司 1人 · 執綱 18人 · 杜首 18人

1. 鄉史와 通引

高麗太祖가 地方豪族中 長된 者를 戶長이라 하였고 兵士를 거느린 者를 將校라 하였으니 이것이 곧 鄉里의 始初였다. 李朝의 守令(地方行政)들도 中央政府나 監營처럼 吏, 戶, 禮, 刑, 工 등 6房을 設置하여 郡行政을 하였는데 이 房은 鄉吏들이 담당 하였다. 鄉吏의 밑에는 假吏라는 것이 있었으니 假吏는 鄉吏의 下役이었다. 郡守 以外에 座首 6房이 執務한 廳舍는 별도로 郡門外에 건축 되었다. 豪族 以外의 人員들은 이 廳舍에 까지는 出入하였으나 郡守의 廳舍에 까지는

第2編 政治 및 行政

出入하지 못하였다. 이 府內外 建物에서 執務하는 吏屬들을 衙前이라 한 것이다. 우리나라 俗語에 “江流石不轉”이란 말이 있었으니 郡守는 江물 같이 流轉하는것. 즉 늘 바뀌는 것이지만은 石과 같이 土着하여 있는 吏屬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諷刺한 말로서 郡守를 斥할 때에는 妓生들에게 이 노래를 부르게 하여 郡守를 위협하였다 한다. 郡守 廳舍에 出入하면서 항상 郡守에게 接觸하여 隨從한 者를 通引, 또는 知印이라 하였는데, 이는 鄉吏의 近屬者中에서 伶俐한 少年을 뽑아 쓴 것으로서 이 通引이 차차 榮進하여 6房의 首位에 이르게 된 것이다.

第2節 江原監營

江原道 監營의 位置는 原州에 있었고 (現 一山洞) 太祖 4年(1395)에 始初로 江原監營이 原州에 設置되었다가 建陽 元年 8月 4일에 春川으로 옮겼다. 監營에는 中央行政組織을 模倣한 吏·戶·禮·兵·刑·工의 6房이 있어 각각 土着의 吏屬들이 있어 監司를 補佐하고 庶務를 擔當하였다. 府尹以下 各級 地方長官은 이를 俗稱 守令이라고 하는데 (監司는 方伯이라고 한다) 守令의 任期는 1,800日(5年)인데 堂上官(正三品 以上)과 家族을 率眷하지 않는 守令은 9百日(2年半)이 그 때의 任期이다.

守令(府尹·牧使·府使·郡守·縣令·縣監) 밑에도 6房이 組織되어 있고 이와는 別途로 鄉廳 또는 留鄉所라고 불리우는 것이 있어 여기에 長으로 座首가 있다. (처음에는 鄉正이라고 하였음) 地方長老 有德者가 맡아서 그 地方의 風俗을 自治의으로 維持하게 하였다. 座首 밑에는 別監이 있어 이를 補佐하며 守令을 外廓에서 도우며 官民關係를 圓滑케 한다. 地方風俗에 따라서는 아주 이를 重히 여기는 곳이 있었으니, 原州 丹邱에 洪判書는 朝廷에서 물러나와 丹邱에서 살며 監營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하도 걱정을 하니가 監營門의 方向이 丹邱를 向해서 그러하다고 門樓閣을 東쪽으로 옮겼다는 故事는 有名한 이야기이다.

그리고 守令의 直接 補助機關으로 6房의 首惱에는 戶長, 吏長, 首刑房이 있어 3公兄이라 일컬어 吏屬의 中心을 이루기도 하였다. 이들이 있는 6房은 守令의 事務室과 別建物이 있어서 守令廳舍(官衙)의 前方에 있으므로 6房官屬을 통틀어 衙前이라 부르는 由來가 여기에 있고 6房과 守令은 隨時로는 相面하지 못하고 通引이라는 年少하고 伶俐한 衙前의 子弟가 그 連絡을 맡았다. 通引은 將次 6房의 首席에 이르는 候補者이기도 하다. 府, 郡, 縣 밑에 末端 行政區域으로는 面이 있고 또한 그 밑에 里가 있었음은 只今과 같다. 面의 長은 面長(面任·都尹·風憲改正·社長等은 이에 該當된다)이 있어 面務를 보고 里正을 監督한다. 鄉令條規에 依하면 다음과 같은 役員이 있었다.

風憲=公錢 領收를 맡는다.

紡正=軍布錢 收納을 맡는다.

勸農=農形을 察하고 各種 使役을 맡는다.

面主人=文書 送達을 맡는다.

里에는 里正과 有司가 있어 事務를 보고 그 밑에 統이 있다. 統은 5家로서 構成되어 있는데 大里는 21에서 30統까지 있고 中里는 11에서 20統까지 小里는 5에서 10統까지의 規模로 編成되어 있다. 原州에는 한때 江原道 監營이 자리하고 있어 監司가 配置되었으며 監司는 觀察使 兼 巡察使의 兼職官으로 水軍兵馬 節度使를 따로 駐任케 했다. 그것이 只今의 江原監營門樓閣(宣威門)과 宣化堂이다. 6.25動亂前까지도 監營廳舍는 그대로 남아 있어 唯一한 地方文化財로 保存되었을 것을 戰禍로 없어지고 一部만이 남아 있다.

江原道の 軍事組織을 概括的으로 表示하면 다음과 같다.

第3節 原州牧의 官職 判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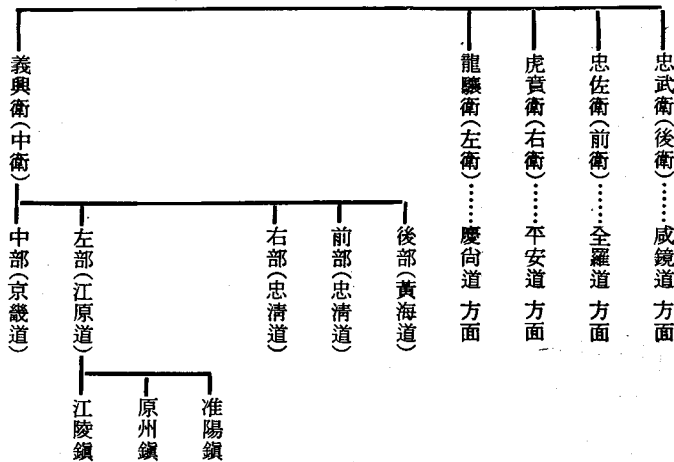
原州牧에 官職으로 從事한 鄉廳役員은 座首로는 蔭官인데 蔭官은 祖父母의 功德으로 얻어 하는 벼슬로 5品 或은 6品の 벼슬이다. 蔭官 1人과 別監이 3人, 軍官이 1百10人, 衙前이 69人, 知印 28人, 使令이 31人, 妓生이 23人(官妓)이고 官奴 24人, 官婢가 9人이다.

第4節 軍事制度

朝鮮王朝의 軍事制度는 壬辰倭亂 以前과 以後의 2分期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前期의 것을 보면 全國을 管轄하는 5衛가 있었고 5衛는 5衛都摠府에서 掌理하였으며 이것은 또 兵曹의 指揮를 받았다. 이것을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가) 前期 組織

兵曹—5衛都摠府



(나) 軍事 組織

衛(衛長) < 遊軍 五領이 있음
 < 部(部將)—統(統將)—旅(旅帥)—隊(隊正)—伍(伍長)—卒

※ 各衛에는 五部, 部는 4統 < 步2統 騎2統 統은 若干의 旅, 旅에는 5隊, 隊는 5伍, 伍는 5卒

다음 前期에 있어서 江原道 地方의 軍隊組織을 보면 우선 江原道는 義興衛(中衛) 左部に 屬하고 있었다는 것은 앞에서 본 바이다. 義興衛 左部로서의 江原道 地方軍은 原州地區(鎭官)와 淮陽地區와 江陵地區로 3大別로 되어 있었고, 道の 觀察使가 兵使와 水使도 兼하고 있었다. 兵使와 水使는 兵馬節度使와 水軍節度使라고도 부른다. 그러면 江原道 地方의 軍事組織을 다음 表를 통해서 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第5節 陸軍(兵馬)

方貢 道貢	僉 節 制 度	同 僉 節 制 使	節 制 都 尉
兵 使	原州牧使兼 (原州鎭官)	春川府使, 旌善郡守 寧越郡守* 平昌郡守	原州判官, 麟蹄縣監, 橫城縣監 洪川縣監

觀察使兼任	淮陽府使兼 (淮陽鎮官)	鐵原府使	金城縣令, 楊口, 狼川, 伊川, 平康, 金化, 安峽縣監
	江陵大府使 (江陵鎮官)	三陟府使, 襄陽府使, 平海杆城 高城, 通川郡守	江陵判官, 蔚珍縣令, 歙谷縣 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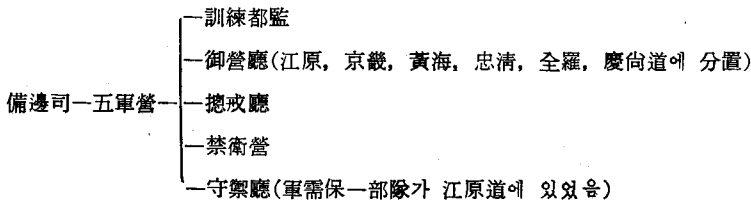
水軍

	僉 制 節 使	萬 戶
水軍節度使 (觀察使兼任)	三陟浦僉使 (三陟浦鎮官)	高城浦萬戶, 安仁浦(江陵)萬戶 蔚珍浦萬戶, 越松浦(平海)萬戶

※ 三陟의 水軍 僉使는 府使가 兼하지 않았음.

以上の 表에서 보던 水軍의 경우 三陟에 基地司令部和 같이 僉使가 配置되어 있고 高城과 江陵에 水軍 部隊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陸軍의 경우에는 原州, 淮陽, 江陵의 3鎮管으로 나누어 各 鎮 밑에 各 府, 郡, 縣에 地方軍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에는 各 府, 郡, 縣의 駐屯軍制가 後期에는 어떠한지를 살펴본다. 文獻備考 兵考를 보면 兵馬의 內容까지 說明하고 있으나 그것은 여기에서 記錄하지 않고 各 高을의 軍事區域이 어떻게 變했나를 보는데 그치겠다.

(다) 後期의 軍事組織



(라) 後期 組織

營	營 轄 區 域
江原道觀察使(原州) 防禦營 (鐵原府使兼任)	
左營 (春川府使兼任)	伊川·鐵原·淮陽·金化·平康·安峽 金城·楊口·狼川
中營 (橫城縣監兼任)	原州·寧越·旌善·平昌 洪川·麟蹄
右營 (三陟營將)	三陟·江陵·襄陽·杆城·高城·通川 歙谷·蔚珍·平海·越松鎮

第6節 關 防

關防이라 함은 陸軍 警備 戰鬥基地를 말하는 것인데 原州의 關防을 보면 다음과 같다.

原 川(鎭山: 雉岳山)

◎ 鎭原山城: 雉岳山의 南麓에 있으며 石城으로 둘레 1,031步로서 우물이 하나 샘이 다섯 있다.

世宗地理誌에는 靈原山城이라表記했고 둘레가 646步로서 샘이 둘 있다고 記錄되어 있는 것을 보아 後에 增築한 것으로 解釋하여야 하나 萬機要覽의 記錄에 없는 것을 봐서 末葉에는 廢한 것 같다. 이 城은 梁吉이 雄據했던 곳이며 哈丹賊이나 倭賊이 쳐들어 왔을 때 血戰으로 有名하다.

◎ 金臺山城 : 亦是 雉岳山 허리에 있는 石城으로 6,060尺의 둘레이며 松弼이 叛亂을 일으켰던 곳이다.

第7節 疆界 및 官職(原州牧)

舊 原州牧의 治所는 監營 앞 120步 現 中央洞 261番地에 있었고 里程標는 現 仁洞과 中央洞 사이에 있었으나 只今은 없어졌다.

鎮管原州牧=東至 平昌郡界	125里
東南至 寧越府界	120里
忠淸道 堤川縣界	50里
忠淸道 忠川牧界	55里
西至 京畿 砥平縣界	70里
北至 橫城縣界	30里
距 京 都	240里
距 監 營	120步

第2章 原州郡時代 坊里

第1節 坊 里

原州는 平原·北原京·一新·靖原·益興·成安·平涼京·原城·鶴城 등 많은 地名의 改稱으로 되어-왔으나 縣에서 郡 그리고 小京, 都護府, 牧, 監營 등의 格도 無數히 바뀌어 왔다. 그 뿐만 아니라 忠淸道와 江原道 사이에 있어 繼續 忠淸道 管轄區域으로 있다가 한 때는 江原道 監營所在地로도 있다가 다시 忠州 觀察府로 移屬되는 등 一定한 管轄區域에 있지 못했다. 李朝 9代 成宗 元年(1470)에 經國大典을 完成하고 同王 5年(1474) 甲午에 이를 頒布하여 坊里를 施行하고 高宗 32年(1895) 乙未에 全國을 23府 331郡으로 할 때 原州郡으로 再改稱되기에 이르니 當時의 行政區域은 다음과 같다.

原州郡 21個面 91里(舊郡邑誌中)

戶總 8,637戶

人口 37,646名 男子 15,348名
女子 22,298名

(高宗 32年(1893)現在)

第2節 諸 縣

(里, 面, 村을 여기서 縣으로 한다)

第1縣 邑內(상동리, 중동리, 하동리, 배말)

上洞里(現 仁洞과 園洞 1部) 비각거리

中洞里(現 中央洞 1部와 1山洞 1部) 큰문거리

下洞里(現 平原洞 1部와 中央洞 1部) 진골목 舟村洞(現 鳳山洞 1部 쌍다리전너) 배말

4개 洞內로서 戶數는 629戶에 人口는 男子 223名 女子 1,359名으로 합 2,582名이었다.

第2縣 本部面(1, 2, 3, 4里編)

本部面은 自官東距 10里周圍(現 鳳山 2, 3區와 杏邱洞 1部)

戶數 334戶 人口數 1689名

1里=戶數 136戶 男 198名 女 218名

2里 戶數 50戶 男 130名 女 292名

3里 戶數 58戶 男 133名 女 166名

4里 戶數 70戶 男 125名 女 257名

分3里 戶數 20戶 男 83名 女 87名

第3縣 楸田洞面(1, 2 分2, 3里編)

戶數 439戶
人口 1,333名

楸田洞面은 自官西距 10里周圍(現 牛山洞 1部와 丹溪洞 1部)

1里=戶數 156戶 男 121名 女 222名

分1里=戶數 90戶 男 122名 女 141名

2里=戶數 55戶 男 97名 女 125名

3里=戶數 138戶 男 220名 女 285名

第4縣

沙堤面村(1, 2, 3里編) 戶數 466戶
人口 2,553名

沙堤面村은 自官西距 10里(現 興業面 沙堤里와 文幕桐華里 1部와 興業 1部)

1里=166戶 男 214名 女 442名

2里=165戶 男 317名 女 489名

3里=135戶 男 499名 女 592名

第5縣

板梯面村(1, 2 分2, 3里編) 戶數 485戶
人口 1,639名

板梯面村은 自官南距 15里(現 板富面 1部)

1里=136戶 男 141名 女 289名

2里=131戶 男 193名 女 270名

分2里= 88戶 男 148名 女 150名

3里=130戶 男 217名 女 231名

第6縣

今勿山面(1,2,分2里編) 戶數 236戶
 人口 1,338名
 今勿山面은 自官南距 20里 (興業梅芝里와 大安里 1部)

1里=130戶 男 301名 女 320名
 2里= 51戶 男 121名 女 291名
 分2里= 55戶 男 116名 女 189名

第7縣

佉坡面(1, 分1,2,3里編) 戶數 315戶
 人口 1,543名
 佉坡面은 自官南距 40里(現 貴來面 죽 양아치 넘어 龍岩里까지를 말한다)

1里= 70戶 男子 173名 女子 230名
 分1里= 51戶 男子 90名 女子 207名
 2里=112戶 男子 245名 女子 264名
 3里= 82戶 男子 143名 女子 191名

第8縣

旆乃面(1,2 分2,3,分3里編)
 戶數 567戶
 人口 1,592名
 旆乃面은 自官西南距 40里(現 文幕面으로 취 병 반계 地域)

1里=103戶 男子 150名 女子 173名
 2里=262戶 男子 232名 女子 207名
 分2里= 84戶 男子 121名 女子 238名
 3里= 84戶 男子 181名 女子 157名
 分3里= 34戶 男子 60名 女子 73名

第9縣

富論面(1, 分 1,2,3,4,5,6,7里編)
 戶數 604戶
 人口 3,580名
 富論面은 自官西南距 60里(現 富論面 그대로 다)

1里= 43戶 男子 103名 女子 317名
 分1里=134戶 男子 134名 女子 498名
 2里= 26戶 男子 105名 女子 281名
 3里= 67戶 男子 89名 女子 337名
 4里= 9戶 男子 28名 女子 129名
 5里= 71戶 男子 119名 女子 351名
 6里=180戶 男子 151名 女子 450名
 7里= 74戶 男子 147名 女子 341名

第10縣

康川面(1, 分1, 2, 分2, 3,4, 分4里編)
 戶數 685戶
 人口 3,652名
 康川面은 自官西距 70리에 있다(現 京畿道 驪州郡 康川面으로서 1914年 3月 1日 字로 原州郡에서 京畿道로 移管되었다)

1里=156戶 男子 141名 女子 371名
 分1里= 97戶 男子 182名 女子 391名
 2里=101戶 男子 248名 女子 397名
 分2里= 25戶 男子 211名 女子 298名
 3里=120戶 男子 248名 女子 289名
 4里= 93戶 男子 209名 女子 61名
 分4里= 93戶 男子 247名 女子 359名

第11縣

池內面(1,2里編) 戶數 283戶
 人口 1,369名
 池內面은 自官西距 70리에 있다. (現 驪州郡에 屬한 面으로 康川面과 같이 原州郡에서 驪州郡으로 移屬하게 된 것이다)

1里=135戶 男子 339名 女子 330名
 2里=148戶 男子 240名 女子 400名

第12縣

地向谷面(1,2,3,4 里編) 戶數 395戶
 人口 1,675名
 地向谷面은 自官西距 70里(現 地正面 1部인 安昌 良峴地域)

1里=195戶 男子 288名 女子 422名
 2里= 90戶 男子 178名 女子 219名
 3里= 65戶 男子 150名 女子 203名
 4里= 45戶 男子 132名 女子 83名

第13縣

正之安面(1,2,3,4 里編) 戶數 261戶
 人口 768名
 正之安面은 月松을 中心으로 現 地正面 1部로써 自官 西北距 20里 地點이 된다.

1里=110戶 男子 218名 女子 146名
 2里= 33戶 男子 54名 女子 57名
 3里= 83戶 男子 72名 女子 112名
 4里= 35戶 男子 53名 女子 56名

第14縣

古毛谷面(1,2,3,4,5,6 里編)

第2編 政治 및 行政

戶數 390戶
人口 1,197名

古毛谷面은 自官西北距 60里(現在 橫城郡 書院面으로서 1914年 3月 1日자로 原州郡에서 갈려 나간 것이다)

- 1里 = 115戶 男子 191名 女子 158名
- 2里 = 95戶 男子 156名 女子 199名
- 3里 = 65戶 男子 43名 女子 91名
- 4里 = 40戶 男子 21名 女子 74名
- 5里 = 35戶 男子 52名 女子 66名
- 6里 = 40戶 男子 71名 女子 75名

第15縣

好梅谷面(1, 2, 3, 4, 5 里編)

戶數 390戶
人口 1,237名

好梅谷面은 自官北距 30里로 되어 있는데 現 好楮面 一部를 말함이며 平川을 中心으로 한 것이다.

- 1里 = 50戶 男子 67名 女子 75名
- 2里 = 70戶 男子 126名 女子 198名
- 3里 = 60戶 男子 65名 女子 98名
- 4里 = 110戶 男子 110名 女子 219名
- 5里 = 100戶 男子 104名 女子 175名

第16縣

所草面(1, 分1, 2分2, 3, 4, 5, 6, 分6, 7, 8 里編)

戶數 491戶
人口 1,532名

所草面은 自官北距 30里로 되어 있는데 本來부터 現在까지 所草面 그대로이다.

- 1里 = 36戶 男子 55名 女子 59名
- 分1里 = 35戶 男子 56名 女子 56名
- 2里 = 23戶 男子 45名 女子 44名
- 分2里 = 35戶 男子 60名 女子 45名
- 3里 = 61戶 男子 105名 女子 116名
- 4里 = 53戶 男子 54名 女子 98名
- 5里 = 63戶 男子 63名 女子 74名
- 6里 = 35戶 男子 47名 女子 40名
- 分6里 = 42戶 男子 53名 女子 47名
- 7里 = 66戶 男子 102名 女子 182名
- 8里 = 42戶 男子 70名 女子 61名

第17縣

水周面(初里, 1里, 2里編) 戶數 341戶
人口 1,528名

水周面은 自官東距 60里로 되어 있으나 水周面도 亦是 1914年에 原州郡에서 寧越郡으로 移屬되었다.

- 初里 = 103戶 男子 210名 女子 418名
- 1里 = 85戶 男子 160名 女子 272名
- 2里 = 153戶 男子 220名 女子 248名

第18縣

左邊面(1, 2 里編) 自官東距1百里

戶數 368戶
人口 1,338名

左邊面 亦是 1914年에 寧越郡으로 移屬

- 1里 = 278戶 男子 335名 女子 645名
- 2里 = 90戶 男子 118名 女子 240名

第19縣

右邊面(1, 2, 3 里編) 戶數 473戶
人口 2,025名

右邊面은 自官東距 90里로 되어 있다. 水周面과 같이 左邊, 右邊面도 함께 寧越郡으로 같은 時期에 갈려 나갔다.

- 1里 = 113戶 男子 313名 女子 370名
- 2里 = 254戶 男子 413名 女子 393名
- 3里 = 106戶 男子 237名 女子 299名

第20縣

加里坡面(1, 2 里編) 戶數 280戶
人口 1,502名

加里坡面은 自官東南距 55里(現 神林面을 加里坡面이라고 했다)

- 1里 = 198戶 男子 420名 女子 586名
- 2里 = 82戶 男子 130名 女子 366名

第21縣

沙斤寺面(1, 2, 3 里編) 戶數 465戶
人口 1,713名

沂斤寺面은 自官東距 15里로 되어 있다. 現原州市 杏邱洞 石經村과 모래기 地域을 말한다.

- 1里 = 136戶 男子 167名 女子 366名
- 2里 = 176戶 男子 272名 女子 368名
- 3里 = 153戶 男子 180名 女子 360名

※ 以上은 옛 原州郡邑誌中에서 밝혀한 것이나 이것은 언제 누가 만든 것인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國立圖書館에 비치되어 있는 圖書番號 10,967의 冊에 있다.

第3章 市와 郡의 略史

第1節 市와 郡의 制度背景

原州市와 原城郡은 元來 原州郡으로서 高句麗때 平原郡이라 했고 新羅 文武王때 北原京이었으며 太祖 23년에 原州라는 地名으로 州知事를 두었고 高宗 46년에 鄉人의 逆名으로 一新縣으로 降等되었다가 元宗 10년에 靖原都護府로 昇格하였고 다시 忠烈王 13년에 益興都護府로 繼續되어 오다가 高麗 忠烈王 34년에 原州牧이 되었고 忠肅王 2년에 다시 成安府로 降下되었으며 李朝 世祖에 와서 다시 鎭管府로 昇格하여 1府 3郡 3縣을 管轄하게 되었다. 다시 肅宗 9년에 와서 原城縣으로 降下되었다. 그 後 한 때 原州 鶴城等 縣으로 있다가 英祖 4년에 討捕營을 設置하여 江原監營(道廳所在地)으로 까지 昇格이 되었으며 高宗 32년에 江原監營을 廢止하고 原州郡으로서 忠州觀察府로 移屬되었다. 그 이듬해 다시 江原道觀察府가 春川으로 移管되었다. 元來는 20個面이던 것을 康川面과 池內面을 京畿道 驪州郡으로 水周面과 左邊 右邊面을 寧越郡으로 書院面을 橫城郡으로 移屬하고 1929년에 面의 폐합과 同時에 原州面을 原州邑으로 昇格함에 따라 1邑 9面으로 原州邑長과 原州郡守가 行政을 統轄하였고, 1955年 9月 1日에 原州邑이 原州市로 昇格함에 따라 原州郡은 原城郡으로 改稱됨과 同時에 邑長은 市長으로 14洞과 原城郡守는 原州郡 9個面을 統轄하기에 이르렀다. 여기까지의 原州市와 原城郡의 沿革은 同一하므로 市·郡沿革을 여기서 다시 分離하여 記錄한다.

第2節 原州市의 略史

1937年 原州面을 上洞, 下洞, 花川, 台庄, 沙川里 등 5개 里로 구성하였다가 다시 原州邑으로 昇格하였고, 其後 本町 1, 2丁目 大和町, 錦町, 開運町, 南山町, 榮町, 旭町, 鳳山町, 1, 2, 3區 台庄 1, 2區 沙川里洞等 14個町으로 確定하여 町行政은 區長으로 하고 區長은 邑長의 指名發令으로 하였다. 區長 밑에는 愛國班이 있어 區長이 指名한 班長이 區長을 補助한다. 班長은 地域에 따라 30戶乃至 40戶를 1個班으로 했다. 1945년에 다시 町을 洞으로 改正할 때 平原洞, 仁洞, 中央洞, 一山洞, 開運洞, 明倫洞, 園洞, 鶴城 1, 2區 丹溪洞, 台庄洞 1, 2區 鳳山洞 1, 2, 3區等 15個洞으로 改稱하고 各洞에는 洞長이 行政事務를 擔當하였다. 또한 愛國班을 坊으로 變更하고 坊長이 洞長을 補助하는 制度로 됐다. 1955年 9月 1日 法律 第 372號로 隣接面인 板富面 杏邱里와 丹邱里와 好楮面 牛山里를 市로 編入하고 杏邱洞 丹邱洞 牛山洞으로서 全18個洞으로 原州邑이 原州市로 昇格되었다. 1961年 9月 15日에 中央洞과 平原洞을 中平洞으로 園洞과 仁洞을 園仁洞으로 鶴城 1, 2洞을 鶴城洞으로 台庄 1, 2洞을 台庄洞으로 鳳山 1, 2, 3區를 鳳山洞으로 各各 合하여 12個聯合洞으로 改編 事務를 擔當實施하였다. 1970년에 人口增加로 7月 1日 字로 12個 聯合洞에서 大規模洞인 鶴城洞과 台庄洞 鳳山洞을 各各 1, 2洞으로 分洞하여 3個洞을 增設하므로써 15個聯合洞으로 擴張하여 市民福祉向上에 寄與하고 있다. 1973年 7月 1日에 行政區域 改編에 따라 原城郡 興業面 茂實里와 板富面 觀雪里 盤谷里와 好楮面 加峴里 등 4개 里를 編入시켜 茂實洞과 觀雪洞 盤谷洞 등 3個洞을 新設하고 加峴里는 台庄 2洞과 牛山洞에 各各 分轄 編入시켜 현재 18개 법정동으로 原州市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原州市制 實施와 더불어 中央洞에 邑事務所를 市廳舍로 使用하기로 하고

1層建物を 2層으로 改築하여 使用하여 오다가 1973年 11月 5日에 一山洞 現廳舍로 移轉하였다. 한편 1941年에 中央線鐵道の 開通으로 交通의 中心을 이루었고 野戰軍司令部가 原州로 옮겨 오고, 8895部隊가 들어 오므로 商業都市가 軍事都市로 一變하였으며 忠州, 堤川, 江陵, 春川, 驪州等地로 通하는 道路網도 原州에 集中하여 交通의 大中心地를 이루게 되었고 上水道 施設과 市街地 計劃令의 實施로, 一山路와 中央路, 平原路의 道路포장의 實施등 눈부신 發展을 보게 되었다. 1961年 5.16革命以後 第3共和國 政府가 樹立되면서 祖國近代化와 滅共統一을 이룩하여 民族中興의 大業을 完遂하려는 一環策으로 추진된 第1次經濟開發 5個年 計劃에 따라 從來의 消費都市이던 原州에도 經工業團地인 葉煙草再乾工場 태형팔루工場 韓一電氣等 14個 業體가 誘致되었고, 嶺東高速道路가 開通됨으로 서울과도 1日 生活圈으로 되는 등 비약적인 發展을 보아 오고 있다. 現在 原州市의 下部 行政機構는 다음과 같다.

※ 歷代 原州市長 (1955年度부터)

初代 吳亨善	2代 元寅植	3代 元寅植(民選)	4代 朴柱根
5代 朴魯榮	6代 韓東錫	7代 田英春	8代 金乘祐
9代 李東晉	10代 朴建周	11代 金龍雲	12代 崔文圭
13代 金榮珍	14代 鄭箕勳		

※ 歷代 副市長 「1955年度부터」

初代 張영상	2代 張호구	3代 조경환	4代 김종석
5代 김창경	6代 최재덕	7代 최석준	8代 김형기
9代 김정명	10代 홍순성		

第3節 原州市 各洞의 變遷

(가) 中平原洞

1. 沿革 및 概要

中平原洞은 原州市 中央에 位置한 洞으로 1937年 原州面에서 原州邑으로 昇格됨에 下洞이 本町(至今의 中央洞)과 旭町(平原洞)으로 擴張하였고 다시 1945年에 本町은 中央洞으로 旭町은 平原洞으로 改稱하였다가 1961年 9月 15日 中央洞과 平原洞을 聯合하여 事務制를 實施하고 있으며 嶺西地方 都市의 中心地가 되고 現在 中央市場을 誘致하고 있으며 原州市의 中心地로서 都市洞의 面貌를 갖추고 있는 洞이 되었다.

2. 位置 및 面積

本洞은 原州市의 中心地로서 東經 127度 57分 北緯 37度 21분에 걸쳐 있고 總面積은 0.51km² 中 住宅地가 0.41km² 商街가 0.1km²로 되어 있고 道路는 總延長이 12km인데 모두가 國道로 되어 있다.

3. 行政區域

이 洞의 行政區域의 法定洞이 2, 再建班數가 46個班이다.

4. 人口 및 家口

人口는 總 9,506名으로 男子가 4,506 女子가 4,900名이며 1km²當 人口는 187名이고 家口는 總 1,458家口로 農家가 12 非農家가 1,446 家口이며 人口數에 比例한 1家口當 人口數는 5,098名으로 나타나고 産業別로 人口를 分類하여 보면 農業 26, 製造業 47, 商業 7,033, 衛生業 27,

서비스업 59, 運輸 30, 其他가 2,284名으로 되어 있다.

5. 歷代 洞長

中央洞은 初代 朴 齊南 2代 張 昌淳 平原洞은 初代 陳 成源 2代 金 仁福 3代 李 衡馥
聯合洞長은 初代 朴 海潤 2代 李 衡馥 3代 鄭 炯奎 4代 李 衡馥 5代 金 義培 洞長等이다.

(나) 園 仁 洞

1. 沿革 및 概要

園仁洞은 原州市의 中南部 地域에 位置한 洞으로 1945年 南山町을 園洞으로 大和町을 仁洞으로 改稱하여 1961年 9月 15日 園洞과 仁洞을 聯合하여 園仁洞으로 事務制를 實施하여 現在에 이르고 있다.

2. 位置 및 面積

園仁洞은 東經 127度 57分 北緯 37度 12分 標高 140m로 北쪽은 中平原洞 西쪽은 茂實洞 東쪽은 鳳山 2洞 南쪽은 明倫 開運洞과 隣接하고 面積은 總 0.97km² 道路는 總 1,790m이며 國道 120m 地方道 1,670m이다.

3. 行政區域

行政區域은 自然部落數 2, 再建班 53이며 法定洞이 現在 2이다.

4. 人口 및 家口

人口는 總 11,199名으로 男子 5,494名 女子 5,705으로 나타나고 1km²당 人口數는 11,529.8名이며 總家口 1,890家口中에는 農家 45 非農家 1,845家口가 있고 產業別로는 農業 352, 製造業 89, 建設業 93, 商業 685, 衛生業 308, 서비스業 689, 運輸 56, 通信 12로 나타나고 있다.

5. 歷代 洞長

仁洞은 初代 兪 炳克 2代 金 鶴聲 3代 金 榮植 4代 蔡 基錫이고

園洞은 初代 朴 秀洪 2代 朴 喜晚 3代 姜 三祿 4代 李 南濟 5代 金 聖玉이고 聯合洞이된 후 園仁洞長은 初代 李 衡馥 2代 趙 永稷 3代 金 潤和 4代 趙 永稷 5代 金 相俊 6代 金 鎮卜 洞長等이다.

(다) 開 運 洞

1. 沿革 및 概要

開運洞은 原州市의 南쪽에 位置한 洞으로 1937年 原州面이 邑으로 昇格됨에 따라 開運里를 開運町으로 改稱하고 1945年 開運町을 開運洞으로 改稱하여 1961年 9月 15日 丹邱洞과 聯合事務制를 實施하여 오다가 1963年 6月 26日 다시 分洞하여 現在에 이르고 있다.

2. 位置 및 面積

位置는 原州市의 南쪽으로 東經 127度 55分 北緯 37度 58분에 걸쳐있으며 西쪽은 明倫洞 南쪽은 丹邱洞 東쪽은 盤谷洞과 各各 隣接하고 總面積 177,812坪에 畓이 63,553坪 田이 30,797坪 住宅地가 81,462坪을 차지하고 道路는 總延長이 2.095km에 國道 1,095km 農路가 1km를 차지하고 있다.

3. 行政區域

行政區域은 自然部落이 5, 再建班이 47個班으로 나타나고 있다.

4. 人口 및 家口數

人口는 總 9,569名으로 男子는 4,832名 女子는 4,737名을 차지하고 1km²당 人口數는 651.1

第2編 政治 및 行政

名이며 産業別로 分類하면 農業 683名 製造業이 6名 建設業이 208名 商業이 208名 衛生業이 39名 서비스業이 32名 運輸가 73名 其他가 8,518名을 차지하며 家口는 總 1,830家口에 農家가 90名 非農家가 1,740名으로 나타나며 人口數에 比例한 1家口당 平均人口는 5.2名으로 나타나고 있다.

5. 歷代 洞長

初代 李啓沃 2代 金榮弼 3代 李啓沃 4代 任壽喆 5代 安榮壽 6代 李春萬 7代 申九永 8代 任春燮 9代 辛明善 10代 李淵采洞長等이며 開運洞과 丹邱洞의 合洞당시의 洞長은 初代 金鍾珉 2代 金鎮玉洞長이며 分洞後의 洞長은 初代 金周植 2代 金東俊 3代 金容德 4代 金相旭 5代 權榮復洞長 等이다.

(라) 明倫洞

1. 沿革 및 概要

明倫洞은 原州市의 西南間에 位置한 洞으로 1945年 開運町을 洞으로 變更하여 現在 47個班을 이루고 있으며 이 洞은 嶺西地方 및 中南部地域의 交通의 關門이 되며 男女 中·高等學校를 7個 校나 誘致하고 있어 都市洞의 面貌를 갖추고 있는 洞이다.

2. 位置 및 面積

位置는 東經 128度 26分 北緯 37度 8分 標高 140m로 東쪽은 原州市 仁洞 南쪽은 開運洞 西쪽은 茂實洞 北쪽은 園洞과 接境을 이루고 있으며 面積은 總 3.76km²이며 土地利用度를 보면 畓이 14,771坪 田이 56,056坪 住宅地가 63,416坪 林野가 1.6町步며 道路는 總延長이 모두 國道로 되어 있다.

3. 行政區域

이 洞의 行政區域은 自然部落이 3, 再建班이 47로 나타나고 있다.

4. 人口 및 家口數

人口는 總 8,850名으로 男子 4,440, 女子 4,410名이며 1km²당 人口數는 2,350名이며 家口는 總 1,565家口인데 그 중 農家가 45, 非農家가 1,520家口로 나타나고 人口數에 比例한 1家口당 人口는 5.6名으로 나타나며 産業別로 分類해보면 農業 89, 製造業 498, 建設業 25, 商業 199, 衛生業 135, 서비스業 320, 運輸 38, 勞動 2,600名 其他가 4,446名이다.

5. 歷代 洞長

初代 金有淵 2代 鄭達承 3代 金熙貞 4代 羅萬吉 5代 安德鉉 6代 洪周杓 7代 金慶培 8代 白雲鶴 9代 趙永淵 10代 金周植 11代 金東俊 12代 鄭在玉 13代 金義培 14代 金潤和 15代 李東夏 洞長等이다.

(마) 丹邱洞

1. 沿革 및 概要

丹邱洞은 原州市의 南部로 元來 原城郡 板富面 丹邱里였든것이 市로 昇格되어 1961年 9月 15日 丹邱洞과 開運洞을 聯合洞으로 事務制를 實施하다가 1962年 人口의 增加로 分洞되어 36個班으로 現在에 이르고 있으며 이 洞은 土壤이 肥沃하고 水利施設이 잘 되어있어 農村洞으로서 近郊農業의 發展을 기하고 있는 洞이다.

2. 位置 및 面積

丹邱洞은 東經 127度 57分 北緯 37度 21分 標高 140m로 東쪽으로 原州市 盤谷洞 南쪽으로

는 觀雪洞 西쪽으로는 原城郡 板富面 北쪽은 原州市 開運洞과 接境을 이루고 있으며 面積은 總 4.78km²이고 其中 畓이 334,346坪, 田이 2,020,208坪, 住宅地가 90,931坪, 林野가 6,075,000坪이고 道路는 總 延長 7,450m에 國道 3,850m 農路 3,600m로 나타나고 있다.

3. 行政區域

行政區域은 再建班 36, 自然部落 4로 自然部落名은 관후, 귀론, 양월, 본부락 등이다.

4. 人口 및 家口

人口는 總 6,778名이며 其中 男子가 3,353名 女子가 3,425名이고 1km²당 人口는 1,440名이며 家口는 總 1,390에서 農家가 188, 非農家가 1,202家口이며 總人口에 比例하면 1家口당 5.4名이 나타난다. 産業別로 分類하면 農業이 1,082名, 製造業이 45名, 建設業이 17名, 商業이 448名, 衛生業이 97名 서비스業이 155, 運輸業이 25名, 其他 4,909名으로 分類된다.

5. 歷代 洞長

初代 嚴乘運 2代 金鍾珉 3代 金東雄 4代 金鎮玉 5代 嚴乘運 6代 金容德 7代 金東俊 8代 金容德 9代 金相旭洞長等이다.

(바) 一山洞

1. 沿革 및 概要

一山洞은 原州市의 中心地域에 位置한 洞으로서 1955年 原州邑이 市로 昇格됨에 따라 錦町을 一山洞으로 變更하여 現在 都市洞의 面貌를 갖추는데 總力을 기울이고 있다.

2. 位置 및 面積

一山洞은 東經 127度 57分 北緯 37度 21分 標高가 140m로 東쪽은 中平原洞 南쪽은 園仁洞 西쪽은 茂實洞 北쪽은 鶴城 2洞과 接境을 이루고 面積은 總 131km²이며 그 중 田이 19,683坪, 畓이 25,782坪, 住宅地가 112,214坪, 商街가 16,500坪, 林野가 16町步이며 道路는 總延長 2,030m. 中 國道 700m, 地方道가 1,330m이다.

3. 行政區域

行政區域은 自然部落이 없고 再建班이 40이다.

4. 人口 및 家口數

이 洞의 總人口數는 8,193名이고 其中 男子가 3,976名 女子가 4,217名이며 1km²當 人口數는 6,196名이고 産業別로 分類해보면 農業 33, 製造業 135, 建設業 27, 商業이 750, 衛生業이 23, 서비스業이 250, 運輸가 80, 通信이 24, 其他가 500名으로 나타나고 家口는 總 1,554家口中 農家가 33, 非農家가 1,521家口이며 人口數에 比例하면 1家口當 5.4名이 된다.

5. 歷代 洞長

初代 金鳳雲 2代 盧利熙 3代 南相彪 4代 李圭榮 5代 金潤和 6代 鄭在玉 7代 金仁基 8代 李昌和 洞長等이다.

(사) 鶴城 1洞

1. 沿革 및 概要

鶴城洞은 原州市의 中心地域에 位置한 洞으로 1945年 「榮町」을 鶴城1,2區로 改稱 1961年 9月 15日 鶴城 1,2區를 聯合洞으로 事務制를 實施하여 오다가 1970年 7月 1日 人口의 增加로 鶴城 1,2洞으로 分洞하여 現在에 이르고 있다.

第2編 政治 및 行政

2. 位置 및 面積

鶴城 1洞은 東經 128度 21分 北緯 37度 20分 標高 140m로 北쪽은 原州市 丹溪洞 東쪽은 鶴城 2洞 西쪽은 牛山洞 南쪽은 一山洞과 隣接하고 總面積 0.73km² 中 畓이 1,200坪, 住宅地가 13,625坪, 軍用地 20,000坪, 商街 1,000坪, 其他가 61,000坪을 차지하며 道路는 總延長 3.106km 에 國道가 2.296km, 地方道가 0.81km로 되어 있다.

3. 行政 區域

行政區域은 自然部落 3, 再建班 40個班이다.

4. 人口 및 家口

人口는 總 12,207名에 男子가 6,142名 女子가 6,065名을 차지하고 1km²當 人口數는 1,656名이며 家口는 總 2,498家口인데 農家가 3, 非農家가 2,495家口를 차지하고 1家口당 平均人口는 4.7名으로 나타나고 있다.

5. 歷代 洞長

鶴城洞長은 初代 辛弘善 2代 全容華 3代 金讚基 4代 鄭海均 5代 金東善 6代 李營 7代 元在萬 洞長等이고 鶴城 1,2洞의 聯合洞長은 初代 白雲鶴 2代 金炳魯 3代 金石奉 4代 李鳳植 洞長으로 4代이며 70年에 分洞 된 후는 初代 李昌和 2代 金仁基 洞長으로 2代이다.

(아) 鶴城 2洞

1. 沿革 및 概要

鶴城洞은 原州市의 中心部에 位置한 洞으로 「榮町」이라 불리우고 1945年 鶴城洞 1,2區로 變更하였다가 1961年 9月 15日 다시 鶴城洞 1,2區를 聯合하여 事務를 處理하다가 다시 分洞하여 現在에 이르고 있으며 江原道の 通信에 中樞인 遞信廳과 中央線이 연결된 原州驛을 誘置하고 있는 都市洞이다.

2. 位置 및 面積

鶴城 2洞은 東經 127度 57分 北緯 37度 24分 標高 80m로 北쪽은 原州市 台庄 2洞 東쪽으로는 鳳山 1洞 西쪽으로는 丹溪洞 鶴城 1洞과 南쪽으로는 中央, 平原洞에 各各 接하고 있으며 面積은 總 242km²이고 道路는 總 延長이 9.84km 國道가 6.74km 農路가 3.15km를 차지하고 있다.

3. 行政 區域

行政區域은 自然部落이 5, 再建班이 33個班으로 나타나고 있다.

4. 人口 및 家口數

人口는 總 7,867名에 男子가 4,070名 女子가 3,797名을 차지하며 1km²당 人口數는 3,208名이며 產業別로 人口를 分類해 보면 農業이 307, 製造業이 608, 建設業이 476, 商業이 3,156, 衛生業이 174, 서비스가 821, 運輸가 2,051名으로 나타나며 家口는 總 1,503家口로 農家가 53, 非農家가 1,450家口이다.

5. 歷代 洞長

鶴城 2區당시의 洞長은 初代 安敬欽 2代 朴洪奎이고 聯合洞시는 初代 白雲鶴 2代 金炳魯 3代 金石奉 4代 姜鳳植 洞長等이고 分洞후는 1代 鄭在旭 洞長이다.

(자) 丹溪洞

1. 沿革 및 概要

丹溪洞은 原州市의 西北間에 位置한 洞으로 1945年 町을 洞으로 變更하여 現在에 이르고 있다.

며 서울 및 京畿道 慶州와 利川에서 原州로 들어오는 關門인 洞으로 農村洞으로서의 發展을 기하고 있는 洞이다.

2. 位置 및 面積

이 洞은 原州市의 西北間으로 東經 127度 55分 北緯 37度 23분에 걸쳐 있고 總面積 3.7km²에 畓이 17,443坪 田이 220,400坪 林野가 682,534坪 其他 108,861坪으로 되어있고 道路는 總延長 2.5km에 國道가 1,536km, 地方道가 450m, 農路가 544m를 各各 차지하고 있다.

3. 行政區域

行政區域은 自然部落이 4, 再建班이 24個班으로 되어 있다.

4. 人口 및 家口數

人口는 總 5,416名으로 男子가 2,702名 女子가 2,714名인데 1km²당 人口數는 1,417名이 되고 家口는 總 1,070家口로 農家가 147, 非農家가 923戶를 차지하며 人口數에 比例한 1家口당 平均 人口는 5名으로 나타나고 있다.

5. 歷代 洞長

初代 高光玉 2代 崔鍾雲 3代 劉順玉 4代 曹圭燦 5代 崔浩鎮 6代 沈敬澤 7代 朴道範 8代 金義培 9代 趙永穆 10代 金義培 11代 趙敏衡 12代 金容德 洞長 等이다.

(차) 牛山洞

1. 沿革 및 概要

原州市의 北部地域에 位置하고 있는 洞으로서 好楮面 牛山里였든 것이 1955年 9月 1日 原州 郡이 市로 昇格되면서 編入된 洞이며 1973年 7月 1日 字로 好楮面 加峴 2里가 1部 牛山洞으로 編入되어 現在 牛山洞에서 管轄하고 있고 1968年에 輕工業團地 20만坪을 誘致하고 1971년부터 5,000坪의 택지를 조성하고 1971年에 高速道路의 開通으로 高速터미널을 誘致하게 되었고 1974年 12月에는 綜合버스 駐車場을 牛山洞으로 移轉하여 原州市의 交通要地로서 發展을 기하고 있다.

3. 位置 및 面積

位置는 東經 127度 57分 北緯 37度 21分 標高 140m로 原州市의 北部며 東쪽은 鶴城 2洞 西쪽은 好楮面 珠山里 南쪽은 丹溪洞과 接境을 이루고 있다. 面積은 總 11.89km²이고 耕地面籍은 680.1ha, 其中 畓이 74.9ha, 田이 130.3ha, 林野가 407ha, 其他耕地가 68.2ha, 이며 道路는 總延長 11.44km 地方道가 5.8km, 農路가 2.94km이다.

3. 行政區域

行政區域은 法定洞이 2, 再建班 30, 自然部落의, 음현, 석대, 유원, 우두산, 봉장, 대동거리, 접실, 자은향, 웃골 등 모두 10개이다.

4. 人口 및 家口數

人口는 總 人口數 6,827名에 男子가 3,542名, 女子가 3,355名이며 人口를 産業別로 보면 農業이 1,159名, 製造業이 242名, 建設業이 182名, 商業이, 485名, 運輸 通信이 102名, 서비스業 1,429名, 其他 2,971名으로 서비스業에 많이 從事하고 있으며 1km²당 人口는 622名이다. 家口는 總 1,257 家口中 農家가 183, 非農家가 1,074家口이며 人口數에 比例한 住宅率은 63%로 나타나고 있다.

5. 歷代 洞長

初代 權 泰和 2代 李 衡馥 3代 張 昌淳 4代 康 斗和 5代 洪 基準 6代 鄭 炯奎洞長 等이다.

(카) 台 庄 1 洞

1. 沿革 및 概要

台庄 1洞은 原州市의 東 쪽으로 1937年 原州面이 原州邑으로 昇格됨에 따라서 台庄町이라는 名稱을 갖었고 1955年 原州市가 邑에서 昇格되어 台庄洞으로 불렸으며 1961年 9月 15日 1,2區의 事務를 聯合事務制로 實施하다가 1970年 7月 1日 人口의 增加로 因하여 分洞되어 現在에 이 르고 있다.

2. 位置 및 面積

位置는 原州市의 東쪽으로 東經 127度 58分 北緯 37度 22분에 걸쳐 있고 標高는 140m인데 東쪽으로는 原城郡 所草面 北쪽으로 台庄 2洞 南쪽으로 鳳山 1洞 西쪽으로는 牛山洞 鶴城1洞과 隣接하고 있으며 總 面積 4.34km²에 畓 234, 201坪, 田 181, 227坪, 住宅地가 120, 833坪, 其他 가 150, 739坪이며 道路는 總 延長이 9km인데 이 중 國道가 5km, 農路가 4km로 나타나고 있 다.

3. 行政 區域

行政區域은 自然部落 3, 再建班數 30으로 自然部落名은 우곡, 가마기, 웃판바위이다.

4. 人口 및 家口

人口는 總 6,558名이며 其中 男子가 3,307名, 女子가 3,251名으로 1km당 人口數가 1,511名 이 되는데 家口數는 總 1,262家口 農家中 110, 非農家 1,152家口로 人口數에 比例한 1家口당 人口數는 5.2名이다. 또한 產業別로 人口를 分類해 보면 農業이 110名, 商業이 100名, 建設이 7名, 서비스業이 100名 勞働이 200名, 公務員이 40名, 其他가 143名으로 나타나고 있다.

5. 歷代 洞長

台庄洞은 初代 李 鳳淵 2代 金 順根 3代 柳 映雨 4代 權 寧周 5代 李 鳳淵 6代 崔 麟哲 7代 李 鳳淵 8代 權 台源 洞長等이고 聯合洞長으로는 初代 權 台源 2代 權 寧福洞長이고 分洞時에 는 初代 申 東善 2代 金 義培 3代 李 鎬澤洞長 等이다.

(타) 台 庄 2 洞

1. 沿革 및 概要

台庄 2洞은 原州市의 北斷에 位置하여 原城郡 好楮面과 所草面을 포괄하는 광대한 生活圈의 中心을 이룬 衛星都市이며 國軍의 干城인 第1軍司令部와 直轄部隊가 駐屯한 野戰軍의 戰略地인 同時 外軍部隊가 駐屯하고 있는 特殊地域이다. 1937年 以前에는 原州面 庄庄里였든 것이 1937年 原州面이 原州邑으로 昇格됨에 따라서 台庄町이라는 名稱을 갖게 되었고 1955年 9月 1日 原州邑이 市로 昇格됨에 따라서 台庄洞으로 불리웠고 1973년에는 市의 擴張에 따라 原城郡 好楮面 1圓이 台庄 2洞으로 編入되어 加峴洞의 事務를 台庄 2洞에서 取扱하여 台庄洞은 嶺東高速道路의 關門인 同時 春川, 江陵, 忠州, 堤川間을 連結하는 내륙교통의 中心地이기도 하며 7個의 自然部落과 35個 再建班으로 構成되어 있다.

2. 位置 및 面積

原州市의 最北端에 位置하는 台庄 2洞은 東經 127度 57分 北緯 37度 23분에 걸쳐 있고 北쪽 으로 好楮面 珠山里 東쪽으로 所草面 長陽里 南쪽으로 台庄 1洞 西쪽으로 牛山洞과 接境을 이 루며 面積 5.61km²인데 畓이 56.7ha, 田이 37.3ha, 其他 11.6ha, 이며 道路는 總 延長 17.931km. 中國道 6.592km, 地方道 6.215km 農路가 5.124km이다.

3. 行政區域

行政區域은 自然部落 7, 再建班 35個班이며 自然部落名은 진암, 일야미, 방강곡, 구룡곡, 거리대, 가현, 상하태장 등이다.

4. 人口 및 家口

人口는 總 7,644名에 男子 3,770 女子 3,866名이며 家口는 總 1,461家口에 農家 165, 非農家 1,296家口로 나타나고 人口數에 比例한 1家口당 人口는 5.2名으로 나타나며 産業別로 分類하면 農業 504, 商業 1,498, 製造業 3으로 나타나며 其他 公務員 210, 勞動 350名이다.

5. 歷代 洞長

初代 權五哲 2代 閔武鎬 3代 洪顯柱 4代 權五哲 5代 閔武鎬 洞長等이고 聯合洞 당시의 洞長은 初代 權台源 2代 權寧福洞長이고 다시 分洞되어 初代 權寧福 2代 金潤和洞長이 現在 在任하고 있다.

(과) 鳳山 1 洞

1. 沿革 및 概要

鳳山 1洞은 몇百年前만해도 鳳山川에 물이 滿水가 되어 배가 出入을 하므로 舟村 「배마을」이라 稱하였으며 其後 梨村(배밭)으로 불리어 오다가 1937年 原州面에서 原州邑으로 昇格되면서 「鳳山町」이라 하였고 1945年 町을 鳳山洞 1, 2, 3區로 變更하였다가 1961年 1, 2, 3區를 聯合하여 鳳山洞으로 稱하다가 1970年 7月 1日 人口의 增加로 鳳山 1, 2洞으로 分洞되어 現在 30個班을 이루고 있으며 原州市內를 굽어보는 봉살미(鳳殺尾)가 이 洞에 位置하고 있다. 옛 弓術을 鍊磨하는 활터인 鶴鳳亭이 있다.

2. 位置 및 面積

鳳山 1洞은 東經 128度 20分 北緯 39度 18분에 걸쳐 있으며 總面積은 0.88km²이고 其中 住宅地가 0.783km² 山林地 및 其他가 0.097km²이며 道路는 總延長 1,237m에서 國道가 619m 農路가 618m이다.

3. 行政區域

行政區域은 自然部落 3, 再建班이 30이다.

4. 人口 및 家口數

總 人口數가 6,840名이고 男子가 3,413名 女子가 3,427名이며 또한 家口數는 總 1,306家口로 農家가 없으며 産業別로 分類해 보면 公務員 157名, 軍人 235名, 會社員 95名, 運輸業 23名, 商業 871名, 農業 22名, 工業 118名, 勞動 483名, 其他 198名으로 나타나고 있다.

5. 歷代 洞長

初代 李衡馥 2代 康斗和 3代 李石祿 4代 李孝澤 5代 李衡馥洞長 等이다.

(하) 鳳山 2 洞

1. 沿革 및 概要

鳳山 2洞은 鳳山町이라 불리던 것이 1945年 町을 鳳山 1, 2, 3區로 改稱하여 1961年 1, 2, 3區를 聯合하여 事務를 處理하다가 다시 1, 2, 3區를 모두 鳳山洞으로 統合하였고 1970年 7月 1日에 人口의 增加로 鳳山 1, 2洞으로 分洞하여 現在에 이르고 있다.

2. 位置 및 面積

鳳山 2洞은 東經 127度 59分 北緯 37度 21분에 標高 140m로 北쪽은 鳳山 1洞 東쪽은 杏邱

第2編 政治 및 行政

洞 南쪽은 盤谷洞과 各各 隣接하고 總 面積 8.25km²에는 畓이 1.160ha, 田이 1.042ha, 其他 林野가 45,943坪을 차지하고 道路는 總 延長 8,332km에 地方道가, 4.2km 農路가 3.4km를 차지하고 있다.

3. 行政 區域

行政區域은 自然部落이 4, 再建班이 53個班으로 나타나고 있다.

4. 人口 및 家口數

人口는 總 10,372名으로 男子가 5,230名, 女子가 5,142名이며 1km²당 人口數는 1,250名으로 나타나고 家口는 總 1,763家口中 農家가 315, 非農家가 1,448家口로 나타나며 人口數에 比例한 一家口當 人口는 6.1名으로 나타나고 있다.

5. 歷代 洞長

初代 孫大範 2代 辛永善이 鳳山洞 洞長이고 聯合洞의 洞長은 初代 李衡馥이고 分洞된 후의 洞長은 初代 李衡馥 2代 鄭炯奎 3代 金相俊 4代 洪基準 5代 秋洪九 6代 崔康植洞長等이다.

(거) 杏 邱 洞

1. 沿革 및 概要

杏邱洞은 元來 原城郡 板富面 杏邱里였던 것이 1955年 9月 1日 原州군이 市로 昇格됨에 따라 杏邱洞이라 불려왔고 原州市에서는 第一 높은 곳인 雉岳山밑에 位置하며 現在 農村洞으로서의 發展을 기하고 있다.

2. 位置 및 面積

杏邱洞은 東經 128度 20分 北緯 37度 18分으로 東쪽은 橫城郡 安興面 西쪽은 原州市 鳳山2洞 南쪽은 盤谷洞 北쪽은 所草面과 隣接하고 面積은 總 10.27km²인데 其中 耕地面積은 400.2ha로 서 畓이 579,238坪, 田이 439,286坪이며 道路는 總 16.5km에 地方道 5.5km, 農路가 11km씩 차지하고 있다.

3. 行政 區域

行政區域은 自然部落 6, 再建班 21로 自然部落名은 석경촌, 거름터, 신월랑, 향구촌, 오리현, 영랑촌이다.

4. 人口 및 家口

人口는 總 2,383名이며 男子 1,255名 女子 1,128名으로 되어있고 1km²당 人口는 144.3名이며 產業別로 分類하여 보면 農業이 1,230戶, 商業 7, 運輸가 7, 通信이 5, 其他가 1,586名으로 나타나며 家口는 總 411家口로 農家 362, 非農家 49家口로 人口數에 比例한 一家口當 人口數는 6.1名으로 나타나고 있다.

5. 歷代 洞長

初代 韓熙東 2代 金工烈 3代 李秀千 4代 咸在馴 5代 洪基準 6代 趙永穆 7代 金眞福 8代 趙敏衡洞長等이다.

(너) 茂 實 洞

1. 沿革

茂實洞은 原城郡 興業面 茂實里였던 것이 1973年 7月 1日 原州市의 擴張에 따라 原州市 茂實洞으로 行政區域이 改編되었으며 農耕地가 많아 住民들의 大部分이 고등채소 및 果樹로 많은 收益을 보고 있으며 原州市에 必要한 채소 需要量의 3분에 2를 充當하고 있다.

2. 位置 및 面積

茂實洞은 東經 127度 56分 北緯 37度 20分 標高 140m이며 北으로 原州市 丹溪洞 東쪽으로 鶴城 1洞 西쪽으로 好椿面 萬鍾里 興業面 沙堤里 그리고 南쪽으로는 板富面 瑞谷里, 興業面 興業里와 隣接하고 있으며 面積은 總 10.5km이며 이 中에는 畓이 1,714段步, 田이 1,903段步, 住宅地가 44,311坪, 林野가 584町步가 되고 道路는 總 延長 10km에 國道가 6km, 農路가 4km로 되어있다.

3. 行政 區域

行政區域은 自然部落이 8, 再建班이 14로 自然部落名은 萬代, 茂實, 松三, 銀杏亭, 陽地村, 長陽, 梨村(배달), 향가리 等이다.

4. 人口 및 家口

人口는 總 2,560名에 男子 1,992名, 女子 1,268名으로 1km²當 人口數는 237名이 되고 家口數는 總 399家口로서 農家가 328, 非農家가 71家口이며 人口數에 比例한 1家口當 人口數는 6.3名이 된다.

5. 歷代 洞長

初代 李 東夏 2代 金 相俊 洞長 等이다.

(더) 觀 雪 洞

1. 沿革 및 概要

觀雪洞은 原州市의 南部地域에 位置한 洞으로 1973年 7月 1日 行政區域의 改編으로 原城郡 板富面 觀雪 1,2,3,4里가 市로 編入된 洞이며 1974年 4月에 移轉된 市內버스 終點을 留置하고 있으며 堤川 寧越方面에서 原州市로 들어오는 關門으로 앞으로 많은 發展을 期하고 있는 農村洞이다.

2. 位置 및 面積

觀雪洞은 東經 127度 61分 北緯 37度 28分 標高 140m인 原州市의 南部地域으로 東쪽은 原城郡 板富面 金垠里 南쪽은 原城郡 神林面 西쪽으로는 原城郡 板富面 瑞谷里 北쪽은 原州市 盤谷洞과 丹邱洞 一部와 接境을 이루며 總 面積은 23.14km²이고 耕地面積은 田이 403,424坪 畓이 576,242坪, 道路는 總 延長 10.5km中 國道가 3.5km, 農路가 1.2km, 其他가 5.8km이다.

3. 行政 區域

行政區域은 自然部落數 12, 再建班數 23個班이며 自然部落은 세교, 상신성, 숫둔, 신촌, 부양, 내관설, 외관설, 대평, 나옹정, 갈촌, 등 12이다.

4. 人口 및 家口數

觀雪洞의 總人口는 3,720名이며 其中에 男子가 1,854名 女子가 1,866名으로 女子가 若干 많고 產業別로 人口를 分類하여 보면 農業 2,446名, 商業이 377名, 衛生業이 10名, 서비스業이 75名, 其他 82名이며 總 家口는 636家口중 農家가 409, 非農家가 227家口로 總 人口와 比例해서 一家口當 平均 人口는 5.7名으로 나타나고 있다.

5. 歷代 洞長

1973年 7月 1日 로 原州市에 編入된 以來 初代 元 慶鎬 2代 鄭 世陽 洞長이 在 中이다.

(러) 盤 谷 洞

1. 沿革 및 概要

盤谷洞은 原州市의 東南間에 位置한 洞으로 1973年 7月 1日 原城郡 板富面 盤谷 1,2,3,4里가

第2編 政治 및 行政

市로 編入된 洞으로 原州市에서도 가장 여러면에서 落後된 洞이다.

2. 位置 및 面積

東쪽으로 寧越郡 水周面 橫城郡 安興面과 西쪽으로는 原州市 開運洞, 丹邱洞 南쪽으로 觀雪洞 北쪽으로 鳳山 2洞과 各各 接하고 東經 127度 21分 北緯 37度 22分에 걸쳐있으며 總面積이 17.06km이고 其中 總 耕地面積은 1,056,000坪이며 畚이 514,000坪, 田이 542,000坪이고 道路는 總 延長 22.2km인데 農路 1.2km 其他 21km로 되어 있다.

3. 行政區域

行政區域은 自然部落이 11, 再建班이 24個班이며 自然部落의 名은 한가대, 땡이득, 봉대, 배울, 뒷골, 삼보골, 버들만이, 월운정, 서리실, 입춘내, 영랑 등 모두 11個 部落이다.

4. 人口 및 家口數

總 人口數는 3,271名이고 其中 男子 1,689名 女子 1,582名으로 人口密度는 1km²당 191名이 되며 家口는 總 家口數 565家口이고 農家 386, 非農家 179家口여서 總 人口數와 比例한 住宅率은 家口當 5.8名꼴이 된다.

또한 產業別로 人口를 分類해 보면 農業 1,121名, 製造業 34名, 商業 32名, 衛生서비스業이 20名, 運輸業이 5名, 其他 2,059名으로 되어 있다.

5. 歷代 洞長

盤谷洞은 1973年 7月 1日에 原州市로 編入되어 現在 初代洞長이 金 亨洙가 在職中이다.

第4節 略 史

原城郡 編

原城郡은 1924年 9月 1日에 原州面이 原州邑으로 昇格되고 20個面(楮田洞面, 沙堤面村, 板板面村, 今勿山面, 屹坡面, 旆乃面, 富論面, 康川面, 池內面, 地向谷面, 正之安面, 古毛谷面, 好梅谷面, 所草面, 水周面, 左邊面, 右邊面, 加里波面, 沙斤寺面, 本部面)이 1邑 9個面(原州邑, 板富面, 神林面, 興業面, 貴來面, 富論面, 文幕面, 地正面, 好楮面, 所草面)으로 統合 變更되면서 原州郡으로 改稱되었고 8.15 光復後 1955年 9月 1日에 原州邑이 市로 昇格됨에 따라 地名이 原州郡이 原州市와 原城郡으로 고쳐지면서 原城郡은 9個面을 管轄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1961年 10月 1日 字로 原城郡이 基礎的인 地方自治團體로 발족했다. 原城郡은 郡廳舍를 原州市 一山洞에 있는, 옛날 監營이었던 宣化堂을 使用하여 오다가 1968年 8月 10日에 一山洞 4番地 宣化堂 옆에다 建坪 2百餘坪 콘크리트 라면造로 新築 移轉하고 宣化堂은 地方文化財로 登錄하여 原州市의 文化財로 指定 保存되고 있다. 그러나 1975年 現在로 郡 廳舍가 협소하여 宣化堂과 淸雲閣을 事務所로 使用하고 있어 地方文化財 保護에 支障이 크다. 原城郡은 現 廳舍에다 2層을 올리고 文化財인 宣化堂과 淸雲閣을 비울計劃으로 道에 豫算 要請을 하고 있어 不遠間 實現될 것으로 보인다. 原城郡은 東經 127度 北緯 37度 21分에 자리 잡고 總面積 743.3km²로서 管內 一巡 距離는 17,153km로 되어 있다. 江原道の 西南方에 자리잡고 北은 橫城郡 西는 京畿道 驪州郡, 東은 寧越郡 東南은 忠淸北道 堤川郡 南은 忠淸北道 中原郡에 各各 隣接하고 있으며 中心部는 原州市가 자리잡고 있으나 郡廳 所在地가 市에 있으므로 郡 管內 4km內至 6km程度 떨어져 있다. 山河로는 江原道 橫城郡 태기산을 上流로 하는 蟾江이 있어 所草, 好楮, 地正, 文幕, 富論을 管통하고 五台山을 上流로 하는 寧越川과 蟾江이 合流하는 南漢江이 富論面을 抱流하고 있다. 한편 山脈은 東北方에 太白山의 一枝脈이 있어 1,288m의 雉岳山과 1,087m의 白雲山이 東西를 가로막고 있어 이 兩大山의 支脈으로 山間盆地를 이루고 있다. 氣候와 風土 亦是 山岳의 一部地域인 所草와 貴來는 多少 寒冷한

便이나 比較的 溫和하고, 비옥하여 農耕에 適當하다. 交通關係는 陸路가 不便하여 蟾江과 南漢江을 利用하는 水運으로 매우 不便하였으나 1939년에 中央線鐵道가 開通되면서 地正, 好楮, 板富, 神林, 等 各面을 通過하고 그 線內에 판대, 간현, 동화, 단중, 치악, 신림역이 있고 板富, 神林을 通過하는 原州, 堤川間 國道와 興業, 貴來面을 通過하는 原州 忠州間, 國道 地正, 文幕을 通過하는 原州, 驪州間의 國道 그리고 好楮, 所草를 지나는 春川, 江陵行 國道가 있어 2級國道와 1級國道 및 地方道等으로 交通은 便利한 便이다. 行政區域과 其他 詳細한 것은 다음 各面 現況에서 다루기로 하고 여기서는 總轄的으로 家具 및 人口와 其他로 한다. 家口數는 1萬 3千 6百 24戶이며 男子 39,840名에 女子 38,062名으로 전체 人口 77,902名으로 나타나 있다. 郡 管內 企業體로는 소초직물공장, 기유산업, 연와공장, 매명 연필공장, 풍진산업, 문막양조장, 천일양조장, 귀래양조장, 용화제지공장, 운남광업소, 흥업양조장, 강원 도로마이트, 신림염공장, 신림염조장, 원성광업소, 용암토기공장, 신림제재소, 마지광업소, 문막기와공장, 홍아토기공장, 신림연탄공장 등이 있고 市場 開設現況은 문막시장, 법천시장, 운남시장, 신림시장, 황둔시장 등이 있다. 文化的 面으로는 73年度 現在로 라디오 11,409台와 TV 251台가 있고 강원일보를 위시한 일간지 신문 구독자가 1,998名이고 주간지가 410이 보급되고 있다. 教育機關으로는 47個所의 國民學校와 10個所의 中學校 1개소의 高等學校가 있으며 醫療機關으로는 6個所의 個人病院이 있을 뿐이다. 歷代 原城郡守는 1961年 以前은 原州郡의 郡守인데 原城郡으로 된 以後부터는 確實하나 그 以前은 아는데까지만 記錄한다.

※ 歷代 原城郡守(8.15 光復以後부터 國家事務官級) 1代 李 根稷 2代 閔 慶植 3代 李 澤俊 4代 洪 昌燮 5代 金 善亮 6代 張 東國 7代 咸 基成 8代 李 永培 9代 崔 俊成 10代 李 重淵 11代 南 元壽 12代 沈 康燮 13代 楊 紀洙 14代 張 在勳 15代 崔 五澈 16代 徐 明澤 17代 田 英春 18代 金 勝吉 19代 李 東晉 20代 金 龍雲 21代 金 景山 22代 金 元熙 23代 崔 文圭 24代 李 昌石 25代 林 東燮 26代 金 五榮 27代 崔 桂明

歷代 守令 및 道知事(併合時代까지)

◎ 高麗時代

金 富濟·洪 侃·曹 愼·俠 長壽·河 允源(有治績)

◎ 李朝時代

金 春卿·尹 祿·崔 哲寬·田 興·閔 貞·李 祿崇·金 秀光·辛 尙謙·韓 廷逢
 張 伯孫·金 士元·金 滙·朴 亨麟·朴 蘭·張 彥邦·申 潤輔·李 元孫·鄭 繼仁
(中宗朝)
 沈 思恭·尹 應奎·鄭 士謙·禹 仁秀·金 形謙·李 希文·田 汝霖·洪 碩舫·朴 栗
 徐 偉·梁 繼·權 克禮·李 應老·梁 士奇·李 裕仁·金 漣·閔 定命·李 庭虎
(有善政碑)
 咸 世平·李 輅·金 玉光·韓 宗胃·金 續光·金 悌甲·韓 浚謙·柳 雲龍·具 思稷
(有事蹟碑)
 梁 禕·李 世溫·安 大進·姜 大虎·金 庭睦·李 宗誠·李 繼光·金 星報·金 弘遠
 黃 廷祿·任 就正·權 慶祐·李 綏祿·李 軫·申 愷·韓 泳·柳 澈·洪 得一
(有善政碑)
 閔 機·金 獲·洪 兩寶·李 廷臣·黃 敬中·沈 命世·金 聲發·李 泳道·李 培元
(有碑)
 李 重吉·宋 時吉·鄭 維城·林 棟·羅 緯素·柳 俊昌·李 聖潤·鄭 知和·朴 純義
(有碑)
 李 禕·李 緯國·金 鎬·尹 城·金 慶恒·李 峻岳·鄭 之虎·金 素·李 晚榮
(有碑)
 尹 檄·權 順昌·許 秩·宋 時喆·李 敏章·李 晟·康 遼學·李 喜年·沈 瑞肩
(有碑)
 吳 始益·鄭 始亨·金 斗明·朴 銑·申 瑞華·金 必振·李 世成·李 濟民·權 胃

姜 琛·鄭 恢·李 宏·朴 時環·許 頰·趙 泰夾·李 益著·金 弘禎·金 一燮
 魚 史徽·李 寅錫·李 昌齡·任 陞·沈 仲良·成 璠·鄭 復明·李 東龍·金 道復
 金 盛最·朴 重圭·李 徵海·李 洙·朴 彙登·李 萬稷·李 翊漢·沈 廷輔·呂 必容
 權 世恒·崔 昌敏·金 昌熙·崔 星瑞·李 衡佐·柳 鳳齡·李 守夏·李 兩臣·沈 宗賢
 洪 重寅·趙 尙紀·李 思一·韓 德全·徐 命五·南 泰濟·李 光運·朴 弼幹·宋 昌明
 尹 滄·閔 百行·李 思觀·任 璫·鄭 夏彥·趙 載翰·李 命楫·李 命仲·金 坦行
 韓 警·金 魯·朴 相圭·李 聖模·金 斗恒·宋 煥翼·申 跌·徐 琢珍·趙 光遠
 李 時淵·閔 百準·李 太源·趙 鉉·元 羽孫·李 協聖·洪 養默·洪 秉周·金 魯應
 沈 誠文·金 相穆·金 相任·閔 致謙·李 奎新·張 滌·李 墦·尹 致赫·李 益秀
 洪 世周·李 義溫·宋 基鼎·尹 稠·李 玄五·洪 履燮·尹 宗鎬·李 宜翼·林 迪鎭
 金 在厚·金 鎮華·李 章愚·金 喬根·鄭 老容·李 恨天·金 近喜·徐 兢輔·尹 滋一
 金 炳畢·金 炳淵·鄭 基忸·李 忠翼·趙 永和·李 勉翼·金 伯均·朴 鳳夏·徐 光斗
 鄭 翼永·李 源進·李 喆淵·沈 英慶·任 泰準·金 英植·趙 秉翼·洪 承五·趙 熙百
 申 泰榮·李 珪應·李 定植·金 好謙·李 鶴忸·李 鼎宰·李 徹愚·李 承泌·李 宗植
 李 秉和·朴 齊七·沈 相赫·洪 秉憲·申 炳休·崔 允鼎·金 秉麟·宋 文賢·金 泳圭

◎ 申 鑑

◎ 併合時代

李 宅珪·吳 惟泳·申 圭善·李 東鎭·李 柄千·鄭 然基·張 憲根·金 用礪·德重 隆彥·李 弼國·木山 永一郎(朴永斌)

第5節 各面의 變遷

(가) 所 草 面

1. 沿 草

所草面은 元來부터 所草面이라 稱한 以來 한번도 變更한 事實이 없이 今日에 이르고 있다. 最初의 面管轄區域은 11個里였으나 西紀 1915年 1月 地方行政區域 變更에 依하여 처음으로 分 1里, 分4里를 長陽里로 2里를 壽岩里로 本 4里를 平庄里로 本 5里를 衣冠里로 本6里와 分6里를 屯屯里로 本 7里를 橋項里로 本 8里를 鶴谷里로 各各 改稱하였다. 그 後 長陽里와 屯屯里 鶴谷里等은 面積이 넓고 人口도 他里에 比하여 最多하므로서 長陽里는 西紀 1924年 3月 3日에 所草面に 編入되고 屯屯里는 西紀 1939年 2月 25日 所草面に 編入되었으며 鶴谷里는 1938年 10月 1日에 編入되었고 元來 原州邑 陽興里 全圓이 所草面に 編入되므로 11個里가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2. 地 勢

所草面의 東쪽에는 雉岳山이 雄立해 있어 대체로 높은 山岳地帶라고 하겠으나 反面에 蟾江流域이므로 平野地帶가 形成되어 있다. 그러므로 總面積의 20%에 該當하는 農耕地는 大部分이 肥沃한 땅이다.

또한 位置的으로는 東쪽으로 寧越郡 水周面과 橫城郡 安興面에 接하고 西쪽으로는 原城郡 好楮面에 接하며 南쪽으로 原州市 北쪽으로 橫城郡에 接하고 있다.

또한 南西쪽에서 北쪽으로 서울—江陵間 高速道路가 있고 南北으로 原州—春川間 國道가 있어 交通이 便利하다. 總面積 8,570km²에 이르는 所草面의 風土를 살펴보면 所草面은 大陸性的의 影響을 받아 寒暑의 差가 甚하여 每年 12月 1月 2月 3月等 4個月間 中에는 寒氣가 甚하며 零下 20度에 이르는 酷寒이 계속되는 反面 여름에는 攝氏 35度에 이르는 무더운 날씨가 되기도 한다.

겨울철에는 大體的으로 降雪量이 적고 8월에는 비가 많이 오는 것이 普通이다. 첫서리는 大概 10月 10日頃에 始作하여 다음해 5월까지 계속된다. 初雪은 11月 上旬頃에 오며 다음해 4月中旬頃에 끝나고 얼음은 10月 初旬頃이면 얼게된다.

所草面은 土質이 大體的으로 砂質에 粘土를 兼하고 있어 農耕에 알맞고 雨順風調하여 農業에 適當하다. 所草面의 道路關係는 總 延長道路는 42,617m인데 其中 國道가 28,233m이고 高速道路가 10,500m 其他部落 道路가 3,884m이다.

3. 行政區域

所草面은 법정 里數가 8個 조계상 里數가 9個를 습하여 17個의 里와 75個의 自然部落과 77個의 國民班數로 이루어져 있다. 里別 部落名을 列擧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 長陽 1里=고촌, 양촌, 화수동 部落
- (2) 長陽 2里=상촌, 하촌, 덕고개
- (3) 長陽 3里=북대, 원대, 장막, 대화지
- (4) 長陽 4里=장진, 적동, 집촌, 다각, 노하동
- (5) 興陽 1里=신탄, 돌머루, 송문, 유사
- (6) 興陽 2里=직산, 상초구, 하초구, 흥양동
- (7) 興陽 3里=상황곡, 하황곡,
- (8) 壽岩 1里=회촌, 관암
- (9) 壽岩 2里=신양동, 식송, 삼도곡, 수동
- (10) 壽岩 3里=원중거리, 암곡
- (11) 平庄 1里=평장, 극촌, 현촌, 계암, 강계
- (12) 平庄 2里=도도리, 두둑, 내곡, 부채고개
- (13) 衣冠 里=궁방, 간촌, 영개리, 후평, 왕대
- (14) 屯屯 1里=안담, 아랫담, 진넛담, 섬강동, 치마베루
- (15) 屯屯 2里=정승골, 음촌, 버덩밭, 양촌, 고리골
- (16) 橋項 1里=본교항, 공산, 대동
- (17) 橋項 2里=사전동, 독점, 이리실, 백배미, 밤나무정
- (18) 鶴谷 1里=백동, 토동, 장대, 칠송, 토정, 백표
- (19) 鶴谷 2里=십신, 수척, 신흥, 영흥, 내곡 等으로 各各 分布되어 있다.

4. 人 口

所草面은 他面에 比해서 人口가 많은 편인데 總人口는 16,309名으로 男子가 8,236名이고 女子 8,073名으로 男子가 女子보다 200餘名 더 많은 편이다. 總 家口는 2,125戶이고 其中 農家가 1,799戶 非農家가 326戶로 住民의 大部分이 農業에 從事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所草面의 姓氏別 分布事況을 보면 大體的으로 많이 살고 있는 姓氏로는 金, 權, 高, 沈, 秋, 李等, 六姓인데 部落別分布狀項을 보면 다음과 같다. 所草面에서 第一 많이 살고 있는 姓氏는 金氏인데 衣冠里에 70戶가 살고 있고 權氏는 屯屯 1里에 40戶가 살고 있으며 高氏는 屯屯 2里 50戶 沈氏는 長陽 3里에 40戶 秋氏는 橋項 1里에 25戶 李氏는 興陽 1里에 40餘戶가 集團部落을 이루고 있으며 其外 數多한 姓氏들이 散發的으로 모여 살고 있다.

5. 產 業

所草面의 主要產業은 亦是 農業인데 이는 耕地面積이 18,356ha인데 畚 8,097ha 田 10,299ha로 他面에 比해 많은 편이고 其中에서도 畚이 많아 米穀生産量은 28,674톤이나 된다. 果樹栽培 現況은 于先 壽岩 2里를 들 수 있는데 86.36ha에 果樹園 園地를 造成하여 集團的으로 果樹를 栽培하고 있다. 그 밖에 小規模의이나 長陽 3里와 屯屯 1里에서도 集團果樹栽培를 하고 있으며 畜

第2編 政治 및 行政

産業으로는 田이 많은 關係로 韓牛 1,737頭나 되고 닭이 5,492首 돼지가 931頭 개가 1,380頭이다. 反面 企業體는 貧弱하여 平庄里 804의 2番地에 「所草織物工場」과 長陽里에 「기유산업 연와 공장」이 있어 소창과 벽돌을 生産하고 있으나 規模가 작고 運營狀態조차 미약한 편이다. 特用作物로는 鶴谷 2리에서 나는 토종꿀이 유명하고 興陽 2리와 平庄 1리 壽岩 2리에서 담배를 많이 栽培하고 있다. 또한 桑田도 많아 누에를 쳐서 많은 收益을 높이고 있다.

6. 機 關

이 面은 6個의 國民學校와 所草 郵遞局 所草支署 所草農業協同組合을 합하여 모두 9個의 機關이 있으며 國民學校의 總 學生數는 2,688名이고 敎職員數는 51名이다.

7. 宗 教

우선 所草面 鶴谷里에 있는 龜龍寺는 全國의으로 有名한 寺刹이며 本面 興陽里에 立石寺가 있다. 敎會는 長陽監理敎會, 壽岩監理敎會 平庄監理敎會 鶴谷監理敎會等 4個의 監理敎會와 平庄 天主敎會公所가 있다.

8. 山河·貯水池·津·橋梁·고개

所草面の 큰 山으로는 덕고산, 삼봉, 도끼봉, 사무랑山, 대왕산, 석다리봉等 6個를 들 수 있으며 河川으로는 南漢江上流의 蟾江이 있고 작은 規模의 平庄川이 흐르고 있다. 貯水池는 없고 10個의 小溜池가 있는데 「고리골 小溜池」「신양 小溜池」「선너골 小溜池」「무수터 小溜池」「못뒤 小溜池」「집개월 小溜池」「興陽·小溜池」「수재울 小溜池」「적동 小溜池」「관담 小溜池」等 10個所이다. 現存하는 나룻터는 한 곳도 없고 10餘個의 橋梁이 있는데 70m에 이르는 「雉岳 1橋」를 위시하여 屯屯橋, 興陽橋, 衣冠橋, 院垵橋, 下長幕橋, 上長幕橋, 平庄橋, 壽岩橋, 雉岳 2橋]等이다. 所草面에 있는 고개는 큰것 작은것을 합하여 모두 12個 있는데 橋項里에 큰고개 작은 고개, 선배 고개, 당재, 학교개, 삼형제고개等 6개가 있고 興陽里에 진양지, 후우고개, 平庄里에 부채고개 長陽里에 노루고개 鶴谷里에 당재와 언고개가 있다.

9. 墓碑·保護樹

所草面에 이름 있는 墓로는 우선 橋項 1리 공산에 있는 申氏의 墓와 衣冠里 궁방말에 洪判書의 墓·長陽 2리 상촌에 있는 元判書의 墓를 들 수 있다. 所草面에 現存하는 碑는 4個所인데 鶴谷 1리에 3대面長을 지낸 南相喆의 頌德碑가 있고 平庄 1리에 前에 面的 支署長을 지낸 許萬亨의 碑가 있고 長陽 1리에 前 江原道知事를 지낸 朴環遠의 頌德碑가 있고 長陽 2리에 韓在惠의 碑가 있다. 이 面的 保護樹로는 橋項 2리에 있는 은행나무와 興陽 2리 상황골에 있는 느티나무를 들 수 있는데 은행나무는 樹齡이 350年 樹高가 40m에 들레 6m이고 느티나무는 樹齡 1百年 樹高가 11m 들레가 2m가량 된다.

10. 行政運營 및 統率方針

「알차게 앞장서는 새 所草 建設하자」라는 口號아래 첫째 健實한 生活氣品 둘째 알찬 所得增大 셋째 앞서는 地域開發 넷째 도와주는 實的行政을 모토로 「誠實」「正直」「正確」이 面訓이다.

11. 자 랑 거 리

이 面은 全國에서 누에고치의 生産量이 第1 많은 地域으로 所草面 平庄里的 「누에고개」는 全國에서 單 하나 밖에 없는 有名한 甁나무산이다. 所草面은 主로 平地보다 높은 山이 많은 高地 帶여서 예로부터 蠶業을 대대적으로 普及하여 現存 2百萬株의 甁나무를 심어 大部分의 農家가 蠶業에 從事하고 있으며 家口當 年平均 12萬원의 높은 所得을 올리고 있다. 또한 72년에는 高速道路가 面管內를 지나 앞으로 高等園藝作物의 栽培等으로 더 높은 所得을 期待하며 雉岳山에 新羅時代 義湘祖師가 創建하였다는 龜龍寺가 있어 近來에 와서 觀光地帶로서 開發途上에 있다.

12. 歷代 面長

初代 李弘烈 2代 尹 璿 3代 南相喆 4代 李秉圭 5代 辛萬榮 6代 李正福 7代 辛承實
8代 金昌林 9代 李大淵 10代 成 欖煥 11代 金益善 12代 南 琦龍 面長等이다.

(나) 好 楮 面

1. 沿 革

好楮面은 元來 好梅谷面으로 稱하고 管轄區域을 1里 2里 3里 4里 分4里 5里的 6個里로 되었던 바 西紀 1914年 3月 地方行政區域變更으로 楮田洞面의 1里 2里 3里 4里의 4個里를 吸收 合併하여 現在의 呼稱 好楮面이라 하고 里의 呼稱도 現在와 같이 改稱하여 10個里의 管轄區域이 있으나 1916年 1月 臨時 土地調查結果 好梅里와 珠山里를 合하여 珠山里로 하여 管轄區域 9個里로 되었으나 1936年 7月 1日 原州邑制 實施로 沙川里(現在丹溪洞)가 原州邑에 移屬되고 1955年 9月 1日 原州邑이 昇格 原州市制의 實施로 牛山里가 市로 編入되어 管轄區域 7個里로 되었다. 1973年 7月 1日 行政區域改編으로 加峴里가 原州市로 編入되고 地正面 茂長里가 이 面으로 編入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2. 地 勢

好楮面은 地面보다 山岳이 적고 蟾江및 原州市를 中心으로 農耕地가 이루어져 있고 東으로 珠山里 尺洞 西쪽으로는 玉山里 萬番山 南쪽으로 萬鍾里 中孚洞 北쪽으로 高山里 昆矣山을 極點 地로하여 東西로 4.4km 南北으로 20.17km에 이른다. 氣候는 年平均 氣溫이 攝氏 12.2度로 多少 寒冷한 편이나 郡內 山岳地帶인 地面보다는 溫和한 便으로 年內 最高氣溫이 攝氏 35度 最低 零下 25度로 溫帶性 氣候이다. 土質은 蟾江및 原州市를 中心으로 肥沃한 農耕地를 이루고 있으며 퇴적층은 3~6m以下에 있고 그위에 자갈층 또 그위에 모래층이 있고 表面에는 耕作에 알맞는 沙皮壤土로 되어있다. 面의 位置는 所草面 珠山里 522番地를 中心으로 하여 原城郡廳으로부터 9.8km 떨어진 곳에 位置하고 東經 127度56分 北緯 37度24분에 該當하며 面의 總面積은 66.5km²이다 所草面의 道路는 1971年 12月 1日에 開通한 嶺東高速道路가 4.5km 國道가 3.8km 그리고 原州에서 이 面 高山里까지의 10km와 部落道가 4km 있다.

3. 行政 區域

條例上 里數 13個 法定里數 7個 自然部落數 40個 再建班數 49個로 이루어져 있는데 部落分布 現況을 細分하면 다음과 같다.

- (1) 萬鍾 1里——상만중, 본만중, 박달머
- (2) 萬鍾 2里——중부동, 석발탄동, 남오동, 감박산동
- (3) 萬鍾 3里——대명원, 성락원
- (4) 萬鍾 4里——생양동, 구미실동, 역전동
- (5) 珠山 1里——척동, 구미실동, 도곡동, 백동, 평천동
- (6) 珠山 2里——호매동, 중방동, 잔골동
- (7) 茂長 1里——간무곡동, 고려매동, 송정동
- (8) 茂長 2里——생담동, 장포동, 살미동
- (9) 玉山 里——종포동, 지촌동, 망거리동, 정골동
- (10) 大德 1里——노월동, 쇠절동
- (11) 大德 2里——현촌동, 대대동

第2編 政治 및 行政

(12) 高山里 — 곤의동, 입암동, 개전동, 고산동

(13) 光格里 — 동막동, 소이동, 광격동, 천동, 영산동, 진골동등이다.

4. 人 口

好楮面の 總人口은 8,142名인데 其中 男子가 4,178名 女子가 3,964名으로 男子가 많은 便이고 總家口數는 1,418戶로 其中 農家가 1,323戶, 非農家가 85戶로 大部分이 農業에 從事하고 있으며 人口密度는 133이다. 好楮面に 많이 살고 있는 姓氏로는 原州李氏 原州元氏 淸州韓氏 寧越辛氏인데 姓氏別 分布狀況을 보면 原州李氏는 珠山里 高山里 大德 2里 한터部落에 185戶가 살고 있으며 原州元氏는 光格里에 75戶, 淸州韓氏는 大德 1里 노월동에 15戶 寧越辛氏는 大德 2里 옛말에 30餘戶가 살고 있다.

5. 產 業

好楮面の 產業은 農業을 除外하고 나면 이렇다 할만한 것이 없다. 總耕地面積은 1,230町步에 果樹園이 63町步이고 논이 687.9町步, 밭이 474.7町步, 밭과 논이 비등하게 산재해있으며 이렇다 할 土產物이나 特用作物도 없다. 그러나 好楮面에는 癩患者의 收容所인 星樂園과 大明園이 있어 이곳에서 닭과 돼지를 많이 기르고 있으며 畜產業에 한몫을 다하고 있다. 企業體로는 이面 萬鍾里 74番地에 「대명 연필공장」이 있을 뿐이다.

6. 機 關

이 面에는 3個의 國民學校와 1個의 中學校가 있어 總 4個의 學校가 있는데 國民學校 總 學生數는 1,372名에 教職員數는 51名이고 中學校 總 學生數는 378名에 教員數는 16名이다. 그 밖에 機關으로는 面事務所 支署 農協單位組合 郵遞局 原坡變電所 萬鍾驛이 있다.

7. 宗 教

好楮面에는 3個所의 長老教會와 2個所의 天主教公所가 있고 反面에 寺刹은 한 곳도 없다. 長老教는 大德長老教會, 쇠질長老教會, 珠山長老教會이고 天主教는 영산천주교공소, 곤의동天主教公所가 있다.

8. 山河·貯水地·津·橋梁·고개

이 面에 所在해 있는 山으로는 쇠암산과 고니골산이 있는데 쇠암山中에 大德峰이 있고 峰 아래 飛行場이 있으며 고니골산에 있는 선바위(立岩)는 그 모양이 괴이하여 모르는 사람이 없다. 바위 둘레가 20m는 실히 되고 높이가 20m나 되는데 옛날에 웅기장수가 그 바위 옆을 지나다 높은 바위가 쓰러지는듯 겁에 질려 웅기를 쫓는다는 傳說이 있다. 그 峰주위가 恒常 아름답게 彩色되어 보인다는 뜻에서 由來한 峰인 듯 싶다. 이 面에 貯水池는 없고 8個의 小溜池가 있을 뿐이다.

平川小溜池, 伯洞小溜池, 쇠질小溜池, 泉洞小溜池, 동막小溜池, 장포小溜池, 생담小溜池, 상탄중小溜池等이다. 나무터는 平川나무가 있었으나 玉山橋가 생김으로 없어졌고 증수니 뱃나들이와 쇠질이 뱃나들이는 至今도 옛날삼아 남아 있으나 남은 배만 一隻 있을 뿐이다. 橋梁으로는 73年 4月 1日에 完工한 玉山橋가 길이 124m, 幅이 4m, 높이가 8m나 된다. 작은 橋梁으로는 74年 5月 13日에 完工한 18m 程度되는 萬鍾橋가 있다. 好楮面에 있는 큰 고개로는 「도일 고개」 「치루재」 「곰너미 고개」 「북다리 고개」等 4個가 있다.

9. 墓·碑·保護樹

光格里에 8將軍墓가 있고 保護樹는 玉山上에 은행나무 (樹齡 6백년 둘레 10m 面積 80m² 樹高 20m) 와 느티나무 (樹齡 3百年 둘레 5m 面積 35m² 높이 20m)가 있다.

10. 行政運營 및 統率方針

첫째 信賴받는 行政具現으로 住民所得增大 들째 親切, 公正, 奉仕, 셋째 融化, 團結

11. 歷代 面長

初代 李鍾大 2代 鄭泰完 3代 安基洙 4代 周完植 5代 沈教澤 6代 李命鎬 7代 金昇彬
8代 李文揆 9代 李達淵 10代 李在琬 11代 辛承一 12代 郭潤瑄 面長等이다.

(다) 地 正 面

1. 沿 革

地正面은 舊韓末 西紀 1908年 行政區域改編에 따라 橫城郡 書院面 玉溪里까지를 管轄區域으로 하여 面名을 上地谷面이라고 稱하였고 面事務所를 月松里 송호동에 두었다가 其後 西紀 1915年 行政區域 再調整에 따라 書院面 玉溪里가 橫城郡으로 移屬됨에 따라 面名을 地向谷面으로 改稱하여 面事務所를 良峴 2里 작동으로 移轉하였다. 西紀 1921年 面名을 다시 地正面으로 改稱하였고 西紀 1948年 6월에 交通中心地인 現 良峴 1里로 面事務所를 移轉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2. 地 勢

東經 127度 4分 北緯 37度 2분에 位置하고 있는 이 面の 面積은 8,939km²로 原城郡廳所在地인 原州市로 부터 西北으로 16km의 거리에 있으며 西쪽으로 12km 地點에 京畿道 楊平 東北쪽으로는 橫城郡과 隣接하며 南쪽으로는 文幕面 6km 南쪽에는 京畿道 驪州郡과 隣接하고 東쪽으로는 好楮面과 境界를 이루고 있는 反面 北쪽은 大體로 높은 山岳地帶로 形成되어 있으며 漢江支流인 蟾江이 東北쪽의 橫城郡과 境界를 이루어 흘러내리다가 南쪽을 向하면서 이 面の 中央部를 가로질러 面所在地인 良峴里를 비껴 흐르고 東쪽 및 東南쪽으로는 比較的 野山이 形成되어 있으며 西北에서 西南으로는 海拔 200~500m의 山岳이 形成되어 있다. 土質은 蟾江을 中心으로 農耕地가 이루어져 있으므로 堆積層은 3~6m以下에 자갈층에 있고 그 위에 모래층이 그리고 表面에는 耕作에 알맞는 土壤으로 肥沃한 便이며 氣候는 多少 寒冷한 便이나 郡內 山岳地帶인 面보다는 溫和한 便으로 年內 最高 35度 最低 零下 25도로써 溫帶氣候인 4節의 區別이 뚜렷하며 봄가을이 比較的 짧고 여름과 겨울이 긴 便이다.

3. 行政區域

行政區域은 法定里數 7個里, 行政里數 14個里, 自然部落 41個部落, 152個班의 새마을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各里와 自然部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良峴 1里——간현동, 정진말, 진방골
- (2) 良峴 2里——작동, 경장동
- (3) 加谷 1里——평장, 갈운, 당현, 퇴계
- (4) 加谷 2里——직동, 여운허, 지촌
- (5) 普通里——광터, 복금, 보통, 자감
- (6) 新坪 1里——상차면, 하차면
- (7) 新坪 2里——상무곡, 향평, 누산, 신촌
- (8) 安昌 1里——월운동, 갈매울, 능촌, 흥법
- (9) 安昌 2里——송내동, 이운동, 수청동
- (10) 判垆 1里——월매동, 장지동, 부처동, 구룡동, 판매동
- (11) 判垆 2里——하구현, 상구현

第2編 政治 및 行政

(12) 月松 1里—월호

(13) 月松 2里—송호, 구미

(14) 月松 3里—하닷둔, 상닷둔 등이 있다.

4. 人 口

74年 12月 31日 現在 男子 4,021名 女子 4,025名으로 總 人口數는 8,046名이며 人口密度는 92名이다. 産業別로 區分하여 보면 農業에 從事하는 人口가 5,125名으로 많은 比率을 차지하며 서비스業에 64名, 商業에 43名, 其他 職業에 10名으로 되어있으며 總 家口數는 1,422家口이다. 또한 姓氏에 對한 現況을 보면 良峴 各 普通里에 氏族을 이루는 韓山李氏와 安昌里에 延安金氏, 新坪里에 原州元氏, 月松里에 草溪鄭氏 등이 아직도 集團으로 部落를 形成하여 살고 있음을 알수 있다. 이 面의 姓氏를 보면 다음과 같다.

金 李 朴 崔 蔡 全 孫 許 丁 辛 林 安 姜 趙 韓 徐 都 沈 蘇 魚 鄭 宋
權 皮 白 禹 陳 文 盧 柳 申 石 嚴 玄 婁 張 元 咸 慶 洪 池 尹 曹 黃
吳 梁 南 吉 廉 閔 郭 成 馬 高 俞 車 田 魏 卓 孔 羅 具 劉 蘭 明 慎
任 邊 奇 陰 南宮 玉 秋 康 千氏 등이 있다.

5. 產 業

(가) 農 業

總 農耕地 面積은 1,263.4ha로 논이 533.0ha 밭이 628.5ha이며 水利安全畓이 4,315ha, 水利 不安全畓 3,78ha 천수답이 63.7ha로 農家戶當 0.99ha의 畓로 나타나 있다. 74年度 穀物 生産高는 米穀 1,912,973kg 麥類 537,203kg 雜穀 80,364kg의 收穫이 있으며 特用作物로는 煙草 園藝作物 채소 등이 栽培되고 果樹園으로는 사과, 포도, 배, 복숭아, 자두 등의 果樹園이 있다.

(나) 林 業

林野面積은 總 5,355ha中 國有林 3.12ha 公有 3.86ha, 私有 4,657ha로 平均 20~25年生의 참나무, 소나무, 낙엽송이 造林되어 있다.

(다) 畜產業

74年 12月末 現在 面內 家畜現況을 보면 韓牛가 1,347頭 돼지 813頭 닭 3,902마리 개 765마리 乳牛 3마리 山羊 9마리 등이 있다.

(라) 運 輸

이 面의 運輸現況을 살펴보면 營業用 貨物車 1台가 있을 뿐이다.

6. 機 關

機關으로는 地正面事務所를 비롯하여 地正面支署 地正郵遞局 良峴驛* 地正保健支所 地正單位組合이 있고 學校는 中學校가 1, 農業技術學校가 1, 高等公民學校가 1, 國民學校가 6個校로 地正中學校, 原城農業技術學校, 신무高等公民學校, 地正國民學校, 判壘國民學校, 安昌國民學校, 松岩國民學校, 新坪國民學校, 다분分校가 있으며 企業體로는 한 두개 運營되었으나 現在는 運營되는 곳이 없다.

7. 宗 教

地正面의 寺刹 現況을 보면 높은산이 없는 關係로 判壘 2리에 연화정사와 普通里에 양도사가 있을뿐이며 教會로는 統一教, 天主教, 監理教, 長老教, 聖潔教, 순복음教等 6個의 教會에 信徒數는 297名이 있는 고장이다.

8. 山 河

面內의 山과 河川, 道路, 橋梁, 貯水池, 나무터, 고개 등의 現況을 살펴보면 山은 奇岩絶壁으로

아름다운 風致를 이루는 덕가山이 있고 河川으로는 蟾江, 桐華川, 삼산川, 구재川, 수청川 등이 있다. 또한 道路를 보면 國道가 4 km, 郡道가 3.8km, 地方道路가 6.8km, 農路가 12.4km, 高速道路가 4.2km 등 總延長 31.2km에 달하고 있으며 橋梁은 國道を 連結하는 普通橋와 桐華橋가 있고 其外 경장교, 가곡교, 구재교, 증회교, 하구현교, 복금교 등 크고 작은 橋梁이 있으며 貯水池로는 널리 알려진 茂長貯水池와 피골貯水池 도오계 貯水池 등이 있다. 또한 나루터로는 良峴1리에서 安昌里를 잇는 정진달 나루터 月松 2리에서 月松 1리를 連結하는 다래나루터가 있으며 고개로는 노루고개, 질마재, 눈골, 솟돌고개, 당고개, 보통이고개 등이 있다.

9. 古蹟

이 面의 古蹟으로는 指定文化財가 2, 非指定文化財가 1, 신도비가 1 등, 國寶級 文化財가 保存되고 있다. 먼저 安昌里에 保存되어 있는 寶物 第 463號 眞空大師碑의 龜趺 및 螭首는 太宗 23년에 建立한 것으로 碑文을 太祖가 親히 지었다고 하여 高僧 眞空大師 충담의 碑石이라 한다. 또한 安昌里에 있는 寶物 第 464號 興法寺址 3層石塔 亦是 高麗時代에 세워진 것으로 그 時代의 燦爛한 業績을 이 面에서 保存하고 있다는 面民의 自負는 대단하며 1624년에 建立된 金梯男 神道碑가 安昌里에 保存되어 있으며 良峴里 덕가山 기슭 蟾江이 흐르는 곳에 文淵洞天이 있다. 其外에는 保護樹로 느티나무 7그루가 指定되어 있으며 良峴 1리에 李大監墓와 安昌一里에 府院君 金梯男의 墓가 있다.

10. 行政運營 및 統率方針

官僚的인 獨善을 刷新하기 위하여 좀더 폭넓게 住民의 소리를 좋은 忠告로 받아드리는 姿勢와 面民爲主의 奉仕行政의 기틀이 이룩되도록 하므로써 住民과 呼吸을 같이 하고져 다음과 같은 運營方針에 依하여 行政을 이끌고 있다.

1. 地域總和 協力體制確立

2. 내일 같이 處理하는 民願奉仕

3. 새마을 運動의 信仰化

새마을 가꾸기의 生活化

새마을 教育에 重點을 두고

새마을 指導者를 繼續 指導 育成하며 온 面民이 스스로 새마을運動을 信仰化하도록 誘導해 나가고자 한다.

11. 자랑거리

이 面은 傳說과 史蹟이 얽힌 고장으로서 山水가 秀麗하고 아름다워 原州地方에 唯一한 夏季避暑地가 되고 冬節에는 江에 어름이 단단하게 얼어 스케이트장으로 脚光을 받아 住民 冬季健康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 面에는 예로부터 秀麗한 山水가 뛰어나 人材가 많이 나고 있다. 現在 哲學博士學位를 받고 유엔本部에 勤務中인 李潤求를 비롯하여 國土統一院 企劃調整官으로 活躍하는 李鎬經 海軍豫備役 准將으로 至今은 渡美中인 金鍾赫 原州市 教育長을 지낸 鄭顯宅 등이 있다.

12. 歷代面長

初代 李錫珪 2代 元鎬瑩 3代 元永福 4代 李興珪 5代 元達鎬 6代 元貞鎬 7代 金鍾奭 8代 元斗鎬 9代 元弼鎬 10代 劉弼相 11代 尹英淳 12代 韓昌愚 13代 元容俊 面長等이다.

(라) 文 幕 面

1. 沿 革

文幕面은 한때 물막이라는 地名으로서 江原道內에서 第1가는 船艙이기도 했다. 元來는 沙堤面이였으나 西紀 1914年 4月 이를 改編 建登面이라 稱하였다가 다시 行政區域變更에 依하여 沙堤里는 興業面에 移屬되었으며 西紀 1937年 5月 1日 建登面을 現在 面名인 文幕面으로 改稱하여 現在에 이르고 있다. 이 面은 廣闊한 平野로서 뿐만 아니라 蟾江을 利用한 輸送手段으로서 도 有名했던 곳이다.

2. 地 勢

東經 127度 57分 北緯 37度 21분에 位置하고 있는 이 面의 面積은 102km²로 原城郡廳 所在地인 原州市로 부터 西北으로 16,66km의 距離에 있다. 東으로는 興業面 大安里 西쪽으로는 京畿道 驪州郡 康川面과 接하고 南쪽으로는 富論面 北쪽으로는 地正面 安昌里와 境界를 이루고 있다. 南漢江 上流인 蟾江이 地正面 安昌里를 지나 文幕面 桐華里를 거쳐 10個里를 通過하고 비두리에 海拔 701m의 德加山이 最高의 頂峰을 이루고 있는 한편 嶺東高速道路가 8個里를 通過하며 蟾江沿岸을 中心으로 玉野農地가 構成되어 土質은 砂質壤土로 땅이 肥沃하여 예로부터 江原道內의 穀倉地로도 이름이 높다. 氣候는 大陸性氣候의 影響을 받아 여름에는 몹시 덥고 겨울에는 추우며 年內溫度는 最高 35度 最低 零下 25度이다.

3. 行政區域

行政區域은 法定里數 9個里, 行政里數 19里, 然部落 59個部落, 121個班의 새마을班 로 나
어져 있으며 各里와 自然部落은 다음과 같다

- (1) 文幕 1里 文幕 2里——문막, 골말, 안말
- (2) 浦津 1里 浦津 2里——개나루, 시무리, 동가정,
- (3) 宮村 1里——선비, 새담, 궁말, 연하동
- (4) 宮村 2里——서석
- (5) 碑頭 1里——비두동, 구포동
- (6) 碑頭 2里——사흥, 밤아실, 입석동, 덕가산, 건너밭
- (7) 厚用 1里——厚用 2里——비양동, 고청동, 양지동, 둔촌, 내촌
- (8) 磻溪 1里——연하동, 작백동, 반계동, 남도동
- (9) 磻溪 2里——평수락
- (10) 磻溪 3里——동수락, 울동
- (11) 翠屏里——동신동, 입동, 평신동, 버들골, 이진동, 작
- (12) 建登 1里——석지, 지셋물, 등안동, 원평, 잔딧밭
- (13) 建登 2里——토평, 관천, 하구암, 상구암, 좁은목, 동경동, 나동
- (14) 桐華 1里——덕난동, 애안동, 장산동, 탑전동, 작은에안, 좁은목, 호적
- (15) 桐華 2里——동화골, 만당포, 마현동等으로 나누어져 있

4. 人 口

1974年 12月 31日 現在 男子 6,277名, 女子 5,962名으로 總人口 12,239名이며 人口密度는 121名이다. 產業別로 區分하면 農業에 從事하는 人口가 10,683名으로 大部分을 차지하며 서비스업에 110名, 商業에 71名, 其他 職業에 109名으로 되어있으며 총 家口數는 3,201家口이다.

5. 產 業

(가) 農 業

總 農耕地面積은 1,660.1ha 로 논이 10,423ha 밭이 617.8ha 이며 水利安全畚이 241ha 水利不安全畚이 36ha 天水畚이 28ha로 農家 戶當 0.91ha의 畚로 나타나 있다. 74年度 穀物 生産高는 米穀 3,942,624kg, 麥類 222,999kg, 雜穀 21,327kg의 收穫이 있으며 特用作物로는 落花生, 담배, 園藝作物, 아주까리 등이 栽培되고 果樹園으로는 사과, 배 등 果樹園이 있다.

(나) 林 業

林野面積은 總 7,168ha 中國有林 200ha 公有 1,069ha 私有 5,661ha로 平均 10年生의 소나무, 참나무가 造林되고 있다.

(다) 畜產業

1974年 12月末 現在 面內 家畜現況은 韓牛가 1,004頭 돼지, 440頭, 닭 7,783首, 개 623마리, 山羊 28마리 등이다.

(라) 運 輸

이 面의 運輸現況을 살펴 보면 官用車 1台 自家用 4台 營業用 3台가 保有되어 있다.

6. 機 關

機關으로는 文幕面事務所, 文幕支署, 文幕郵遞局, 文幕農協, 農協單位組合, 桐華驛, 農地改良組合이 있고 學校는 高等學校가 1, 中學校가 1, 高等公民學校 1, 國民學校 5個校로 文幕商業高等學校, 文幕中學校, 義城高等公民學校, 厚用國民學校, 翠屏國民學校, 礪溪國民學校, 碑頭國民學校, 文幕國民學校가 있으며 企業體로 運營되고 있는 文幕釀造場(濁酒), 豐田產業(製絲), 文幕기와工場 등이 있다.

7. 宗 教

文幕面의 寺刹 現況을 보면 宮村 1리에 念佛庵 宮村 2리에 極樂庵 文幕里에 七星庵 翠屏里에 翠屏庵 桐華里에 法興寺, 神仙庵 등 6個의 大小 庵子가 있고 教會 現況을 살펴보면 天主教文幕教會, 文幕監理教會, 文幕安息教會, 宮村浸禮教會, 厚用監理教會, 礪溪聖潔教會 등 8個의 教會에 信徒數는 1,057名이다.

8. 山 河

面內의 山, 河川, 道路, 橋梁, 貯水池, 나루터, 고개 등의 現況은 建登2리에 建登山, 翠屏里에 翠屏山, 文幕里에 명봉산, 비두리에 덕가산 등이 있고 河川으로는 蟾江, 桐華川, 宮村川, 礪溪川 등이 있다. 또한 道路는 國道가 10,952m 地方道路가 5,000m 農路가 7,000m 高速道路가 13,000m 등 總延長 35,952m에 達하고 있으며 橋梁은 江原道 第一의 大橋인 길이 535m의 文幕橋가 있고 其外 文幕 富論을 連結하는 宮村橋, 地正 文幕間을 連結하는 桐華橋, 碑頭 貴來를 連結하는 碑頭橋, 文幕 대둔을 連結하는 礪溪橋 등이 있다. 貯水地로는 魚族保護地區로 指定된 礪溪貯水池와 낙시터로 有名한 翠屏貯水池, 建登貯水池를 들 수 있으며, 나루터는 建登 翠屏을 連結하는 취병나루터, 厚用 礪溪를 連結하는 厚用나루터, 취병 建登을 連結하는 석지나루터가 있다. 또한 고개는 桐華고개, 대수리고개, 厚用里고개, 술미재, 석지재, 노루재 등 크고 작은 고개들이 있다.

9. 古 蹟

郡內 여러 面이 다 그렇듯이 文幕面에도 많은 古蹟이 散在되어 있다. 太祖王建의 軍兵이 築城하여 甄萱을 討伐하였다는 建登山城은 建登里에 甄萱山城은 厚用里에 位置하고 옛적에 호랑이를 타고 다니며 極盡한 孝道를 하였다는 황무진의 얘기와 함께 礪溪 3리에 忠孝祠가 세워져 있으며 礪溪里 礪溪洞에는 千年의 樹齡을 자랑하는 은행나무가 天然記念物 第 167號로 指定되어 있

第2編 政治 및 行政

다. 其外 保護樹로는 은행나무 느티나무等 6個의 나무가 指定되어 있으며 桐華里에는 옛날의 政丞을 지낸 盧政丞 墓가 있다.

10. 行政運營 및 統率方針

住民 福祉向上과 住民爲主의 奉仕行政 具現을 위한 行政을 運營하고 있으며 統率方針은 다음과 같다.

(가) 總和維新 總力安保 態勢의 強化

(나) 民願行政 刷新

(다) 새마을運動의 生活化

(1) 새마을運動을 통한 精神啓發로 새마을運動을 生活化한다.

(2) 새마을運動의 生活化로 住民 所得增大

(3) 새마을運動 推進을 위한 總力行政

11. 자랑거리

(1) 江原道 代表 새마을 育成

浦津 2리 3槐亭은 江原道 代表 새마을로 72年 完工된 文幕面 새마을事業의 結實이라 할 수 있으며 會館, 마을金庫, 共同목욕탕, 어린이놀이터, 理髮所等과 집집마다 네탄개스 施設과 깨끗한 마을 안팎과 말끔히 塗瓦된 家屋은 代表 새마을의 面貌를 일신하였고 文化施設이 完備되어 있어 農村의 이상마을로 손꼽히고 있다.

(2) 쌀 大單位 增產團地 運營

文幕面은 예로부터 良質의 米穀 生産地로 有名하며 73年 쌀 大單位 增產團地 審査에 있어 中央審査때 全國 3位에 入賞한 바 있다. 74年 米穀生産에 있어서도 總面積 1,082.7ha에 쌀을 392,624kg 生産하였다.

其外 翠屏里 鱸江遊園地等을 들 수 있는데 鱸江遊園地는 낚시터와 避暑地로 有名하며 年平均 1,000名의 外來客이 찾고 있다.

12. 歷代面長

初代 李 錫珪 1代 金 教聲 2代 洪 義植 3代 黃 在德 4代 金 東勳 5代 李 敏求 6代 金 大鳳 7代 柳 錫 8代 金 東豪 9代 孫 容道 10代 崔 東植 11代 蔡 洙根 12代 徐 廷高 13代 孫 容道 14代 孫 容道 15 金 東燦 16代 襄 滋玉 17代 宋 榮三 18代 郭 金榮 19代 李 應教 面長等이다.

13. 性 氏

金 李 朴 崔 趙 元 鄭 尹 辛 許 沈 丁 林 安 全 申 柳 劉 張 洪 宋 權
黃 姜 咸 池 高 孫 朱 嚴 吳 徐 成 曹 蔡 具 邊 王 玄 陳 藩 禹 郭 方
吉 琴 韓 梁 閔 公 兪 白 簡 秋 南 康 文 千 車 盧 襄 羅 慶 蘇 石 任
田 孔 智 史 廉 河 卞 都 朱 龍 魚 延 漢 諸 氏等이다.

(마) 富 論 面

(1) 沿 革

富論面은 1950年 3月 面事務所의 位置를 與湖里 1038番地로 부터 法泉里 1449로 移轉하였다가 1958年 9月 16日 法泉里 現 廳舍를 竣工 入舍하여 至今에 이르고 있다.

(2) 地 勢

東經 127度 50分 北緯 37度 7분에 位置하고 있는 이 面의 面積은 80km²이며 西쪽으로는 南漢江上 流를 境界로 忠淸北道 中原郡 仰城面과 京畿道 驪州郡 點東面에 接하고 東쪽은 本郡 貴來面 北쪽

으로는 文幕面이 隣接하여 있으며 西南間을 흘러 내리는 南漢江邊에는 主로 砂質土로 土質은 僻박한 便이며 南漢江 流域의 강 기슭으로 있는 丹江里, 鼎山里, 興湖里, 魯林里等地의 一部에는 有機質 歲陽土가 蓄積되어 있다. 氣候는 大陸性氣候이며 原城郡의 다른 地方과 비슷하나 바람이 많은 便으로 最高溫度는 35度 最低溫度는 零下 25度를 오르내리고 있다.

(3) 行政區域

行政區域은 法定里 6個里를 行政里 15個里로 하고 自然部落 54個部落 136個班의 再建班으로 나누어져 있다.

- (1) 法泉 1里—안말, 장터, 골말, 뒷산
- (2) 法泉 2里—매곡, 장평, 도사랑, 서원말
- (3) 法泉 3里—신촌, 산수동
- (4) 興湖 1里—신촌, 검단동, 능동, 진목동
- (5) 興湖 2里—월봉, 창촌
- (6) 魯林 1里—모산동, 광명대, 노림동
- (7) 魯林 2里—울남, 갈현동, 장남
- (8) 蓀谷 1里—송정동, 평촌, 백가동, 양촌
- (9) 蓀谷 2里—서지동, 귀만동, 오곡동
- (10) 蓀谷 3里—신촌, 내산동
- (11) 鼎山 1里—정산동, 관덕동
- (12) 鼎山 2里—양촌, 음촌, 자작동
- (13) 鼎山 3里—장내동, 중촌, 천곡동, 의재
- (14) 丹江 1里—조규동, 단정동, 섬뜰, 작실
- (15) 丹江 2里—사기막, 부른동, 평촌, 세포동,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4) 人 口

1974年 12月 31日 現在 男子 4,184名 女子 3,969名으로 總 人口數는 8,153名이며 人口密度는 1,119名이다. 產業別로 區分하던 農業에 從事하는 人口가 3,901名이며 서비스업에 27名, 商業에 113名, 其他 職業이 186名으로 되어 있으며 總 家口數는 1,427家口이다. 또한 姓氏에 對한 現況은 集團으로 部落을 形成하고 있는 姓氏가 興湖 1里에 順興安氏, 魯林里에 淸州韓氏, 法泉 3里에 忠州池氏 蓀谷 1里에 平山申氏, 法泉 2里에 羅州丁氏 등이 있으며 其外姓氏로는 簡 姜 高 具 權 金 南 盧 魯 羅 閔 文 朴 方 邊 卞 白 徐 石 成 孫 宋 申 辛 安 嚴 延 吳 禹 元 柳 劉 尹 李 林 張 全 丁 鄭 趙 曹 池 陳 車 崔 蔡 表 皮 河 許 韓 咸 黃 洪 孔 都 沈 任 千 秋 郭 琴 梁 廉 兪 太 呂 裴氏 등이 있다.

(5) 產 業

(가) 農 業

總 農耕地 面積은 1,425ha로 畚이 725ha, 田이 700ha이며 水利安全畚이 566ha 水利不安全畚이 159ha 天水畚이 72ha로 農家 戶當 117ha의 畝로 나타나 있다. 74年度 穀物生産高는 米穀이 2,112,013kg, 麥類가 350,188kg, 雜穀이 6,225kg의 收穫이었으며 特用作物로는 담배, 落花生, 園藝作物 등이 栽培되고 果樹園으로는 복숭아, 사과, 배 등의 果樹園이 있다.

(나) 林 業

林野面積은 總 6,570ha中 國有林 189ha, 公有 393ha, 私有 5,992ha로 平均 4年生의 낙엽송과 20年生의 참나무, 소나무가 造林되어 있다.

第2編 政治 및 行政

(다) 畜 産 業

1974年 12月末 現在 面內 家畜現況은 韓牛가 1,116頭, 돼지가 897頭, 닭이 5,704首, 개가 490마리等이다.

(라) 運 輸

이 面의 運輸現況은 自家用乘用車가 1台 貨物自動車가 2台이다.

6. 機 關

機關으로는 富論面事務所, 富論支署, 富論郵遞局, 富論農協이 있고 學校는 中學校 1, 國民學校 5個로 富論中學校, 富論國民學校, 魯林國民學校, 孫谷國民學校, 鼎山國民學校, 丹江國民學校가 있으며 企業體로는 濁酒를 生産하는 天一釀造場이 있다.

7. 宗 教

富論面은 法泉寺, 巨頓寺와 같은 큰 寺址들이 많이 있다. 教會는 監理教會, 天主教會, 浸禮教會가 있으며 信徒教는 650名이다.

8. 山 河

面內의 山, 河川, 道路, 橋梁, 貯水池, 나무터, 고개 등의 現況을 살펴보면 山은 海拔 530m의 현계산, 황학산, 수용봉이 있고 河川으로는 法泉川, 南漢江, 蟾江 등이 있다. 또한 道路는 國道가 없고 地方道路가 29.6km, 農路가 12.5km 高速道路가 4km等 總延長 41.6km에 달하고 있으며 橋梁은 法泉橋, 孫谷橋, 鼎山橋 등이 있으며 貯水池, 小溜池로는 뒷산 小溜池, 고사리골, 가래울, 진기미, 황수골, 막은가래, 장남小溜池, 무삼골小溜池, 백자동小溜池, 통점小溜池, 알상골小溜池, 영터고개小溜池, 작실고개小溜池, 음촌小溜池, 영터小溜池等 無慮 15個의 小溜池가 있다. 나무터는 法泉 1리에서 담안리를 잇는 개치나무터와 興湖 2리에서 점동면을 連結하는 양호渡船場이 있고 法泉 3리와 담안리를 잇는 조음계나무 興湖 1리에서 驪州郡 康川面을 連結하는 다릿골 나무터가 있으며 고개로는 모산고개, 자작고개, 염터고개, 작실고개 등이 있다.

9. 古 蹟

原城郡內 어느 面보다도 옛 祖上의 얼과 찬란한 業績이 保存되어 있는 이 面은 國寶가 1, 寶物이 1, 非指定 文化財로 指定된 것이 3基等 많은 碑石과 古蹟이 保存되어 있는 곳이라 하겠다. 먼저 法泉里에 位置한 國寶 第59號 法泉寺 智光國師 玄妙塔碑는 高麗 宜宗 3년에 建立한 智光國師의 略歷을 적은 塔碑로 섬세함과 精妙함은 藝術의 極致를 넘은 作品으로 評價되고 있으며 鼎山里에 位置한 寶物 78號 居頓寺 圓空國師 勝妙塔碑는 9백年前 圓空國師를 위하여 建立한 것으로 精巧함이나 纖細함은 대단하다. 또한 孫谷里에는 몇年前 原州文化院에 依하여 林 慶業將軍 追慕碑가 세워져 있으며 鼎山里에는 居頓寺址 3層石塔이 있고 法泉里에는 撞竿支柱가 있다. 興湖里에는 橫城趙氏 神道碑가 세워져 있고 法泉里에는 林 慶業將軍 祖父墓가 있다. 한편 保護樹로는 은행나무 1그루, 느티나무 3그루가 指定되어 있다.

10. 行政運營 및 統率方針

急變하는 國際情勢에 適應하고 國家安保를 基礎로 하는 現 總和維新體制를 確認하고 住民의 福利向上에 이바지하고자 새마을運動을 積極 展開하고 있으며 부수적으로 火田民 移住者를 위한 就勞斡旋이라든가 山林資源의 造成에 力點을 두고 있다.

11. 자 랑 거 리

이 面은 몇해전만해도 孫谷 1, 2, 3리의 住民들 大多數가 燃料채취等으로 生活를 營爲하는 零細性을 脫皮하지 못했으나 이 地域의 氣候에 適合한 煙草栽培를 積極勸獎하여 現在 450家口가 180餘町步에 2毛作까지 하여 段步當 5만원 程度의 높은 收益을 올려 零細性을 脫皮한 勤勉精神

이 강한 原城郡에서도 零細農家가 第1 적은 面으로 君臨하고 또한 法泉寺와 居頓寺를 中心으로 國寶級 옛寺刹터와 古蹟이 保存되어 있으며 南漢江邊의 아름다운 風致가 年 3천名의 外來客을 誘致하고 있다.

12. 歷代 面長

初代 兪弼濬 2代 韓德愚 3代 李鍾杓 4代 李和榮 5代 李和榮 6代 金昌林 7代 李亨泰 8代 李和榮 9代 安相億 面長等이다.

(바) 貴來 面

1. 沿 革

高麗時代에는 「仇乙坡面」이라 稱하였으나 至今으로 부터 約 4百年前에 「貴來面」이라는 名稱을 使用하였다고 하는데 其年代는 未詳이나 洞里的 名稱은 李朝 高宗皇帝때에 龍岩里라 부르기 始作하였고 面事務所는 30餘年前까지 운남리, 접동, 귀래리, 고침, 운계리, 유현, 분리대동, 분리유현 등에 청사를 지었었으나 6.25動亂으로 燒失되어 修築하여 使用하다가 1973年 8月 15日 至今의 新築建物を 完工하여 現 廳舍를 使用中에 있다.

2. 地 勢

貴來面은 白雲山과 미륵산 양 首地間에 位置하여 東으로 堤川郡 白雲面 西쪽으로는 富論面 丹江里 南쪽으로는 中原郡 蘇台面과 興業面 梅芝里에 接하고 주위가 白雲山양아치와 덕가산, 미륵산 소태재가 평풍처럼 둘러 쌓였으므로 風勢는 弱하나 土質은 극히 肥沃하다. 또한 貴來面은 原城郡의 第一 西南쪽에 位置하였고 東經 127度 4分 北緯 37度 10分에 걸쳐있으며 總 面積은 74km²이고 氣候는 전형적인 大陸性氣候여서 寒暑의 差가 甚하여 每年 12月에서 1,2月까지는 極寒에 이르러 零下 20度를 超過할때가 있으며 夏期에는 酷暑 또한 甚하여 90度F를 넘을때도 있다. 積雪과 降雨量은 比較的 적고 初霜은 10月初旬 마지막 서리는 3月中旬이며 結氷은 11月 下旬頃이다. 山間地方이기 때문에 土質은 지극히 肥沃하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담배의 栽培에 適地로 알려져 있으며 面管內의 道路는 總 延長이 34km인데 그中 國道 10km 地方道 10km 部落道 14km이다.

3. 行 政 區 域

이 面의 行政區域은 法定里數로는 5個里 行政里數는 12個里로서 새마을班으로 36個와 自然部落 33으로 되어 있고 各里別 自然部落名은 다음과 같다.

- (1) 貴來 1里——고침, 평촌
- (2) 貴來 2里——곰네미, 양아치, 동막
- (3) 貴來 3里——사두, 운동, 탐동
- (4) 龍岩里——능내, 신촌, 동막, 담우, 지둔, 생산
- (5) 周浦里——신대, 은포, 능유, 황산
- (6) 雲溪 1里——구사, 유현
- (7) 雲溪 2里——대동, 분토
- (8) 雲溪 3里——다둔, 칠동
- (9) 雲南 1里——관교
- (10) 雲南 2里——입벌, 교동, 운암, 이동
- (11) 雲南 3里——수유, 한치
- (12) 雲南 4里——법동, 상법동, 새터말等 33個 部落이다.

第2編 政治 및 行政

4. 人 口

人口는 總人口 5,641名中 男子 2,879名, 女子 2,762名으로 男子가 117名이 많으며 面民의 大部分이 農業에 從事하고 總家口數 998戶中 農家가 931戶 非農家가 67戶로 面民의 大部分 家口도 農業에 從事하고 있다. 또한 大體로 많은 家族으로 家族構成이 이루어졌으며 住宅率은 거의 100%에 達하고 있다. 이 面의 姓氏는 翁암리 지둔 部落에 金海金氏를 除外하고는 元來의 土着 姓氏가 없으며 貴來面에는

金 姜 慶 權 具 郭 高 南 閔 睦 卜 朴 徐 申 孫 辛 安 嚴 劉 柳 禹 李
張 鄭 丁 趙 崔 表 韓 黃 羅 盧 孟 沈 吳 尹 林 全 田 千 秋 洪 昔 方
白 卞 成 梁 廉 元 朱 池 車 太 河 許 咸 簡 文 裴 潘 俞 陳 康 砂 邊
任 모두 67個 姓氏가 살고 있다.

5. 產 業

우선 農業으로는 總耕地面積 1,057.3ha이며 그中 畚이 431.9ha 田이 625.4ha인데 畚은 水利 安全畚이 248.4ha 水利不安全畚이 124.7ha이고 田은 果樹園이 24.4ha 밭이 601ha로 畚 보다도 田이 많고 水利安全畚이 많은 現狀인데 穀物生産量은 白米가 376.2ha에 1,338톤 麥類가 75ha에 175톤 豆類가 205ha에 288톤 其他 88ha에 9.1톤이며 果樹의 生産面積과 量은 사과 15.6ha에 12.1톤 복숭아 56ha에 34.8톤, 梨 3.1ha에 31.8톤, 포도 0.2ha, 자두 0.4ha에 2.9톤의 生産을 올리고 있으며 林業은 總山林面積 4,059.6ha중 國有 458ha, 共有 984ha, 私有 2,617.6ha로 되어 있으며 山間地方이어서 표고버섯, 송이버섯, 等의 栽培와 其他 林山資源이 많이 生産되고 있고 이 面의 畜産業은 總家數 931戶中 有畜農家は 801戶이며 韓牛 735頭 개가 330頭로 韓牛는 家口 平均 0.73마리로 1마리꼴도 안되는 零細性을 보이고 있다. 運輸關係는 이 面으로 登錄된 車輛이 自家用 2台뿐이다.

6. 機 關

이 面의 管內에는 다른 機關이 없이 一線行政機關인 面事務所, 支署, 郵遞局, 農協, 그리고 貴來國民學校, 翁암國民學校, 귀운國民學校, 貴來中學校로 國民學校 3個所 中學校 1個所, 高等 公民學校 1個所로 總 學生數는 1,781名이다. 또한 管內에는 公醫 1, 藥房 1, 理髮所 4, 飲食店 4, 미장원 3個所로 他地方에 比하여 文化的水準이 낮은 편이다.

7. 宗 教

宗教關係는 寺刹 3 教會 3個所로 名稱은 翁峯사, 황산사 淸은사, 그리고 監理教會 聖潔教會 2個所이며 작은 庵子가 여러곳에 있다.

8. 山 河

山河地帶가 많은 이 面은 新羅 景순왕이 王位를 失하고 避身하기 위하여 刹발을 하고 올랐다는 주포리의 미륵산은 海拔 576m로 現在도 西쪽벽에 景순왕의 像이 있다고 한다. 또한 白雲山은 雲南2里 즉 이 面의 東쪽에 位置한 山으로 海拔 811m의 높은 산이며 덕가산은 貴來 2리에 있고 이 외에도 많은 山이 있으며 河川은 其規模가 큰것은 없으나 貴來里 양아치에서 始流하여 평촌을 經由 文幕의 蟾江으로 合流한다. 또한 雲溪里 다둔에서 發源하여 유현 한치를 經由 판교사장을 월경 운남천과 판교에서 合流하는 河川과 운남리 교동에서 發源하여 판교달미에서 운계천과 合流하여 황산, 翁암을 經由 丹江의 덕은강으로 合流하여 漢江上流가 되는 3個의 河川이 있으며 貴來 1里 평촌에는 평촌 貯水池가 있고 운계 3里 칠동에는 칠동小溜池 운남 4里 법동에는 법동小溜池, 翁암리 지둔에는 翁암小溜池 대동小溜池는 운계 2里 대동에, 수유 小溜池는 운남 3里 수유에, 그리고 유현小溜池는 운계 1里 유현에 있어 山間地方의 농업용수를 해결하고 있으며 橋梁

은 범동橋, 운남橋, 수유橋等, 조금 規模가 큰 橋梁은 위와 같으나, 많은 小橋梁이 있어 地方交通은 不便함이 없다.

9. 古蹟

古蹟은 지금까지 별로 잘 알려진 곳은 없으나 最近 옛 황산사를 復元하다가 三層石塔과 동경을 發見하였고 운남里에는 判官 鄭翼永의 愛民碑가 있는데 碑文은 「行判官 鄭翼永愛民善政碑」로 되어 있다. 樹齡 600年の 운남 2리 느티나무와 樹齡 700년에 주포리 느티나무 운제 3리의 참나무 모두 3그루의 保護樹가 있다.

10. 行政運營

이 面은 面民의 統率方針을 협의체제 운영강화 새마을運動의 치열화에 두고 있으며 公務員의 整風運動 生活行政의 實踐 두 綱領으로 職員을 統率하고 있다.

11. 자랑거리

이 面은 田面積中 200ha에 葉煙草를 耕作하여 500餘戶가 年 2億以上の 收益을 올려 江原道에서 葉煙草生産의 示範地區로 脚光을 받고 있으며 또한 山間地帶인 關係로 林産資源이 豊富하여 年 3,500kg의 高코비섯이 生産되고 其他 많은 副産物을 忠州 原州等 큰 都市에 搬出하고 있다.

12. 歷代面長

初代 韓東先 2代 洪承駿 3代 鄭載顯 4代 徐廷禹 5代 丁奎魯 6代 李鳳九 7代 閔丙琇 8代 金炯珏 9代 韓日愚 10代 金東駿 11代 李英善 12代 崔榮煥 13代 洪淳冕 14代 金鍾一 15代 林炳峻 16代 沈在復 17代 林炳峻 18代 林炳峻 19代 林炳峻 20代 黃元東 21代 安昌螢 22代 朴基東 23代 朴湖善 24代 洪允喜 25代 朴正薰 面長等이다.

(사) 興業面

1. 沿革

興業面은 원래 今勿山面으로 稱하여 오다가 西紀 1914年 9月 今勿山面과 板梯面 一部와 沙堤面을 統合하여 興業面으로 改稱한 以來 오늘에 이르고 있다. 面名을 興業面으로 改稱한 後 初代 面長으로 韓奇東氏가 就任한 以來 12代를 거친 후 1961年 7月 1日자로 革命後 初代 面長에 韓榮一氏가 任命되어 總 20代에 이르고 있다.

2. 地勢

이 面의 西쪽으로는 鳴鳳山 北쪽에는 胞腹山(배부룡山)이 솟아 있으나 主로 白雲山의 落脈들인 작은 山들이다. 總面積의 20%가 平野이고 80%가 山岳地帶다. 郡에서 南으로 7.08km 떨어진 곳에 位置한 興業面 東쪽으로는 忠淸北道 堤川郡과 原城郡 板富面 西쪽으로는 文幕面과 地正面 南쪽으로는 貴來面 北쪽으로는 原州市와 好楮面에 隣接하고 있으며 緯度上으로는 東經 128度 10分 北緯 37度 4분에 걸쳐 있다.

總面積은 56.5km²이며 年平均氣溫이 12.2度로 比較的 溫和한 便이다. 年中氣溫의 差가 甚하여 最高氣溫이 35度 最低氣溫이 零下 25度나 된다. 土質은 比較的 肥沃하고 農耕에 適當하며 特히 담배栽培에 適切한 곳이다. 道路는 總延長 35.7km이며 其中 國道가 9.7km고 農路가 26km이다.

3. 行政區域

이 面의 行政區域은 12個里와 38個洞 51個의 再建班으로 編成되어 있으며 各里別로 自然部落은 다음과 같다.

- (1) 沙堤 1里——후동, 봉미, 대사제, 삼성 (2) 沙堤 2里——봉현, 신촌, 등곡, 북거동

第2編 政治 및 行政

- (3) 沙堤 3里——수루니, 팔포, 광터, 요동
- (4) 大安 1里——폐니, 승안동, 새달
- (5) 大安 2里——검산, 신촌, 상해삼, 중해삼, 하해삼
- (6) 大安 3里——대송, 술산
- (7) 興業 1里——자재기, 울업
- (8) 興業 2里——신촌, 자감촌
- (9) 興業 3里——밤골, 흥대
- (10) 梅芝 1里——무수막, 분지동, 새동
- (11) 梅芝 2里——매한, 한촌, 미촌
- (12) 梅芝 3里——회촌, 개진너 등 總 11個里에 38個 部落이다.

4. 人 口

興業面의 人口는 總 6,844名中 男子가 2,491名, 女子가 3,353名으로 男子보다도 女子가 962名이 많으며 產業別로 보면 住民의 大多數인 95%가 農業人口로 나타나 있으며 家口數는 總 1,151家口中 農家가 1,035, 非農家가 118家口로 亦是 住民들의 大部分이 農業에 從事함을 알 수 있으며 人口密度는 1km²當 121.1名이고 住宅率은 1家口當 5.8坪이다. 또한 興業面內에 居住하는 姓氏는 다음과 같다.

姜 金 權 吉 簡 郭 高 具 孔 慶 文 方 朴 邊 申 辛 沈 宗 孫 宋 成 李
魏 林 柳 梁 禹 吳 安 任 尹 殿 元 盧 閔 襄 朱 玉 劉 鄭 丁 趙 崔 蔡
車 韓 黃 咸 河 洪 池 許 南 廉 白 薛 石 陸 陰 楊 余 張 表 羅 馬 玄
都 呂 田 徐 千 曹氏等으로 總 73姓氏가 있으며 姓氏의 分布狀態를 보면 淸州韓氏 金海金氏 江陵崔氏의 順으로 分布되어 있다.

5. 產 業

農業은 總 耕地面積에 1,180.7ha이며 其中에서 畚이 647ha, 田이 533.9ha로 田보다 畚이 109.1ha가 많고 穀物의 生産量으로는 白米 599.8ha의 面積에서 2,038톤이 生産되며 보리가 204.8ha에 459톤 小麥 340ha에 404톤 이 외에도 22.4ha에서 다른 雜穀 26.8톤을 生産하고 있다. 이 面의 特用作物은 담배에서 年 15,000萬원의 所得을 올리고 있으며 果樹는 總 22ha에서 152톤을 生産하는데 細分하여보면 사과가 9.9ha에 70톤, 배가 2.2ha에서 22톤, 복숭아가 7.3ha에서 51톤 포도가 1ha에서 9.4톤의 生産實績을 올리고 있다. 林業은 總 山林面積 515ha中 國有가 79ha, 共有 89ha, 私有 347ha로 되어 있으며 總 農家 1,035戶中 有畜農家는 1,034戶로 韓牛가 1,095頭로 家口當 1.02頭로 나타나고 있으며 돼지는 333마리로 家口當 0.3마리 닭은 6,592마리로 家口當 6.3마리 개가 550마리로 家口當 0.5마리이다. 運輸는 自家用이 2台 있을 뿐이다.

6. 機 關

機關은 面事務所, 支署, 郵遞局, 農業協同組合, 保健支所, 興業國民學校, 沙堤國民學校, 梅芝國民學校, 大安國民學校, 모두 4個의 國民學校와 育民館中高等學校, 그리고 高等公民學校로 팔포자각 高等公民學校가 있으며 事業體로는 興業釀造場 1個所뿐이다. 또한 面管內에는 藥房 1個所, 理容院 4個所가 있다.

7. 宗 教

興業面에는 2個의 寺刹과 梅芝 2里에 있는 天主教公所를 包含하여 3個所의 教會가 있는데 우선 沙堤 1里에 부천寺, 沙堤 2里에 화봉암과 興業浸禮教會, 沙堤監理教會가 이 面의 宗教機關이다.

8. 山 河

먼저 山을 살펴보면 大部分이 白雲山의 落脈들로 德加山, 美峰山, 明峰山, 胞腹山을 들 수 있고 河川은 梅芝 3리 회촌에서 始流하여 梅芝 2리, 梅芝 1리, 興業 3리를 經由 興業 2리에서 瑞谷川과 合流하는 梅芝川 瑞谷 4리 용수골에서 始流하여 瑞谷 3리, 2리, 1리를 經由 興業 2리에서 梅芝川과 合流하는 瑞谷川 그리고 大安川은 大安 3리 대수리에서 始流 大安 2리, 大安 1리, 沙堤 1리를 經由 沙堤 1리에서 梅芝川과 合流한다. 한편 이 面에는 1957년에 着工하여 1961年 10月 31일에 完工을 한 湧리面積 118ha, 담수面積 15ha, 둘레 6km인 梅芝貯水池를 비롯 9個의 소지류가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자감촌소류지는 興業 3리 밤골에, 회춘소류지는 梅芝 3리 회촌에, 育民館소류지는 興業 1리에, 자감촌소류지는 興業 2리에, 승안소류지는 大安 1리에, 삼성小溜池는 大安 1리에, 沙堤小溜池는 大安 1리에, 광터小溜池는 沙堤 3리에, 요골小溜池는 沙堤 3리에 位置하며 橋梁은 의촌교, 금산교, 사제교, 자감교, 무수막교, 광터교, 팔포교 등이 있어 面內通行은 比較的 수월한 편이다.

9. 古 蹟

이 面은 特記할만한 古蹟은 없으나 梅芝 2리 한촌에 樹齡 400年 높이 30.5m 둘레 6.3m 樹木面積 60坪인 느티나무와 大安 2리에 樹齡 350年 樹木面積 30坪 높이 30m 둘레 3m인 은행나무, 大安 1리 상해삼에 樹齡 250年 樹木面積 20坪 높이 25m 둘레 4m인 느티나무, 大安 1리 하해삼에 樹齡 300年 樹木面積 20坪 높이 30m 둘레 4m인 느티나무, 梅芝 2리 미촌에 樹齡 370年 높이 40m 둘레 5.4m인 느티나무, 大安 2리 금산에 樹齡 350年 높이 2.5m 느티나무, 沙堤 2리에 樹齡 200年 높이 35m인 느티나무 梅芝 3리 미촌에 樹齡 180年 높이 23m인 느티나무, 大安 2리 5班에 樹齡 170年 높이 15m인 느티나무, 梅芝 2리 미촌에 樹齡 100年 높이 32m인 느티나무, 모두 11그루의 保護樹가 있다.

10. 行政 統率 方針

이 面의 行政 統率은 (1) 維新體制의 確立. (2) 새마을運動의 生活化, (3) 農家所得增大의 擴大, 위의 3가지 綱領에 依하여 統率하고 있다.

11. 자 랑 거 리

興業面은 人口에 比例하여 耕地面積이 많을 뿐만 아니라 貯水池 및 小溜池의 施設을 잘 活用하여 大部分의 畓이 水利安全畓으로 施設되어 있다. 土質은 담배 栽培에 알맞아 2百餘戶가 年間 150,000,000원의 收益을 올리고 있으며 農閑期인 겨울철에는 副業으로 새끼꼬기와 가마니 짜기로 많은 面民이 努力하여 收益을 올리며 또한 새마을事業에 面民들의 積極的인 參與로 他 面에 으뜸이 되고 있다.

12. 歷 代 面 長

初代 韓 奇東 2代 李 在東 3代 鄭 在顯 4代 徐 廷禹 5代 金 奭培 6代 元 世祐 7代 金 建洙 8代 金 相烈 9代 韓 普東 10代 元 濟益 11代 元 周喜 12代 韓 榮一 13代 尹 榮淳 14代 辛 承寬 15代 金 寅植 16代 朴 昌浩 17代 申 東元 18代 金 榮宣 面長等이다.

(아) 板 富 面

1. 沿 革

板富面은 倭政初期 板梯面으로 瑞谷里, 盤谷里, 丹邱里, 杏邱里, 觀雪里, 金垆里의 6個里의 行政 區域을 管轄하다가 1937年 原州面이 原州邑으로 昇格됨에 따라 當時 丹邱洞一부를 開運洞으로 分轄 編入시켰고 또다시 1955年 9月 1日 原州邑이 原州市로 昇格됨으로서 丹邱里와 杏邱

第2編 政治 및 行政

리가 市로 編入되어 法定里數 4個里단을 管轄하다가 1955年 10月 分區制 實施로 4個里를 各各 2個里로 分區 8個 行政里를 管轄 運營하여 오던 중 1960年 觀雪 1里를 또 區分하여 9個里가 되었다가 1961年 1月 附屬 合區制가 實施되어 盤谷里, 金垆里, 瑞谷里를 4個 法定里로 還元 實施하였다. 그 후 다시 1963年 2月 分區制에 依하여 9個里를 運營하였으며 1964年 2月 1日 瑞谷出張所(法定里 1個 行政里 4個)가 新設되어 民願事務 및 戶籍全般에 關한 事務가 瑞谷里로 移動 實施되었고 1967年 12月 1日 行政區域 改編으로 盤谷里를 4個里, 觀雪里를 4個里, 金垆里를 3個里, 瑞谷里를 4個里로 포함 15個 行政里를 73年 6月末까지 계속 運營하다가 1973年 7月 原州市의 擴張으로 觀雪 1, 2, 3, 4里와 盤谷 1, 2, 3, 4里를 原市州로 分轄 編入하므로 現在 法定里 2個里인 金垆里와 瑞谷里가 남아 行政里 7個里로 管轄 運營되고 있다.

2. 地 勢

板富面事務所는 原州市 觀雪洞에 位置하고 郡廳 所在地에서 東南으로 3.5km 떨어진 곳에 있으며 原州 堤川間 國道가 中心部를 通고 있어 交通은 便利하고 東쪽으로는 橫城郡 安興面에 接해 있으며 南쪽에는 神林面과 忠北堤川郡 西쪽에는 興業面 北쪽으로는 原州市와 隣接해 있다. 雉岳山과 白雲山 兩峽에 끼어있다고 하겠다.

3. 行政區域

板富面은 金垆里와 瑞谷里의 2個里단이 法定里로서 이것을 7個里的의 行政里로 나누어 22個의 自然部落 34個의 國民班으로 編成하고 있다. 좀더 細分해보면 다음과 같다.

- (1) 金垆 1里 — 양금대, 음금대, 대도사, 소도사
- (2) 金垆 2里 — 한여동, 일론동
- (3) 金垆 3里 — 해륜동, 원동, 나원, 다래실
- (4) 瑞谷 1里 — 의남송, 내남송
- (5) 瑞谷 2里 — 서평, 백운정
- (6) 瑞谷 3里 — 구역동, 도매촌, 신흥동
- (7) 瑞谷 4里 — 의동막, 내동막, 후리사, 대용동, 소용동 등이다.

4. 人 口

板富面の 總人口는 4,830名인데 이 중 95%가 土着民으로 1次 產業에 從事하고 있으며 男女別로 區分해 年보 男子가 2,494名, 女子가 2,336名이고 總家口數 832戶中 農家가 760戶, 非農家가 72戶로 他面에 比해 人口가 적은 편이다. 氏族 分布狀況은 原州元氏가 瑞谷里에 40戶, 南平文氏가 金垆里에 10戶, 寧越朴氏가 8戶 등이 살고 있고 그 외에는 金李等 各種姓氏가 金垆 鐵路工事 때 移住해 온 後 定着해 살고 있다.

5. 產 業

板富面은 他面과 마찬가지로 農業에 從事하는 人口가 많아 95%가 農業에 從事하고 있으며 農耕面積은 617.6ha, 果樹面積은 11.1ha이다. 土產物이란 별로 없고 桑田 107ha로 뽕나무 77萬 그루가 있어 年間 1,133箱子를 소잡 33,090 kg의 누에고치를 生産 年間 6천餘만원의 農家所得을 올리고 있다. 이 밖에 瑞谷平野의 米穀產地는 쌀의 品質이 좋기로 이름이 나 있다. 또한 이 面에 敬天園(癩患者村)이 있어 畜產業의 한 몫을 하고 있다.

6. 機 關

板富面에는 4個所의 國民學校가 있는데 總 學生數는 1,203名 教職員數는 27名이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有名한 「포아리굴」을 經由하는 곳에 雉岳驛이 있다.

7. 宗 教

金垆 2리에 영원사 瑞谷 1리에 운향사가 있고 雉岳監理敎會, 후리사天主教公所, 南松監理敎會, 瑞谷監理敎會가 있다.

8. 山河·貯水池·津·橋梁·고개

백운산, 죽도리봉, 촛대봉, 감루봉, 투구봉, 삼형제봉, 가석제봉 등으로 불리는 산이 있고 河川에는 금대천과 서곡천이 있고 그외에 小川으로 일분천, 해문천, 대원천, 원동천, 내송천, 부억천이 있다. 橋梁은 남송교, 서곡교, 치악교, 金垆橋 등이 있으나 모두 10m 程度의 작은 橋梁들이다. 貯水池는 蒙利面積 12.3ha에 이르는 瑞谷貯水池가 있고 그 외에는 작은 小溜池로서 의남송 小溜池, 도매문 小溜池, 내남송 小溜池 등이 있다. 津(나루터)은 金垆 3리에 신선대가 있으나 배는 없다. 고개로는 가르패재, 너더리고개, 여우고개, 마재고개, 쥐고개, 덕고개 등으로 불리워온다.

9. 墓·保護樹

瑞谷里 내남송에 生六臣의 한분인 元昊 觀欄先生의 墓가 있고 瑞谷 1리에 徐監司의 墓와 邊判書의 墓가 있다. 保護樹로는 도매촌에 있는 소나무 내남송에 있는 머드나무가 있고 金垆 2리 일분에 雉岳堂 숲이 保護숲으로 指定되어 있다.

10. 行政運營 및 統率方針

「알차고 실속있고 살기 좋은 우리 板富」를 面口呼로 하고 運營方針은 첫째 住民 福祉爲主 行政, 둘째 대민용화 위주행정, 셋째 地域 開發爲主 行政, 넷째 地域 防衛爲主 行政 등이다.

11. 자랑거리

全國적으로 有名한 또아리굴을 들 수 있고 명주실을 넣으면 제천의 워림지(貯水池)로 나오는 龍沼가 있고 元冲甲先生의 얽힌 금항아리의 傳說이 있고 最近에는 金垆 2리에 觀光地를 찾는 사람이 많으며 金垆 2리에서는 在來蜂(벌)을 번식케하여 現在 57群이나 있으며 金垆 3리에는 꽃사슴 11頭를 기르고 있으며 金垆里地域에 อนาคต園地를 造成하여 89,000株를 栽培하고 있다. 또한 鶴原山城과 金頭山城 그리고 海尾山城도 이곳에 있다.

12. 歷代面長

初代 朴天緒 2代 李健永 3代 金周赫 4代 慶錫禹 5代 孫環柱 6代 朴斗緒 7代 金百洙 8代 元顯章 9代 郭潤瑄 10代 金永徽 面長等이다.

(자) 神 林 面

1. 沿 革

神林面은 옛날 加里坡面으로 불리우다가 李朝 光武 9年 地方區域變更에 依해 神林面으로 改稱되어 至今에 이르고 있다. 坡隍林을 神的인 樹林이라고 해서 神林이라고 面名을 부치게 되었다는 由來가 있다.

2. 地 勢

太白山脈인 雉岳山과 白雲山의 中間에 位置하여 있고 總面積의 80%以上이 山岳地帶이며 耕地面積은 極히 적다. 位置는 原城郡에서 가장 東南端으로 北쪽에는 板富面 金垆里와 寧越郡 水周面 南쪽에는 堤川郡 白雲面 東쪽에는 寧越郡 酒泉面과 隣接하고 있으며 海拔 320m로 매우 高地帶이고 總面積은 128km²이며 土質은 大體로 砂質土로 되어있고 季節風은 主로 西北風이 甚하며 比較的 토박한 土質이다. 또한 氣候는 寒暑의 差가 甚하고 11月에서 1月까지 3個月間은 極寒으로 零下 20度에 達하며 盛夏에는 零上 30度에 達하는 典型的인 大陸性氣候이고 管内의 道路는 總延長 59.6km中 國道 8.1km, 地方道 16.5km, 部落道 35km로 되어있다.

第2編 政治 및 行政

3. 行政區域

行政區域은 法定里數 7個里, 行政里數 14, 自然部落 45, 再建班 64이고, 里別 自然部落名은 다음과 같다.

- (1) 城南 1里 하성남, 가둔치, 축치, 주렁
- (2) 城南 2里 상성남, 상원골, 질골, 진불
- (3) 神林 1里 교동, 본동
- (4) 神林 2里 언당, 마지, 신산
- (5) 神林 3里 역골, 금옥, 갈곡
- (6) 龍岩 1里 수련, 삼봉, 종암
- (7) 龍岩 2里 용수막, 사림, 탑골, 종림
- (8) 九鶴 1里 방락, 선학
- (9) 九鶴 2里 석동, 구미, 청학
- (10) 金倉里 둔창, 흑천, 가리파, 예찬
- (11) 黃屯 1里 신옥, 소야, 청룡
- (12) 黃屯 2里 재사, 장촌, 물안, 평촌
- (13) 松溪 1里 삼송, 솔치, 도용
- (14) 松溪 2里 제야, 음치, 회사, 모두 45個 마을이다.

4. 人 口

總人口는 10,609名으로 이 中에서 男子가 5,408名 女子가 5,201名 產業別人口는 農業이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其他는 鑛業 및 公務員이고 人口密度는 1km²당 85名이다. 家口는 總家口數 1,890家口中 農家가 1,479戶 非農家가 411戶며 住宅率은 90%이고 面內에는 神林里에 洪氏, 금순리에 金氏, 구학리에 崔氏와 廉氏가 土着姓氏이며 姓氏의 種別로는 康 姜 高 權 孔 吉 金 都 羅 朴 房 襄 徐 孫 宋 申 辛 安 嚴 禹 廉 吳 劉 尹 李 林 元 張 鄭 奏 趙 千 崔 韓 許 黃 南 閔 沈 柳 田 全 陳 車 周 洪 河 邊 白 梁 昔 石 成 呂 仕 丁 池 曹 蔡 卓 玄 咸 郭 孔 薰 簡 盧 卞 田 秋 文 方 房 宣 司 俞 表 孟 延 氏等 78가지의 姓氏가 있다.

5. 產 業

이 面의 農業을 보면 總耕地面積 1,755.1ha中 畚이 415ha, 田이 1,258.6ha인데 畚은 水利安全畚이 336.8ha, 水利不安全畚 75.4ha 天水畚 2.8ha, 그리고 田이 1,250.8ha, 果樹가 7.8ha로 田이 다시 細分된다. 戶當平均 耕地面積은 0.87ha로 나타나며 林業은 總林野面積 10,236ha中에 國有 3,547ha, 共有 3,529ha, 私有 3,160ha이며 畜產은 總農家數 1,479戶中 有畜農家가 1,429戶이고 企業養畜家가 1戶이다. 韓牛는 1,523頭 돼지 616頭 닭 5,316首 개 843마리로 되어 있으며 面管內에 登錄된 車輛은 營業用 貨物車 2台 自家用 1台 官用 1台 모두 4台가 된다. 穀物의 生産面積과 生産量은 쌀이 379.2ha에서 7,163.3톤 麥類가 11.3ha에서 290톤 粟類가 1,409ha에 2,307.9톤 豆類가 475.57ha에서 474.26톤 其他가 381.33ha에서 164.86톤이고 果樹는 사과가 17.2톤 배가 12.8톤 복숭아가 2.1톤 포도가 0.6톤이 生産되고 있다.

6. 機 關

機關은 面事務所, 支署, 郵遞局, 神林驛, 神林電氣分所, 農業協同組合, 神林單一組合, 中부 營林署 神林分所, 神林國民學校, 黃屯國民學校, 九鶴國民學校, 城林國民學校, 蒼坪國民學校, 모두 5個의 國民學校와 神林里에 神林中學校, 黃屯 1里에 黃屯中學校, 農村指導者 養成을 위한

特殊學校인 가나안農軍學校가 용암 1리에 있다. 또한 面內에는 病院 1個, 藥局 4, 旅人宿 3, 託兒所 4, 飲食店 11, 理髮所 5, 미장원 2個所로 他面에 比하여 文化的 水準이 뒤떨어지지 않고있다.

7. 宗 教

宗教는 教會 3, 寺刹 5가 있는데 各各 그 名稱은 1903년에 佛蘭西神父가 建立한 神林天主教會를 비롯하여 神林監理教會, 黃屯長老教會가 있고 上院寺, 七峰庵, 白雲庵, 三峰庵, 天水庵 모두 8個의 教會와 寺刹이 있다.

8. 山 河

三峰은 용암 1리에 있으며 같은 봉우리가 3個 있다고 하여 三峰이라 하는데 높이는 海拔 558m 이고 九鶴山은 海拔 91m로 九鶴里에 있으며 堤川郡 白雲面, 鳳陽面 그리고 神林面의 境界가 되기도 하는 山이다. 河川은 周浦川과 九鶴川이 있는데 周浦川은 성남 2리에서 발원하여 神林 용암을 經由 忠淸北道로 흐르고 九鶴川은 周浦川이 흘러 九鶴里의 앞을 지나는데 이 河川을 말하며 1973年 12月 1日 竣工을 한 神林面 黃屯 1리의 貯水池는 蒙利面積 1, 226ha, 貯水量 5, 188m³ 담수 면적 1, 302m²/정이 있으며 面內에는 많은 橋梁이 있으나 規模가 큰 것들을 보면 神林橋, 신산교, 성남교, 구학교, 갈곡교, 황둔교 등의 橋梁이 있다.

9. 古 蹟

古蹟은 우선 新羅때 無着大師가 1, 400年前에 創建하였다는 上院寺는 雉岳山중턱 海拔 1, 100m에 位置하며 全國 寺刹中 第一높은 곳이기도 하다. 절에는 계수나무와 特히 大雄殿앞에 있는 新羅石塔 2基는 우리나라의 國寶級이며 성남 2리의 城隍林은 天然記念物 93號로 숲에는 들레 5m 높이가 29m되는 진나무, 들참나무, 층층나무, 피나무, 죽동나무, 들배나무, 귀동나무, 산, 들배나무, 느릅나무等 20餘種의 稀貴한 數種이 있고 樹林地는 성남리에 있으며 天然記念物 87號로 指定 되었고 들레 50cm되는 소나무 20그루와 各種 高山植物이 있으며 樹齡 300년 樹高 30m나 되는 九鶴里 새느릅나무, 또 九鶴 1리의 樹齡 300년되는 새느릅나무와, 성남 2리에 진나무 樹齡 300년에 들레가 6m나 되는 巨木들을 保護樹로 指定하여 保護하고 있다.

10. 行政運營 統率方針

面民과의 融和를 꾀하며 아직도 미 發掘된 資源을 開發하여 住民의 福祉에 힘쓰고 또한 새마을 事業에 積極 主力하여 地域의 特殊性을 獎勵한다.

11. 자 랑 거 리

이 面은 山岳地帶일뿐 아니라 高地帶여서 다른 地域과는 特殊한 地形으로 산나물 또는 林産 資源을 서울等 各處에 需給하며 鑛山物인 백운석을 產出하고 近來에는 高地帶의 特殊性을 살려서 藥草栽培에 많은 面民이 主力하여 收益을 보고 있다.

12. 歷 代 面 長

初代 洪 塾 2代 金鍾明 3代 鄭昌謨 4代 李經九 5代 高南基 6代 蔡龜鉉 7代 金榮一 8代 洪敦植 9代 李然雨 10代 金光鎭 11代 金弘基 12代 申泰雲 13代 金京鎬 面長等이다.

第6節 새마을 指導者名單

原州市各洞代表指導者

(75. 12. 15 現在)

住 所	姓 名	性 別			
원주시 평원동 191	方奎植	男	〃	인동 38-4	玄錫子 女
〃 중앙동 181	禹貞義	女	〃	개운동 257	元厚相 男
〃 원동 197	張松模	男	〃	〃 269	趙英子 女

명륜동 90	嚴時鎔	男	원주시	1018-10	朴順姪	女	
" 112	柳淳穆	男女	" 태2	908	劉相淳	男女	
단구동 131	徐相洙	男女	" 가현동	232	李美子	男女	
" 88	鄭源香	男女	" 봉1	5	申炯均	男女	
일산동 358	李在澤	男女	" " 1018-10		李勲福	女	
" 241	車長女	女	원주시	봉2	943	李李孝	彬
학 1 1008-32	金敦洙	男女	" " 655		李李慶	淑	女
" 272	河燦淑	女	" 행구	677	申東一	女	
학 2 205	吳世俊	男	" " 965		朴英子	男	
" 329-11	崔義道	女	" 무실	282	朴孫泰	烽	
단체 350	金基俊	男	" " 57		柳柳仁	淑	
" 146	李玉仙	女	" 관설	399	洪洪禮	變	
우산 702	安哲鉉	男	" " 467		金聖女	女	
" 701	高貞錦	女	" 반곡	1350	元致龍	女	
태1 764	其德會	男	" " 1195		崔鍾日	女	

原城郡 各面 代表指導者 및 里長

새 마을 指導者			里		
	성명		주소	성명	
초 장양 1리	원종실	원	초초 장양 1	원종실	원
" 2	정병권	정	" 2	정귀환	정
" 3	홍근호	홍	" 3	심범택	심
" 4	신동로	신	" 4	유재홍	유
" 홍양 1	원대식	원	" 홍양 1	황을선	황
" 2	홍용표	홍	" 2	원제택	원
	김동호	김	" 3	이충선	이
무암 2	변종숙	변	" 수암 1	신사목	신
	송춘익	송	" 2	권영필	권
	이석인	이	" 3	서석재	서
" 평장	김주돈	김	" 평장 1	김수신	김
" 2	성동환	성	" 2	윤태진	윤
" 의관리	박영재	박	" 의관리	김기창	김
" 둔둔 1	유화규	유	" 둔둔 1	유화규	유
" 2	신재현	신	" 2	고홍복	고
교항	전창구	전	" 교항 1	김주익	김
" 2	문창근	문	" 2	이달홍	이
" 학곡 1	이평우	이	" 학곡 1	김익수	김
" 2	이용복	이	" 2	김태길	김
호저면 주산 1	안주택	안	호저 주산 1	송이남	송
" 2	최지성	최	" 2	이병준	이

호저면 만종 1리
 " 2
 " 3
 " 4
 무장 1
 " 2
 옥산
 대덕 1
 " 2
 고산
 광격
 지정면 간현 1
 " 2
 판대 1
 " 2
 안창 1
 " 2
 가곡 1
 " 2
 월송 1
 " 2
 지정면 월송 3리
 신평 1리
 " 2
 보통
 문막면 문막 1
 " 2
 포진 1
 " 2
 궁촌 1
 " 2
 비두 1
 " 2
 후용 1
 " 2
 반계 1
 " 2
 " 3
 취병
 전등 1

현 노 김 이 최 이 최 최 정 이 원 안 엄 이 김 김 김 원 이 정 김 월 김 이 최 임 채 김 윤 김 안 이 원 임 황 원 김
 형 응 현 영 석 범 용 유 원 종 만 상 재 병 용 부 남 은 상 광 호 택 서 주 부 봉 춘 규 근 석 명 법 민 찬 장 익 호 우 광 성
 주 호 수 옥 순 우 균 환 택 환 배 화 은 수 종 기 식 선 제 결 수 규 식 영 학 화 수 주 열 수 호 정 규 수 식 건 제 기

호저 만종 1
 " 2
 " 3
 " 4
 무장 1
 2
 옥산
 대덕 1
 " 2
 고산
 광격
 지정면 간현 1
 " 2
 판대 1
 " 2
 안창 1
 " 2
 가곡 1
 " 2
 월송 1
 " 2
 지정 월송 3
 신평 1
 " 2
 보통리
 문막 1
 " 2
 포진 1
 " 2
 궁촌 1
 " 2
 비두 1
 " 2
 후용 1
 " 2
 반계 1
 " 2
 " 3
 취병
 전등 1

안 우 생
 차 주 일
 김 길 정
 김 선 경
 최 석 주
 원 치 인
 이 석 규
 지 동 근
 신 승 연
 권 필 수
 원 교 식
 심 선 규
 흥 원 용
 김 종 은
 박 순 칠
 김 사 춘
 이 기 태
 최 성 규
 이 진 구
 이 봉 익
 정 호 결
 김 진 국
 원 봉 규
 최 계 형
 조 병 인
 이 광 우
 안 기 영
 이 낙 교
 최 주 영
 함 윤 기
 김 종 원
 정 동 수
 김 창 제
 남 기 훈
 임 병 화
 강 택 훈
 광 노 현
 황 문 익
 광 노 인
 김 시 열

매지 1	한 영 수	매지 1	박 치 수
" 2	김 종 태	" 3	원 인 규
" 3	방 종 한	" 3	조 창 환
판부면 금대 1리	이 호 정	판부면 금대 1	고 명 길
" 2	고 용 수	" 2	김 국 호
" 3	한 동 석	" 3	김 용 식
서곡 1	오 세 환	서곡 1	백 은 석
" 2	김 명 우	" 2	최 성 태
" 3	심 재 동	" 3	박 기 주
" 4	신 재 덕	" 4	박 병 찬
신림면 신림 1	임 영 수	신림면 신림 1	유 무 학
" 2	서 정 관	" 2	조 광 연
" 3	최 종 대	" 3	김 문 기
금창리	조 주 연	금창리	이 의 대
용암 1	김 완 수	용암 1	이 문 식
" 2	유 안 시	" 2	이 영 기
구학 1	염 민 경	구학 1	염 석 우
" 2	신 승 문	" 2	김 대 진
성남 1	이 조 성	성남 1	김 주 완
" 2	우 종 철	" 2	이 주 호
황둔 1	지 준 창	황둔 1	노 광 수
" 2	이 재 석	" 2	이 병 순
송계 1	변 우 철	송계 1	공 병 직
" 2	심 연 택	" 2	장 용 백

第 7 節 새마을 民間團體 協議會

(가) 原州市 새마을 민간단체 협의회

原州市 새마을 民間團體 協議會는 1975年 8月 17日 原州市長室에서 市內民間團體長이 會合을 같고 發足하였는데 관 주도 새마을 사업을 민간단체 주도로 하기 위함이다. 회장에는 재향군인 회 회장 朴孝相이 選出되었고, 事務室은 재향군인 회관에 두기로 했다.

委員名單

회 장	박 효 상	부회장	정 복 영	김 성 환	조 수 영		
회 원	최인하	안광훈	백원기	엄한준	하일용	이해택	김성봉
	문창모	이원철	김경래	계광수	노태호	윤천일	김성봉
	박영순	유금자	이희주	조동연	홍인성	이명세	박항균
							황주익
							이영섭
							김경숙
							이순자

(나) 原城郡 새마을 民間團體 協議會

原城郡 새마을 민간단체 협의회는 1975年 8月 23日 原城郡守室에서 會合을 같고 發足하였는데 會長에는 原州文化院長黃柱益이 選出됨으로 事務室은 原州文化院에 두고 있다.

회 장	황 주 익	부회장	문 갑 회	최 성 락		
회 원	정 영 복,	조 문 행,	노 은 호,	이 상 호,	우 용 욱,	강 종 극
	이 병 을,	노 순 천,	안 회 선,	이 부 규	(이상 13명)	

第4章 人口의 發達과 姓氏分布

第1節 戶口 概觀

人口는 一定 地域內에 住居를 둔 사람들의 統計的 計數를 人口調査에 依하여 集計한 것으로 其數의 如何가 國勢나 그 地方의 地方勢와도 關係를 갖는 한편 모든 行政과 政策의 基本資料가 되는 重要 要素이다. 그러기에 李朝實錄에 依하던 李朝時代에도 人口法과 戶口法이라는 것이 있었고 現代에 와서는 地方 單位나 國家單位로 每年 人口調査統計가 나오고 있다. 人口는 出生과 死亡에 依하여 恒時 流動狀態에 있다. 따라서 正確한 人口의 把握은 어려운 일이고 人口의 調査는 一定한 時間을 定하여 그 時間 現在를 基準으로 調査하고 있다. 人口의 增減은 特別한 異變이 없는限 急激한 變動이 없는 것이 通例이나 社會의 激變, 이를테면 旱魃 地震等이 있으면 急激한 變化를 가져온다. 原州市와 原城郡의 戶數와 總人口를 史的으로 概觀하면 다음과

宗32年(1893年)	西紀 1969年末 統計
原州郡 20個面 91里	原州市 15個洞
總戶數 8,637戶	總戶數 19,300戶
人 口 男子 15,348名	人 口 男子 53,853名
女子 22,298名	女子 54,281名
計 37,646名	原城郡 9個面
	總戶數 15,268戶
	人 口 男子 45,739名
	女子 43,779名
	計 197,652名

高宗 32年(1893年)에 人口가 37,646名이고 1969年度의 人口는 197,652名이 되니 其間 84年동에 約 5.2倍인 160,006名이 增加된 것이다. 이와 같은 增加率은 비단 原州뿐만 아니라 全國的인 現狀으로 나타나고 있다.

第2節 人口 構成

人口의 構成에는 여러가지 類別이 있으나 가장 基本的 構成은 性別 年齡別과 產業別 및 男女 教育程度別로 나눌 수 있다.

(가) 男女年齡別 人口 構成은 그 地域에 있어서 勞動力의 供給量과 老少 非生產性 人口의 扶養問題 및 生活力 增大方向으로서의 個人 負擔額 등 社會 및 經濟的으로 미치는 影響이 多大하다.

(나) 產業別 人口(職業人口)의 構成은 地域內的 性格 機能 및 發展의 傾向을 決定짓는 데에 基礎이며 가장 重要한 資料이고 經濟力 成長 및 減少에도 直結되어 地域住民生活의 福祉增進과 安寧秩序 나아가서는 全國民의 幸福을 追求하는데 가장 緊要한 要素라 하겠다. 또한 人口의 職

第4章 人口의 發達과 姓氏分布

業別 比率은 職業에 따른 出生 및 死亡率을 左右하기도 하고 地域民生活의 環境과 人口의 活動 狀態를 狹고 넓게도 하여 나아가서는 이른바 社會 經濟 教育 文化生活의 發展狀態에 큰 影響이 있다고 보아지는 것이다.

(다) 男女教育別 人口構成은 그 地域內의 人口構成面에서 文化의 尺度가 되며 따라서 文化發展의 樣相과 時代的인 發展相을 살펴 볼 수 있다. 原州, 原城地域의 人口構成에 있어서는 男女別 年齡別 人口構成과 家口 增加 추세 및 人口 動態만을 別表에 다루어 檢討키로 한다.

인구 및 家口증가 추세

(1974년 末 現在)

년 도	구 분	인 구			가 구			인구밀도 (1km ² 당)	1 가 구 면적 (km ²)	
		인 구	증 감	비 율	가 구	증 감	비 율			
1969	원 주 시	108,134	2,482	2.29	19,300	633	3.27	2,042	5.6	52.96
	원 성 군	89,518	—	—	15,268	—	—	112	5.8	802
1970	원 주 시	111,972	3,838	3.43	20,814	1,514	7.27	2,114	5.38	52.96
	원 성 군	90,482	964	1.06	16,449	1,181	7.17	1,111	5.4	802
1971	원 주 시	114,094	2,122	1.86	21,334	520	2.44	2,154	5.34	52.96
	원 성 군	90,044	438	0.27	15,943	520	3.26	111	5.6	802
1972	원 주 시	116,358	2,264	1.95	21,609	275	1.27	2,197	5.38	52.96
	원 성 군	90,363	319	0.25	15,809	134	0.84	116	5.7	802
1973	원 주 시	128,037	11,679	9.12	23,273	1,664	7.15	1,146	5.5	111.73
	원 성 군	77,902	12,461	1.59	13,624	2,184	16.0	1,047	5.7	743.3

시·군 연령별 인구

(1974년 末 現在)

年令	市 郡	性 別		計			
		男	子	女	子		
		原 州 市	原 城 郡	原 州 市	原 城 郡		
總 數		63,989	36,943	64,048	37,602	128,037	76,942
0~4		7,118	3,883	6,563	3,672	13,679	7,555
5~9		8,838	5,496	8,260	5,197	17,098	10,693
10~14		10,073	6,386	9,370	5,762	19,442	3,148
15~19		9,081	5,236	8,505	4,549	17,586	9,785
20~24		4,400	3,194	5,068	2,456	9,500	5,660
25~29		3,695	1,674	4,231	1,495	7,926	3,169
30~34		4,011	1,913	4,380	2,024	8,391	3,937
35~39		4,432	2,360	4,568	2,350	8,968	4,710
40~44		3,596	1,933	3,539	2,092	7,135	4,025
45~49		2,559	1,474	2,506	1,833	5,065	3,307
50~54		2,004	1,479	1,944	1,631	3,948	3,110
55~59		1,602	1,469	1,733	1,415	3,335	2,884
60~64		1,195	1,146	1,356	1,155	2,551	2,301
65~69		770	837	959	856	1,729	1,693
70~74		360	486	550	516	910	1,002
75~79		167	228	314	353	481	581
80~99		89	138	200	245	289	383
100세 이상			3	2	1	2	4

인 구 동 태

(1974년 末 現在)

市郡	區分	面 積	家 口 數			人 口 數			
			計	農 家	非 農 家	計	男	子	性 比
原 州 市		111.73km ²	23,273	2,905	20,368	128,037	63,989	64,048	49.5%
原 城 郡		743.3 km ²	13,624	11,719	1,905	77,902	39,840	38,062	

市郡	區分	人 口 密 度	一 家 口 當 平 均 家 族 數	出 生	死 亡	婚 姻 件 數	離 婚 件 數	外 國 人	江 原 道 市 郡 別 人 口 構 成 比	女 子 100 名 에 對 한 男 子 數	產 業 人 口
原 城 郡	104.7	5.7	3,480	877	770	39	3	4.2	104.6		

第3節 人口調查 實態

西紀 1973年 10月 1日 統計

原州市 18個洞
 總戶數 23,273戶
 人 口 男子 63,989名
 女子 64,048名
 計 128,037名

原城郡 9個面
 總戶數 13,624戶
 人 口 男子 39,840名
 女子 38,062名
 77,902名

1969年末보다 人口 增減의 差를 보면 市가 19,903名이 增加되고 原城郡은 11,616名이 減少되었다. 이는 1973年度 行政區域 改編에 依해서 增減의 差가 나게 된 것이라 하겠다.

第4節 姓氏 分布

(1) 姓의 沿革考

우리나라의 姓은 元來 中國의 姓을 模倣한 것으로서 그 起源을 遡及하여 보면 高句麗, 百濟, 新羅 때에는 아직 姓을 稱하지 않았으며 「北史」百濟列傳에 國中의 大姓에 沙氏, 燕氏, 姦氏, 解氏, 直氏, 國氏, 木氏, 革氏가 있다고 記錄되어 있으나 이는 百濟固有의 民族의 略稱으로서 姓으로 看做할 수는 없다. 新羅 24代 眞興王의 巡境碑가 慶尙南道 昌原邑(昌原碑) 京畿道 北漢山 碑峰(北漢山碑) 咸鏡南道 咸州郡 下枝川面 松堂里(黃草嶺碑)에 있는 바의 巡境碑中에는 許多한 人名이 碣記되어 있음에도 不拘하고 人名에 漢姓을 冠한 것이 全혀 없는 것은 當時에 있어서는 아직 漢姓을 使用하지 않았다는 것을 立證하는 것이라 하겠다. 新羅 王室의 朴, 昔, 金, 三姓의 先祖에 對하여는 「三國史記」와 「三國遺事」에 有名한 傳說이 있으며 新羅 56代中 朴氏10王, 昔氏8王, 金氏 38王이 位에 올랐으나 이 朴, 昔, 金의 諸姓은 當初부터 如斯한 漢姓이 있는 것은 아니었으며 新羅에 唐의 文化의 影響을 많이 받게 되어 支那勢力의 支配를 漸次 받게 됨에 따라 支那式으로 創氏한 것은 있을 수 있는 事實이라 하겠다. 「擇里誌」의 著者인 李 重煥도 「自新羅末通中國而始制姓氏 然只仕宦士族略有之 民庶則皆無有也 至高麗混十三韓 而始倣中國氏族 頒姓於 八路 而人皆有姓」이라 하였다. 三國史記에 依據하면 新羅第3代 儒理尼師今의 9年 春 6部에 姓을 賜한 事實을 揭載하고 있다. 「9年 春 改6部之名 仍賜姓 楊山部爲梁部 姓李 高墟部爲沙梁部 姓崔 大樹部爲漸梁部 一云 年梁 姓孫 于珍部 爲本彼部 姓鄭 加利部爲漢祗部 姓襄 明活部爲習比部 姓薛」이

라 한 것인바 三國史記의 記事는 三國遺事의 記事와에 多少異同이 있으니 沙梁部の 崔氏는 遺事에는 鄭으로 되어 있으며 本彼部の 鄭氏는 遺事에는 崔氏로 되어 있다. 이리하여 新羅, 高麗, 李朝를 通하여 韓民族은 거의 漢姓이 使用되어 왔다. 우리 나라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姓이 있으며 姓과 名에 依하여 그 사람이 表示되어 있다. 다만 從前에는 奴婢는 姓의 使用을 不許하였으며 僧侶도 出家와 同時에 全혀 俗緣을 떠나므로 姓을 使用하지 않았던 것이나 今日에 있어서는 奴婢와 같은 階級制度는 撤廢된지 오래며 僧侶 또한 一般人과 同一한 姓을 使用하고 있다. 韓國에 있어서는 姓과 氏와의 區別이 嚴하지 않기 때문에 姓과 氏는 往往 混同되어(例를 들면 金姓, 李姓, 朴姓, 鄭姓, 尹姓 等を 金氏, 李氏, 朴氏, 鄭氏, 尹氏等으로 呼稱하며 흔히 姓을 姓氏라 하며 大同韻玉)에도 姓字의 註로서 「氏人所生也」라 하였고(刑法大全)에도 姓과 貫이 同一한 사람을 「氏貫이 俱同한 人」이라고 하였다. 姓은 人名을 構成함에 不可缺한 것이나 姓은 사람에 附屬된 것이며 家에 附屬된 것이 아니므로 假令 사람의 家는 變할지라도 姓은 變치 않는다. 卽 戶主와 家族과의 姓이 다르며 夫와 妻의 姓이 다른 點으로 미루어 보아도 氏와 姓과는 全然 別個인 것이다. 그리고 姓은 男系의 血統을 表章하는 것인데 男系의 血統이 同一하지 않은 同姓이 許多한 것이다. 그러므로 따로 「本」을 定하여 本과 姓이 同一한 것으로써 男系 血統의 表章으로 하고 있다. 本은 本貫 또는 鄉貫 或은 貫이라고도 稱하는 바 一男系血族의 始祖의 發祥地를 指稱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姓과 本이 같은 것은 同一한 男系血族이며 이를 同姓 同本이라 하여 同一族譜에 登載되고 同姓 同本間에는 相婚하지 않으며 또한 同姓同本이 아니면 養子도 하지 않는다. 「增補文獻備考」所載의 姓氏는 496種에 達하며 本貫數가 많은 것으로서는 金氏의 500, 李氏의 470, 崔氏의 326, 朴氏의 314, 張氏의 246, 趙氏의 210, 鄭氏의 210을 들수 있고 大體로 本貫數 10以下의 姓이 大部分이며 또한 本貫不明인 것이 140姓의 多數에 達한다.

(2) 原州를 本貫으로 한 姓氏와 始祖

原州地方에 本貫을 두고 있는 姓氏는 文典에 따라서 약간의 差異는 있으나 四本에 達하고 있다. 그 姓氏와 始祖는 다음과 같다.

(1) 原州 金氏=始祖 金 巨公

金 巨公은 新羅 故順王의 後孫으로 傳해지며 高麗 毅宗 때에 吏部尙書 知樞密院事 判三司事 知門下省事 戶部尙書를 지내고 原城伯에 封해짐으로서 原州를 本貫으로 삼게 되었다. 漢城府 尹 京畿 慶尙의 都觀察使 大司憲을 지낸 金 乙辛은 金 巨公의 九孫이고 原城府院君에 追封된 金 應南은 金 巨公의 14世孫이며 肅宗때 右議政을 지낸 德遠도 原州 金氏이다.

(2) 原州 邊氏=始祖 邊 順

原州邊氏의 始祖 邊 順은 宋나라가 亡한 뒤에 元나라의 瀋陽路千戶의 벼슬을 지냈다. 뒤에 邊 順의 孫子인 邊 安烈이 元나라의 兵部尙書로 高麗 恭愍王때에 魯國大表公主를 따라 高麗에 와서 原州를 本貫으로 받게 되었고 李朝時代에 29名의 文科及第者를 냈다. 原州 邊氏는 始祖를 邊 順이라 하지만 이 땅에서 貫鄉을 받은 것은 邊 安烈이므로 事實上의 始祖는 그다. 그는 高麗史에 많은 業績을 남긴 사람으로 紅巾賊의 亂때에 그를 擊退하고 開京을 收復하는 데 功을 세워 1等功臣으로 禮儀判書 門下贊成事가 되어 原州府院君에 封君 領三司事를 지냈다. 그의 아들 邊 頤는 太祖때에 都總制를 지냈고 그의 孫子 邊 尙服은 定宗의 사위가 되었고 尙服의 조카 邊 孝順은 太宗의 사위다. 이 밖에 宣朝때에 武科에 及第하여 全羅道 水軍節度使로 錦山戰鬪에서 戰死한 邊 應井 原城府院君 邊 良隣 「老乞 大新釋」을 編纂한 邊 憲等이 原州 邊氏이다.

(3) 原州 元氏

元氏는 原州 元氏 單一 本으로 되어 있으나 實은 原 始祖가 다른 3派로 나누게 된다. 始祖를

第2編 政治 및 行政

元 克猷로 한 原城伯派와 始祖를 元 益謙으로 한 待中公派 始祖를 元 鏡으로 한 耘谷派가 있다. 同姓 同本이면서 各派別 譜册上으로는 大略 다음과 같다.

(가) 耘谷派=高句麗 佐命功臣 大唐金紫光祿大夫 門下侍中 平章事 元 鏡을 始祖로 하고 있다. (中略) 19代孫에 元 天錫이 中始祖로 되어있는데 元 天錫은 中正大夫며 宗簿寺丞을 지낸 元 允迪의 둘째 아들로서 號를 耘谷이라 했다. 耘谷 元 天錫을 中始祖로 한다. 耘谷은 벼슬을 하지 않았다. 進士試에 應試하여 進士가 되어가지고 平生을 學者로서 마쳤다. 墓碑에는 高麗 國子進士라고 되어 있다.

(나) 原城伯派=高麗 三韓功臣 元 克猷를 始祖로 하고 있다. 麗朝에는 克猷의 9代孫인 元 傅가 首相職에 있었고 忠烈王때 哈丹의 무리를 물리치고 原州城을 守護하고 匡國功臣 上護軍에 오른 元 冲甲이 있고 李朝에 와서 世宗朝의 判中樞府事 元 庠 仁祖反正때 靖社功臣 2等に 올라 原平府院君이 된 元 斗杓 孝宗때 吏曹 兵曹의 判書를 지낸 元 夢麟과 壬辰倭亂때 水軍統制使로 있던 元 均 등이 原城伯派에 屬한다.

(다) 待中公=元 益謙을 始祖로 하고 있다. (中略) 5世孫에 待中公弘弼 6代孫이 廣明인데 7代에는 一子가 孟良이었고 二子가 方甫였다. 方甫의 아들 憲이 益興君에 封해졌고 憲의 아들이 原山君인 元 滉과 元 昊인데 元 昊는 生六臣이며 號가 觀欄이다. 生六臣 觀欄을 中始祖로 하고 있다.

(4) 原州 李氏

始祖는 李 椿桂公이며 高麗 仁宗 毅宗 兩朝에 戶部員外侍郎 提學司 兵部尙書令을 歷任하였다. 西紀 1126年 丁未年에 該當된다. 그 후 世代가 相傳하기 무릇 800餘年 次序가 分明하고 一源의 支派 分別이 明確함은 族譜에 明示되었다. 一說에 原州 李氏의 始祖는 慶州 李氏의 神佑라 함은 慶州 李氏 中始祖 居明12世孫 李 神佑가 原州의 益興都護府(高麗忠烈王 西紀 1291年項)로 되었을 때 와서 살면서 益興 李氏의 始祖로 되었던 바 그후 益興이 다시 原州牧으로 (西紀 1308年)되었다가 成安府(西紀 1310年)로 다시 西紀 1353年 原州牧으로 되었을 때 益興이라는 地名이 없어지니 다시 原州 李氏로 改本하러 하였으나 原州 李氏는 그때 이미 다른 姓祖의 子孫들이 疉연히 있으므로 不得已 新原州 李氏라 稱하였더니 그후 原州 李氏와 新原州 李氏를 世間에서 混同한데서 생긴 錯誤임을 밝혀 둔다.

(3) 原州地方 氏族의 中始祖

原州地方에는 他地方을 貫鄉으로 하고 있는 氏族이 오래 한 곳에 定着하여 大姓을 이루어 이 地方의 中始祖가 되어 있는 사람이 많다.

靑松 沈氏 沈 孟元

平山 申氏 申 永錫 江界府敎導를 지냄

寧越 辛氏 辛 壽敬 禮曹正郎을 지냄

慶州 金氏 金 劭 延恩廠參奉

安東 權氏 權 琛

金海 秋氏 秋 世鈞 禮曹參判을 지냄

平山 申氏 申 暖 縣令 判官을 지냄

順興 安氏 安 誠菴

淸州 韓氏 韓 汝弼

(4) 各姓氏 始祖의 落鄉動機

이 地方에 貫鄉을 둔 各 氏族의 始祖가 어떠한 動機로 原州에 오게 되었는가 하는데 對하여 그 動機나 緣由가 文典이나 各 氏族 世譜에 記錄이 되어있는 것도 있고 전혀 詳考할 길이 없는 것도 있다. 文典이나 世譜를 通하여 이들이 原州에 移住하게 된 動機를 大別하여 보면 첫째 難世를 避하여 이곳 山間僻地를 찾아 移住한 사람, 둘째 政治情勢 때문에 벼슬을 버리고 찾아온 사람등의 類型이 있는데 文典에서 詳考할 수 있는 것 만을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1) 原城의 安東 權氏 = 權 琛

端宗이 王位를 빼앗길 때에 世上이 싫어 雉岳山에 와서 숨어 산것이 이곳에 世居한 動機가 되었다. 所草面 屯屯里다.

(2) 原州 李氏 = 始祖 李 璘

高麗 末年에 世上이 어지러워지자 이곳 七峰山下에 와 草野에 묻혀 산것이 落鄉의 緣由이다.

(3) 原州 元氏 = 中始祖 元 天錫

李朝가 建國하자 忠臣不事二君이라 하여 벼슬을 버리고 이곳에 와 살게 되었다.

(4) 原州의 寧越 辛氏 = 辛 壽敬

壬辰亂때에 原州에 避亂왔다가 定住하였다.

(5) 世居氏族

原州地方에는 各 고을마다 同一氏族이 代代로 한 곳에서 世居하고 있는 곳이 많다. 이들 中에는 이 地方에 本貫을 두고 있는 氏族도 있고 他地方에 本貫을 두고 있는 氏族도 있다. 舊道誌의 記錄과 近來의 資料를 土臺로 居住別 世居氏族을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1) 原州 元氏 = 進士 元 天錫의 後孫으로 原州市와 原城郡 各 洞里에 걸쳐 살고 있고 原山君 元 滉의 後孫은 所草面 長陽里에 살고 있다.

(2) 原州 李氏 = 平章事 椿柱의 後孫으로 台庄 文幕等地에 많이 살고 있다.

(3) 原州 邊氏 = 原州府院君 安 烈의 後孫으로 原州 原城의 各里 洞에 걸쳐 살고 있다.

(4) 淸州 韓氏 = 府院君 韓 孝吉의 後孫으로 主로 貴來面 雲溪里, 文幕面 文幕里, 富論面 魯林里에 살고 있다.

(5) 龍仁 李氏 = 太師 李 純卷의 後孫으로 文幕에 살고 있다.

(6) 平康 蔡氏 = 校理 蔡 忱의 後孫으로 浦津里에 살고 있다.

(7) 尙州 黃氏 = 商山君 黃孝源의 後孫으로 魯林里에 살고 있다.

(8) 泗川 陸氏 = 左議政 陸 來善의 後孫으로 魯林里에 살고 있다.

(9) 長水 黃氏 = 侍中 黃 瑗의 後孫으로 長陽里에 살고 있다.

(10) 恩津 宋氏 = 吏曹判書 宋 麟壽의 後孫으로 桐華里에 살고 있다.

(11) 同福 吳氏 = 參判 吳 百齡의 後孫으로 珠山里에 살고 있다.

(12) 淸州 郭氏 = 文良公 郭 樞의 後孫으로 礪溪里에 살고 있다.

(13) 昌原 黃氏 = 文幕과 所草面에 살고 있다.

(14) 金海 金氏 = 貴來面 龍岩과 神林에 살고 있다.

(15) 草溪 鄭氏 = 八溪君 宗榮 後人으로 原州市內와 地正面에 살고 있다.

(16) 秋溪 秋氏 = 僕射適後人으로 所草面 橋項里에 살고 있다.

성 씨 별 인 구 통 계

市郡	姓氏	金	李	朴	崔	鄭	全	張	尹	趙	安	申	韓	洪
原州市		27,010	20,659	10,557	6,458	5,033	1,844	2,118	2,166	2,719	2,766	1,923	2,691	1,845
原城郡		15,514	12,097	5,884	3,302	2,192	1,119	1,326	1,707	1,952	1,816	1,386	1,910	1,382
市郡	姓氏	黃	權	林	姜	宋	沈	柳	高	嚴	徐	吳	咸	孫
原州市		1,700	2,106	1,621	2,134	1,381	1,305	1,875	1,306	809	1,480	1,297	782	1,457
原城郡		1,367	1,387	1,280	750	739	929	1,015	1,067	524	670	516	371	716

第2編 政治 行政

市郡	姓氏	劉	元	幸	南	許	池	白	朱	盧	文	梁	任	曹
原州市		741	2,265	1,067	792	892	630	928	382	523	628	470	315	559
原城郡		575	2,788	1,411	420	503	948	363	236	276	390	221	92	234
市郡	姓氏	襄	邊	陳	閔	禹	田	玄	車	方	郭	丁	吉	廉
原州市		534	336	463	510	552	141	240	506	326	488	642	166	300
原城郡		225	258	249	257	377	118	111	263	141	856	267	78	159
市郡	姓氏	羅	龍	蔡	康	具	成	千	俞	河	秋	孟	馬	魚
原州市		302	89	372	181	316	342	261	223	323	218	23	87	69
原城郡		166	21	332	226	95	237	238	59	52	224	8	18	28
市郡	姓氏	南宮	印	蔣	農	奉	慎	表	陸	琴	皮	程	奇	簡
原州市		49	25	16	3	0	30	104	34	58	27	21	53	6
原城郡		6	0	0	20	7	1	41	21	25	20	0	11	83
市郡	姓氏	桂	承	芮	片	鮮于	皇甫	孔	卓	史	楊	延	都	魏
原州市		43	37	14	33	54	7	86	83	45	228	121	83	47
原城郡		1	0	1	8	0	18	107	20	17	61	24	112	3
市郡	姓氏	智	房	下	魯	呂	潘	宣	唐	慶	薛	王	周	陸
原州市		44	32	140	62	99	39	26	7	25	39	23	19	33
原城郡		16	26	259	1	78	6	19	1	89	19	7	27	6
市郡	姓氏	太	玉	葛	余	蘇	明	諸葛	弓	殷	夫	陰	牟	路
原州市		31	41	0	40	16	7	0	0	14	14	28	21	0
原城郡		11	5	0	10	56	2	0	0	1	0	15	1	0
市郡	姓氏	尙	胡	公	溫	鞠	韋	獨孤	卜	扈	司空	彭	天	毛
原州市		23	24	3	11	3	12	2	4	0	7	8	7	3
原城郡		20	1	1	0	0	0	0	1	1	9	0	0	0
市郡	姓氏	夏	邢	諸	錢	童	杜	鮮	石	善	秦	秦	甄	皇
原州市		23	1	6	6	6	0	6	185	0	58	0	5	3
原城郡		0	0	6	0	0	1	5	97	2	29	3	0	0
市郡	姓氏	萬	戶	長	國	道	東	菊	漢	賢	襄	瀾	計	
原州市		2	202	7	3	2	1	2	0	0	0	0	127,901	
原城郡		0	0	0	0	0	1	0	2	3	11	1	77,901	

原州市 原城郡

(30戶以上 集團 姓氏 調査 1930年度 狀況)

原州郡 上洞里 金海 金氏
 原州郡 上洞里 密陽 朴氏
 原州郡 下洞里 密陽 朴氏

原州郡 上洞里 全州 李氏
 原州郡 下洞里 原州 李氏
 原州郡 興陽里 原州 李氏

原州郡 雲溪里
 原州郡 文幕里 清州 韓氏
 原州郡 魯林里
 新林面 龍巖里 金海 金氏
 新林里 金倉里 慶州 金氏
 新林面 龍巖里 慶州 金氏
 新林面 龍巖里 密陽 朴氏
 新林面 黃屯里 金海 金氏
 所草面 長陽里 原州 李氏
 好楮面 球山里 原州 李氏
 好楮面 玉山里 原州 李氏
 地正面 安昌里 延安 金氏
 地正面 新坪里 原州 元氏
 文幕面 礪溪里 清州 郭氏
 文幕面 寬川里 龍仁 李氏
 富論面 丹江里 羽溪 李氏

貴來面 龍巖里 金海 金氏
 神林面 神林里 金海 金氏
 神林面 金倉里 金海 金氏
 新林面 神林里 金海 金氏
 新林面 九鶴里 慶州 金氏
 新林面 金倉里 密陽 朴氏
 新林面 九鶴里 慶州 金氏
 板富面 瑞谷里 原州 元氏
 所草面 平庄里 寧越 辛氏
 好楮面 高山里 原州 李氏
 地正面 茂長里 慶州 李氏
 文幕面 建登里 慶州 金氏
 文幕面 翠屏里 原州 元氏
 富論面 法泉里 龍仁 李氏
 富論面 魯林里 清州 韓氏

30戶以上 集團의 姓氏 調査

所草面 青松 沈氏 35戶
 原州 李氏 100戶
 慶州 金氏 130戶
 秋溪 秋氏 25戶
 文幕面 昌原 黃氏 48戶
 原州 李氏 30戶
 清州 郭氏 61戶
 板富面 密陽 朴氏 50戶
 好楮面 原州 李氏 32戶
 富論面 清州 韓氏 60戶

所草面 平山 申氏 35戶
 寧越 辛氏 150戶
 安東 權氏 60戶
 濟州 高氏 50戶
 全州 李氏 50戶
 慶州 金氏 50戶
 貴來面 金海 金氏 150戶
 板富面 原州 元氏 40戶
 好楮面 原州 元氏 30戶

※ 舊道誌에 依는 世居 氏族

原州 元氏 進士天錫後人 在居郡內各洞里 分居 原山郡滉後人 所草面長陽里在居
 原州 李氏 平章事椿柱後人 在居台庄里, 文幕里, 花川里
 原州 邊氏 原州府院君安烈後人 在居各洞里 分居
 清州 韓氏 府院君孝吉後人 在居貴來面雲溪里, 文幕里, 魯林里
 龍仁 李氏 太師純卷後人 在居文幕面 寬川里
 清州 韓氏 文靖公(韓繼禧)後人 在居富論面 魯林里
 平康 蔡氏 校里忱後人 在居浦津里
 尙州 黃氏 商山君孝源後人 在居魯林里
 泗川 陸氏 左議政來後人 上同
 長水 黃氏 侍中瑗後人 在居長陽里
 同福 吳氏 參判百齡後人 在居鼎山里
 恩津 宋氏 吏判麟壽後人 在居桐華里
 清州 郭氏 文良公樞後人 在居礪溪里

第5章 科擧制度和 原州登第人物

第1節 科擧制度和 考試

高麗의 科擧制度 : 高麗의 科擧는 대개 唐의 制에 依하여 그 規模를 줄인 것이요 後에 宋 乃至 元, 明의 風을 약간 添加하였다. 科目은 文科로 製述(혹 進士라 일컬음)과 明經의 두가지가 있고 別途로 醫, 卜, 地理, 律, 書, 算, 三禮, 三傳, 何論 등의 雜業, 또 技術科는 주로 각각 그 業으로서 試驗하여 出身(任官 資格)을 賜하였다. 雜業科 中에 地理는 家相 및 墓相을 보는것, 律은 法律, 三禮는 禮記, 儀禮, 周禮, 三傳은 春秋의 左氏傳, 穀梁傳, 公羊傳, 何論은 論語의 何晏 解를 이름이다. 進士는 詩, 賦, 策으로써 試하고 明經은 易, 書, 詩, 春秋 등으로써 帖括口問하니 策은 時務에 對한 建設의 意見을 이름이다. 帖括이라 함은 經書 어느章의 前後 行을 가리고 中間의 1行만을 남겨 그 中의 몇자를 帖紙로 덮어놓고 應試者로 하여금 알아 내게 하는 것이다. 시험하는 科目은 가끔 多少의 變通을 더하여 어느 것을 빼기도 하고, 넣기도 하였다. 試期는 每年으로도 하고 隔年으로도 하여 定期가 있지 아니하며, 取士(인물선출)도 또한 定額이 없었다. 進士科의 「프로그램」은 대개 3월에 科場의 門을 잠그고 第1日엔 貼經 第2日에 詩賦, 第3日에 時務策을 試하여 10日만에 考選을 마치고야 門을 열며 明經 以下 諸業은 그 前年 11월에 舉選하였다가 進士와 함께 同日에 放榜(成績發表) 하였다.

第2節 座主 門生

科擧를 얻은 이가 考試官을 座主라 일컫고 스스로 門生이 오라하여 座主와 門生과의 間에 特殊한 連絡이 있어짐은 唐, 宋에서도 그러하던 것이려니와 座主 門生의 禮는 高麗에 있어 특히 嚴重하였다. 高麗의 俗에 座主를 學士라고 일컫고 門生이 恩門이라고 하니 門生이 座主를 붉이 마치 父母와 같았다.

우선 科試가 끝난 뒤에 學士에게 父母 혹은 座主가 있으면 放榜과 함께 學士——반드시, 公服을 갖추고 往謁하되 門生들이 行禮를 지어 陪從하여 學士——앞에서 拜하거든 門生은 뒤에서 절하고 在座한 賓客에 비록 尊長인 者라도 다 下堂하여 庭際에 列立하였다가 禮畢하기를 기다려 捐讓코 올라가서 次例로 拜賀하고 이런 다음 學士가 저의 第宅으로 請邀해다가 奉觴稱壽하는 법이 있었다. 肅宗時에 朴孝修가 學士가 되었는데 孝修의 清白함을 王이 본대 熟知하는 터임으로 銀瓶 50과 米百石을 下賜하고 王으로 하여금 學士宴을 辨게한 일이 있었다. 일지 毅宗의 親試下에 劉曦等이 及第하매 曦가 作詩하여 가로되 「壯元及第尋常有러니와 天子門生有幾人이리오」하고 烈王은 文臣을 親試하여 合格하는 者를 「殿試門生」이라 하여 待遇가 特別하니 門生을 대단히 알 아줌이 이려하였다. 座主門生의 法은 李朝 太宗時에 이르러 없어졌다.

第3節 貢 士

科擧를 불만한 資格者로 地方으로 부터 薦擧되어 中央으로 올려 보내는 이를 貢士라 이르니 말하자면 科擧에 대한 豫備試驗의 合格者이다.

高麗의 貢士에 무릇 三等이 있으니 서울에서 國立學校를 나온 이를 土貢이라 이르고 地方에

서 應試 合格하여 오는 이를 鄉貢이라 이르코 他國人으로서 應擧하는 이를 賓貢이라고 일렀다. 顯宗朝의 制令에 諸州縣의 千丁(成年男子千) 以上되는 곳에는 歲貢이 3인이오 5百丁以上은 2인이오 以下는 1人씩으로 하고 界首官 (一地區劃內의 首官) 이 이것을 試選하여 送京하면 國子監(天 國立大學)에서 更試하여 入格者는 赴擧를 許(科擧를 보게)하고 餘는 本處로 還送하여 다시 學習에 從事하도록 하되 界首官이 혹 無實力者를 貢하면 國子監에서 審査하여 處罰케 하였다. 仁宗時에 이르러 多少 變通을 더하여 진실로 有實力한 者면 그 數를 限하지 말게 하고 또 貢士를 中央으로 治送할 때에는 官費로서 소를 잡아 鄉飲酒禮를 擧行하니 鄉飲酒는 中國 古代에 鄉學을 마치고 뿔려서 中央으로 가는 者에 對한 壯行會였다. 이렇게 數次의 試驗을 치르고 豫選에 參入하는 者가 대략 350人 乃至 400人 內外로 되며 이네가 마지막 貢院의 試闈에 들어가서 最後의 榮光인 科擧及第를 얻는 者는 33人을 原則으로 하고 때에 따라서는 약간 增減이 있었다.

第4節 監 試

地方의 豫選을 通過한 貢士를 國子監으로 모아놓고 再考査하는 것을 略하여 監試라고 이르니 監試의 合格은 科擧에 應하는 資格을 얻는 階段으로도 重要하거니와 그 自體가 이미 獨立한 一資格을 짓기도 하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科擧의 及第를 高等文官試驗의 通過라 하면 監試의 合格은 大學의 卒業에 該當한다 하겠다. 科擧에의 階段으로서 應하는 監試를 따로 東堂監試라 이르니 東堂이라 함은 宮中의 親試處를 意味하는 말이다. 이러한 監試의 外에 高麗의 德宗初에 別途의 國子監試를 두고 三品以下官으로서 試官을 삼아서 賦 및 六韻十韻詩로서 合格者(定數는 없다)를 選出하고 이것을 進士科라 稱하고 後에 혹 成均試 또는 南省試라 일컬으니 이 監試의 合格은 製述의 進士科 出身아닌 따로 一種의 進士가 되는 셈이었다. 이 國子監의 進士試는 後에 여러번 廢復을 거듭하였지 만은 李朝로 넘어 가서는 小科란 이름으로서 設行되어 이른바 進士가 차차 이것의 專名이 되고 여기 對하여 本來의 進士科는 大科 또 그냥 文科라고 일컬어지게 까지 되었다. 또 高麗 毅宗初에 비로소 鄉貢을 말미암지 않는 國子監 入學資格者로 이른바 生員의 考選을 行하고 이것을 升補試 또 生員試라 일컬으니 升補試의 合格者는 監試에 進士로 부터 同等의 資格이었다.

恩賜科, 別頭科: 正規의 合格아닌 者에게 君主에 特旨로서 及第出身을 下賜하는 것을 恩賜科 혹 特賜第라고 이른다. 定員이 超過하여 實力이 充分하면서 落選되는 者, 多年應試하고도 數奇하여 得第치 못한 者, 父兄이 宰相임으로 避嫌하기 爲하여 有資格이되 當選치 못하는 者, 其他 그러할 理由있는 者에게 特恩으로 出身을 주는 것이다. 特賜第는 中國의 宋代에 가장 많았으니 科試때마다 그 恩典에 浴할 者를 上聞하여 이를 特奏名이라 하고 그 中에서 允許를 얻어 進士 合格者 發表에 끼어주는 것을 「附榜」이라고 일렀다. 高麗에서는 穆宗初에 進士, 明經의 十學不第한 者 및 書, 算, 地理學生의 滿十年된 者는 다 脫麻게 하니 이것이 賜恩의 始요 翌年科에 또 恩賜一人을 取하니 恩賜의 名이 이에 始하였다. 이로부터 恩例 乃至 恩賜가 가끔 있으되 常例를 삼지는 아니 하였다. 脫麻는 1에 釋褐이라고도 하여 科擧及第한 者가 賤者의 鹿衣를 벗고 官位가 진이의 文服을 입는다 함이다. 特旨賜第의 1에 別頭科란 것이 있으니 高麗 肅宗 7年 科擧에 投化한 宋進士 章忱을 召入하여 別頭 乙科及第를 特賜하고 인하여 紅牌와 鞍馬를 下賜함에 始하여 가끔 宋으로부터 投化한 進士에게 이 恩例를 베풀었다. 別頭라 함은 特別處理의 窠를 意味한이니 그 實際는 中國에서 賓貢科라 하는 것에 比할 까보다.

第5節 制科, 賓貢科

外國인이 應하는 科擧를 賓貢科라 이르니 손님인 貢士의 科라 함이다.

賓貢科는 많이 特別處理에 屬하므로써 制科의 名을 借用하기도 한다. 高麗代에 外國人の 賓貢하는 길을 터노았으나 來應한 事實이 文獻에 보이지 아니하여 宋으로 부터의 歸化文士에게는 別頭科라는 恩例를 썼다. 震域人으로서 中國의 科擧에 應하여 入選한 者는 新羅人의 唐, 高麗人의 宋, 金, 元, 明에 걸쳐서 首尾 5百50餘年동안에 그 數가 적지 아니하다.

本國에는 물론 科擧의 制가 생기지 아니 하였을 적에 일거니와 唐 穆宗의 長慶初에 新羅 金雲卿이 杜師禮의 榜下에 登第하므로 부터 唐의 賓貢科에 登第한자가 58人이요 5代의 梁, 唐科에 登第한 者—— 또 31人인데 그 姓名의 可考할 者는 23人뿐이며 그중에 僖宗乾符甲午의 裴瓊榜下에 登第한 崔致遠 같은 이가 尤라 할 것이다. 高麗人의 宋科에 登第한 者는 金行成, 崔罕, 王琳, 權適等 9人이요 金科에 登第한 者가 張良壽(壽一作素又守) 一人이요, 元科에 登第한 者가 安震, 崔灑, 安軸, 李穀, 李仁復, 李穡等 20人이요 明科에 登第한 者가 金濤——이며 李朝以後에는 賓貢으로 가는 이가 없었다. 무릇 中國의 金榜에 掛名한 이로 可考할 者가 合 1百19名이요, 姓名을 傳한 者는 53人에 不過하다.

(1) 及第의 榮華: 科擧出身의 길이 한번 열리니 國人の 이에 대한 艷慕 想望이 이미 尋常치 아니한데 國家의 崇獎이 더욱 至極하여 드디어 人生의 能事 科擧에 畢하는 줄로 알게 됨이 결코 中國에서 減하지 않았다. 光宗이 처음 進士를 試取할 때 威鳳樓에 親御하여 放榜(成積發表)한 以來로 親臨 親試를 行하기는 가끔 이었으며 放榜即時에 御前에서 釋褐시키고 다시 公服을 下賜하기도 하였으며 新及第를 引見하여 酒食, 衣服, 銀, 馬 乃至御製詩를 賜하여서 獎勵함을 보이는 일도 많았다. 新及第의 看榜에는 街路에서 張樂하여서 榮觀삼음을 許하며 新及第의 紅牌(合格證書)는 勅使로 하여금 그 집으로 傳達하여서 里閭에 榮耀케 하며 新及第의 綴行(作列行進)에는 八坊廂(市內)의 父老士庶로 하여금 笙歌와 盛服을 갖추고 隨從하여서 寵榮케 하며 新及第의 行烈은 3日 乃至 6日에 걸치는데 藍袍와 犀帶를 特賜하고 御賜花를 꽃고 蓋(일산)을 받아서 쓰고 威儀를 盛하게 하였다. 또 國家의 典禮로서 (新及第進士榮親儀)를 定하여 新及第가 歸家할 時에는 地方官이 樂工을 境上으로 보내고 또 五里亭까지 出迎하여서 諸官吏와 相見한 후 함께 그 집에 이르러 賀宴을 베풀고 父母에게 上壽하며 만일 兩親이 안계시면 養父母, 伯叔, 伯母로써 代行케 하였다.

第6節 及第者의 待遇

士子—— 讀書하여 한번 科擧의 關門을 通過하면 은갖 名門利祿이 고데 따라 왔었다. 첫째는 生活保障이다. 高麗의 國制에 무릇 製述, 明經, 明書, 算業, 醫, 卜 地理業의 出身者에게 初年에 給田하기를 甲科는 20結 其餘는 17結이요, 何論業出身의 義理通曉者는 第2年만에 給田하고 其他 手品, 雜事의 出身者도 또한 4年後에 給田하기로 되었다. 이밖에 獎勵策으로서 文宗 30년에 定하기를 무릇 州縣에서 闕榜(登第者가 나지않음)하기 30年 후 4~50년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製述, 明經의 兩大科에 登第하는 者는 給田을 17結로 하고 百年後에 登第한 者는 田 20結과 奴婢 各一口를 賜給하기로 하였다. 또 舊制에 3子가 登科한 時에는 그 母에게 歲마다 大倉米 30石을 賜給하는데 肅宗朝에 金富軾의 4兄弟가 登科함에 10石을 加賜하여서 常式을 삼았으며 仁宗朝에 定하기를 4子가 製述, 明經業에 登第하는 者는 그 父母에게 米 30石을 別賜하고 이미 死亡한 者는 超一等하여 封爵케 하였으며 毅宗朝에 定하기를 兄弟 3人이 製述, 明經科에 登第한 者는 그

父는 授職하고 그 母는 米 20石을 別賜호데 死亡한 者는 封贈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兄弟가 다 魁科를 占하는 때에는 3子登科의 例에 準하였다.

第7節 李朝時代의 科擧

科擧는 新羅때 부터 施行되었으며 本格的으로 盛行된 것은 麗末과 李朝이니 이제 그 內容을 常識的으로 記錄하기 위하여 먼저 春塘臺부터 다음과 같이 紹介하기로 한다.

(1) 文官試驗場所 春塘臺

春塘臺는 昌慶苑안에 있으니 漢陽朝 5百年동안 文官試驗을 흔히 이곳에서 舉行하였다. 只 今은 그臺가 헐리고 터만 남았는데 博物本館의 後面으로 水亭池의 南端에 이르는 一帶의 地가 곧 그것이다. 옛날 朝廷에서는 文武官吏를 採用할때는 반드시 먼저 試驗을 보았는데 이 官吏 採用試驗을 그때 科擧라고 일컬었다.

科擧法이 朝鮮에서 始作되기는 高麗 光宗 9年 戊午이니 光宗께서 後周 歸化人 雙翼의 建議를 따라 科擧法을 創設하였다. 朝廷에 文武 兩班의 別이 甚하여진 것도 이 科擧法이 생긴 後의 일로서 科擧法이 朝鮮人에게 대하여 利益을 끼쳤는가 弊害를 끼쳤는가 어느편이 더 많은가 이는 容易하게 斷言할 수 없거니와 新羅 固有의 花郎制에 比較하여 볼때 科擧法이 文藻에 偏重하는 缺陷이 있는 것 만은 事實이다.

完美한 制度도 오래 되면 弊害가 생기거든 하물며 最後에 와서는 科擧法을 運用하는 그 사람들과까지 公憤되지 못했음으로 弊害가 더욱 甚하여졌다. 이 弊害 많은 科擧法을 甲午更張時에 廢止하게 된것은 理勢의 自然한 바라 할것이다. 그러나 科擧法이 光宗의 創設로 부터 高宗의 廢止에 이르기까지 거의 940年間이나 持續하여 오든 制度이니 만치 우리가 그의 內容을 한번 알아보는 것도 아주 無益한 일은 아닐까 한다.

科擧는 3년에 1次씩 보는것이 正式이었으나 이 正式밖에도 여러가지 名目下에 臨時로 보는것이 많다.

科擧에 小科, 大科가 있으니 요사이 말로 하면 小科는 普通考試이고 大科는 高等考試라고 할것이다. 어쨌든지 小科, 大科를 通하여 각기 初試 覆試가 있어서 小科의 初試 및 覆試(會試)에 入選하면 生員進士가 되나니 生員進士가 되면 곧 大學生(成均館留齊生)의 資格을 갖게 됨으로 이 意味에서 小科가 普通考試보다도 차라리 國立大學校 入學試驗이라 하는 편이 도리어 알아 듣기 쉬울런지 모른다.

그러나 事實에 있어서 生員進士가 반드시 大學生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는 參奉같은 初仕를 하고 南行(俗說로 大科及弟 아니하고 守命으로 나가는 것을 이룸함이니 그 語源이 未詳하나 或은 高麗의 兩班에서 올라온 것이 아닌지도 모르겠다)으로 나아가는 이가 흔했는데 近世에 올수록 이 傾向이 甚하였다. 小科는 대강 이러하거나와 大科 即 高等考試는 어떠한가? 上述한 바와 같이 大科에도 初試 覆試(公試)로 나누는바 初試의 受驗者는 꼭 定員이 있는 것이 아니라 覆試의 受驗者는 定員이 있었으며 大科의 覆試를 應함에 有資格者는 小科를 치룬 生員 進士이지 마는 반드시 그런것도 아니다. 그러나 한번 大科에 及第하면 곧 高等文官이 되었다. 여기 注意할 것은 科擧보이는 名目を 따라 到記制(承旨가 成均館大學生을 적어다가 보이는 科擧) 謁聖制(임금께서 文廟에 拜謁하실 때 成均館에서 보이는 科擧) 節日制(正月 8日制, 3月3日制, 7月7日制, 9月9日制, 黃相制), 增廣制(國家 大小慶事가 있을때 보이는 科擧), 其他 別試等이 있었으며 科擧人의 特殊資格을 따라 製述科 明經(講經)科밖에 賢良科(德行있는 學者를 庸用하는 科擧, 趙靜庵때 있었다가 곧 없어졌다)

第2編 政治 및 行政

忠良科(丙子年 特히 3學士 子孫을 爲하여 設한 科擧)等의 名目이 있었다. 그리고 科擧보이는 場所로 말하면 꼭 一定한 것이 아니라 小科會試는 禮曹와 成均館이 아니면 3軍府와 禁衛營(現雅樂府)으로 充當하기도 하였으며 大科會試에 特히 임금께서 親臨하사 庭試하실 때는 景福宮위의 景武臺가 아니면 昌慶宮안의 春塘臺이어서 前者보다도 後者가 年代가 오래니 만큼 많이 使用하게 된 것이다. 비록 오늘날 와서는 이 두 臺가 모두 없어지고 빈터가 되었으나 오히려 살펴보면 옛 자취를 어렵푸시 짐작할 것이다.

前記한 바와 같이 科擧에는 文科, 武科, 雜科의 別이 있는데 文科試驗에 應試하는 者는 幼學이라 稱하고 武科 乃至 雜科試驗에 應하는 者를 閑良이라 稱하였다.

文科에는 講經, 製述 2科로 나누어 있는데 講經은 四書三經의 暗誦을 試驗함이고, 製述은 詩, 賦, 表, 策, 論議, 疑의 文章을 짓는 것, 그리고 雜科는 外國語, 醫科, 陰陽, 律科, 이런 것인데 文科中 重要한 科試의 名稱과 그 行事를 다음과 같이 概說해둔다.

(2) 式年 監試

施行期 式年(子午卯酉)의 前年 即 亥巳寅申年의 8月(國家에 事故 있으면 延期하고 國喪 3年中은 施行하지 않는다)

施行地 서울 및 各道(除京畿道) 但 忠淸, 全羅, 慶尙, 平安 4道는 左右 或은 南北으로 나누어서 1道 2個所로 한다.

(3) 應試者의 資格

(가) 年15歲 以上으로서 照說帖을 가진者, 照說帖이라 하는 것은 監試 施行前에 서울에서는 1所, 2所에 試驗委員을 定하고 地方에서는 郡守 앞에서 四書暗誦試驗을 치루고 合格하였다는 證明書이다. (지금의 豫備考查와 같다)

(나) 式年以外의 諸科試에서 「付之監試榜末」의 傳敎 即 王命을 받은 者.

試題: 初場에는 詩, 賦를 課하고 終場에는 義疑를 課한다. 初場이라는 것은 試驗의 第1日 終場이라 함은 隔1日의 第2日이다. 初場을 받던가 終場을 받던가 그것은 受驗者의 自由이다.

試取: 서울 및 各道一定의 數에 依하여 通計 1千名을 取한다. 이것을 生進初試合格이라 稱하고 翌年의 監試覆試에 赴하게 하는 것이다.

(4) 式科 東堂

施行期: 式年監試終年後, 同年 9月(事故있으면 延期)

施行地: 서울 및 各道(除京畿道)

應試者의 資格: 平素 經書 暗誦의 素養 있는者.

試題: 論, 義, 賦, 表, 策의 中 一題를 隨意 選擇한다.

試取: 서울 및 各道의 通計 1百人을 取하여 이를 大科 初試合格이라 稱하고 翌年의 東堂覆試에 赴하게 한다. 監試覆試(一名會試)

施行期: 式年 即 子午卯酉年의 2月(事故있으면 延期)

施行地: 서울

應試者의 資格

(1) 前年 서울 及 各道監試 初試에 合格하고 照說帖이 있는者.

(2) 前에 監試 初試 合格者로서 自己 事故에 依하여 前覆試에 나가지 못하 者.

(3) 式年以外의 諸科試에서 「付之監視覆試榜末」의 傳數를 받은 者.

(4) 式年以外의 諸科試에 初試 合格者.

(5) 鄉校 覆試 合格者

試題：初場(初日)은 詩, 賦 終場(隔一日)은 義疑로서 初場의 初試는 初場을 받고 終場의 初試는 終場을 받아 兩場 初試는 兩場을 다 받는다.

試取：初場 終場 合格者中에서 合計 2百人을 選拔하여 終場의 者를 生員 初場의 者를 進士로 稱한다.

(5) 東堂 覆試

施行期：式年即 子午卯酉 3月(監試 覆試 終了後)

施行地：서울

應試者의 資格：

(1) 前에 東堂 初試 合格者로서 事故로 因하여 覆試에 나오지 못한 者.

(2) 前年 서울 및 各道 東堂初試 合格者.

試題：7書(論語, 孟子, 中庸, 大學, 詩經, 書經, 易經)中에서 1章의 暗誦, 朗讀(音讀, 訓讀)及 文義의 問題.

試取：通計 30人을 取하여 殿試에 나가게 하며 여기에 合格하면 大科及第가 된다. 殿試는 試庭에서 的科試를 보아 各科試에 合格하여 大科候補者에 合格하여 大科候補者가 된 者를 모아서 受驗하게 하는데 이것은 하나의 形式的 試驗에 머무르고 그 實은 殿試에 나가게 되면 벌써 大科及第로 認定되었다.

이 以外에 增廣, 別試, 庭試, 謁聖, 應製, 節目製, 到記, 目次, 陞補, 忠良科, 耆老科, 宗親科, 重試等 諸種이 있는데 그 중에서 重要한 것만 뽑아서 그 概要를 解說하면 다음과 같다.

○ 增廣科：主上登極, 王子誕生 外 嘉禮같은 國家에서 큰 慶事가 있을 때, 또는 그런 慶事가 아니더라도 1시에 세가지 慶事가 있을 때에는 所謂 3合慶이라 하여 臨時로 보는 科擧이다.

○ 庭試：亦是 慶科인데 特別히 보일 程度가 되지 못 하는 科擧

○ 別試：增廣科같이 國家慶事가 있을 때 特히 보이는 科擧이나 增廣때 보다는 그 程度가 조금 적은 경사이다.

○ 謁聖：主上께서 孔子廟(成均館)에 參拜하실 때에 施行하는 科擧이다.

○ 應製：主上의 患候가 平復되시거나 王世子의 誕生日 및 百日인 적은 慶事에 비이는 科擧이다.

○ 覆試：글자 그대로 두번째 보는 試驗이다.

○ 殿試：殿庭에서 보는 科試이다.

○ 式年：子午卯酉년에 定期的으로 보는 科試이다.

高麗, 李朝를 通하여 이루어진 科擧制度를 다시 上述한 바와 重復되는 點이 不無하나 좀더 昭詳하게 說明하기 爲하여 崔 南善著「朝鮮常識」에 依하여 다음과 같이 特記로 한다.

(6) 慶科, 泮製.

正規 以外에 國家의 慶事때마다 隨時 施行하는 이른바 慶科가 여러가지 있다. 即位, 嘉禮, 元子誕生降等 大慶의 時 후 果慶의 時에 特說하는 것을「增廣」이라고 하고 그 보다 사소한 慶事로 設行하는 것을「別試」라 하고 그 보다 小慶의 時에 殿庭에서 設行하는 것을「庭試」라 이르고 그 春塘臺에 特說하는 것을 春塘臺試라 일렀다. 그 內容과 節次는 대강 式年과 같았다. 慶科는 뒤에 이르러 크게 汎濫하여 거의 年年 후 1년에 數次까지도 設行하는 일이 있었다. 이밖에 특히 成均館과 및 四學의 儒生을 應試資格者로 하여 特旨로서 設行하는 것을「謁聖科」라 하고 그 理단한 理由가 있을 時에 特히 試題를 내어주어 應試케 하는 特科를 「館學儒生應製」略하여 「應

第2編 政治 및 行政

製라 이르고 正月 8日, 3月 3日, 7月 7日, 9月 9日等 名節에 特施하는 科擧를 통틀어 「節日制」라 이르고 每年末에 濟州로 부터 黃柑의 進上이 올라오면 遠方의 珍貢이라 하여 이것을 館學 儒生에게 頒賜하는 同時에 科擧를 特設하여 「黃柑製」라 이르고 또 每年 春秋에 成均館 食堂 出席의 成績을 가려서 試取하는 것에 「到記科」란 것이 있었다.

이러한 特設科도 대강 慶科와 같되 다만 製述에 依하고 講書를 除함이 다르며 館學儒生 以外의 士子를 여기 參加케 하던 그것을 「通方外」라 일렀다.

(7) 親試, 覆試, 殿試

君主가 몸소 考試에 當함을 親試 혹은 親策 또 御試라 이른다. 高麗에서는 設科한 以後에 대개 考試의 官을 特命하여 이를 맡기지만은 혹은 寵異를 보기 爲하고 혹은 慎重을 期하여 君上이 試取를 親主하는 일이 있었다. 이를테면 光宗의 次인 景宗 2年에 東池의 龍船에 御하여 進士를 親試한 것은 前者요 또 그 次代인 成宗 2年에 「臨軒覆試」 혹은 「簾前重試」를 行한 것은 後者에 屬하는 것이다. 臨軒이라 함은 試場에 親臨한다 함이요 覆試(혹, 重試)라 함은 한번 考試한 者를 再考試함을 이룸이니 물론 精密하기를 期함에서 나온 것이다. 親試와 覆試에는 의례히 詩賦를 試하였다. 文宗朝에는 太子로 하여금 進士를 覆試케 한 일도 있었다. 그러나 親試와 覆試는 다 常制는 아니었다. 恭愍王 18年에 이르러 李穡이 知科擧할새 元朝의 鄉試, 會試, 殿試의 3段 考試制를 採用하여서 常式을 삼게 하니 各 地方에서 뽑아올린 貢士를 中央에서 合하여 考選하고 이 考選한 結果에 對하여 君主가 等第를 먹이는 宋 以來의 考試通制이다. 殿試는 1에 庭試 또 廷試라고도 쓰니 다 宮中御試에서의 考試를 이룸이다. 禡王 時에 한때 三試制를 廢하였으나 얼마 안되어서 復用하였으며 李朝에서도 이것을 承襲하여 드디어 科擧에는 반드시 君主가 臨監하는 正式이 되었다.

(8) 外方別科

서울에서 隔遠한 地方의 儒生을 試取하기 爲하여 重臣을 別遣하거나 혹은 그 道의 監司에게 命하여 舉行케 하는 地方性의 科擧를 道科라고 이르기도 한다. 主로 西北兩道 및 濟州島에서 設行함이 그 本旨이었다. 曾往에도 君主의 巡幸地에서 科擧를 보여 人心을 사는 일이 있었으니 이를테면 世祖께서 平壤, 江陵, 溫陽에서와 宣祖께서 義州, 海州에서와 仁祖께서 江華에서 등과 같으며 또 朝廷關係의 記念할 事實이 있는 境遇에 該地方에 設科한 例에는 光海 6年에 慶基殿을 重建하였으므로 全州에 設科하고 仁祖 7年에 太祖의 影幀改繪에 因하여 그 奉安地인 江陵, 永興, 平壤에 設科한 등 其他가 있다. 이러한 1州郡 或數州郡달고 1方面의 諸州郡을 一括해서 特別한 科擧를 보이기는 仁祖 20年에 大亂後 人心慰悅策으로 平安道의 儒生을 往試한 것이 道科 및 關西 그것의 試요, 孝宗 4年의 慶科에 路遠한 事情에 살피 따로 北道에 設科한 것이 關北道科의 始요, 顯宗 5年 御史를 濟州로 보내어 民情慰問과 함께 試士한 것이 濟州道科의 試요, 英祖 2年에는 以上の 外에 江華別試를 設하였다. 外方別科는 西北兩道 及 濟州, 江華等處에 特旨있을 때 設行되되 重臣이 가는 때에는 現地에서 放榜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試券을 서울로 가져다가 大提學이 科次하였다. 北科는 吉州, 西科는 安州에서 보임이 通例였다.

(9) 文 科

文學으로서 出身하는 科擧, 보통 科擧라 하면 바로 文科를 가르침이 되도록 科擧中에 가장 重視되는 것이다. 文科는 自來로 製述, 明經의 3種에 나누이나 그 중에 더욱 崇尚되는 것은 製述이었다. 무릇 科試는 製述, 明經 어느 科든지 初試에는 다 3次의 考試를 치루어서 成績을 定하니 이것을 3場이라고 이르며 覆試에는 製述은 中場 終場 明經은 初場만 치루고 殿詩는 單場이었다. 3場에서 考試하는 科目은 時代에 따라 若干의 變動이 있거니와 이제 經國大典 乃至 大典會

通에 나타난 李朝一代의 通制라 할것을 말하건데 製述科는 初詩의 初場에 五經四書疑, 義, 論 3者中의 2篇, 中場에 賦, 頌, 銘, 箴, 記 5者中의 1篇과 表, 箋中의 1篇 終場에 對策 1篇을 보며 覆詩에는 初場 없이 中場, 終場에 初試의 것을 한번 더 보며 殿詩에는 對策, 表, 箋, 箴, 頌, 制, 記中의 1篇을 보았다. 明經科는 李朝에서는 經 以外에 子史도 넣으므로써 講書라고 이르고 俗에는 講經科라고 이르니 初詩, 覆詩를 通하여 單場으로 하여 初詩에서는 四書 五經으로 하되 志望을 따라서는 餘二經이나 子, 史等 書로서 代하기도 하였으며 이 科에는 반드시 殿詩까지를 보지 아니하였다. 製述, 講書를 합하여 覆詩에서 33人을 取하여 殿詩에 甲科 3人, 乙科 7人, 丙科 23人으로 等第함이 原則이었다.

(10) 生員, 進士

讀書의 士人이 地方에 있는 最初 國家試驗 곧 鄉試에 合格한 것을 「監試初試」略하여 初試라 이르니 初試는 每次에 各地方 都合 1千人을 選出하였다. 地方의 1千初試를 中央으로 모아다가 成均館에서 第2次試驗, 곧 覆試(또 이르되 會試)를 보여 合格者 2百을 考選할 새 初場의 詩賦에 合格한 者를 進士라 이르고, 終場의 經書疑義에 合格한 者를 生員이라 이르니 進士라 함은 士流에 參列하게 된 資格을 얻었다 함이요, 生員이라 함은 成均館의 學生 또 研究員이 되었다 함이다. 그러나 進士와 生員은 實際에 있어서 同一한 것이요, 특히 進士는 製述로, 生員은 明經으로 똑같이 文科에 應하게 된 資格者임에서 그러하다. 進士는 中國에 있어서는 文科出身의 稱號요 震域에 있어서도 進士가 下級官吏에 就職하는 資格이 되기도 하니 그러므로 이것을 小科 또 小成이라 하여 進士만으로서 滿足하고 더 進取하지 않는 風이 있게 되었으며 더욱 近世에 科學가 勢家의 籠絡을 받게 됨으로 부터는 鄉曲應舉人의 目標은 거의 進士를 맞춤이었다. 일변 進士가 士人의 榮稱으로 차차 普遍性을 가지게 되자 生員은 一般으로 일것기를 싫어하여 生員, 進士 할 것 없이 한결같이 進士의 稱呼를 쓰고 마침내 生員은 俗에 士子의 年老者를 通稱하는 말이 되어서 今일에 이른다.

(11) 重 試

科學에 及第한 이의 繼續精進을 激勵하기 爲하여 設行하는 特別考試 文獻備考의 選舉에는 高麗 睿宗 17年에 王이 紗樓에 御하여 文臣等을 召入하여 刻燭하고 牧丹詩를 賦케 하여 等第를 매긴 것으로서 文臣重試의 始라고 하였다. 李朝에서도 科後 獎勵에 對하여 크게 用心하여 世宗 丁未에 특히 文武科 初重試의 法을 세우고 곧 實施하여 3月 14日의 初場은 表, 16日 終場은 策을 試하여 一等 成 三問을 爲始하여 金淡, 李塏, 申叔舟, 崔恒, 朴彭年, 李石享, 宋處寬, 柳誠源, 李克堪等 一時의 巨擘이요 徐居正, 李賢老와 같을 名士도 다 落榜하므로써 매우 유명하다. 經國大典 乃至 大典會通에 「文科 10年一重試, 堂下官許赴, 額數試法, 監時稟旨, 文科同」이라 하였다. 世宗朝에 重試를 始始할 때에는 梅陽 丁年으로 設行하더니 後에는 丙年으로서 例를 삼았다. 芝峰類說에는 唐末人 褚載의 「賀趙觀文重試及第詩의 一枝仙桂兩回春, 始覺文章可致身」을 引用하여 가로되 李朝의 文科 重試가 代게 唐制에 本한 것이라 하였다.

(12) 拔英試, 登俊試

李朝 初葉에 있어서는 内外의 情勢에 應하여 人物의 作成에 致意함이 컸다. 世宗朝에 이미 重試로서 卑級文臣을 勸獎한 바 있었거니와 世祖朝에는 다시 一步를 내켜서 宰相, 宗親에게도 實力再練成에 精進할 科試를 課하게 되었다. 곧 世祖 丙戌 5月에 拔英試를 베풀고 文臣 正二品 以下 百數十人으로 하여금 赴試케 하여 策, 頌, 賦, 詩의 各기 能한 바를 製進케 하여 그 중의 34人을 考選하시고 恩寵과 禮數——科學에 지나게 하시고 放榜日에는 勤政殿에 臨御하시어 朝賀를 받았었다. 다시 그해 7月에는 登俊試를 베풀고 公卿, 宰輔 乃至 宗親까지 志願者를 다 赴試케

第2編 政治 및 行政

하나 宰相, 宗親의 赴試는 實로 前古에 없는 바이며 그 教旨에 가로래 「卿等自恃官高祿厚, 不復留意於學問, 文風不振, 職此之由, 豫發此試, 使卿等更礪舊業耳」라 하셨는데 策題에 對한 者 30餘人에서 金守溫等 12人을 뽑으니 廣平大君의 子 永順君 溥가 2等에 끼었다. 世祖께서는 登俊試와 合格者를 內庭으로 召見하여 가로되 古에 座主文生의 禮가 있나니 이 科에는 내가 恩門이 오라 하시며 갖가지 寵榮의 典이 比할데 없었다. 成宗 壬寅에 進賢試를 設行한것도 上來의 趣意에 依한 것이다. 이것들은 다 後來의 準例가 되지 아니하였으되 英祖 甲午에 勤政殿 舊基에 이르러 登俊試를 行한 일이 있다.

(13) 局限性的 諸科

科擧는 立身發迹의 길을 주는 것인데 國家가 特殊待遇하는 階級에 對하여 科擧에 드는 別途를 배풀음은 또한 不得已한 일이다. 李朝에 있는 이러한 種類의 科擧를 보건대 첫째 王室 全州 李氏의 近族단이 보는 것에 宗親科라는 것이 있다. 宗親은 政治에 干與치 못하게 하는 主義로부터 본래 應擧를 許치 아니 하더니 世祖朝에 이 禁을 트고 成宗朝에 다시 막혔다가 인하여 宗親단의 別科를 만들어서 그 式年을 文武科式보다 退一年하여 設行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每式年에 반드시 設行하지 못한 것은 勢이었다. 그 다음 忠良科란 것은 英祖 甲申에 崇禎甲申의 明亡을 紀念하기 爲하여 抗淸으로 死亡한 者와 明遺民의 子孫을 爲하여 特設한 科擧이었다. 同 丁亥에 上이 世孫을 테리고 親耕禮를 하시고 坤殿에서 처음으로 親蠶禮를 行하시니 이 盛事를 紀念하기 爲하여 特히 設科하고 이르되 耕蠶科라고 한 것이었다. 이것들은 局限性的의 諸科中에서도 더욱 一時的의 것이다. 英祖 32年 丙子에 母后의 7旬과 上壽의 望七을 祝하기 爲하여 特히 文武六十以上을 應試케하여 各 若干人을 取하고 이를 耆老科(후 耆耆科)라 이르니 이것은 이 뒤 朝廷에 壽慶이 있을 때면 가끔 設行하되 年 얼마 以上은 臨時酌定을 하였다. 以上の 諸科는 大개 範圍가 局限되고 또 國家의 常典이 아님으로서 一致하는 것이다.

(14) 科擧의 實際

科擧보이는 處所를 場 또 場中이라 하나 大개 二處로 하여 試官으로 더불어 嫌避理由있는 者가 그렇지 아니한 別處로 往赴하기에 便케 하고 監試의 會試에 應擧者가 많은 境遇에는 處所를 더 늘이기도 하였다. 이것을 一所, 二所 乃至 三所라고 일렀다. 그리고 一所가 三場일진대 初場에 合格한 者를 中場에서 終場으로 넘겨쳐 最後에 及落을 定하는데 赴門, 入場, 懸題, 呈券, 收券, 作軸, 考試의 여러 階段의 것이 되풀이 되었다. 그리하여 等第(合格)된 者는 「折封」 곧 試紙의 着名嚴封處를 뜯어 보고서 그들을 列名하여 掛榜 곧 合格者 揭示를 한다. 여기 參榜한 者는 이른바 登龍門한 人生的 勝者로 一世艷羨의 標的이 되는 것이다. 正式의 成績發表를 放榜이라 하여 即日放榜도 있고 數日을 지낸 他日에 放榜되는 일도 있는데 監試 合格者 곧 小科한 이에게는 白紙에 쓴 合格證書, 곧 白牌를 文科及第者 곧 大科한 이에게는 紅紙에 쓴 合格證書 곧 紅牌를 朝廷으로부터 받고 인하여 及第者는 謝恩이라 하여 御前에 肅拜를 하며 이와 同時에 榮光스러운 새로운 及第生活이 展開된다. 及第者의 紅紙題名은 宋으로 부터 그러하고 高麗, 朝鮮을 通하여 또한 紅牌를 例用하였지만은 다만 高麗 忠烈王時에 趙簡이 及第 第1人이 되매 黃牌를 주었다 함이 史에 보이기도 한다.

第8節 科擧 登第 人物錄

(1) 高麗 時代

高麗時代: 舊道誌에 依하여 高麗文科 及第한 分으로 이 고장 出身을 다음과 같이 뽑아 轉載한다.

- ① 元 徵衍 高麗 己卯年에 文科 登第하여 官이 左僕射에 至하다.
 - ② 元 傳 高麗 忠列王時에 文科 登第하여 官이 中贊에 이른다.
 - ③ 金 濤 延安人 四門博士 暹溪人으로 高麗 共愍王時에 文科 登第하고 官이 密直提學에 이른다.
 - ④ 金 自知 濤의 子로서 麗末에 初試 及 大科 壯元及弟하여 李朝 太宗朝에 平安道伯 開城 留守 刑判 等を 歷任하였고 少時에 牧隱, 圃隱, 三峰 諸 先生에게 修學하였으며 詩文이 卓越하며 謚號를 文貞이라 하였다.
 - ⑤ 金 汝知 濤의 子로 科登第하여 官이 兵判에 이른다.
 - ⑥ 元 松壽 麗末에 文科에 及弟하여 官이 政堂에 이른다.
 - ⑦ 邊 頭 麗末 禔王時에 登第하니 官이 判事에 이른다.
 - ⑧ 洪 葛朝 肅宗朝에 登科하여 留守 監司를 歷任하고 後에 敦寧에 이른다. 鄭 錫衡 權 彭圭 李碩祚도 같다.
 - ⑨ 金 源 號는 晚村이니 肅宗 壬戌年에 登第하여 官이 敦寧에 이른다.
 - ⑩ 洪 重徽 東岡隣後人으로 肅宗朝에 登科하여 江原道都事를 歷任하였으며 文章이 卓越하여 鳴世하였다.
 - ⑪ 韓 以原, 丁 時潤, 韓 命相, 元 治道, 丁 思愼, 鄭 宇柱, 鄭 漢柱, 丁 道明, 元 治寅, 李 碩, 丁 道徽, 丁 道復, 申 鐔, 鄭 一寧, 鄭 雲柱, 金 相尹, 金 相爽, 韓 德厚, 元 彥容, 李 景遠 (以上 모두 登第)
 - ⑫ 金 綺秀 高宗朝에 登科하여 吏參에 이르렀으며 丙子年에 日本修身使로 遣使하였고 清涼 副使를 歷任하였다.
 - ⑬ 金 晚秀 高宗朝에 登科하여 全權公使를 歷任하다.
 - ⑭ 金 世基 高宗朝에 登科하여 官이 左承旨에 이른다.
 - ⑮ 吳 炳文 高宗朝에 登科하여 官이 左承旨에 이른다.
 - ⑯ 丁 俊教 羅州人 高宗朝에 登科하여 官이 判尹에 이른다.
 - ⑰ 高宗朝 登科 韓 正愚, 丁 奎會, 申 錫禧, 鄭 顯英, 趙 翌文 高麗 光宗戊午年에 登科하여 官이 翰林學士에 이른다.
 - ⑱ 趙 永仁 高麗 毅宗朝에 登科하여 明神兩代에 重臣으로 太師 平章事에 이르고 眼昏으로 乞退하며 謚號를 文景이라 내리었다.
 - ⑲ 趙 仲 高麗 毅宗朝에 登科하여 官이 翰林에 이르렀으며 文武兼持하였고 高麗 高宗朝에 女眞軍討勲功이 有하며 贈門下侍中하였고 謚號를 文正이라 내리었다.
- 鄭 顯裕 哲宗 庚申年 登科 官至 大司成
 鄭 顯五 高宗 戊子年 登科 官至 校理
 金 學模 高宗 甲午年 登第 官至 注書

(2) 國朝榜目捷覽

李朝 500年 동안 大科 及第한 分을 다음 捷覽表에 記錄하였으나 이 國朝榜目에는 原州居住가 確實한 分만을 적는다.

姓名	本貫	時代	科種	歷官
丁 思愼	押海	肅宗	乙科	參議
丁 錫天	羅州	英宗	丙科	持平
丁 範祖	"	"	甲科	

第2編 政治 行政

丁 庠教	羅州	翼宗	丙科	
元 汲	原州	仁祖	乙科	奉圭
元 格	"	孝宗	丙科	郡守 通政
元 橋	"	"	"	縣監
元 振澤	"	"	"	參議
元 檄	原州	顯宗	丙科	掌令
元 致道	"	肅宗	乙科	
元 有朋	"	純祖	丙科	
申 弼誨	平山	肅宗	"	
申 在和	"	正宗		
申 用淵	寧海	純祖		
申 泰東	平山	當寧		
安 基元	順興			
朴 泰三	羅州	肅宗	"	晉州牧使
朴 震亮	密陽	"	甲科	兵佑縣監
朴 宗潤	密陽	肅宗	丙科	
朴 東一	"	英宗		
成 道亨	昌寧	肅宗	"	利仁察 訪說書
成 好謙	"	純祖	乙科	
李 時楨	益興	宣祖	甲科	掌令
李 奇英	慶州	仁祖	丙科	判官
李 惟源	原州	"	"	郡守
李 尙翼	惟涸	顯宗	"	兵正
李 碩祚	原州	肅宗	"	郡守
李 九齡	全州	"	"	承正
李 弘德	韓山	英宗	乙科	掌令
李 重玉	原州	"	丙科	文兼
李 重翼	"	"	"	未分館歿
李 馨德	韓山	"	"	持平
李 英植	咸平	純祖	乙科	
李 應信	德水	"	丙科	
李 魯奎	韓山	翼宗	甲科	
李 建春	延安	憲宗	乙科	
辛 述	靈山	仁祖	丙科	
金 光遇	金海	英宗	"	持平
洪 葛紀	豐山	肅宗	丙科	承旨南陽府使
洪 重孝	"	英宗	甲科	刑判大憲
洪 秀輔	"	"	丙科	三司刑參 近伯
鄭 榮國	盈德	宣祖	丙科	通政海特 號灌園
鄭 熙普	草溪	英宗	甲科	兩年忠監 參判都承旨大諫
韓 以原	谷山	肅宗	丙科	掌令

韓 光植	清州	正宗	〃	三司
權 彭老	安東	肅宗	乙科	司藝
權 龜老	〃	〃	丙科	司藝
權 準	〃	英宗	〃	禮正

(3) 捷覽外의 人物

備考：以上 國朝榜目에 빠진 分을 다시 文科及第한 人物 한사람 한사람의 略歷을 다음과 같이 附記한다.

金 末孫·元 克成：李朝初葉 登科

邊 脩：太宗朝 登科 兵使를 歷任하고 武功으로 原陽君을 封하고 諡는 襄胡이다.

鄭 允謙：草溪人 成宗朝 登科

李 興門：陽城人 登科備邊郎을 歷任

金 毅一：明宗朝 登科

邊 洽：登科 統制使를 歷任

李 後望：登科 宣傳官 郡守歷任

邊 協：宣祖朝登第 宣傳官을 歷任하고 後 兵曹判書에 이른다.

李 允新：仁祖朝 登科 官至 統制使

金 俊龍：武科登第 官至 兵使

邊 應星：仁祖朝 登第 官至 判尹

黃 徽：尙州人 顯宗 己酉年 登科 官至 禦將 文武兼備

金 載奉：慶州人 肅宗朝 登科

崔 直章：肅宗朝 登科 水使歷任

鄭 運采：海州人 肅宗朝 郡守歷任

洪 和輔：豐山人 英祖朝登科 黃海 兵馬使를 歷任

鄭 岐源：延日人이며 武科 登第後 宣傳官 三道統制使 江華留守를 歷任하다가 官은 嘉善大夫 五衛都摠部都摠官에 至하다. 特히 三道統使를 지낼 때에는 爲民善政이 顯著하였으므로 萬人傘을 받았으며 江華留守 在勤時에는 洋擾를 막는데 功이 컸으므로 大院君께서 下賜한 十二間繡屏風을 받았다. 身長이 九尺이며 聲力이 過人하여 特히 射御에 有名하다 72에 下野 84歲에 卒하다.

(4) 司 馬

至今 같으면 普通考試에 合格한 分을 말함인데 한분 한분의 行蹟 全部를 記錄하는 煩廢를 避하고 다만 여기에는 그의 名單만을 列記하기로 한다.

元 肅	元 晁	元乃仁	元自敦	金自知	元孝然	邊尙會	元 湜	金友臣	元叔康	元甫崙
丁子伋	蔡承孫	元 穎	金 訴	蔡雲龍	金 詮	朴 權	韓 汲	金安老	宋麒壽	蔡 忱
元繼儉	丁應斗	元虎燮	鄭宗榮	邊永清	權以仍	鄭 燾	元碩興	元 銳	李 墜	宋應概
金應南	李達亨	沈喜壽	元士安	韓孝純	韓浚謙	崔鳴吉	元士宗	金履元	崔文潑	金梯男
丁好寬	丁好善	黃以翼	丁彥璜	韓重謙	韓德一	韓興一	蔡 得	尹汝徵	元 汲	元海益
韓錫明	元振海	元克仁	蔡翊俊	元振演	金思哲	鄭基豊	崔文澳	李時菴	李藏龍	丁彥瑗
李玄福	李震防	韓以成	韓泰一	李命說	鄭重泰	韓瑞相	陸林一	韓用明	韓益相	元 紱
丁時翰	宋道昌	李瑞雨	崔東老	元振澤	李英謙	丁道元	李德齡	崔東準	丁道謙	黃 徽
丁思慎	崔道煥	洪萬紀	李斗齡	李大齡	李元齡	李齊明	洪重厚	洪重孝	李 磧	洪來輔

第2編 政治 및 行政

韓器明 李廷揆 李奎章 李弘觀 鄭一寧 黃允謙 洪處輔 金命胃 李光庭 丁永慎 金相尹
 李景遠 黃 嶠 李 畚 丁志寧 黃 瓚 黃 瑜 丁志濂 金 煜 韓光植 丁範祖 金載瓚
 洪芳輔 洪仁浩 韓處相 李胤祐 李 蕃 韓宗王 韓光傳 崔守魯 李夏亨 丁述相 韓世日
 韓光善 韓光高 洪義浩 韓致應 蔡義重 韓光哲 丁若履 韓致迥 金 鎔 洪必謨 金始淵
 韓泰定 丁義命 丁義性 丁義升 丁夏教 權鎮寓 丁惠教 韓啓源 韓鎮序 丁大祖 韓敦源
 丁大麟 韓鎮宅 韓敏源 李熙益 丁普燮 韓鎮庠 韓始東 李肯淳 黃宗垈 丁理燮 韓敦源
 李命源 丁奎達 金鎬達 蔡淳億 丁興燮

(5) 備 行

※ 金 悌男: 領相 詮의 曾孫으로서 宣祖 乙酉에 生員이 되었고 連川縣監을 지내다가 文科別試에 合格하여 吏曹佐郎이 되었고 官은 領敦寧에 이르렀다가 府院君을 受封하였다. 光海 癸丑年에는 禍를 避하기 爲하여 隱身하였다가 仁祖 癸亥에 다시 復官하였으며 諡는 懿愍이며 左相 淸陰 金尙憲이 이 行狀을 撰하다.

(6) 文 學

※ 李 越: 南部令 希伯의 後人이며 宗簿 令璘의 曾孫으로 雉岳山 峽에 있는 葛村에 隱居하여 山水를 玩賞하고로서 自娛하였으니 사람들이 葛村處士라고 稱하였다.

元 鍊: 耘谷 天錫의 後人으로 어려서 부터 孝友가 尤篤하고 琴書로서 自娛하며 官에 나가는 것을 不仕하여 많은 敬服을 받았고 戶參을 贈하였다.

※ 郭 昌禎: 號는 海村 東陸 承振의 孫으로 天姿가 純粹하고 實踐力이 強하였으며 性理學을 探究하여 한 때 著名하였다. 그리고 後進 育成에 全力을 다 하였으므로 많은 推重을 받았으니 遺稿가 있다.

※ 金 昌一: 號는 四寒 慶州人 參議 永源의 玄孫으로 일찌기 暢庵 金 謹恭을 따라 工夫하여 禮試에 累選되었다. 不應覆試하고 崔 守愚를 師事하여 日益精進하였다. 行實이 高潔하니 宣祖 불러서 齊郎을 累除하였으나 不就하다. 己丑之獄에 많은 讒비가 禍를 입었으나 乙未改掌後 公은 洪川, 高山, 高敞, 金溝, 安岳, 淸道等 諸郡縣의 宰를 歷任하니 到處에 有善政碑하다. 일찌기 陝川의 守를 지낼때 贊成 鄭仁弘은 陝川 出身이라 장차 國命을 얻어 用事人多할 재 諸人이 可畏하다. 唯獨 公만이 正義의 大道에 서서 올바른 公事를 보다. 뒤에 官을 同樞에 올랐으며 王政을 陳疏하였으며 文集이 있다.

※ 崔 廷吉: 全州人 文章이 卓越하고 行義가 高潔하였으며 丙子胡亂이 일어난 後 科擧에 應試하기를 拋棄하고 隱居하여 門徒들을 모아놓고 訓導를 하였으니 모두 西洲先生이라고 불렀다.

※ 金 道凝: 號는 養正齋 嘉善守玄의 子로 肅宗朝에 官이 宣教郎에 이르렀고 經學을 精礪하였으며 遺稿가 있다.

※ 黃 思鍾: 號는 梅山 進士, 瓚의 子로 文章으로 世上에 이름이 높았으니 官에 나아가기를 斷念하고 經史로서 自娛하였으며 遺集이 있다.

※ 黃 思文: 號는 晚隱 進士 瑜의 子로 科擧보기를 廢하고 隱居하여 經史로서 自娛하였다.

※ 李 競模: 參議 祖父의 陰德으로 通德郎이 되었으니 天姿가 穎悟하고 精誠것 어버이를 섬겼으며 工禮로서 鳴世하였으나 科試에 여러번 合格치 못하였음을 哀惜이 여겼다.

※ 崔 海羽: 號는 晚軒 江淸人 生員 一元의 孫으로 文學이 夙就하며 正祖朝에 여러번 科試에 應하였으나 合格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元來 富貴榮達에 뜻이 없었기 때문에 晩年에는 林泉에 退居하여 後進育成에 힘썼으며 遺稿가 있다

※ 李 相謨: 判書 遵의 後人이며 司僕正 永祿의 子로 性品이 淸潔하고 官을 멀리하여 中房村에

있는 山水속에 隱居하여 後學育成에 힘썼으므로 이 門中에서 많은 名儒와 碩士들이 輩出되었다.

※ 崔 秉魯 : 號는 震軒 海羽의 子로 才性이 明敏하여 13歲에 이미 道薦되었으나 끝내 不應하였으 며 遺稿가 있다.

※ 金 蘭植 : 號는 梅窩 金海人 安敬公 永貞의 後人으로 性品이 聰明하고 沈重하며 經史에 博通하였다. 또한 科擧에 應試하기를 廢하고 늙도록 學問에 心血을 기우렸으므로 問疑하러 오는 學者들이 많았고 特히 詩律에 能하며 遺稿가 있다.

※ 高 炳國 : 號는 松坡 花田男 仁庇의 後人으로 天性이 仁厚하여 孝友가 또한 至極하였으며 文學이 卓越하였다. 그리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省墓를 하였으므로 鄉里人들의 많은 推重을 받았다.

※ 郭 漢翺 : 號는 淸軒 淸州人 嘉善 致疇의 後孫으로 天性이 淳厚하고 文章으로 著名하여 젊으며 筆譽가 있다.

※ 韓 赫秀 : 號는 寅岩 淸州人 同敦寧 命源의 子로 文學으로서 世上에 이름이 났으니 遺稿가 있다.

第9節 蔭筮와 壽職

(1) 蔭仕와 筮仕

蔭仕라 함은 科擧를 보지 않고 官界에 나감이요 筮仕라 함은 司馬試(普通考試)에 合格하였으나 다시 大科를 보지 않고 官界에 奉職함을 말함이다. 이제 그분들을 各 區別로 여기에 紹介하기로 한다. 勿論 이 高擧 出身들이다.

① 邊 尙服 : 安烈의 孫으로 定宗朝에 駙馬가 되었으며 벼슬은 府使에 이른다.

② 邊 孝順 : 尙服의 從子로서 太宗朝에 駙馬가 되었다가 柔川尉로 封하였다.

③ 蔡 承孫 : 平康人 西岡 忱의 子로 生員이 되었으며 蔭으로서 濟用監奉事가 되다.

④ 元 孝而 : 文靖公 原城君 孝烈의 弟로 中宗朝에 蔭으로서 陰城縣監이 되었다가 兵參에 오르다.

⑤ 蔡 雲龍 : 奉事 承孫의 子로 18歲에 司馬試에 오르고 齊郎으로 累薦되었으며 河陽, 新靈, 高敞의 守를 歷任中 皆著 淸白하다.

⑥ 權 以汲 : 安東人 校理 達手의 玄孫으로서 仁宗朝에 生員이 되었으며 獫狁道察訪이 되었다가 累陞하여 崇祿에 이른다.

⑦ 元 碩興 : 號는 慕耘堂 耘谷 天錫의 後人으로 明宗朝에 進士가 되었고 雅量이 있으며 器度가 重厚하며 文章이 夙就하여 年 14에 入試東堂하다. 治績이 至大하므로 나아가 楊州牧이 되니 頌德碑가 있다.

⑧ 蔡 得 : 雲龍의 子로 蔭으로 縣監 進士가 되었으며 仁祖 反正때 龍仁縣令을 除授하였고 甲子年 李 适의 亂에 功을 세워 戶判에 오르다.

⑨ 元 仲暉 : 孝而의 子로 明宗朝에 長興主簿가 되었으며 晩년에는 歸鄉하여 英才 獎勵에 힘써 文學의 선비들을 많이 나오게 하여 鄉里人과 門人들이 敬慕하였다.

⑩ 李 達亨 : 大同諫 明宗 戊午年에 進士가 되었으며 蔭으로 別提가 되다.

⑪ 李 慶澤 : 韓山人 暨의 子로 溫陽郡守를 지내다.

⑫ 元 振海 : 號는 藏六堂 監司 鏡의 子로 進士가 되었고 宣祖 潛邸時 師傅가 되었으며 文筆이 有名하며 7歲 때에 벌써 越赴召奉命하다. 뒤에 金吾郎으로 除授되었으나 不就하다. 晩年에 橫城郡守가 되다.

⑬ 黃 益榮 : 昌原人 宣祖朝에 參奉이 되었다가 參議에 올랐으며 性品이 純厚하고 孝友가 尤篤하여 世人들이 孝子라고 稱讚하였다.

第2編 政治 및 行政

- ⑭ 韓 好謙: 月灘 孝純의 子로 進士가 되었다가 蔭으로 參奉이 되다.
- ⑮ 韓 會一: 淸州人 柳川 浚謙의 子로 벼슬은 左尹에 이르다.
- ⑯ 韓 斗相: 生員 以成의 子로 蔭으로 判官이 되다.
- ⑰ 韓 錫明: 德一의 子로 蔭으로 縣監이 되다.
- ⑱ 蔡 翊俊: 號는 新隱 生員이 되었다가 判官 僉正을 歷任하였으며 眞寶, 義城, 通川郡守를 지내다.
- ⑲ 韓 有謙: 莊獻公 孝純의 子로 進士가 되었으며 벼슬은 仁川縣監에 이르렀다.
- ⑳ 丁 道恒: 羅州人 愚潭 時翰의 子로 蔭으로서 童蒙敎官이 되다.
- ㉑ 韓 泰一: 有謙의 子로 司馬가 되었으며 察訪을 歷任하다.
- ㉒ 李 命悅: 司馬가 되었다가 蔭으로서 司儀가 되다.
- ㉓ 韓 益相: 用明의 子로 司馬가 되었다가 高敞縣監을 歷任하다.
- ㉔ 元 紱: 振澤의 子로 生員이 되었으며 蔭으로서 縣監이 되다.
- ㉕ 崔 東老: 號는 鋤谷郡守 文奐의 子로 孝宗 甲午年에 生員이 되었으며 許 穆과 遊逍하고 得聞修養하며 濟國平天下의 要訣을 工夫하였으며 堤川縣監이 되었으나 棄官하고 歸郷하여 林泉을 逍遙하며 吟風咏月하였으며 遺稿가 남아 있다.
- ㉖ 宋 道昌: 號는 天均 三樂齊 應漑의 玄孫으로 孝宗壬寅 增廣試로 生員이 되었으며 蔭으로서 安山郡守가 되었다. 三休堂 姜 世龜가 이의 行狀을 撰述한 것이 있다.
- ㉗ 崔 東準: 號는 愚拙堂 副提學 文滉의 子로 顯宗 庚子年에 司馬가 되었고 蔭으로서 戶正이 되었으며 珍山郡守를 歷任하였고 後에 戶參에 올랐으며 善文學하였고 行誼가 敦厚하며 遺集이 남아 있다.
- ㉘ 元 宗健: 孝而의 後人으로 進士에 이르렀고 벼슬은 掌隸院 判決事가 되었다가 承旨에 오르다.
- ㉙ 黃 允熙: 號는 霽光幹 禦將 徵의 子로 肅宗 庚午年에 蔭으로서 洗馬가 되었다.
- ㉚ 李 斗齡: 吏參 震昉의 子로 司馬가 되었다가 郡守를 歷任하다.
- ㉛ 李 大齡: 吏參 震昉의 子로 司馬가 되었다가 蔭으로서 縣監이 되다.
- ㉜ 韓 器明: 相公 興一의 子로 肅宗 乙未年에 生員이 되었다가 蔭으로서 參奉이 되다.
- ㉝ 洪 重厚: 號는 守分齊 承旨 萬紀의 子로 性品이 淸雅하고 孝行이 敦厚하고 文學에 精進하며 肅宗 己亥年에 生員이 되었고 後 蔭으로서 參奉이 되었다가 正郎에 올랐으며 壽로서 同敎寧이 되었고 全義郡守를 歷任하고 學校를 이르고 勸農에 힘썼음으로 鄉里人들은 이의 頌德하는 碑를 세웠다. 遺集이 남아 있다.
- ㉞ 全 弘錫: 벼슬은 郡守에 이르다.
- ㉟ 丁 若衡: 海左 範祖의 子로 蔭으로 縣監이 되다.
- ㊱ 元 夢麟: 忠肅公 斗杓의 孫으로 興平尉가 되고 淑敬公主를 娶하다.
- ㊲ 韓 處相: 器明의 子로 英宗 丁未年에 生員이 되었고 蔭으로서 直長이 되다.
- ㊳ 韓 光善: 進士 宗玉의 孫으로 英宗 己卯年에 進士가 되고 蔭으로서 郡守가 되다.
- ㊴ 韓 光傳: 號는 南居 柳川 浚謙의 後人으로 進士가 되었고 蔭으로서 縣監이 되었으며 文詞로 世上에 有名하였다. 遺集이 남아 있다.
- ㊵ 丁 述祖: 進士 道元의 曾孫으로 生員에 이르렀다가 蔭으로서 區監이 되다.
- ㊶ 申 光綏: 英宗의 附馬로서 永城尉가 되다.
- ㊷ 劉 成益: 江陵人 正祖朝에 蔭으로서 訓練院이 되었다가 判官에 오르다.

- ④③ 韓 致迥: 光哲의 子로 生進 兩試에 合格하여 同敦寧이 되다.
- ④④ 丁 夏教: 若履의 子로 純祖 癸酉 進士試에 合格하여 縣監이 되다.
- ④⑤ 金 鏞: 領相 載瓚의 子로 벼슬은 牧使에 이르다.
- ④⑥ 丁 大永: 生員 義命의 孫으로 郡守가 되다.
- ④⑦ 丁 惠教: 若衡의 子로 進士가 되었다가 蔭으로서 參議가 되다.
- ④⑧ 韓 鎮序: 訓正 俊相의 後人으로 純祖 辛卯年에 進士가 되었으며 蔭으로서 縣監이 되다.
- ④⑨ 韓 鎮寓: 致迥의 子로 純祖 甲午年에 進士가 되었으며 蔭으로서 都正이 되다.
- ⑤⑩ 韓 教源: 鎮寓의 子로 丙午年에 進士가 되었고 蔭으로서 郡守가 되다.
- ⑤⑪ 韓 鎮宅: 致迥의 子로 進士가 되었다가 蔭으로서 監察이 되다.
- ⑤⑫ 韓 敏源: 鎮寓의 子로 進士가 되었다가 蔭으로서 別提가 되다.
- ⑤⑬ 李 肯淳: 韓山人 承旨 魯奎의 子로 哲宗 戊午司馬에 合格하였으며 벼슬은 牙山郡守를 歷任하다.
- ⑤⑭ 韓 鎮庠: 副正 後相의 後人으로 辛酉年에 進士가 되었으며 蔭으로서 縣監이 되다.
- ⑤⑮ 韓 始東: 柳下 啓源의 子로 辛酉年에 進士가 되었으며 蔭으로서 承旨가 되다.
- ⑤⑯ 韓 耕愚: 柳漢 耆東의 子로 參奉이 되다.
- ⑤⑰ 韓 命源: 處相의 6世孫으로 高宗 戊子年에 進士가 되었고 蔭으로서 벼슬은 同敦寧이 되다.
- ⑤⑱ 丁 喜燮: 水永의 子로 蔭으로서 郡守가 되다.
- ⑤⑲ 韓 冀東: 號는 東山 益相의 後人 孝道로서 아버이를 섬기고 文行이 있으므로 鄕里人들이 推重하였으며 蔭으로서 主事가 되었으며 遺稿가 남아 있다.
- ⑥⑰ 康 用同: 號는 槿岩 谷山人 孝子 景同의 弟로 典醫監 參奉을 歷任하다.
- ⑥⑱ 金 光濟: 慶州人 中樞 魯達의 曾孫으로 性品이 淳厚하고 孝友가 敦篤하며 벼슬은 參奉에 이르다.
- ⑥⑲ 丁 相燮: 號는 東華, 愚潭, 時翰의 後人으로 性品이 寬厚하고 經史에 博通하고 筆力이 遒勁하며 高宗朝에 行北部 都事가 되었고 庚子年에 山陵監을 拜受하고 鰲川郡守를 歷任하였다가 通政에 올랐으며 遺稿集이 있다.
- ⑥⑳ 蔡 淳億: 仁川人 仁川君 壽의 後人으로 高宗 辛卯年에 進士가 되었고 蔭으로서 齊陵參奉이 되다.
- ⑥㉑ 黃 春東 尙州人 禦將 徵의 後人으로 벼슬은 禁府都事가 되었다가 監察에 올랐으며 桃源道 察訪을 拜受하다.
- ⑥㉒ 丁 柱燮: 號는 東居 相燮의 弟로 性品이 淳厚하고 好文學하며 벼슬은 主事가 되었다 乙巳年에 承訓郎에 올랐으나 棄官하고 집에서 經史로서 스스로 즐겨하며 餘生을 보냈다. 百海堂集이 남아 있다.
- ⑥㉓ 郭 泰榮: 號는 翠隱 晴軒 漢翊의 子로 參奉이 되다.
- ⑥㉔ 吳 憲鏞: 同福人 司馬 永鎔의 後人으로 主事가 되다.
- ⑥㉕ 白 樂鳳: 水原人 休庵 仁杰의 後人으로 參奉이 되다.
- ⑥㉖ 元 杞: 紘谷 天錫의 後人으로 貧寒한 者를 잘 도와 주었으므로 벼슬은 議官에 이르다.
- ⑥㉗ 白 南億: 樂鳳의 子로 主事가 되다.

(2) 壽 職

壽職은 年老할 때 까지 官職에 奉仕한 분 또는 地方發展과 나라를 爲하여 活動하여 功勞가 많은 老人(60歲以上)에게는 나라에서 加資를 나리어 特히 厚待하였다. 이러한 분을 다음과 같이 각

第2編 政治 및 行政

種別로 收錄하기로 한다.

- ① 尹 商翊：號는 四休堂 坡山人 坡山府院君의 後人으로 聰明하고 孝友가 敦篤하고 文筆이 有名하다. 肅宗朝에 正憲博士에 올랐다가 丁大夏撰狀이 되다. 遺集이 있다.
- ② 金 魯達：慶州人 龔幹의 後人으로 正祖朝에 同樞가 되다.
- ③ 黃 屹：尙州人 副蔚 山翼의 子로서 金中樞가 되다.
- ④ 郭 致疇：號는 錦隱 淸州人 마음 가짐이 올바르고 好文學하며 벼슬은 同樞에 이르렀다.
- ⑤ 李 鳳彩：陽城門의 玄孫으로 備邊郎이 되었다가 僉樞에 오르다.
- ⑥ 辛 在和：號는 藻雲 寧越人 岩谷鏡의 後人으로 高宗 丙戌年에 同樞가 되었으며 善文章하며 文筆로서 著名하다.
- ⑦ 元 達亨：判尹 彥容의 後人으로 行誼가 嚴峻하고 바르므로 鄉里人들이 推重하다. 또 孝行이 至極하며 敦寧都正이 되었다가 資憲에 오르다.
- ⑧ 金 漢暹：安東人 戶參 自宣의 孫으로 宣祖朝에 同樞가 되다.
- ⑨ 元 復明：紆谷 天錫의 後人으로 宣祖時 徐執의 亂으로 아버지는 그들에게 죽고 다행이 母子만이 죽음을 免하였으며 외로운 어머님을 모시고 어머니 病患에 가즌 藥을 다 救해 드리고 回復되기를 神靈께 빌었다. 벼슬은 僉中樞가 되었다가 正憲에 올랐으며 吏判에 까지 올랐다. 그의 筆牘이 있다.
- ⑩ 張 虎翼：丹陽人 宣祖朝에 戶判이 되었다가 同樞가 되다.
- ⑪ 金 晉承：金海人 判官 世權의 玄孫으로 仁祖朝에 左尹이 되다.
- ⑫ 李 惟淸：典籍 命伯의 後人으로 性品이 剛直하고 올바른 意見은 끝까지 主張하며 不義에는 조금도 寬容을 베풀지 않았다. 山林속에서 自然과 벗삼으며 열심히 修養하였다. 孝宗朝에 同中樞가 되었다가 工判에 올랐다.
- ⑬ 韓 岱相：繼愼의 玄孫으로 孝道로서 父母를 섬기며 每日 새벽 山에 올라가 先塋을 바라보고 參拜를 하였다 한다. 벼슬은 嘉善에 이른다.
- ⑭ 都 鳳業：參議 壽善의 孫으로 先祖의 訓箴을 格別히 遵守하다 英祖朝에 副護軍이 되다.
- ⑮ 李 光彩：奉事 惟景의 後人으로 英祖朝에 工議가 되었다가 工參이 되다.
- ⑯ 金 領熙：雙杏堂 誠의 後人으로 孝行이 지극하고 朋友間에는 敦睦하고 貧寒한 사람들을 도와 주었다. 英祖朝에 嘉善이 되다.
- ⑰ 都 顯健：護軍 鳳業의 玄孫으로 性品이 淸厚하고 淸雅하다. 哲宗朝에 通政이 되다.
- ⑱ 金 光教：通政 載熙의 子로서 性品이 恭遜하고 素朴儉素하여 僉中樞가 되다.
- ⑲ 金 聖龍：野叟 承萬의 曾孫으로 글 배우기를 오로지 하였으며 通政이 되었다가 同樞에 오르다.
- ⑳ 安 積：竹山人 副護軍 大松의 後人으로 孝行이 至極하며 벼슬은 通政에 이른다.
- ㉑ 金 英植：洗馬 希逸의 後人으로 同樞가 되다.
- ㉒ 許 炯：生員 希溫의 後人으로 家訓을 이어 받아 勤儉하다.
- ㉓ 辛 錫俊：通政 義復의 孫으로 家勢가 極히 貧困하나 孝道는 더 至極하게 하였다.
- ㉔ 金 祖榮：監察 重鼎의 子로서 先祖로부터 내려 오는 家訓을 이어받아 節度가 있으며 規則的인 行動을 하였다. 벼슬은 副護軍에 이른다.
- ㉕ 金 龍集：判尹 仲誠의 後人으로 哲宗朝에 벼슬이 副護軍에 이르렀다가 同樞에 오르다.
- ㉖ 朴 秀玉：恭管 公龜의 後人으로 通政이 되었다가 嘉善에 오르다.
- ㉗ 沈 得榮：判書 東老의 後人으로 벼슬은 同樞에 이른다.

㉘ 元 燮 : 岱隱 師模의 子로서 性品이 淳厚하고 家訓을 그대로 이어받았으며 벼슬은 通政에 이른다.

㉙ 金 泰淵 : 義士 址의 後人으로 兄 泰華, 泰仁, 泰賢과 더불어 友愛가 尤篤하며 喜善이 되다.

㉚ 金 仲植 : 進士 址의 後人으로 通政이 되다.

㉛ 嚴 以基 : 生員 龍漢의 子로서 벼슬은 戶參에 이른다.

第6章 獨立運動과 原州

第1節 獨立運動의 概觀

民族은 國家의 安危를 直接的으로 生覺하게 된다. 政權을 잡은 權力者들은 오히려 利己에 눈이 어두워 國家의 存亡을 念外에 두는 例가 古今을 通하여 往往 있는 일이었다. 그러므로 國家의 運勢가 기우러갈때에도 朝臣에 있는 者들은 거의가 私利 私慾만을 爲하여 僞善的인 大意만을 되풀이 하고 不義를 본 國民들만이 몇분 안 되는 忠臣 義士들과 더불어 나라를 근심하게 된 것이다. 國難戰火가 있어 民生이 塗炭에 빠질 것도 그들 外에는 關心있는 사람이 없어 國家는 필경 衰運을 不免하게 되는 것이다. 義兵이라고 하면 그 이름만도 훌륭하고 壯嚴하지 아니한가! 其 組織體의 代表의 人物은 少數의 指揮者보다 그 揮下에서 前進의 命이 내리면 前進하고 突擊의 命이 떨어지면 突擊하면서 生死를 草露같이 생각하며 오직 救國의 一念으로 化身한 卒伍들이 더 한층 우러러 보이지 아니한가! 赤手空拳으로라도 大義의 旗幟아래 不義의 仇敵을 討伐하고 殲滅함에 있어 敵의 勢力이 크게 頑強하여 設或 義人의 槍劍이 부러지고 銃彈이 떨어져 陣容이 敗滅되고 其 生命이 다하여도 義는 義대로 그냥 있고 마침내 義旗下에서 勝利한 者, 또한 犧牲된 者 그들이 가장 後世에서 追仰 崇拜함을 받을 것이다. 東學黨의 革命戰이 일어나 치욕의 合併이 되던 그때까지 무려 17年동안 倭凶을 죽이자, 倭仇를 滅하리라고 大喊聲의 義兵이 오늘도 내일도 繼續일어나 오늘은 이곳에서 내일은 저곳에서 戰鬥을 벌여 3千里江山을 피로 물들여 하루도 平安한 날이 없는 大修羅場이 되었었다. 많은 義兵의 蜂起와 節死는 靑史에 길이 빛나는 忠烈에 龜鑑이려니와 韓末 國難에 우리 半萬年의 歷史가 倭賊의 手下에서 埋沒됨을 數 많은 草野의 志士들이 義兵을 몰아 蹶起하였으니 그 첫 烽火가 原州에서 불붙었고 그 義烈이 始終 原州를 據點으로 하여 全國의으로 燎原의 불꽃처럼 피어났음은 우리 原州의 크나큰 자랑이며 矜持인 것이다.

第2節 義兵運動의 震源地

舊韓末의 義兵은 日本帝國主義 侵略이 顯著하게 表現되었던 때 그와 그 走狗輩 打倒를 위하여 蜂起하였다. 日本帝國主義가 侵略을 表面化한 것은 1894年 淸日戰爭부터 인데 1895年(乙未)에는 그들이 侵略하는 데 妨害가 됐던 存在인 閔妃를 殺害하였다. 義兵抗爭史는 여기에서 出發하였다. 閔妃를 殺害한 日本은 直線的인 侵略만을 敢行할 수 없이 外面上 韓國의 近代化에 參與하는 것 처럼 制度改革을 要求하여 實施케 하므로 이것이 곧 乙未改革이었다. 日本이 關與한 改革이었으므로 各處에서는 더욱 많은 義兵이 일어났다. 단순한 抗日意志에 依한 것 만은 아니고 斷髮令에 依한 것도 큰 理由가 되었다. 日本의 要求 或은 親日內閣에 의해서 斷行된 改革이었으므로 그 改革에 反撥한 義兵은 한결같이 日本과 親日內閣의 逐出을 외치고 나섰다. 東學亂이 鎮定된지 1年뒤의 일이다. 東學運動은 東學敎徒들이 先鋒이 되었지만은 乙未義兵은 儒學者가 先鋒이 되었다. 先鋒者는 달랐지만 同調하던 庶民層은 같았다. 義兵運動은 第1期, 第2期, 第3期로 區分되었는데 第1期 義兵運動은 日本公使 三浦의 使噤로 20餘名의 건달들이 景福宮에 亂入하여 國母를 殺害하고 屍身을 石油불에 태워버리자 激昂한 民心은 極度로 動搖되어 各地의 義

兵의 蜂起로서 이것이 곧 義兵運動 始初인 乙未事變이다. 巡檢(警察)들은 마음대로 剽掠하며 強制로 「상투」를 꺾게 하자 激昂된 儒生들이 四方에 檄文을 보내게 하여 여러 곳에서 義兵이 일어난 것이다. 第2期 義兵運動은 1905年 11月 18日 乙巳保護條約을 契機로 蜂起된 運動이라 하겠다. 第3期 義兵運動은 1907年 強制로 解散된 우리 軍人들이 民間人 義兵들과 合流한 것을 가르킨다. 第2期 義兵당시 이 고장 原州에는 李 殷贊이라는 青年이 있었으니 德宗君의 後裔로서 高宗 14年 9月 21日 李 錫夏의 長男으로 原州에서 出生하였다. 어려서부터 氣骨이 壯大하고 마음이 闊達할 뿐만 아니라 智略이 뛰어나던 사람이며 不義를 보면 참지 못하는 性品이었는데 兄 李 殷鎬와 같이 原城郡 文幕面 浦津里 남은터에서 살고 있을 때 이 나라를 日本에 넘겨주는 乙巳保護條約이 締結된 것이다. 더 참을 수 없어 義兵을 이르켰을 때 各地에서 呼應도 있었으나 組織性이 없는데나 武器 또한 舊式이라 日本軍의 銳利한 新式 武器에 對抗할 道理가 없었다. 이때 倭敵을 처부신일도 있었으나 義勇軍의 活躍이 效果的일 수 없었던 處地였었다. 그러다가 1907年 日本軍에 依해서 우리軍이 強制로 解散되었다. 당시 原州 鎭衛 第5大隊 本部에는 參領以下 將校가 10名 下士 兵卒이 251名이었는데 解散의 責任者는 日本軍 步兵大尉 古莊 和平인데 8月 10日 이었다. 鎭衛隊가 解散하기 前인 1906年 丙午年 겨울에 原城郡 神林面 陪陽山에서 聞慶 出身인 李 康年이 再次 散兵을 收募하여 操練을 시키었다. 解散된 朝鮮軍과 義兵이 合勢하게 되었고 당시 原州 鎭衛隊에는 第1鎭衛隊 5大隊가 있었는데 大隊長에는 原州出身 李 敏과 參領과 孫在奎參尉와 閔肯鎬正校가 있었다. 閔肯鎬 特務正校는 江陵分遣所의 兵力을 合한 300名의 軍隊를 가지고 李 殷贊公의 義兵隊와 合流하였다. 解散당한 朝鮮軍은 新式教練을 받은데다가 戰鬪經驗이 있는데라 義勇軍에게는 큰 힘이 아닐 수 없었다. 義兵은 軍指揮官 不足問題와 戰鬪技術問題를 한꺼번에 解決한 李 殷贊公은 軍勢를 2千名으로 擴張하고 나서 乙未事變 때 義兵將으로 名望이 높았던 先輩 李 寅榮을 聞慶으로 찾아가 義兵將되기를 懇請하니 쾌히 承諾하여 原州로 모셔온 후 李 殷贊公은 中軍隊長이 되어 義勇兵의 旗幟를 세우니 四方에서 모여오는 壯丁이 많아 軍勢는 더욱 擴張되었다. 이때 李 康年隊長은 原州 鎭衛兵 數十陣을 募集하고 孫在奎와 相應하여 銃劍 1,200挺과 彈丸 4萬餘發을 押收하여 陪陽山(神林面)중에 秘藏하고 鎭衛隊 閔肯鎬, 趙東教, 丁大武等 諸陣이 合勢하였다. 軍勢를 整備한 原州義勇軍은 義氣 百倍하여 低平, 洪川, 春川, 楊州까지 다니면서 日本軍 守備隊를 만나는 대로 擊破하였다. 이러한 方便 各道에 檄文을 띄우니 이에 呼應하여 모여드는 義勇軍이 一萬餘名이 되어 原州 別관은 온통 義勇兵으로 가득찼다. 여기에다 關東 倡義軍 6,000餘名을 揮下에 넣고 李 康年이 指揮하는 忠淸道 義兵 500名, 許蔦가 이끄는 京畿道 義兵 2,000名, 權重植이 이끄는 黃海道 義兵 500名, 그 밖에도 咸鏡道 平安道地方 義兵 數千名이 呼應하여 움직였다 한다. 이 엄청난 軍勢라 原州에서는 交通이 不便하고 서울과 距離가 멀어 活動에 支障이 있어 京畿道 楊州로 大移動을 敢行하였다. 部署改編이 끝났는데 13道 義勇軍 總隊長 李 寅榮, 中軍隊長 李 殷贊, 湖西地方隊長 李 康年, 黃海地方隊長 權重熙, 關北隊長 鄭鳳俊, 關東隊長 閔肯鎬, 嶺南隊長 朴正斌, 關西隊長 方仁寬, 軍師長 許蔦로 定하고 서울로 進擊하여 統監府를 처부수고 保護條約을 廢棄시키자는 것이었다. 北上하면서 大小 38回의 戰鬪끝에 서울에 肉迫하게 되었는데 李 寅榮 總隊長이 300名을 指揮하여 東大門밖 30里 地點에서 大軍 오기를 기다리는데 連絡이 잘 못 되었는지 後軍은 오지 않은 채 1,000餘名이 넘는 日本軍 攻擊에 衆寡不敵으로 包圍된 채 義兵은 全滅하였다. 東大門밖 敗戰으로 千載一遇의 機會를 잃은 義兵들은 各處로 分散되어 버렸다. 李 殷贊隊長은 하는 수 없이 揮下에 남은 兵力 500을 거느리고 楊州로 退陣하여 2年 동안 京畿道, 黃海道 各地에서 日本守備隊와 싸우며 神出鬼沒하게 遊擊戰을 벌이였다. 1908年 7月 7日의 加平里 싸움, 1909年 3月 27日의 楊州北方 석우리戰鬪가 代表的인 戰鬪

였다. 이때 東大門 밖 敗戰에서 軍師長 許 薦은 逮捕되어 西大門 監獄에서 獄死하였고, 總隊長 李 寅榮은 父親 訃音을 받고 聞慶에 돌아갔다가 1909年 日本憲兵에게 逮捕되어 死刑당하고 말았다. 李 殷贊 隊長은 兵力을 養兵하기 위하여 北間道로 갈 計劃을 親舊 金 某에게 말하니 軍資金을 마련하여 준다는 口實로 李 殷贊隊長을 머물게 하여 며칠 후 龍山驛前에서 만나자 하고는 日本憲兵에게 密告하였다. 李 殷贊隊長은 그것도 모르고 龍山驛前에 나갔다가 그 자리에서 逮捕되고 말았다. 日本軍은 李 殷贊隊長의 處罰이 民心에 미칠 影響을 생각하고 日本人 判事 渡邊는 甘言利說로 轉向을 勸하니 李 隊長은 大喝一聲으로 호통을 쳤으니 하는 수 없이 死刑의 判決을 내렸다. 嗚呼 통재라! 亡國을 막고 報國忠正의 大雄志를 펴지 못한 채 亡國의 恨을 가슴에 품고 1909年 5月 10日 龍山에 있는 日本軍 兵營 안에서 若冠 33歲에 死刑을 당하고 말았다. 李 殷贊隊長의 遺骸는 心服 部下였던 朴 贊文이 거두어 原州로 와서 原州市 鳳山洞 天主教墓地에 安葬하였다(當時는 공동묘지가 아니었다). 60餘年後인 1968年 天主教 共同墓地 移轉問題가 있을 때 李 隊長의 墓가 이곳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原州 文化院長 黃 柱益은 즉시 事實調査와 緣故者를 찾는데 主力하여 李 殷贊隊長과 같이 義勇軍에 參戰했던 李 奎文과 李 炳稷 兩氏가 文幕에 居住한다는 事實을 알고 만나보는 한편 公의 兄 李 殷鎬의 2男 李 漢周를 찾아 公의 死後 養子로 入籍시키는 節次를 알아 總務處에 事實을 通告하고 公의 追慕碑 建立을 推進하여 1968年 10月 27日 第1軍 野戰司令部의 支援과 原州地區 重裝備工場에 石材運搬 支援을 얻어 原州驛前 文化劇長 앞에도 세워 잊혀져가는 愛國忠正의 뜻을 다시금 되새기며 그 넋을 위로하여 마지 않는다. 公의 墓도 서울의 국립묘지로 移葬되었다.

李 殷贊隊長의 辭世詩를 다음에 실어 본다.

一枝李樹 作爲船	愆濟蒼生 泊海邊
寸公未就 身先溺	誰算東洋 若萬年
오얏나무 한가지로	배를 만들어
만백성 진지고저	바다에 뗏다가
품은 뜻 못 이루고	내몸이 먼저 빠지니
누라서 동양의 평화를	보존한단 말인가

한편 閔 肯鎬는 原州鎭衛隊 特務正校로 있다가 大韓帝國의 마지막 牙城인 軍隊를 強制로 解散시키자 部下를 이끌고 李 殷贊公이 일으킨 倡義軍에 合勢하였다. 서울을 向하여 總進擊에 앞서 李 寅榮 總隊長은 閔 肯鎬에게 江原道 및 忠淸道, 慶尙道 山岳地帶로 敵을 誘引하라는 命을 받고 各處에서 激戰을 거듭하였다. 1908年 閔 肯鎬가 이끄는 義兵部隊 約 60餘名은 至今의 原城郡 所草面 衣冠里 능머루머덩에서 交戰中 閔隊長은 負傷당하였다. 負傷당한 몸을 이끌고 日本의 野慾을 暴露하고 愛國靑年들의 蹶起를 呼託하다가 1909年 雉岳山 넘어 水周에서 敵將에게 逮捕되자 閔隊長은 스스로 自決하므로 殉國하였다. 公의 遺骸는 옛날 原州 下洞里(지금의 平原洞)에 安葬하였다가 다음 해에 興業面 茂實里로 移葬 其後孫이 끊어져 春風秋雨 돌보는 사람이 없어 雜草에 묻혀 있던것을 1954年 5月 北部地區 警備司令官 權 準將軍이 鳳山 山麓에 移葬 忠魂塔을 세워 60餘年後인 오늘에도 그 넋은 鳳山 山麓에서 松竹같은 義節로 祖國의 守護神이 되어 지켜 주고 있다.

原州出身 李 南珪 義兵將은 他地에서 活躍하였으나 其 全部를 알길이 없어 哀惜할 뿐이다. 또 한 原州出身 金 雲先 義兵將은 出戰하기에 앞서 後方에 두고가는 家族의 安慰가 걱정이 되던 救國에 힘이 갈까하는 마음에서 自己의 칼로 죽게하는 悲痛을 겪어가며 出戰하여 勇敢하게 싸

위 盡忠 戰死하였다. 以外에도 原州 原城出身으로 義兵이 많았지만 그 이름조차 알길 없애 後世에 남기지 못함이 또한 遺憾이라 하겠다. 原州 義兵軍의 抗爭을 살펴보면 舊韓末 義兵靑史에서 길이 빛나고 있다.

다음에 義兵日誌를 실어 본다.

第3節 義兵日誌

- 1896年 1月 13日 : 李 春永等 義兵 原州集結
- 1905年 9月 : 元 容八 朴 貞洙 原州에서 義兵組織
- 1907年 9月 22日 : 義兵 約 100名 原城郡 文幕에서 攻防戰
- 1907年 10月 21日 : 義兵 約 300名 原城郡 神林面 싸리치재에서 接戰
- 1907年 12月 8日 : 義兵 約 70名 原城郡 所草面 鶴谷里에서 交戰
- 1908年 2月 22日 : 義兵 約 60名 原城郡 文幕面 附近에서 攻防戰
- 1908年 2月 29日 : 閔 肯鎬隊長이 引率한 義兵部隊 約 60名 原城郡 所草面 능머루버덩에서 交戰中 閔隊長 負傷
- 1908年 4月 3日 : 義兵 約 19名 原城郡 文幕面 西方 5里에서 交戰
- 1908年 4月 19日 : 義兵 約 150名 原城郡 所草面 鶴谷里에서 接戰
- 1908年 6月 16日 : 義兵 約 100名 神林面에서 交戰
- 1908年 6月 28日 : 義兵 約 80名 原州東方 雲橋驛村에서 交戰
- 1908年 7月 1日 : 義兵 約 100名 新林 西方 10里에서 交戰
- 1908年 7月 3日 : 최 천유 義兵部隊 原城郡 所草面 鶴谷里에서 交戰中 최 천유 被逮
- 1908年 7月 17日 : 美兵 約 60名 文幕 東南 約 10里에서 交戰
- 1908年 8月 13日 : 義兵 約 15名 原城郡 所草面 鶴谷里 交戰

(以上은 江原道誌에서 발췌)

第4節 抗日運動

3.1運動은 우리 겨레가 日本帝國主義에 抗拒한 것이기 때문에 當時 日帝의 統治 樣相을 먼저 알 필요가 있다. 그것을 파악한 後에 日帝에 抗拒할 수 있었던 우리의 民族的 力量을 분석하여야 하는데 民族的 力量은 全面的으로 檢討하는 것이 아니라, 3.1運動과 直接連結된 原州地方의 宗教와 教育狀態를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3.1運動은 當初 서울에서 일어난 것이 原州를 비롯한 全國 모든 地方에 전파된 運動이었기 때문에 當時의 交通과 通信을 알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의 것들을 알게 되면 3.1運動의 原因을 自然히 把握하게 될 것이다.

(1) 日帝의 憲兵統治

日帝는 舊韓末 부터 우리나라에 軍隊를 駐屯시켜서 우리를 여러 方面에서 괴롭히며 행패를 부리더니 1910年 우리나라를 完全히 支配하게 된 以後부터는 고을마다 憲兵을 配置하여 武斷政治를 遂行하고 있었다. 行政機關으로서 朝鮮總督府가 設置되어 地方에서는 道長官, 그리고 그 밑에 郡守와 面長으로 連結되는 行政體系는 別로 이상할 것이 없는데 司法機關이 總督의 支配下에 있어서 단순한 行政機關의 口實밖에 擔當하지 못하고 있었으니, 이것은 司法機關인 法院도 日本이 우리나라를 支配하기 爲한 方面으로 設置하여 왔다는 意味를 否認하지 못하는 帝國主義의 體制인 것이다. 그리고 帝國主義의 體制가 더욱 가혹하게 나타나 武斷政治를 그대로 說明하고 있는 것은 總督府와 別途로 警察機關으로 朝鮮 憲兵司令部가 있었고 地方에는 朝鮮 憲兵司令

第2編 政治 및 行政

官의 傘下 機關으로서 道에는 憲兵隊長이 있었으며 郡에는 憲兵分遣所長, 그리고 面에는 憲兵派遣所長이 있어서 이들이 警察業務를 맡고 있었다. 이 때는 警察署가 따로 없었다. 警察業務는 朝鮮總督도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朝鮮 憲兵司令官이 全擔하여 있었는데, 朝鮮 憲兵司令官을 警務總監에 任命하여 憲兵과 警察의 두 가지 일을 맡게 했으며 各道에 있던 憲兵隊長을 警務部長에 兼任 任命하여 地方의 警察業務를 擔當케 하였다.

그러나 郡과 面에서는 憲兵分遣所長 或은 派遣所長의 이름만을 가지고 있었지 警務總監이나 警務部長처럼 別途로 警察業務를 표시하는 名稱을 갖고 있지 않았다. 이와 같이 警察業務는 憲兵이 擔當하고 있었던 점, 그것도 行政機關의 最高 責任者인 朝鮮總督과 獨立한 憲兵司令官이 맡았으며 警察組織의 體制 自體를 總督府에서 獨立시켜 놓았던 點은 日帝의 武斷政治를 단적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司法機關인 法院은 行政府의 總督府안에 두고 行政機關인 警察은 憲兵이 맡게 했던 그 意圖는 우리겨레에 對한 日帝의 計劃적인 탄압에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3.1運動 때 原州에도 行政機關으로서 原州郡廳이 있었고 憲兵分遣所가 있었는데 當時의 郡守는 吳 惟永이고 憲兵分遣所長은 ○○○이었다. 우선 郡守는 우리 韓國人이었다는 事實에서 實權이 憲兵에게 있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原州郡의 當時 裁判管轄은 京城地方 法院 原州支廳으로서 原州 上洞(現 園洞道立病院) 못 미처에 있었으며 西南地方을 管轄區域으로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때 原州支廳에서는 대개 豫審程度에 그쳤고 大部分은 서울로 올라가야 했다. 여기에서 하나 알아 둘만한 것은 이 때는 朝鮮苔刑令(불기)이라는 것이 있어서 3個月分의 징역은 90대의 苔刑으로 대신 할 수 있었고, 이 苔刑은 警察署의 業務를 맡고 있는 憲兵分遣所長이 賦課할 수 있는 것이어서 分遣所長도 名目上 가벼운 犯罪는 裁判하였고 또 마음대로 매릴 수도 있게끔 法令으로 規定해 뒀던 것이다. 犯罪 卽決例라는 規定에 의하여 憲兵所長이나 警察署長이 法院으로 裁判에 넘기지 않고 3個月까지 拘留를 살게 할 수도 있고 90대의 苔刑을 매릴 수도 있었는데 3.1運動 때 特히 苔刑을 맡고 나온 사람이 原州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고을마다 헤아리지 못할 程度에 이르렀던 것이다. 여기서 한가지 덧붙일 것은 郡守는 韓國人이었지만 直接 實權을 가진 庶務主任(內務課長)은 日本人으로 配置하였고 警察署長은 勿論 日本人이었다. 日帝 初期부터 原州에는 所謂 日本軍隊 卽 守備隊가 있었다가 3.1運動 直前に 北쪽 國境線으로 移動을 했었는데 3.1運動이 터지자 다시 4月 5일에 2個中隊가 原州에 와서 駐屯하며 一部는 江陵으로 派遣을 나갔다. 이때 原州에 駐屯한 部隊는 20師團 79聯隊의 兵力이었다.

第5節 親日前衛로서의 一進會

광무 8년 가을부터 국내 각처에서 안보회(安保會)라는 배일운동(排日運動) 단체가 조직(組織)되어 그 세력이 전국에 퍼지자 이 안보회를 상대(相對)로 宋 秉駿, 尹 始炳은 일본의 후원을 얻어가지고 유신회(維新會)라는 것을 조직하여 안보회를 방해하며 일본관청의 후원을 얻어 그 세력을 확장하게 되니 안보회는 점차 그 세력이 줄어들고 유신회가 득세하게 되었다. 유신회는 이 용구가 지도(指導)하는 진보회(進步會)와 서로 합쳐서 명칭(名稱)을 일진회라고 한 것이다. 진보회는 동학(東學)의 지목(指目)을 받아 중국 상해로 망명하였다가 일본으로 건너간 孫 秉熙 선생이 李 容九에게 진보회를 조직하라고 한 것이다. 孫 秉熙 선생은 일본서 우리나라를 침범할 의사를 갖고 같은 수단을 다하여 우리나라 대관들을 매수함을 보고 주권을 확립(確立)하고 군민의 복리를 위하여 의논하게 되었으니 당시 일본에는 김 옥균선생(金玉均先生)과 같이 혁명(革命)운동을 하다가 수구파(守舊派)에게 쫓겨서 목적을 달성치 못하고 일본으로 망명한 혁명객들이 많이 있었다. 국제정세(國際情勢)를 살펴보면 일본과 러시아가 서로 우리 나라를 침범할 의도를 가지고

서로 자국의 이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쟁을 일으킬것이 명약관화한 사실이니 이런 때에 우리 국민으로서는 민족주의 사상을 견고히 하여야 되겠다고 여러가지로 생각하고 權 東鎮, 吳 世昌, 朴 泳孝, 李 珍鎬와 같이 의논하고 이 용구를 국내에 보내어서 朴 寅浩와 의논하고 모든 것을 朴 寅浩의 지도를 받아서 행하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이 용구는 본국으로 나와서 송 병준과 의논하고 朴 寅浩씨와는 아무 의논도 없이 손선생의 부탁을 배신하고 각처에 있는 교인을 움직이려 하나 교인들은 朴 寅浩의 지시가 없이는 움직이지 않았다. 이것을 안 이 용구는 朴 寅浩에게 보내는 손선생의 밀서(密書)를 감추고 송 병준과 밀담을 하고 진보회를 조직해서 활동을 하다가 일진회라고 고치고 정부의 후원으로 일본사람의 협조를 받아 서울에 본부(本部)를 두고 각 도시마다 지부(支部)를 설치(設置)하여 본격적(本格的)으로 활동을 개시하였다. 우선 각 도의 관찰사(觀察使)를 도지사(道知事)라 고치고 일진회원으로 갱질(更迭)하고 군수를 마음대로 움직이고 각 면의 면장까지도 일진회의 지배를 받게 하니 완전히 일진회의 천하가 되고 말았다. 양복을 입고 개떡모자(갹)를 쓰고 단장(短杖)을 짚고 면면촌촌에 다니는 사람은 일진회원이었다. 민심은 전진공공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고, 일진회의 폭행은 날로 심해만 갔다. 제일 먼저 국유지를 정비한다고 역둔토를 모두 개인 소유로 하고 지방의 공유재산(公有財産)을 일진회 재산으로 편입하는 등 그 기세가 날로 심하여지니 부랑자와 협잡꾼, 감투에 욕심내는 사람, 권리를 잡으려는 사람들은 모두가 일진회로 모이게 되어 그 위력이 나는 새라도 떨어트릴만 하였다. 이때 방방곡곡에서 일진회에 대한 비판이 있었으나 감히 누구하나 말 조차 못하게 되었다. 정부로서는 민간사정이야 어찌 되었든지 일본놈에게 아부나 하고 황제에게는 덮어놓고 잘 된단 말만 하고 지방장관은 압력만 가하여 일진회의 하자는 대로 비위를 맞추느라고 뇌물을 주는 일이 시작되었다. 朴 寅浩는 일진회가 손선생의 지도라고 날로 횡포하며 각지 교인을 위협함을 알고 일본으로 가서 손선생을 만나게 되었다. 손선생은 朴 寅浩를 반가이 맞이하여 국내 사정과 교인들의 안부를 묻고 이 용구란 사람을 만나 보았는가 묻게 되자 朴 寅浩은 이 말을 듣고 놀라는 표정으로 만남이 없고 李 容九는 宋 秉畷과 같이 일진회를 조직하여 가지고 일본사람의 원조와 정부의 후원으로 갖은 행패를 다하고 장차 국가를 전복시킬 우려가 있다고 일진회의 시발점과 그 회원들의 부당한 행동이 일본세력을 차차 이용하여 우리 국민으로 하여금 일본숭배주의(日本崇拜主義)를 조장시키고 일면으로는 권력을 갖추고 정부를 탄핵하고 국민을 기만(政府彈劾 國民欺瞞)하며 순진한 도인을 이용하려 든다는 것을 일일이 보고하였다. 이 보고를 듣고 孫 秉熙는 李 容九를 잘 모르고 국내로 보낸 것을 깨닫고 본국으로 나올 것을 결정하였다. 朴 寅浩는 洪 秉箕, 李 鍾勳과 같이 십 삼도의 도인을 단속하기 위하여 전·남북에는 李 炳春, 朴 準承, 경상 남북에는 金 敬英, 裴 世昌, 충청 남북에는 朴 容台, 申 光雨, 강원도에는 李 承祐, 경기도에는 李 鍾奭, 황해도에는 吳 榮昌, 평안 남북에는 羅 龍煥, 林 禮煥, 洪 基兆, 洪 基億, 羅 仁協, 韓 賢泰, 함경 남북에는 韓 泰勳, 鄭 柱琬 등 여러사람에게 각각 그 도내 인심을 수습하고 국가의 주권을 확립하도록 할것과 배일운동을 고취하라고 하였다. 병오년 단기 4239년(서기 1906년) 2월에 孫 秉熙는 權 東鎮, 吳 世昌의 몇 사람과 같이 본국으로 돌아올 무렵 인재를 양성하고 신문화(新文化)를 수입하여 우리 자력으로 독립을 전취(戰取)하여야 하겠다는 자각(自覺)이 있어 오십명을 뽑아 일본 각 학교에 입학시키고 이 유학생으로 하여금 일본의 실정(實情)을 연구(研究)하고 외국의 신문명과 세계 각국의 정치문화와 그나라 국민들의 사상과 풍속 경제(思想 風俗 經濟)실정이며 종교 신앙(宗教 信仰)과 국민생활 및 사회제도(社會制度) 등 여러가지를 습득할것을 지시하였다. 일진회는 그 세력이 장족지세(長足之勢)로 무엇이든지 다 할수 있었다. 정부행정(政府行政)에 있어서는 조령모개(朝令暮改)는 말할 여지도 없거니와 민간생활(民間生活) 까지도 간섭치 않는 것이

第2編 政治 및 行政

없이 만능주의(萬能主義)로 정부를 마음대로 움직이고 농산 어촌(農山漁村)의 국민생활을 괴롭힐대로 괴롭혀 원성이 날로 높아가고 있을 때 의병이 일어나자 각 지방에서는 일진회원의 행동이 자유롭지 못하였으니 이 때는 불교인(僧)외에는 머리 깎는 사람이 없었다. 머리깎고 개떡모자에 양복을 입은 사람은 일진회원이란 것은 누구든지 다 아는 바였다. 의병(義兵)이 사방에서 일어나자 일진회원의 활동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도시는 점점 그 세력이 더욱 강하여 저서 그 세력을 막을 수는 없었다. 일본의 마수(魔手)는 일진회를 조종(操縱)하여 차차 야심을 발동(野心發動)하기 시작하여 우선 인구를 조사하기 위하여 민적법(民籍法)을 실시하게 하였다. 토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구 양안(糞案)을 폐지하고 결수연명부(結數連名簿)라고 토지 소유자를 정리(整理)하는 한편 일본인 재벌(日本人財閥)과 야합하여 동양척식회사(東洋殖産會社)를 설립하고 국유지 먹기를 위시하여 민간소유 토지를 침범하게 되었다. 이때 孫秉熙가 환국(還國)하여 모든 정세를 청취한 후 송병준, 이 용구 등 70餘人에게 출교처분(黜教處分)을 단행하고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송병준, 이 용구는 본래 교인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일본서 건너올때의 사명을 이행치 않고 자의(自意)로 배신행동(背信行動)을 감행하여 민심을 소란케 하였다는 요지(要旨)의 성명서를 각지에 발송하고 동학을 천도교(天道教)라 고쳤다. 각지 교인들은 이 소식을 듣고 새로운 기운을 얻어가지고 일진회를 배격하였다. 송병준, 이 용구는 또다시 시천교(侍天敎)로 합류(合流)하여 일본과 더욱 긴밀한 연락(連絡)을 취하여가며 한국을 일본과 합병할 목적으로 송병준은 이 용구를 일본으로 보내서 일본정부요인과 협의하고 일진회의 결의문을 작성(決議文作成)하여 한일합병(韓日合併)의 진정서를 제출(陳情書提出)하게 하되 한국신민(韓國臣民)이 원하는 것 처럼 허위 날조(虛偽捏造)로 일본의 무서에 제출케 하고 이 완용은 송병준, 박제순, 이 근택과, 밀의(密議)를 거듭하여 안과 밖이 서로 호응(呼應)할 것을 결정하였다.

일본은 이등(伊藤)이 죽은 뒤 육군대장 사내(寺內)정의를 한국으로 파견하여 한일합병을 시도(試圖)하였다. 일진회원은 한참 기세를 올려 국가전권(國家全權)을 잡고 무슨 일이 있든지 공사간(公私間) 간섭 안하는 것이 없어 민간은 머리를 흔들기 시작하며 차차 민심이 이탈되고 초상지풍(草上之風)으로 모여든 회원, 강제로 모집한 회원, 권리를 누려보려고 참가한 여러 군상(群像)들이 바람부는 대로 물결치는 대로 덮어 놓고 일진회원이란 바람에 어깨를 으쓱대고 안하무인격(眼下無人格)으로 남의 싸움 가로막기, 심지어 사설재판소(私設裁判所)까지 세워 채무를 영터리로 받아주고 민형사간(民刑事間)에 간섭을 하고, 남의 가정까지 위협과 공갈로 모리행위(謀利行爲), 이적행위(利敵行爲), 악질적행동(惡質的行動)으로 모략중상(謀略中傷)과 심지어 폭행 등을 감행(敢行)하여人心파는 완전히 이탈(離脫)되었다. 송병준, 이 용구 외 70여명의 일진회 지도자들은 청천백일하에 손선생에게 출교라는 비락을 받고서도 조금도 자기들의 파오(過誤)를 회개(悔改)치 않고 시천교와 합하였다. 그러나 이 소문이 차차 전 국내에 퍼지자 지방으로 부터 일진회 배척운동이 일어났고 따라서 회원들은 사기가 저상되어 부지중 일진회란 명칭도 꼬리를 감추게 되었다. 송병준은 자기의 목적을 달하려고 갖은 수단을 다 써서 최종성과를 거두려고 내각을 개조 할 것을 일본인에게 의뢰하였다. 보호조약당시 내각(保護條約當時 內閣) 참정대신 박제순(參政大臣 朴齊純), 내무대신 이 지용(內務大臣 李致鎔), 탁지부대신 민영기(度支部大臣 閔泳祿) 군부대신 이 근택(軍部大臣 李根澤), 법무대신 이 하영(法部大臣 李夏榮), 학부대신 이 완용(學部大臣 李完用) 농상공부대신 권중현(農商工部大臣 權重顯) 등이었는데 일진회의 세력을 개조할 목적으로 명칭을 고치게 되었다. 참정대신을 내각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이라 고치고 초대 내각총리대신에 李完用 내무대신에 任善準 탁지부대신에 高永晷 군부대신에 李秉武 법무대신에 趙重應 학부대신에 李載昆 농상공부대신 宋秉駿 등이 각부대신이 되었다. 이사람들에게 칠적(七賊)이라는 낙인(烙印)이 찍혔다.

일진회의 세력을 배경으로 개조된 각부대신은 서로 의사가 충돌되고 제각기 친일(親日)을 하느라고 왜놈에게 아부하기 시작하여 조석으로 변하는 국내정세는 날이 갈수록 더욱 변하여가고 각급관리(各級官吏)는 정신을 못차리고 왜놈이 하자는 대로도 허수아비처럼 그야말로 도장장사만 하니 이것이 이른바 소경 도장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리하여 우리나라 행정부는 날마다 부패하여지고 자격이야 있든지 없든지간에 일본말만 조금 안다든지 일본서 노동을 하였거나 남의 상점에 심부름을 하였거나 학교 문간만 다녀와도 요직(要職)에 있으니 정치가 무엇인지 민심이 어떠한지 어름어름 서류하나 제법 처리도 못하는 인물들이 의자만 차지하고 있고 소위 차관이니 비서니 차석이니 하는 자리에 왜놈을 두고 또 고문이라는 명칭으로 왜놈들이 무불간섭주의로 대소사를 참견하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바지 저고리만 앉았을 뿐이었다. 우리 고장에서도 安某가 主動하는 一進會活動이 대단하였다. 그들 후손을 위하여 기록에 올리지 않기로 한다.

第6節 獨立 선언서(獨立宣言書)

오등(吾等)은 자(玆)에 아조선(我朝鮮)의 독립국(獨立國)임과 조선인(朝鮮人)의 자주민(自主民)임을 선언(宣言)하노라. 차(此)로써 세계만방(世界萬邦)에 고(告)하여 인류평등(人類平等)의 대의(大義)를 극명(克明)하며 차(此)로써 자손만대(子孫萬代)에 고(誥)하여 민족자존(民族自存)의 정권(正權)을 영유(永有)케 하노라 반만년 역사(半萬年歷史)의 권위(權威)를 장(仗)하여 차(此)를 선언(宣言) 함이며 이천만민중(二千萬民衆)의 성충(誠忠)을 합(合)하여 차(此)를 포명(佈明)함이며 민족(民族)의 항구여일(恒久如一)한 자유발전(自由發展)을 위(爲)하여 차(此)를 주장(主張)함이며 인류적양심(人類的良心)의 발로(發露)에 기인(基因)한 세계개조(世界改造)의 대기운(大機運)에 순응병진(順應並進)하기 위하여 차(此)를 제기(提起)함이니 시일천(是一天)의 명명(明命)이며 시대(時代)의 대세(大勢)며 전인류(全人類) 공존동생권(共存同生權)의 정당(正當)한 발동(發動)이라 천하하물(天下何物)이던지 차(此)를 저지억제(沮止抑制)치 못할지니라 구시대(舊時代)의 유물(遺物)인 침략주의(侵略主義) 강권주의(強權主義)의 희생(犧牲)을 작(作)하여 유사이래(有史以來) 누천년(累千年)에 처음으로 이민족점제(異民族箝制)의 통고(痛告)를 상(嘗)한지 금(今)에 십년(十年)을 과(過)한지라 아생존권(我生存權)의 박상(剝喪)됨이 무릇 기하(幾何)며 민족적 존영(民族的尊榮)의 훼손(毀損)됨이 무릇 기하(幾何)며 신예(新說)와 독창(獨創)으로써 세계문화(世界文化)의 대조류(大潮流)에 기여(寄與) 보비(補裨)할 기연(機緣)을 유실(遺失)함이 무릇 기하(幾何)노, 회(噫)라 구래(舊來)의 억울(抑鬱)을 선양(宣揚)하려 하면 시하(時下)의 고통(苦痛)을 파탈(擺脫)하려 하면 장래(將來)의 험위(脅威)를 삼제(荏除)하려 하면 민족적 양심(民族的良心)과 국가적 염의(國家的廉義)의 압축소잔(壓縮縮殘)을 흥분신장(興奮伸張)하려 하면 각개(各個) 인격(人格)의 정당(正當)한 발달(發達)을 수(遂)하려 하면 가련(可憐)한 자제(子弟)에게 고치적(苦恥的) 재산(財產)을 유여(遺與)치 아니하려 하면 자자손손(子子孫孫)의 영구(永久) 완전(完全)한 경복(慶福)을 도영(導迎)하려 하면 최대급무(最大急務)가 민족적 독립(民族的獨立)을 확실(確實)케 함이니 이천만(二千萬) 각개(各個)가 인(人)마다 방촌(方寸)의 인(刃)을 회(懷)하고 인류통성(人類通性)과 시대양심(時代良心)이 정의(正義)의 군(軍)과 인도(人道)의 간과(干戈)로써 호원(護援)하는 금일(今日) 오인(吾人)은 진(進)해야 취(取)함에 하강(何強)을 좌(挫)치 못하랴 퇴(退)해야 작(作)함에 하지(何志)를 전(展)치 못하랴 병자수호조규(丙子修好條規) 이래(以來) 시시종종(時時種種)의 금석맹약(金石盟約)을 식(食)하였다 하여 일본(日本)의 무신(無信)을 죄(罪)하려 아니하노라 학자(學者)는 강단(講壇)에서 정치가(政治家)는 실제(實際)에서 아조종세업(我祖宗世業)을 식민지시(植民地視)하고 아(我) 문화민족(文化民族)을 토매인우(土昧人遇)하여 한갓 정복자(征服者)의 쾌(快)를 탐(貪)할 뿐이요

아(我)의 구원(久遠)한 사회기초(社會基礎)와 탁략(卓犖)한 민족심리(民族心理)를 무시(無視)한다
 하여 일본(日本)의 소의(少義)함을 책(責)하려 아니하노라 자기(自己)를 책려(策勵)하기에 급
 (急)한 오인(吾人)은 타(他)의 원우(怨尤)를 가(暇)치 못하노라 현재(現在)를 주무(綢繆)하기에
 급(急)한 오인(吾人)의 숙석(宿昔)의 징변(懲辨)을 가(暇)치 못하노라 금일(今日) 오인(吾人)의
 소임(所任)은 다만 자기(自己)의 건설(建設)이 유(有)할 뿐이요 결(決)코 타(他)의 파괴(破壞)에
 재(在)치 아니하도다. 엄숙(嚴肅)한 양심(良心)의 명령(命令)으로써 자가(自家)의 신운명(新運命)
 을 개척(開拓)함이요 결(決)코 구원(舊怨)과 일시적감정(一時的感情)으로써 타(他)를 질척배척
 (嫉逐排斥)함이 아니로다. 구사상(舊思想) 구세력(舊勢力)에 기미(羈縻)된 일본(日本) 위정가(爲政
 家)의 공명적 희생(功名的犧牲)이 된 부자연(不自然) 우(又) 불합리(不合理)한 착오상태(錯誤狀態)
 를 개선광정(改善匡正)하여 자연(自然) 우(又) 합리(合理)한 정경대원(正經大原)으로 귀환(歸還)케
 함이로다. 당초(當初)에 민족적 요구(民族的要求)로서 출(出)치 아니한 양국병합(兩國併合)의 결
 과(結果)가 필경 고식적 위압(姑息的或壓)과 차별적(差別的) 불평과 통계수자상(統計數子上) 허식
 (虛飾)의 하(下)에서 이해상반(利害相反)한 양민족간(兩民族間)에 영원(永遠)히 화등(和同)할 수 없
 는 원구(怨溝)를 거익심조(去益累造)하는 금래실적(今來實績)을 관(觀)하라 용명과감(勇明果敢)으
 로써 구오(舊誤)를 확정(廓正)하고 진정(真正)한 이해(理解)와 동정(同情)에 기본(基本)한 우호적
 (友好的) 신국면(新局面)을 타개(打開)함이 피차간(彼此間) 원화소복(遺禍召福)하는 첩경(捷徑)임을
 명지(明知)할 것 아닌가 또 이천만(二千萬) 함분축원(含憤蓄怨)의 민(民)을 위력(威力)으로써 구
 속(拘束)함은 다만 동양(東洋)의 영구(永久)한 평화(平和)를 보장(保障)하는 소이(所以)가 아닐 뿐
 아니라 차(此)로 인(因)하여 동양안위(東洋安危)의 주축(主軸)인 사역(四億) 지나인(支那人)의 일
 본(日本)에 대(對)한 위구(危懼)와 시의(猜疑)를 갈수록 농후(濃厚)케 하여 그 결과(結果)로 동양
 전국(東洋全局)이 공도동망(公倒同亡)의 비운(悲運)을 초치(招致)할 것이 명(明)하니 금일(今日) 오
 인(吾人)의 조선독립(朝鮮獨立)은 조선인(朝鮮人)으로 하여금 정당(正當)한 생영(生榮)을 수(遂)케
 하는 동시(同時)에 일본(日本)으로 하여금 사로(邪路)로서 출(出)하여 동양지지자(東洋支持者)인
 중책(重責)을 전(全)케 하는 것이며 지나(支那)로 하여금 몽매(夢寐)에도 면(免)하지 못하는 불안
 공포(不安恐怖)로서 탈출(脫出)케 하는 것이며 또 동양평화(東洋平和)로 중요(重要)한 일부(一部)
 를 삼는 세계평화(世界平和) 인류행복(人類幸福)에 필요(必要)한 계단(階段)이 되게 하는 것이라
 이 어찌 구구(區區)한 감정상 문제(感情上問題)리오 아아 신천지(新天地)가 안전(眼前)에 전개
 (展開)되도다. 위력(威力)의 시대(時代)가 거(去)하고 도의(道義)의 시대(時代)가 내(來)하도다 과
 거(過去) 전세기(前世紀)에 연마장양(鍊磨長養)된 인도적정신(人道的精神)이 마야흐로 신문명(新文
 明)의 서광(曙光)을 인류역사(人類歷史)에 투사(投射)하기 시(始)하도다. 신춘(新春)이 세계(世界)
 에 내(來)하여 만물(萬物)의 회소(回蘇)를 최촉(催促)하는 도다. 동빙한설(凍氷寒雪)에 호흡(呼吸)
 을 폐쇄(閉塞)한 것이 피일시(彼一時)의 세(勢)라 하면 화풍난양(和風暖陽)에 기맥(氣脈)을 진서
 (振舒)함은 차일시(此一時)의 세(勢)니 천지(天地)의 복운(復運)에 제(祭)하고 세계(世界)의 변조
 (變潮)를 승(乘)한 오인(吾人)은 아무 주저(躊躇)할 것 없으며 아무 기탄(忌憚)할 것 없도다 아
 (我)의 고유(固有)한 자유권(自由權)을 호전(護全)하여 생왕(生王)의 낙(樂)을 포향(餌享)할 것이
 며 아(我)의 자족(自足)한 독창력(獨創力)을 발휘(發揮)하여 춘만(春滿)한 대계(大界)에 민족적 정
 화(民族的精華)를 결뉴(結紐)할 지로다 오등(吾等)이 자(玆)에 분기(奮起)하도다. 양심(良心)이
 아(我)와 동존(同存)하며 진리(眞理)가 아(我)와 병진(並進)하는도다 남녀노소(男女老少)없이 음
 울(陰鬱)한 고소(古巢)로서 활발(活潑)히 기래(起來)하여 만취군상(萬彙群象)으로 더불어 혼쾌
 (欣快)한 부활을 성수(成遂)하게 되도다 천백세조명(千百世祖靈)이 오등(吾等)을 외호(外護)하나

니 착수(着手)가 곧 성공(成功)이라 다만 전두(前頭)의 광명(光明)으로 막진(幕進)할 따름인저
공약삼장(公約三章)

1. 금일(今日) 오인(吾人)의 차거(此舉)는 정의(正義) 인도(人道) 생존(生存) 존영(尊榮)을 위
爲)하는 민족적 요구(民族的要求)니 오직 자유적 정신(自由的精神)을 발휘(發揮)할 것이요 결(決)
코 배타적 감정(排他的感情)으로 일주(逸走)하지 말라.

1. 최후(最後)의 일인(一人)까지 최후(最後)의 일각(一刻)까지 민족(民族)의 정당(正當)한 의사
(意思)를 쾌(快)히 발표(發表)하라.

1. 일체(一切)의 행동(行動)은 가장 질서(秩序)를 존중(尊重)하여 오인(吾人)의 주장(主張)과 태
도(態度)로 하여금 어찌까지든지 광명정대(光明正大)하게 하라.

조선건국 4252년 3월 1일(朝鮮 建國 4252年 3月 1日)

조선민족대표(朝鮮民族代表)

손병희(孫秉熙), 길선주(吉善宙), 이필주(李弼柱), 백용성(白龍城), 김완규(金完圭), 김병조(金秉
祚), 김창준(金昌俊), 권동진(權東鎭), 권병덕(權秉德), 나용환(羅龍煥), 나인협(羅仁協), 양전백
(梁甸伯), 양한묵(梁漢默), 유여대(劉如大), 이갑성(李甲成), 이명용(李明龍), 이승훈(李昇薰), 이
종훈(李鍾勳), 이종일(李鍾一), 임예환(林禮煥), 박준승(朴準承), 박희도(朴熙道), 박동완(朴東完)
신홍식(申洪植), 신석구(申錫九), 오세창(吳世昌), 오화영(吳華英), 정춘수(鄭春洙), 최성모(崔聖
模), 최린(崔麟), 한용운(韓龍雲), 홍병기(洪秉箕), 홍기조(洪基兆)

第7章 民族解放

第1節 8.15 解放과 混亂期

1945년 8월 15일 정오(正午)가 되자 일황 히로히토(日皇裕仁)의 떨리는 목소리가 라디오에서 흘러 나왔다. 목소리는 매우 떨리는 약한 음성이었고 가끔 끊기는 불규칙한 것이었으나, 그것은 세계사적(世界史的)으로 중요한 역사의 한 장(章)을 기록하는 중대한 의의(意義)를 지닌 소리였다. 일본이 무조건(無條件) 항복(降伏)을 선언(宣言)한 이 역사적인 방송연설(放送演說)을 계기로 우리 나라는 36년간에 걸친 일제(日帝)의 쇠사슬에서 벗어나 바로 독립(獨立)을 눈 앞에 바라보게 되었다. 그러나 이 날이 바로 그 위대한 해방의 날이 될 줄은 해가 중천에 뜨도록 아무도 몰랐다. 며칠 전 일본 히로시마(廣島)와 나가사키(長崎)에 신행폭탄(新型爆彈) 投下와 (그것이 원자탄(原子彈)이 投下되었다는 것은 종전후(終戰後)에 알려졌다) 소련(蘇聯)의 참전등으로 일제의 패망(敗亡)이 멀지 않았으리라는 것은 어렵듯이 짐작했을 뿐이다. 그러나 그 날이 그렇게도 빨리 올 줄은 몰랐기에 일본의 무조건 항복은 전혀 예상(豫想)밖이었다. 전날에 이어 15일 오전에도 라디오나 벽보(壁報)가 오늘 정오에 중대방송(重大放送)이 있으니 일억국민(一億國民)은 꼭 들으라는 예고(豫告)가 있었으므로 관심있는 인사들은 미리 라디오 다이알을 맞추어 놓고 마음을 조이면서 방송에 귀를 기울였다. 이윽고 정오를 알리는 사이렌이 길게 울렸다. 천황(天皇)의 목소리는 아주 가늘고 가끔 끊어졌다 이어지는 불규칙한 것이었으나 그것은 일본이 미(美) 영(英) 중(中) 소(蘇)의 네 나라(四國)에 대한 공동선언(共同宣言) (포츠담선언)을 수락(受諾)할 뜻을 통고(通告)케 했다는 내용임을 쉽게 알수 있었다. 그러나 해방 당일인 8월 15일 그날은 모두 얼떨떨하게 그냥 지나쳐 버렸다. 해방이니 독립(獨立)이니 하는 말들이 떠돌았지만 선불리 만세(萬歲)를 부를 처지(處地)도 아니어서 어수선하고 슬렁거리는 속에서 그날을 보냈다. 일본이 전쟁에 져서 항복을 했다지만 일본관헌(日本官憲)은 그대로 총에 칼을 꽂고 버티고 있었다. 한국인(韓國人)은 그저 15일 아침까지만 해도 그렇게 기세 등등한 일본인들의 콧대가 순식간에 납작해지고 반대로 한국인에게 허리를 굽히는 돌변(突變)된 상황(狀況)에 저우히 만족했다. 대다수(大多數)의 일반 사람들은 일본이 연합국(聯合國)에 항복하고 전쟁이 끝났으면 조선(朝鮮)은 어떻게 되느냐고 서로 묻고 다녔다. 처음엔 좌익(左翼)도 우익(右翼)도 더구나 남(南)도 북(北)도 없었고 오직 조국독립(祖國獨立)의 일념(一念)만이 한민족(韓民族)의 가슴속을 지배했다. 이 날의 벽찬 해방의 감격과 함께 남과 북으로 국토의 허리가 동강난 채 분단(分斷)의 비극으로 변하는 시발점(始發點)이 될 줄은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다. 만세의 함성(咸聲)이 터진것은 이튿날인 8월 16일 부터였다. 복역중(服役中)이던 사상범(思想犯)이 모두 풀려나오고 곳곳에 벽보가 나붙기 시작했다. 뒤이어 해설(解說)과 벽보를 통해 일반민중(民衆)은 일본이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하고 카이로선언(1943년 11월 27일)과 포츠담선언(1945년 7월 26일)에 따라 한국의 독립이 약속된 것을 알았다. 해방의 감격(感激)은 해방 다음날 부터 거리를 메웠다. 사람들은 거리로 뛰쳐나와 만세를 불렀다. 이제는 우리도 해방이 되었으니 곧 우리 한민족의 정부(政府)가 서고 남들과 같이 떳떳하게 어깨를 펴고 살 날이 왔구나 하고 좋아했다. 그러나 해방의 환희(歡喜)와 감격에 들뜬 군중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저지룰지 모를 지경이었으므로 민중의 표

면(表面)에 나선 지도급 인사(指導級人士)들은 절대로 자중(自重)과 안정(安靜)을 일반민중에게 요망(要望)했다. 거리 곳곳에는“조선동포(朝鮮同胞)여! 지금 우리는 중대한 시기에 처해 있다. 우리들의 장래에는” 광명(光明)이 있을 것이므로 절대로 경거망동(輕舉妄動)해서는 안되며 자중과 안정을 요망한다는 벽보가 나붙기 시작했다. 해방 경축(解放慶祝)의 행렬(行列)은 날마다 거리를 뒤덮었다.

(1) 자치위원회(自治委員會)

해방이 되자 원주 지방에는 인민위원회(人民委員會) 또는 청년대(青年隊)가 조직이 되어 행정(行政) 및 치안(治安)을 맡고 나섰다. 청년대 등은 우후죽순격(雨後竹筍格)으로 같은 단체가 두 개 혹은 세 개씩 생겨났다. 그러므로써 자기단체(自己團體)의 세력을 과시(誇示)해 보려고 옥신각신하는 추태(醜態)를 보이게 되었다. 해방전 일제가 임명(任命)한 관리(官吏)와 제도(制度)가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이미 그들은 무기력 상태(無氣力狀態)에 빠진 채 아무런 권리도 행사할 수 없었다. 친일세력(親日勢力)에 가담하지 않았던 지도층 인사(人士)들은 이때에야 비로소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최대(最大)의 광명(光明)에서 최악(最惡)의 죄과(罪過)를 가져 올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일반민중들에게 자중(自重)할 것을 호소하며 치안확보(治安確保)에 나섰다. 이곳 원주에서는 8월(일차미상)에 조진구(趙軫九) 이정호(李定浩) 정영헌(鄭映憲) 권덕수(權德洙) 이재춘(李在春) 정호필(鄭鎬弼) 김용화(金龍華) 이지연(李止淵) 이종태(李鍾泰) 정태완(鄭泰完) 안한현(安漢鉉) 이종하(李鍾夏) 김동준(金東駿) 권오규(權五奎) 등이 발기인(發起人)이 되어 33인을 규합(叫合)하였다. 원주극장에서 해방이후 처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인민위원회(人民委員會)가 조직이 되었다. 해방이 될 때는 좌익(左翼)이니 우익(右翼) 또는 남파 북의 구별없이 조국독립(祖國獨立)의 일념으로 활약(活躍)하다 보니 인민위원회라는 이름은 좌익계에서 쓰는 말인 것으로 알려지게 되자, 즉시 자치위원회(自治委員會)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되었다. 인민위원회가 구성이 될 때까지 조진구(趙軫九)가 모든 회합(會合)에 임시의장격(臨時議長格)으로 준비에 앞장서서 이날도 사회를 맡아 보았다. 자치위원회 간판은 지금의 원성군청 감영문루(原城郡廳監營門樓) 아래 기둥에 달았다. 초대위원장(初代委員長)에는 김용화(金龍華)가 선출(選出)됐다. 부위원장(副委員長)에는 정호필(鄭鎬弼)이 선출(選出)되었다. 자치 위원장 즉 2대에는 권덕수(權德秀)가 선출되었다. 사찰대(查察隊)는 자치위원회와는 별개체인데 유도 유단자(柔道有段者)의 젊은 청년들(16명)이 모여서 가벼운 운동을 하다가 조직을 하게 되었다. 조직하게 된 동기(動機)는 해방직후, 이웃간이나 친지(親知) 사이에 오래된 숙원(宿怨)등으로 완력(腕力)을 행사하고 주먹이 오가는 등 폭동(暴動)은 일고 치안이 엉망인 공백상태(空白狀態)가 되니 혼란(混亂)이 일어나 청년들은 도저(到底)히 묵과(默過)할 수 없어 의협심(義俠心)이 강한 청년들이 조국은 우리의 힘으로 내고장을 들보며 일할 때는 이때이다. 법은 없고 주먹은 가까운 무법상태(無法狀態)에서 원주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保護)하자는 기치(旗幟)아래 정완철(鄭完澈)을 대장(隊長)으로 치안유지에 착수하였다. 제일 먼저 손을 댄 일은 청년대(青年隊) 문제였다. 청년대로는 원주청년대 또는 의흥청년대(義興青年隊) 경위대(警衛隊) 등이 있었다. 서로 단체 나름대로 자기들에 위력(偉力)을 과시(誇示)해보려 옥신각신해서 체제가 말이 아니었다. 사찰대(查察隊)는 각 청년단체 책임자와 협의(協議)하고 이 고장의 발전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서로가 단체를 해체(解體)하기로 합의(合議)를 보고 즉각 청년통합체(青年統合體)로서 원주청년회라고 하는 단일(單一) 이름으로 발족(發足)을 보게 되었다. 회원은 원주에 거주(居住)하는 30미만의 청년들로 약 3백여명 회원을 갖게 되었다. 청년들은 조국을 위해 생명을 바쳐 일하자, 우리는 정열(精熱)을 다해서 치안 유지에 주력(主力)을 두자고 결의(決議)하였다. 단일(單一) 원주청년회 회장에는 기독교인(基

僧敎人)으로 원주사회에서 덕망(德望)이 있는 정 영헌(鄭映憲)을 선출하였다. 부회장에는 사찰대장인 정 완철(鄭完澈) 안 종한(安宗漢)을 각각 선출하고 총무에 오 형선(吳享善) 조직겸연락(組織兼連絡) 오 상근(吳湘根) 훈련 원 봉훈(元鳳薰) 체육 함 재훈(咸在勲) 등으로 부서(部署)를 정하였다. 원주청년회로 통합(統合)되기 전 원주청년대 대장에는 김 봉수(金鳳洙) 부대장에 안 명수(安明洙) 장 기세(張基世)였었고 의흥청년대(義興青年隊) 대장에 전 기양(全基陽 나중에 좌익이 되다) 각 면(各面)에도 청년회를 조직하고 원주군 청년 총연맹 산하(原州郡青年總聯盟傘下)에 두었다. 간판은 원주청년회 사무실(原州青年會事務所)에 걸고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였다. 각 면 청년회에서도 총연맹(總聯盟)의 지시(指示)에 응하였으나 문막청년회는 공진청년(共進青年)이란 완장(腕章)과 표시(表示)를 달고 공산당 활동(共產黨活動)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고심(苦心)하였다. 사찰대는 현재 토목관구(土木管區)에 연못이 있었다. 그 곳에 관풍각(觀風閣)이라는 루각(樓閣)을 본부(本部)로 정하고 방곡반(防穀班)을 편성(編成)하기에 이르렀다. 왜냐 하면 수확기(收穫期)를 마지한 농민들은 일제하(日帝下)에서 식량을 제대로 공급(供給)받지 못하던 서러움을 생각해서 우리들 손으로 알뜰하게 추수(秋收)하여 생활해 보려고 노력을 하였지만 양곡은 서울등지로 반출(搬出)되는데 하루밤 사이에 추력의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이 모리배(謀利輩)로 인해 원주에서 산출(產出)되는 양곡으로는 시민의 식생활도 부족 될 우려(憂慮)때문에 사찰대원과 경찰관 八명을 함께 사찰대에서 근무 배치(勤務配置)를 하고 철야근무(徹夜勤務)로 외지반출(外地搬出)을 막았다. 해방지후 경찰관이 있었어도 실력(實力)을 발휘(發揮) 못 함으로 사찰대에서 실권(實權)을 잡고 활약하였다. 사찰대원은 무보수(無報酬)로 경찰 및 검찰권(檢察權)까지도 겸해서 발동(發動)하는 위세(威勢)였었다. 폭동진압(暴動鎮壓) 폭행(暴行) 방범일체(防犯一體)를 담당하고 무슨 사건이든 현장에 사찰대가 출동(出動)한다는 말만 나와도 진압(鎮壓)이 됐을 정도였었다. 원주에서는 해방지후의 최고기관(最高機關)이라고도 할 수 있었는데 청년대 말고도 노동조합(勞動組合) 농민조합(農民組合) 등이 두각(頭角)을 들어내기 시작하였다. 노동조합의 책임자는 권 충일 이라고 원주 제일감리교회(原州第一監理教會) 권 신일 목사(牧師)의 아들로 일본 어느 대학을 나오고 육고를 여러번 치른 사람인데 좌익으로 노동자 농민의 권익(權益)을 보호(保護)하고 지위향상(地位向上)을 도모(圖謀)한다는 구실이었으나 그들의 노선(路線)은 좌익경향(左翼傾向)이라기 보다 공산이념(共產理念)의 전위대(前衛隊)였었다. 그들은 노동자 농민들에게 농지개혁(農地改革)이 있느니 토지분배(土地分配)를 하느니 노동자들에게는 노임차취(勞賃搾取)운운 하여 선동(煽動)을 일삼았기 때문에 무지몽매(無知蒙昧)한 노동자 농민들은 감언이설(甘言利說)에 현혹(眩惑)되어 조합원의 수는 막대하였으나 당시 사회에서는 도저히 용납(容納)될 수 없는 날조(捏造)된 망동(妄動)이라 아니 할수 없던 차에 파업(罷業) 소동(騷動)이 일어났다. 농민에게 말하기를 지주(地主)는 아무 권한(權限)이 없고 소작자(小作者)에게 권리가 있다고 하였다. 특히 정미소(精米所)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정미소가 너의 것이 될 터이니 일하지 말라는 거짓말에 속아 파업을 단행(斷行)하기에 이르렀다. 사찰대에서도 정보를 입수하였는데 마침 자치위원이며 사법서사(司法書士)로 있던 이 재춘(李在春)이 와서 이런 단체는 없애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하는 요청(要請)을 받고 사찰대 전원이 현장으로 달려갔다. 그 당시 노동조합 본부(勞動組合本部)는 일본인 이나바(稻葉)라고 하는 자가 원주여관(原州旅館)을 경영하였는데 그 집 아래 윗층을 점유(占有)하고 있었다. 정미소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여 모든 정미소가 쉬게되니 원주시장 미곡상(米穀商)에 쌀이 없어 서민(庶民)들은 손에 빈 자루만을 들고 거리를 진종일 방황(彷徨)하고 다녔지만 쌀 한 톨 구경을 못하고 민심(民心)은 극도로 흉흉해졌다. 이렇듯 소동(騷動)이 심한 틈을 타서 노동조합의 지도자라는 자들은 폭동을 일으킬 음모(陰謀)를 꾀하고 있었던 위태로운 순간이었

었다. 마음의 무장(武裝)을 단단히 한 사찰대 전원은 노동조합 본부를 습격(襲擊) 하였다. 당시 사찰대는 결의문(決議文)을 작성해 가지고 갔다. 노동조합 간부들에게 말하기를, 사찰대의 이 결의문을 받아 들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찰대에서는 즉각 실행행사(實力行使)를 단행하겠다고 호통을 쳤다. 결의문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2) 民族陣營의 活動과 左翼系列의 策動

(決議文)

(가) 우리는 해방과 더불어 조국을 찾게 된 벽찬 이 기쁨에 뒤흠가 일을 해야 할 때이다. 너희들도 뜻이 있으면 우리와 같이 일해보자.

(나) 노동자와 농민을 위해서 조합을 만들어 그들의 권익(權益)과 지위향상(地位向上)을 도모(圖謀)해 준다는 미명(美名)아래 너희들의 행동과 의도(意圖)는 딴 곳에 있으니 이를 즉각 철회(即刻撤回) 할수 없는가.

(다) 정미소의 노동자들을 총동(衝動)시켜 총 파업(總罷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중단(中斷)하고 너희들 감언이설(甘言利說)에 속은 노동자들을 본위치(本位置)로 돌아가 일하도록 할것.

(라) 불응(不應)한다면 2시간내에 이 곳을 떠나라. 만약의 경우 너희들 생명(生命)을 보장(保障) 할수 없다.

이상이 결의문의 내용이었는데 쌍방(雙方)의 대표자가 모여 토의(討議)하였으나 한 가지 조항(條項)도 받아들일수 없다는 강경(強硬)한 태도였기에 사찰대원과 청년들은 실행행사(實力行使)를 하기에 이르렀다. 지도급에 있던 권 충일은 원주를 완전히 공산화(共產化)시키려는 자였었다. 노동조합 옆 방이 숙직실(宿直室)이었는데 사찰대원이 들어가 보니 숙직원이라는 자들이 약 70명 가량(假量)있었는데 사찰대가 습격한다는 정보(情報)를 미리 알고 습격에 대비(對備)하여 방망이와 몽둥이를 가지고 대기상태(待機狀態)에 있었다. 공기(空氣)가 매우 살벌(殺伐)하였었다. 그러나 사찰대에서는 무지몽매(無知蒙昧)하고 순박(淳朴)한 농민 노동자에게는 실행행사는 하지 않고 설득공작(說得工作)을 썼다. 당시의 실정(實情)을 설명하고 불로소득(不勞所得)이란 있을 수 없다. 노동을 해야 임금(賃金)을 받을게 아닌가, 어째서 지주(地主)의 땅이 너희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말인가, 오늘 아침밥을 먹고 나온 사람이 몇이나 되는가? 그네들도 쌀이 없어 아침을 먹고 나온 사람이 몇 안됐고, 정미소에서 일하던 사람이 누구인가, 당신들로 말미암아 전 읍민(全邑民)이 고통을 겪고 있으니 이것이 잘한 일인가, 하고 말하였다. 노동자 농민들은 그렇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고 하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 왔다. 사찰대는 용기(勇氣) 백배하여 노동자 농민은 본위치(本位置)로 돌아가 종천과 같이 일하라고 타일러 돌려 보냈다. 다음날 부터 정미소는 가동(稼動)되어 쌀의 고갈(枯渴)을 면하게 되었다.

권 충일은 유도(柔道) 4단인데 대항을 하기에 청년들과 사찰대원이 두들겨서 많이 마졌다. 사찰대에서 요구하기를 오늘 밤중으로 원주를 뜨라고 하였더니, 순순히 응낙을 하고 그날로 원주를 떠났다. 권 충일이 인천노동조합(仁川勞動組合)을 설립하여 이끄러 오던 좌익계 거물이었다고 하는데 원주에서 쫓겨, 문막에 가서 은신(隱身)하고 있었다. 노동조합에 팔세못할 지방 인사 몇 사람이 가담하였는데, 조 하만(趙胡晩) 김 병학(金秉學) 등이있었다. 이 사람들은 설득하여 집으로 돌려 보냈다. 노동조합 간판을 떼 버리고 본부(本部)를 폐쇄(廢鎖)해 버렸다. 그후 서울에 자유신문(自由新聞)이 있었는데 정치면(政治面)이고 사회면(社會面)이고 간에 원주 사찰대를 비난(非難)하는 기사(記事)로 꼭 메워졌다. 기사 내용은 원주에서 백색(白色) 테러가 일어났는데 이 테러 분자(分子)들은 전국 방방곡곡에서 주시(注視)하고 있다. 총알 같은 눈초리로 너희들 심장(心臟)을 노리고 있다. 절대무사(絕對無事)할리 없다는 협박(脅迫)의 기사였었다. 사찰대와 청

년회는 즉시 회의를 열었다. 노동조합이나 농민조합이 미운 것이 아니고 주동자(主動者)들의 행동이 미웠던 것이다. 전국에서 노동조합 또는 농민조합 간판을 걸고 진심으로 그들의 권익(權益)을 옹호(擁護)해 주는 단체라면 제지(制止)할 이유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노동조합 간판을 불러놓고 타협하였다. 너희들이 진심에서 노동자 농민을 위해서 일할 의도(意圖)가 있다면 다시 활동을 재개하여도 사찰대에서 간섭을 하지 아니하겠으며, 만약의 경우 이 사항을 위배하였을 때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하였더니 쾌히 응해주었다. 노동조합과 농민조합 간판을 다시 달고 활동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공산주의자들로서 체계(體系)가 완전(完全)히 있었던 관계로 지령(指令)에 움직이면서 공산주의 활동을 계속하고 있었다. 1945년 12월 28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미·영·소 삼상회의(三相會議)는 한국을 5년간 미·영·중·소 4대국(四大國)에 의한 신탁통치(信託統治) 아래 두기로 결정했다는 뉴스가 AP통신을 통해 국내에 전해졌다. 이 소식은 한(韓)국민들에게는 청천벽력(靑天霹靂)과 같은 것이었다. 그 때까지만 해도 지도층 인사는 물론 일반민중들도 해방 즉 독립(獨立)이라는 점을 의심(疑心)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에, 그 충격(衝擊)은 더욱 컸다. 혼란과 혼미 속에서 헤매던 정국(政局)은 정신을 가다듬고 정파(政派)나 계보(系譜)를 초월(超越)하여 신탁통치(信託統治) 반대(反對)의 대열(隊列)에 총 집결(總集結)했다. 처음에는 우익진영(右翼陣營)은 물론 공산당(共産黨)을 비롯한 좌익(左翼)도 반탁대열(反託隊列)에 섰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은 며칠이 안 가서 1946년 1월 2일 하루밤 사이에 태도를 표변(豹變)하여 신탁통치를 찬성(贊成)하고 나섰다. 며칠 사이에 모스크바의 지령이 평양을 통해 조선공산당(朝鮮共産黨)에 전해진 것이다. 처음에는 반탁대열(反託隊列)에 섰다가 찬탁으로 태도를 바꾼 공산당의 소행(所行)이야 말로 좌우익(左右翼)을 갈라지게 한 결정적 계기(契機)가 되었다. 그때 까지만 해도 우익과 좌익간에는 가끔 의견(意見) 대립(對立)도 있었고 심각(深刻)할 지경에 까지 이르기도 하였지만 중도세력(中道勢力)에 의해서 간간히 합작운동(合作運動)이 나올 정도로 타협의 여지는 있었다. 찬탁으로 태도를 바꾼 공산당은 한술 더 떠서 처음 5년간은 소련방(蘇聯邦)에 편입(編入)되기를 희망한다고 박헌영(朴憲永)이 1946년 1월 15일 뉴욕타임즈지 기자(記者)와의 회견(會見)에서 밝혔다. 박헌영의 소련방 편입 희망 보도(蘇聯邦編入希望報道)를 계기로 우익과 좌익은 완전히 갈라서고 극한 대립(對立)으로 치닫게 되었다. 그 당시에 원주 자치위원회에서도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결의된 신탁통치를 한다는 정보가 정식으로 입수되었다. 원주자치위원회에서는 위원장 권덕수(權德洙) 조진구(趙軫九)를 비롯하여 지도급 인사들이 모여 준비회합(準備會合)을 갖고 1946년 1월 3일 원주군민을 동원하여 푸랑카—드를 들고 원주국민학교 교정에서 신탁통치반대(信託統治反對) 원주 군민대회를 열었다. 결의문(決議文)을 채택(採擇)하고 구호를 소리 높여 외치며 시위(示威)에 들어갔는데 쌍다리계를 당도했을 때 권 총일이 이끄는 좌익계에서도 프랑카—드를 들고 오는데 공산분자(共産分子)들은 찬탁(贊託)의 프랑카—드였다. 극과 극이 쌍다리에서 맞부딪치게 되니 극소수의 찬탁대열은 삼시간에 반탁의 대열을 보고는 혼비백산(魂飛魄散)하여, 하나 둘 다 빠져 도망가고 호지보지 되고 말았으나 좌익계에서는 계속해서 찬탁운동을 벌이고 있었다. 청년들은 신탁통치반대 대회의 기세(氣勢)를 몰아, 원주 일본인이 경영하던 청월여관(淸月旅館) 자리에 미군(美軍)이 주둔(駐屯)하고 있었는데 반탁대열은 그 곳을 향하여 행진하여 정문에 다다르니 미군들은 폭동대열인 줄 알고 당황하고 있을 때 원주군수로 민경식이 영어회화가 가능하였기에 미군들에게 군민의 뜻을 전하고 대열이 이 곳에 이르게 된 동기(動機)를 설명하였다. 미군들은 잔뜩 긴장(緊張)한 상태에서 이곳 군민들이 신탁통치(信託統治)를 이렇듯 반대한다는 뜻을 본국에 연락하겠다고 하는 확답(確答)을 듣고 미군부대 앞을 물러나와 해산을 시켰다. 군청 루각(郡廳樓閣) 앞으로 청년들

판을 집합 시켜놓고 오늘 군민이 신탁통치반대 대회를 할 때 애매(曖昧)한 행동을 하는 단체가 있었는데 그 단체를 그냥 두어도 괜찮겠는가 하고 말하였더니 이구동성(異口同聲)으로 그대로 뒤서는 절대로 안되겠다. 그러니 그 곳으로 가서 없애버리자고 하며 노동조합 본부에 청년들이 달려가 보니 공산분자들은 자기네들 행동이 옳지 못 함을 깨달았는지 아니면 청년들의 기습을 두려워서였든지 피신하고 없었다. 청년들은 즉시 각처로 수소문끝에 소초(所草) 흥업(興業) 문막(文幕)으로 도주한 것을 알고 추격(追擊)한 끝에 몇시간 뒤인 오후에 전부 끌고 왔다. 당시 청년들은 반역행위(反逆行爲)를 한 좌익분자들의 행위가 지나침을 안 청년들이 막 두들겨 패서 병원에 입원도 하는 소동까지 야기(惹起)시켰다. 이것은 어느 누가 시켜서 한 행동이 아니요 자진해서 취한 정당한 행동이었다. 제일 먼저 노동자 농민을 선동하여 파업에 돌입(突入)한 후 공산분자인 노동조합 간부들을 불러서 앞으로는 절대로 불합리한 일을 안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파기(破棄)하였기 때문에 이 단체를 아주 없애 버려야 되겠다는 데 의견이 일치되어 노동조합 본부를 다시 또 급습(急襲)하였다. 당시에 조선 사람이면 누구나 다 그리워하였던 태극기(太極旗)는 한장도 없고 적기(赤旗)가 붙어 있는데 애국가 대신 적기가(赤旗歌)를 써 붙여 놓았다. 사찰대를 선두로 한 청년들은 그 집을 수색(搜索)한 바 지령문(指令文)도 나왔고 원주민회의(原州人民會議)라고 계획한 문서도 있었다. 문서에는 저희들과 인연(因緣)이 닿는자들의 이름을 기록한 명단과 원주극장에서 원주군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장을 비롯해서 기타 간부를 선출하고 완전한 좌익단체를 만들어 원주를 공산화(共產化)시키려던 음모(陰謀)의 내용이였다. 그 당시 미군정청(美軍政廳)이 와 있었는데 미군들이 노동조합에 못을 쳐서 폐쇄(廢鎖)하고 청년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까지 하기에 이르렀다. 신탁통치를 반대할 무렵 경찰이고 군청이고 판공서가 파업에 돌입(突入)하고 말았다. 치안은 억망이란 말보다 아주 마비(麻痺)가 됐다고 해도 파업은 아니었다. 시민들은 불안 상태(不安狀態)에 놓여 있을 때 사찰대장인 정 완철(鄭完澈)이 대원을 이끌고 치안유지(治安維持)에 임(臨)하였다. 도적(盜賊) 폭행(暴行) 도박(賭博)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사건을 해결 또는 방지(防止)를 위해 4일밤 뜬눈으로 골목마다 순찰(巡察)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당시 사찰대의 임원(任員) 명단은 다음과 같다.

대장 정 완철(鄭完澈) 대원 원 봉훈(元鳳薰) 정 우철(鄭雨澈) 박 태희(朴台熙) 이 대근(李大根) 김 규열(金奎烈) 김 재열(金在烈) 황 운학(黃雲鶴) 이 세영(李世榮) 조 모(曹某) 박모(朴某 기름집 아들) 5명의 명단(名單)은 未詳

1945년 9월 20일경 미군이 진주(進駐)하였고 미군을 환영하기 위해 자치위원을 비롯한 많은 인사들이 이곳 영흥관(永興館)에서 환영연(歡迎宴)을 베풀었다. 당시 제일감리교회(第一監理教會) 권 신일 목사(權信一牧師)의 아들인 공산당의 거물(巨物)이라고 하는 권 충일(權忠一)이 (나중에 알려진 일) 원주에서 쫓겨 문막에 은거(隱去)하였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이 더욱 열을 올려 민족주의 민족전선 결성대회(民族主義 民族戰線 結成大會) 즉 공산당 회의를 문막국민학교 교실(文幕國民學校 教室)에서 개최하였다. 참석인원수는 알수 없으나 아래 윗칸 교실이 꽉 찼는데 사회는 김 대봉(金大鳳)이 열렬히 보았고 박수(拍手) 소리와 울소 소리는 교실이 떠나갈듯 하였다. 김 대봉(金大鳳)과 유 회각은 고대출신(高大出身)이고 극열분자인데 후에 공산당 강원도 위원장(共產黨 江原道 委員長)이 된 자이다. 문막이 이러한 실정(實情)이니 문막 청년회가 원주 청년총연맹 산하(原州青年總聯盟傘下)에서 고분고분 일할 리가 없었다. 그래서 공진청년(共進青年)이란 완장(腕章)을 두른 문막청년회를 연맹본부에서 추력 2대에 청년들이 분승(分乘)하여 문막으로 향하였다. 문막청년회 간부 김 대봉(金大鳳) 김 대운(金大雲) 유 회각 금융조합이사(金融組合理事)인 라 모(羅某)와 함께 문막면 사무소(文幕面事務所)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공산분

자들이 몽둥이를 들고 면 사무소 주위(周圍)를 포위하다시피 매복하였다가 면 사무소 마당으로 물러 들어옴으로 그냥 두었다가는 쌍방에 사상자(死傷者)만 속출(續出)할 것이고 문막 면민을 공포(恐怖)의 도가니로 몰아 넣을 우려(憂慮)가 있기에 사찰대장인 정 완철(鄭完澈)이 김 대운(金大雲) (김대운은 정완철의 제자였음)의 며살을 잡고 마당으로 끌고 나와 해산시키지 못 하겠는가, 하고 호통을 치니 김 대운이 즉시 해산을 명하여 공산당의 청년들이 물러갔는데 원주군 청년 총연맹 본부에서 이 정보를 접(接)하고 당시는 차량(車輛)구하기가 힘들었다는데도 청년 지원대(青年支援隊)가 추력 2대로 문막에 도착하였다. 쌍방모두 일촉즉발(一觸即發)전에 위태로웠던 충돌(衝突)을 방지하기에 이르렀다. 후에 경찰에서 소탕전(掃蕩戰)이 있었는데 6.25 때를 전후하여 제2의 모스크바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였다. 사찰대 활동 중 그저 웃어 넘기지 못할 일도 있다. 따귀동지회라는 것이다. 당시 혼란됨을 틈타 도박(賭博)이 성행했는데 사찰대원이 정보를 입수(入手)하여 대원들은 그 장소를 급습하였다. 마작(麻雀)이 한창 열을 올릴 참이라 대원들은 들어서며 따귀를 때리고 경찰서까지 끌고 왔는데 알고 보니 소위 원주유치(原州有志)라는 인사들이었다. 건국초(建國初)에 모두가 지방일에 힘 쓰고 있는데 협조(協助)는 못할망정 이것이 무슨 짓들이나, 하는 청년들 말에 따귀 마진 것도 도리어 다행한 일 같이 잘 못을 뉘우쳐 훈방조치(訓放措置)한 일도 있었다.

이때 따귀를 맞았다해서 따귀동지회(同志會)라는 이름이 생기게 되었고 수10년이 지난 이즈음 까지도 따귀동지회라는 말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그후 반탁운동(反託運動) 기간을 통해 뭉쳐진 민족진영(民族陣營) 세력이 국민회(國民會)의 중심을 이루게 되었다. 국민회 발족 후 반탁운동(反託運動)은 국민회(國民會)를 중심으로 해서 전개(展開)되었던 것이다. 여기서 일러둘것은 査察隊라는 말은 正式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고 원주에는 당시 유도로 강원도내에서도 알려진 유단자들이 많았고 유도 유단자들로 구성된 하나의 단체였으며 이 모임은 결속이 잘되어 지방 치안에 앞장섰던 것이다. 지방으로서는 없어서는 안될만한 이때의 결속체였으므로 호칭 사찰대라 하였다.

이때의 이와 같은 청년들의 활동이 아니었다면 원주는 한때 좌익계 활동이 더욱 심했었을 것이라는 것이 지금까지도 평하여지는 사실이다.

第 8 章 自主獨立과 政治

第 1 節 序 論

大韓民國의 獨立을 世界萬邦에 宣布한 1948年 8月 15日以來 四半世紀에 걸친 오늘날까지는 民主政治의 기틀을 잡기 위한 발돋움의 歷史였다.

그동안 우리는 君主統治와 植民地 彈壓에서 벗어난 民主政治 初年生으로 基盤이 없는 政黨의 亂立과 社會의 混沌속에서 出帆하여 6.25南侵, 內外情勢의 激動등으로 여러가지 政治變革과 試練을 겪으면서 政治成年이 되었다. 돌이켜 보면 아홉차례의 大統領 選舉에 있어서 制憲當時의 間, 接選舉가 直接選舉로 바뀌고 4.19以後 다시 間接選舉로 還元되었으며 5.16革命 以後에 또 다시 直接選舉로 바뀌었다가 維新理念의 實現을 爲해 間接選舉制度를 다시 採擇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많은 變化를 가져온 大統領 選舉를 비롯해서 아홉차례의 國會議員 選舉를 치르는 過程에서 單一政黨의 獨裁化 및 野黨의 分裂, 統合에 依한 政局의 昏迷, 4.19 義舉에 따르는 過渡政府, 5.16革命에 依한 軍政, 그리고 民政移讓, 격변하는 國際情勢와 北傀의 好戰의 危險에 對處하는 非常事態 宣言, 憲政의 一時中斷, 南北對話의 進展과 平和統一을 指向하려는 維新憲法의 制定 등의 變化속에서 國民의 政治意識은 높은 訓練을 쌓았다고 하겠다.

따라서 國民이 選良을 뽑는 눈도 높아졌으며 人物爲主에서 政黨本位로 群小政黨보다는 責任政治를 펼 수 있는 兩大政黨의 育成을 바라게 되었다. 그러나 幾百餘年の 傳統과 政治訓練을 쌓은 西歐式 民主主義를 一朝에 받아 들여서 施行하는 데는 相當한 隘路가 따르게 됨을 否認할 수 없다. 우리의 지난 四半世紀의 政治는 너무나도 많은 兪를 남겨 놓았다. 이 兪를 中에서도 가장 恥部에 屬하는 것이 不正選舉였다. 1950年代 後半의 執權政黨인 自由黨의 末期의 現象으로 四捨五入 改憲이 強行되고 급기야 史上未曾有의 3.15 不正選舉를 치르게 됨으로써 4.19學生義舉가 勃發하게 되었다.

公明選舉는 多數決을 信俸하는 民主主義 制度에는 絕對 根幹이 되는 行爲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無視하고 全國의 規模로 不正選舉를 恣行하여 總選舉 當日인 1960年 3月 15日 馬山에서 民衆蜂起가 일어나 再選舉를 主張하고 戒모에 나선것을 警察이 서슴없이 發砲하므로써 數名의 人命被害를 내게 되자, 戒모군중은 더욱 격분하여 事件은 擴大되었다. 3.15 馬山民衆義舉를 契機로 不正選舉 糾彈戒모는 學生主導로 連日 地方主要都市에 波及되고 同年 4月 18日에는 드디어 서울에서 集中的으로 大規模 示威로 번지고 급기야 4月 26日에는 李承晩大統領이 下野를 宣言하게 되었다.

이어서 이 땅에서 독재정치를 拂拭하고 眞正한 民意에 依한 民主政府를 樹立하려는 當時의 國民輿望에 副應하여 內閣責任制 改憲을 주장한 民主黨 政府가 들어 섰으나, 統治의 無能과 戒모의 激化로써 史上 未曾有의 混亂을 거듭하여 4.19 翌年 드디어 5.16軍事革命이 일어나 混沌한 世態의 終焉을 보았다. 南北이 對峙하고 있는 韓國의 處地로서 社會의 混亂을 내버려 둔다는 것은 北傀의 誤算을 誘發하는 可能性을 무시 못할 뿐만아니라 危險千萬한 일이었다. 滿 2年의 軍政期間中 累積된 社會病弊를 깊이 手術하고 庶政刷新을 斷行하였으나 워낙 期間이 짧아 當初 目標하였던 革命課業을 十分 完遂하는 데는 미치지 못하여 革命主體의 民政參與는 不可避

第2編 政治 및 行政

하게 되었다. 憲法の 國民投票는 後進國 脫皮를 爲한 強力한 推進力을 가진 大統領 責任制의 政府를 이룩하고 爭點많은 對日修交, 外資導入, 越南派兵등의 여러 政策을 嚴하게 遂行하여 南北對話의 길까지 렀다. 여기에서 國民總和와 維新憲法의 必要性이 擡頭된 것이다. 南北이 分斷된 現實에서 더우기 一人獨裁體制의 金日成이 끊임없이 赤化統一의 野慾을 劃策하는 이 마당에서 우리의 地盤을 공고히 하기 爲하여 西歐式 自由 民主主義를 우리 實情에 맞게 導入하고 國民總和를 이룩하여 南北對決에 勝共을 다짐하려는 것이다.

第2節 政黨 政治

오늘날과 같이 대규모의 國家 政治를 영위하자면 적어도 國民大衆을 조직화하고 그들의 의사와 이익을 國家意思와 利益으로 昇華시키는 政治集團, 특히 政黨이 존재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政黨은 國民大衆과 國會를 媒介하는 政治集團으로서의 公式的, 獨占的 地位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現代政治는 代議政治인 同時에 政黨政治로 불리게 되는 것이다. 現代政治에 있어서 政黨을 民主政治制度의 核心이요, 政黨의 性質과 그 組織은 民主政府의 成長을 가름하는 것이 된다. 形式的 政治機關을 國會, 政府라고 한다면 實質的 政治機關은 참으로 政黨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그러므로 政黨에 관한 올바른 理解는 現代 民主主義 政治體制를 옳게 理解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原州, 原城의 政黨의 발자취를 더듬어 본다는 것은 原州地區 政治史의 核心을 理解하는 것이 된다. 光復과 더불어 우리겨레가 갈망하던 自主獨立政府가 樹立됨에 따라 이 땅에도 各樣各색의 수 많은 政黨과 社會團體의 結成을 가져왔다. 解放에서 오늘날까지 政黨政治의 변모를 살펴보면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첫째, 解放에서 48年 建國까지 3年間의 政治的 混亂期의 大韓獨立促成國民會와 無所屬時代 들째, 3, 4代 國會議員 選舉 때까지의 大統領中心制下의 自由黨 全盛時代

셋째, 4.19革命에 依한 過渡政府 및 內閣責任制下의 民主黨時代

넷째, 5.16革命에 依한 軍事政府, 大統領責任制下의 共和黨時代로 大別할 수 있겠다.

原州地區의 경우로는 解放에서 建國까지의 사이는 右翼陣營과 左翼과의 끊임없는 鬭爭의 期間이 그다지 없다고 보아진다. 解放과 더불어 發足한 建國準備委員會(建準)가 解體되면서 右翼系 人事들은 大韓獨立促成國民會와 그 산하 青年團體로 結束하여 活動하였다.

1948年 5月 10日 實施된 大韓民國 制憲議員 選舉에서 原州에서는 無所屬 2名, 國民會 2名 등 4名이 出馬하므로 亂立을免치 못하였으나, 無所屬에 洪範憲가 當選되어 無所屬의 절대적인 힘을 나타냈다. 그러나 이것은 族靑의 強勢였다. 1950年 5月 30日 實施된 2代 國會議員 選舉때에도 無所屬으로 尹吉重, 李定浩, 洪範憲, 咸基燮 등 4名과 國民黨으로 韓基駿이 出馬하므로 5名이 불꽃튀는 對戰을 하였으나 無所屬의 尹吉重이 當選되므로 無所屬으로서 尹吉重을 中心으로 한 政治勢力 樣相을 보여 주었다. 다시 1952年 自由黨 原州郡黨의 結成을 보게 됨에 따라 政治版圖는 바뀌어서 54年 5月 20日 3代 選舉에서는 無所屬으로 元貞鎬, 韓基駿, 尹吉重 등 3名과 自由黨으로 咸在勲이 出馬하여 絶對的인 多數票로 咸氏가 當選되므로서 政黨活動의 그 價値를 알게 되었다. 그 후 1958年 5月 2日에 實施된 4代 民議院議員 選舉에서는 原州市와 原城郡이 分離되어 各一名式을 選出하기로 되었는데 原州市에서는 民主黨으로 朴忠模, 自由黨으로 咸在勲, 無所屬으로 李重淵, 韓慶洙, 張壹淳 등 5名이 出馬하여 民主黨의 朴忠模가 當選하였고, 原城郡에서는 自由黨의 洪範憲, 民主黨의 朴永祿, 無所屬의 車益教 등 3名의 出馬에서 自由黨의 洪範憲가 當選되었다. 原州와 原城과의 差異는 亦是 都市와 農村이라는 差였다. 그런데 1960年 3.15不正選舉에 따른 4.19

學生義舉로 自由黨政權이 무너지고 過度政府가 實施한 60年 7月 29日 5代 國會議員 選舉에서는 原州市에서는 民主黨에서 朴 忠模, 趙 漢珪, 無所屬으로 李 重淵, 安 明漢, 社大黨으로 張 壹淳, 自由黨에서 咸 在勳등이 出馬를 하였는데 原城郡에는 社大黨의 尹 吉重, 民主黨의 金 圭源, 朴 永祿, 無所屬으로 金 興培, 韓基駿, 李 鍾金등이 出馬하였다. 結果는 原州市에서는 民主黨 公薦候補인 朴 忠模가 原城郡에서는 社大黨 公薦候補 尹 吉重이 各各 當選되었다. 그러나 61年 5月 16日에 일어난 軍事革命으로 憲政은 中斷되고 滿 2年半의 軍政後 63年 11月 26日 實施한 6代 國會議員 選舉에서는 革命主體가 創黨한 民主共和黨으로 文 昌模, 民主黨으로는 朴 永祿과 安 明漢, 保守黨으로 金 寅植, 국민의당으로 咸 在勳, 自由民主黨으로 金 圭源 新民黨으로 金 鍾卓 등 앞서와는 달리 많은 黨을 열고 나왔다. 또한 이 때는 原州 原城을 하나로 묶어 江原第 二地域區로 되었으니 7對 1의 比率이었다. 民主黨의 朴 永祿이 5만6천2백3십1표 中 2만1백7표를 得함으로 當選이 確定되었다. 그래서 原州地區는 民主黨의 勢力分布 그대로 流動되지 않았다. 1967年 6月 8日에 實施한 7代 國會議員 選舉에서는 自由黨으로 朴 炅秀, 新民黨으로 朴 永祿, 韓國獨立黨으로 金 鎬赫, 民衆黨으로 鄭 鉉祐, 民主共和黨으로 洪 淳哲등이 出馬를 하였으나 亦是 朴 永祿이 當選됨으로 第一野黨인 新民黨이 차지하여 江原道內 9個地區에서 8名이 民主共和黨에서 차지하고 一席만 新民黨에서 차지하므로 野黨地域이라는 말을 다시한번 듣게 되었다. 이와 같은 結果는 繼續되었던 지난날의 自由黨과 民主黨 때와 같은 陰性的인 反發에 依한 樣相이라고 하겠다. 한편 이와 같은 原因의 하나는 政府의 對野政策 및 作用에도 영향이 있었다고 할 수 있겠다. 그 후에 三選改憲에 따른 國民投票가 實施되었고 그리고 祖國의 平和統一을 指向하는 維新憲法의 制定 統一主體 國民會議 代議員選出등 많은 政治의 變革과 더불어 平和統一을 爲한 政黨活動의 樣相이 바뀌어 가고 있는 實情이다.

第3節 解放에서 第一共和國까지

(가) 建國準備委員會

原州에서 政黨의 구실을 한 最初의 組織은 建國準備委員會(통칭建準)이었다. 비록 政黨의 구실을 하였다 하지만 現代政黨이 하고 있는 그러한 國民大衆의 輿論運搬機關으로서의 것은 아니었다. 解放과 더불어 日帝 植民地治下에서 우리의 손으로 이양되는 統治權을 받아들이기 위한 過渡期的인 時局에 發足된 것이기에 더욱 그럴수 밖에 없었다. 日本은 「포스담」宣言을 無條件受諾하고 無條件 降伏을 하기에 앞서 1945年 8月 9日 朝鮮總督 阿部信行과 政務總監 遠藤柳作은 降伏後의 治安維持와 日本人의 生命財産에 대한 保護策을 宋 鎮禹에게 委任시키려 하였으나 宋 鎮禹는 韓國에 聯合軍이 곧 進駐하여 日本軍의 武裝을 解除하고 海外의 우리 臨時政府가 들어와 政權을 擔當할 것을 생각하여 이를 拒否하였다. 그뒤에 다시 阿部總督은 그 해 8月 15日 午前中에 呂 運亨에게 같은 內容을 要請하였다.

呂 運亨은 聯合軍이 進駐할때 까지 國內에 民族代表機關을 設置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다음과 같은 5個 要求條件에 對한 日本側의 事前確約을 얻은後 日本側의 要請을 受諾하고 建國準備委員會의 組織에 着手했던 것이다.

- (1) 全國을 통하여 政治犯, 經濟犯을 즉시 釋放할것.
- (2) 8月, 9月, 10月 3個月間의 食糧을 確保할것.
- (3) 治安維持와 建國運動을 위한 政治運動에 대하여 絕對로 干涉하지 말것.
- (4) 學生과 青年을 訓練, 組織하는데 대하여 絕對로 干涉하지 말것.
- (5) 勞働者와 農民을 建國事業에 組織 動員하는데 대하여 絕對로 干涉말것.

第2編 政治 및 行政

이와 같은 要求條件에 대한 事前 確約을 얻어 呂運亨을 中心으로 하여 8月 17日 過渡的인 治安組織을 完了하였다. 8月 15日에서 17日에 걸쳐 서울을 비롯한 20餘 刑務所에서는 日帝의 죄 사슬에 묶여 獄苦를 치르고 있던 民族의 獨立鬪士들을 包含한 2萬餘名이 釋放되었으며 全國 坊坊 曲曲에서 갈망하던 祖國光復을 祝福하는 大韓獨立萬歲소리가 그칠 줄 모르고 太極旗의 물결이 온거리를 휩쓸고 있었다. 이와 같은 眞空狀態에 自衛隊, 治安維持會, 保安隊 등 各種 各樣의 自發的인 治安團體가 各 地方에 結成되었고 日人이 管理해 오던 各機關의 接收가 進行되는 한편 官廳의 保有物資가 放出되어 當面한 生活 確保에 使用하는 등 社會의 混亂이 繼續되었다. 이때에 江原道에서 建國準備委員會의 委員長은 春川에서 金宇鍾이었다. 그러나 原州에서 만든 「建準」이라는 말이 나오지 못하였다. 原州에서는 原州邑民委員會나 郡民委員會라고 하였다. 그것은 처음에 建國準備委員會라는 말이 어색하다는 데서와 右派와 左派의 갈림 때문이었다. 當時의 狀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나) 大韓獨立促成 國民會

原州의 國民會 멤버로는 趙軫九, 李定浩 등이었으나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原州郡內에서 制憲 國會議員 選舉때만 해도 國民會로 李定浩, 趙軫九 등 2名이 같이 出馬를 하여 8,386票와 5,246票를 득하므로 無所屬으로 當選된 洪範憲 得票 24,001票에 比하면 大端한 差였다. 5.30 總選舉에서도 큰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韓基駿이 出馬를 하였으나 當選에 미치지 못하였다. 李承晚의 政治基盤이었던 國民會는 特히 原州에 있어서는 建國 初期에 한때 절대적인 影響력을 미쳤다고 하겠으나 그러나 他地方에 比해 볼때 그다지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하였다. 그나마도 1952年 自由黨이 結成될 때에는 國民會 所屬 人士들의 몇몇이 自由黨으로 들어 갔으니 더욱 힘을 잃게 되었다. 三代 民議員 選舉에서는 韓基駿도 無所屬으로 出馬를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原州의 國民會는 弱勢를 보이고 말았다.

(다) 自由黨

自由黨의 組織은 制憲國會가 無所屬이 多數를 차지하여 政黨政治에 경험이 없는 議會政治에서 強力한 政治體制로 設定한다는 時代的 要請에 副應하려는 名目으로 李承晚大統領에 依해서 發足된 것이다. (1951. 12. 17 釜山東亞劇場에서) 自由黨 江原道黨은 臨時로 道廳이 原州에 있게 될 때였기 때문에 道黨도 原州에서 結成을 하기에 이르렀는데 1952年 6月 22日 原州市 園洞에 있었던 文化館에서 道內 市, 郡 代議員 3百餘名이 모여 結成大會를 가짐으로써 組織되었다. 이때 江原道 組織責은 李容萬이었다. 初代 道黨委員長에 崔圭鉦을 選出했고, 1953年度 年次大會도 亦是 原州에서 가졌고 崔圭鉦이 再選되었다. 當時 原州郡에서는 처음에 尹吉重이 自由黨 組織을 하였는데 族靑活動人士들이 自由黨에 들어 오므로, 한때 原州自由黨은 族靑自由黨이라는 別稱까지 받기도 했다. 當時에 族靑은 李容萬을 中心으로 한 組織이었다.

繼續 組織은 擴大되었고 勢道 또한 커져만 갔다. 그러나 1954年 5月 20日 施行한 總選舉때에 公薦問題 때문에 相當한 時日과 어려움에 부딪친바 있으나 咸在勳이 公薦을 得하고 當選됨으로 自由黨에서 院內로 들어가게 되었다. 58年 5月 2日에 施行된 民議員 選舉에서도 서두르다가 다시 李明中, 李止淵, 李容萬, 洪淳哲, 吳亨善 등이 主動으로 組織이 되었는데 初代 委員長에 洪淳哲, 副委員長에 李止淵, 李明中이었고 黨舍는 當時 洪淳哲이 經營하는 原城病院 2層이었다. 그 후 53年度 第2次 年次大會에서도 委員長에는 洪淳哲이 再選되었고 副委員長에는 李止淵, 李容萬이 選出되었다. 이때 原州에는 族靑活動이 다른 곳에서는 따를 수 없으리만치 活動적이었으며 原州市에서 咸在勳이, 原城郡에서는 洪範憲가 公薦을 받고 出馬하였으나 原城郡은 勝利하였고 原州市에서는 民主黨에 지고 말았다. 原州地域 自由黨의 全盛時代는 3,4代 民議員 選舉때까지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3.15不正選舉로 인한 4.19學生 봉기로 政權의 붕괴를 가져오고 말았다.

(라) 民主黨

民主黨은 四捨五入 改憲波動때에 發足된 野黨勢力의 集結體인 護憲同志會를 母體로 民國黨系를 中心하여 1955年 9月 18日에 서울市公館에서 創黨하였다. 其後부터 地方組織이 始作되었으나 原州地區뿐만 아니라 江原道內에는 自由黨一色으로 좀처럼 組織에 랄이 泮지 못하였다. 그러나 長期執權을 하는 自由黨에 對한 民心은 그다지 좋지 못하였다. 이때 原州에서는 朴忠模, 黃柱益이 中央黨과 線을 잇고 組織活動이 始作되었으며 自由黨 政權下에서의 野黨組織이란 수월하지는 못하였으나 民心을 利用하여 地下組織으로부터 始作되었다. 1955年 11月 3日에서야 朴忠模, 黃柱益, 全泰重등 3名이 三山病院 內室에서 民主黨 原州地區黨 結成準備委員會라는 名稱을 부쳐 모였고, 11月 17日까지 李昌葉, 金春洙, 安仁善등 3名이 黨員으로 入黨하게 되어 모두 5명뿐으로 民主黨 創黨大會를 準備하기에 이르렀다. 이윽고 그해 11月 23日에 大會를 치르기로 하고 集會屆를 냈으나 屋外는 안된다는 當局의 反對로 平原洞에 있는 原州劇場에서 하기로 되었다. 그러나 이날 大會를 방해하려는 一部側의 움직임으로 해서 反發을 한 民心은 怒濤와 같이 일어나 大會場은 초만원이 되었고, 劇場밖에도 人山人海를 이루어 不過 5명의 露出黨員으로 걱정을 했던 準備委員들은 활기차게 大會에 臨하였는데 이 때 申翼熙, 趙炳玉, 張勉, 朴順天, 金相敦等 中央黨 最高委員이 모두 參席하므로 郡衆은 이분들의 말도 들어보며, 한번 보려고 遠近에서 모여든 것이 이날 大會를 더욱 크게 만들었으며, 人心은 民主黨으로 기울어지기 始作했던 것이다. 이날 大會에서 委員長에 朴忠模, 常務委員長에 黃柱益이 選出되었고, 이어서 部署에 있어서는 總務部長을 全泰重으로 하고, 組織部長 黃柱益이 兼務를 하였고, 婦女部長에 安仁善, 活動隊로 李昌葉과 金春洙가 맡기로 臨時部署를 만들고, 民主黨 看板을 三山病院에다 걸었다. 그후 江原道黨創黨準備를 하기 爲한 朴忠模와 黃柱益은 春川에 힘을 뻗쳐 宋柱日과 線을 이어 春川市黨을 組織케 하고 이어서 道黨 結成準備委員會를 1956年 6月에서야 春川에서 宋柱日, 金振九, 黃柱益, 李永培, 金良國등이 中心이 되어 結成하였다. 이해 8月 31日에 趙炳玉 代表最高委員이 參席한 가운데 道黨結成大會를 春川 黨舍에서 갖고 道黨委員長에 原州 朴忠模가 選出되었다. 江原道內에서 第一번저 創黨을 한 原州 民主黨은 계속 조직 확장을 하였으나 地下組織뿐으로, 표면으로는 組織이 마비 상태였으며 1958年度에 4代 民議員 選舉에서 朴忠模가 民主黨으로 出馬하여 當選되므로 부터 原州를 野黨都市라고 까지 말하게 되었다. 그후 朴永祿, 金成峰, 趙漢珪등이 民主黨에 入黨하므로 黨勢는 더욱 확장되었고 1960年 7月 29日 5代 國會議員 選舉에서는 原州市에서 朴忠模, 趙漢珪등 2名이 民主黨으로 出馬를 하여 朴忠模가 當選되므로 공천의 힘을 보였고, 原城郡도 공천후보로 朴永祿이 出馬를 하였는데 金圭源이 또 民主黨으로 出馬를 하여 不過 577표차로 社大黨의 尹吉重에게 敗北하고 말았다. 그후 第6代 國會議員 選舉는 1963年 1月 26日 實施되었는데 이 때는 選舉區를 原州, 原城을 統合하여 江原 第2地區 選舉區로 하고 國會議員 1名을 選出하게 되었다. 이 때에도 공천을 朴永祿 단일로 하였으며 安明漢이 民主黨으로 出馬하여 民主黨에서 2名이 出馬했으나 結局 絶對的인 多數票로 朴永祿이 當選되었다. 이렇게 해서 原州의 民主黨이 成長해 왔으나 結局 4.19 以前까지가 全盛期였다. 4.19 後에는 스스로 分散되고 말았다.

第4節 第2共和國

(가) 民主黨

4.19 義學로 12年間の 自由黨政權이 終末을 告하고 民主黨이 政權을 잡아 第2共和國은 出帆

第2編 政治 및 行政

하였다. 李承晚大統領 下野후 事態收拾을 맡은 許政 過渡政府는 1960年 7月 29日을 國會議員 總選舉日로 公告했다. 7.29 選舉때 처음으로 實施되는 參議員議員 選舉에서는 原州에서 洪範憲가 無所屬으로 出馬하였으나 落選되므로 原州人中에서는 參議員 議政壇上에 나가지 못하였고 民議院 議員 選舉에는 原州市에서 民主黨 公薦으로 朴忠模가 出馬하여 當選되었고 原城郡에서는 朴永祿이 落選되었다. 原州의 民主黨內에서도 新民黨으로 갈려나가는 人士가 있어 民主黨의 黨勢는 內粉의 영향으로 弱化되어 가고 있었다. 이때 初代 道知事 公薦問題를 가지고 약간의 內粉이 있었으나 朴永祿으로 公薦이 確定되므로써 一段 정돈이 되었다. 그러나 5.16革命으로 얼마 가지 못하였다.

(나) 新 民 黨

自由黨 政權에 抗爭했던 民主黨은 義舉로 政權을 장악하게 되자 新舊派間의 對立을 가져와 마침내 1961年 2月 20日 新民黨의 發足を 보게 되었다. 이로 因해 原州에서는 金成峰, 趙漢珪 등이 主動이 되어 新民黨이 發足되었다. 그러나 新民黨은 中央黨으로 부터 下向式 組織을 했기 때문에 地區黨으로서는 큰 黨勢 擴充을 하지 못한채 지내오다가 自然的으로 民主黨이 新民黨으로 되기에 이르렀고 朴永祿이 委員長이 되었다.

第5節 第3共和國에서 第4共和國까지

(가) 民 主 共 和 黨

1963年初 政治活動 再開와 함께 5.16 革命理念을 繼承하여 窮極의 政治風土를 改善하고 世代交替를 斷行할 健全한 近代政黨을 育成한다는 目標아래 中央과 地方의 再建同志會, 學術 團體등을 母體로 民主共和黨 創黨準備委員會가 같은 해 2月 5日 發起하였다. 그리하여 63年2月 26日 革命勢力을 主軸으로 各界人士를 포섭한 가운데 서울 市民會館에서 創黨大會를 열어 政治活動 再開후 最初の 政黨으로서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그때 創黨宣言文의 要旨는 다음과 같다.

「우리는 4.19와 5.16革命의 理念을 繼承하고 眞正한 自由民主主義의 꽃을 피게하고 早速한 近代化를 圖謀해야 할 時代의 要求의 擔當은 兩次 革命의 理念을 이어받은 새 勢力의 良心과 力量에 期待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 原州地區黨의 創黨

中央의 움직임에 이어 江原道內에서도 道廳 所在地인 春川에 모여 革命主體 勢力이 中心이 되어 움직이기 始作하였다. 1963年 1月11日 春川市 朝陽洞 金權의 집에서 道內 各市郡의 人事들이 모여 組織活動이 始作되었는데 이때 原州에서는 金昌洙, 文昌模가 參席하여 道單位組織의 發起人이 되었고 原州地區는 第2地區로서 原州 原城을 包含하여 組織하기로 되어 그 組織責으로 安敎明이 來原하였다. 63年 1月 12日 原州市 鶴城洞 文昌模宅에서 李重淵, 洪淳哲, 金昌洙, 元斗鎬, 李영, 李在春, 金相洙 등이 모여 第2地區黨 創黨發起會를 열었고 이어 1月 15日 第2次 發起準備會를 하였으며, 1月 18日 原州市 平原洞 臨時連絡所에서 前記한 7名으로 7人委員會가 구성되었다. 同年 1月 31日 原州 YMCA회관에서 54명이 모여 正式으로 發起人大會를 갖고 2月 14日 原州市 一山洞 原州文化院 會議室에서 47명이 參席한 가운데 創黨(準備)大會를 開催하고 委員長에 李炳圭, 副委員長에 李普宇를 選出했으며, 63年 2月 26日에 있던 서울 시민회관에서의 민주공화당 창당대회 때까지 第2地區黨(原州 原城)의 黨員數는 1,380명에 不過하였다. 그 후 1963年 7月 26日 改編大會를 열고 委員長에 洪淳哲, 副委員長에 朴台熙, 李正福, 金榮一等 3名을 選出했으며 63年 11月 26日에 있었던 第6代 國會議員選舉에 文昌模가 공천 입후보

하였으나 落選되었다. 64年 9月 26日에 연차대회를 개최하고 副委員長단 · 改編하기로 되어 李正福, 金相俊, 朴啓勳 등 3명이 選出되었고, 65年 11月 6日 연차대회에서도 부위원장에 朴台熙, 李正福, 朴啓勳이 다시 選出되었다. 67年 6月 8日에 있었던 第7代 國會議員 選舉에서도 洪淳哲을 공천하였으나 落選되었다. 68년도 연차대회에서는 委員長에 金龍鎬, 副委員長에 金榮一, 丁海東, 朴啓勳 등 3명이 選出되므로 黨勢擴張을 하였다. 그후 國民投票가 있었고 7代 大統領 選舉에서부터 더욱 黨勢가 擴張되어 71年 5月 25日에 있었던 8代 國會議員 選舉때에 委員長인 金龍鎬가 공천되어 民主共和黨 第2地區黨에서 처음으로 金龍鎬가 當選되었다. 그 후 72년도 연차대회에서는 副委員長에 鄭完澈이 들어오고 朴啓勳이 나감으로 金榮一, 丁海東은 留任하게 되었다. 다시 73年 2月 27日에 實施된 第9代 國會議員 選舉에서 다시 金龍鎬議員이 공천을 받아 立候補한바 再當選되었다. 그런데, 이때는 洪川郡과 橫城郡이 原州地區로 編入되 들어오므로서 選舉區가 확장되었다. 地區黨이 이같이 됨에 따라 改編大會에서 委員長에는 亦是 金龍鎬가 副委員長에는 趙漢珪, 崔承海, 李光浩, 金正善, 尹在澤 등 5명이 선출되었다. 原州에다 民主共和黨 事務局을 두고 事務局長이 常任하고 있으며, 橫城과 洪川에는 連絡事務所를 設置하였다.

歷代 委員長 및 在任期間은 第1代 李秉圭 63, 2, 14~63, 7, 25일까지, 第2代 洪淳哲 63, 7, 26~68, 12, 6일까지, 第3代 金龍鎬 68, 12, 7~75年 現在까지 繼續中에 있다. 事務所長에는 趙漢珪, 金甲洙, 金秉兆, 李秉兆 등이 歷任하고 있다.

(나) 民政黨

民政黨은 62年 12月 22日 尹鴻善 前大統領이 記者會見에서 汎野大同團結로서 民間勢力을 總糾合하여 순수한 單一野黨을 形成할 것을 提唱, 尹鴻善, 金炳魯, 李仁, 錢鎮漢 등 4者會談에 依해 創黨의 움직임이 싹텄다. 그리하여 政治活動 許容과 더불어 63年 1月 27日 舊新民黨, 舊自由黨, 舊民主黨, 無所屬 등 4政派가 모인 가운데 「軍政當局의 失政을 통렬히 비난하고 民政移讓에 관한 公約의 實踐을 요구하는 한편은 國民의 團結을 呼訴」하는 發起 趣旨文을 宣言, 民政黨(가칭)을 正式으로 發足시켰다. (創黨은 63年 5月 14日) 原州에서는 民政黨 組織이 되지 못하였다. 江原道黨 結成에도 原州에서는 參席조차 하지 않았다. 이때만 해도 原州地區는 與野로 갈려 있다가 보다 두드러지게 나서기를 꺼려했던 것 같다. 汎野 單一政黨을 目標로 出發했던 民政黨은 64年 11月 26日 自由民主黨을 吸收 統合 후 對日屈辱外交 反對 汎國民鬭爭을 벌이다가 65年 5月 8日 事實上的 野黨統合인 民主黨과 統合 새로운 民衆黨을 發足시켰다. 原州에서도 65年 7月 에 燕江春에서 發足式을 가졌는데, 朴永祿을 中心으로 한 野黨人事들이 모여 式을 마쳤다.

第6節 國民主權機關

(1) 統一主體 國民會議 代議員選舉

維新憲法이 발효된 후 첫 課業은 새 憲法에 의해 民族主體勢力 형성의 國民의 主權受任機關인 統一主體 國民會議를 구성하기 위한 國民會議 代議員을 선출하는 일이었다. 政府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維新憲法이 公布된 11월 25일 당일로 전날의 非常國務會議를 통과한 統一主體 國民會議 代議員 선거법과 同施行令을 公布했다. 이 법에 의하면 全國의 代議員 총수는 2,359명 選舉區數는 1,630區 첫 代議員 선거는 이 법 公布日로부터 30日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 공고는 늦어도 선거일전 18日에 大統領이 하도록 규정했다. 이 선거법의 특징은 ① 選舉過程에서 浪費를 없애고 土着的 민주주의가 반영되도록 하기위해 選舉區를 細分, 小選舉區制와 中選舉區制를 混用했고 ② 입후보자의 자격을 엄격히 規制, 政黨加入을 배제하고 居住 기간을 설정했으며 ③ 선거운동의 철저한 公營制를 채택한 것 등이다. 朴大統領도 非常國務會議 석상에서 代議員은,

第2編 政治 및 行政

① 維新精神의 理念을 전 국민에게 生活化할 수 있고 ② 충실한 자기生業이 있어 名譽職이 될 수 있게 하고, ③ 과거 政治公害要因의 形態가 없는 德望있는 人士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말한 것 등이 國民會議의 성격을 잘 말해준다. 維新憲法 시행후 처음인 統一主體 國民會議 代議員 선거는 72년 12월 15일 전국 일제히 실시되었다. 開票는 16일 밤 白翎島를 마지막으로 전부 끝나 全國 1,630個 선거구에서 2,359명의 初代 國民會議 代議員이 확정되었다. 中央選管委 최종 집계 에 의하면 이 선거에는 全國에서 총유권자 1,580만2,435명중 1,028만1,543명이 投票에 참가하여 70.4%의 저조한 현상을 나타냈다. 그중 無投票 당선이 확정된 곳이 全國에서 225명, 辭退 또는 登錄 무효된 후보자가 425명에 달했다.

(2) 統一主體 國民會議

國民의 主權의 受任機關인 統一主體 國民會議는 72년 12월 23일 獎忠體育館에서 第1次 회의를 열고 任期 6년의 새 大統領으로 朴正熙 現大統領을 다시 선출했다. 선거는 在籍 代議員 2,359명 전원이 參加, 維新憲法과 國民會議法 규정에 따라 討論없이 無記名 비밀투표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朴正熙 후보가 찬성 2,357표 무효 2표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다시 大統領에 선출되었다. 國民會議 議長인 朴正熙大統領은 開會式이 끝난후 運營委員 50명을 지명 발표했다. 이 때 原州出身 金龍雲이 運營委員으로 選出되었다. 統一主體 國民會議는 73년 3월 10日 全國各市道別로 地域會議를 열고, 朴大統領이 추천한 任期 3年の 國會議員 후보자 73명 (議員 定數 219명의 3분의 1)과 예비후보자 14명 (후보자의 5분의 1)에 대한 투표를 실시했다. 國民會議 地域會議의 전국적인 投票결과는 總 代議員 2,359명중 2,354명이 출석하여 贊成 2,251표 反對 82표 無效 21표로 95.63%라는 높은 贊成率로 大統領이 추천한 국회의원 73명을 당선 확정시켰다. 같은날 江原道立 文化館에서 열린 江原道の 國民會議 地域會議에는 道內 145명의 代議員 전원이 참석했는데 開票결과는 贊成 135 반대 10표였다.

(3) 統一主體 國民會議 代議員連絡室

統一主體 國民會議 代議員連絡室은 原州市 一山洞 1번지 原州文化院內에 1972年 12月 20日 統一主體 國民會議 代議員으로 選出되면서 發足되고 있다. 대의원 상호간 친목과 긴밀한 유대를 가지고 지역사회에 봉사함을 목적으로 原州市 6名, 原城郡 9名, 도합 15명의 議員이 있다.

의 원 명 단

原州市 1 地 域

金龍雲, 金成峰, 宋喆淳

原州市 2 地 域

趙壽英, 崔俊錫, 咸在馴

原城郡 代議員

所草 金益善, 好楮 李文揆, 地正 韓昌愚, 文幕 許泳, 富論 沈相基,
貴來 韓龍九, 興業 盧承哲, 板富 朴萬守, 神林 金弘基,

第7節 朴正熙大統領 維新語錄

● 우리는 自由民主體制보다 더 훌륭한 制度를 아직 갖지 못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制度라 하더라도 이를 지킬 수 있는 能力이 없을 때에는 이 民主體制처럼 脆弱한 체제도 또한 없는 것이다. (72.10.17 대통령 특별선언), ● 우리는 지금 世界史的인 一大轉換點에서 밖으로는 國際權力政治의 激浪을 헤치고 우리의 國家利益을 最大限으로 守護 伸張해 나가야 하겠으며 안으로는 모든 면에서 發展을 거듭하고 南北 對話를 폭 넓게 展開하여 平和統一의 길을 넓히고 다져

나아가야 할 重大한 民族的 使命을 賦與받고 있다. (72.10.27 헌법개정안 공고에 즈음한 특별담화)

● 維新課業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좋은 점을 保全하고 가꾸는 한편, 잘못된 것과 낡은 것, 그리고 不條理와 非能率을 과감히 除去, 追放하고 전국민이 힘을 합해 祖國繁榮과 平和統一을 달성하자는 것이다. (72.12.25 昭陽江 多目的담 담수식 치사), ● 10月維新은 올바른 歷史觀과 主體的 民族史觀에 입각하여 우리 民族의 安定과 繁榮, 그리고 統一組國을 우리 스스로의 힘과 奮知로서 爭取하고 進설하자는데 그 궁극적인 目的이 있는것이다. (72.12.23 統一主體국민회의 개회사), ● 維新은 우리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開拓해 나가려는 偉大한 韓國人의 思想과 철학의 확립이며 그 實踐인 것이다. 따라서 나는 이 崇高한 維新理念을 구현하기 위해 全國民의 절대적인 支持속에 國政全般에 걸친 一大改革을 단행해 나갈것이다. (72.12.27 大統領 就任辭)

● 10月維新에 대한 중간평가는 輸出 100億弗을 達成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 政府의 모든 行政, 外交, 文教정책은 물론 國民의 思考方式, 生産樣式, 農民生活, 科學技術등도 輸出 100億弗 달성에 촛점을 맞추어 總力이 기울여져야 할 것이다. (72.12.29 輸出振興 확대회의), ● 우리나라의 基本秩序가 國民의 政治的自由를 보장하는 民主主義에 뿌리박고 있다. 지난날처럼 自由를 빙자한 無秩序와 民主를 빙자한 非能率을 그대로 許容하고 용납하겠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國會는 진정으로 國家利益만을 생각하고 國民의 福祉向上을 위해 노력하는 참신하고 진실한 民意의 廣場이 되어야 하겠다. (73.1.1 新年辭), ● 우리가 수행해야 할 維新課業은 결코 體制나 制度의 改革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며 앞으로 보다 切實한 것은 維新精神을 생활화 할 수 있는 우리의 굳은 覺悟와 決意에 찬 使命感인 것이다. 특히 安定과 能率의 極大化를 기할수 있는 깨끗한 政治風土의 조성이야말로 維新課業을 先導하는 지름길이다(73.1.4 共和黨에 보낸 親書)

● 새마을운동은 維新理念을 具現하는 汎國民的인 운동이다. 이 운동의 기본방침은 모든 國土의 産業圈化, 모든 일손의 生産化, 그리고 農民의 技術者化에 두고 새해에도 계속 全國的으로 강력히 전개토록 해야 한다. (73.1.6 靑瓦臺 國務會議), ● 政治的 非能率과 浪費는 올바른 國家觀이나 民族的이익보다도 개인의 利益과 黨利黨略만을 앞세웠기 때문에 빚어진 것이다. 10月維新은 바로 이와 같은 病弊와 모순을 制度的으로 是正하고 補完하여 능률적이고 生産的인 政治秩序를 확립하고 우리 韓國의 文化的 傳統과 現實에 가장 알맞은 民主制度를 이룩하려는데 그 目的이 있는 것이다. (73.2.10 선거일 공고에 즈음한 담화), ● 10月維新은 國籍 없는 精神的 방랑아를 거부한다. 空理空論과 事大主義를 배격한다. (73.2.2 서울大 卒業式치사), ● 우리자 民主主義를 하는 목적은 남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더우기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 하는 것도 결코 아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 自身을 위해서 民主主義를 하는 것이다. 또한 民主主義는 누가 가져다주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틀에 맞추어서 만들어진 商品도 아니다. 民主主義는 그나라 그민족의 歷史의 내지는 文化的傳統을 背景으로 하고 그 나라의 國力을 土壤으로 하여 生成 發展하는 하나의 制度이며, 歷史的인 產物이다. (73.3.12 제9대 國會 開院式 치사), ● 우리 教育의 목적은 우리 國家가 필요로 하는 誠實하고 能力있는 人材를 양성하는데 있다. 우리 大韓民國에서 자라서 우리 大韓民國을 위해 일할 수 있는 人材를 양성하는 데 있다. (73.3.2.3. 교육자대회치사) ● 南北이 다 같이 世界 平和機構에 加入하게 되면 韓半島의 緊張완화와 民族的 信賴의 회복 증진에 寄與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世界平和에도 이바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南北이 다같이 國際聯合에 加入하는 것이 오히려 平和統一의 길을 더욱 넓혀 나가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하는 것이다(73.8.15 光復節경축사), ● 나는 우리 大韓民國의 安全을 위협하고 우리 겨레의 자존을 모독하는 어떠한 형태의 挑發도 이를 결단코 용납치 않겠다는 一致된 國民의 決意를 明白히 闡明해 두는 바이다. (73.10.1 국군의날 訓示), △새마을 운동은 韓國의 民主主義의

第 編 政治 및 行政

實踐道場이요 참다운 民主主義를 뿌리 박는 道場이다. 10月維新의 理念을 구현하자면 非能率 非生産의인 요소를 과감히 是正하여 勤勉, 自助, 協同, 團結로 國力培養과 조직화에 모든 힘을 集中해야 한다. 그러므로 새마을은 10月維新이요, 10月維新은 곧 새마을운동이다. (73.11.22 전국 새마을 지도자대회 유지), ● 國民教育憲章은 민족중흥을 위한 教育의 기본이념인 동시에 10月維新의 實踐綱領이다. 70年代를 사는 우리 世代가 이 위대한 民族的 理念을 이 땅에 實現시키고자 감연히 일어난 一大勇斷이 바로 10月維新인 것이다. (73.12.5 국민교육헌장 선포 기념식 치사). ● 政府內의 일부 末端공무원들 중에는 10月維新의 근본목적을 잘못 理解하고 마치 공무원들의 便宜만을 위한 것으로 착각하여 國民에 대한 姿勢가 不親切하고 非奉仕의인 사례가 있었다는 일부 非難을 듣고 마음 아프게 생각했다. 앞으로 國務委員은 물론 모든 公務員들은 10月維新 理念과 그 목적을 보다 더 올바르게 철저히 認識 維新課業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과감하되 國民에 대한 자세는 진실하고 誠實하라. (73.12.7 改閣후 첫 國務會議 지시), ● 北韓의 끊임없는 南侵 위협하에서 維新體制의 구축은 不可避했다. 최근 일부 知識人과 학생들이 維新體制 자체에 대해 비판을 하고 體制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無責任한 言動이며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73.12.19 共和 維政會소속 國會議員 파티서), ● 우리 모두가 새로운 마음으로 서로 믿고 協同하여 國民總和로서 祖國의 역사위에 또 하나의 빛나는 金子塔을 세워야겠다는 決意를 굳게 다짐한다. 특히 지도층에서 사치와 낭비를 배격하고 維新理念을 성실히 生活化하는데 솔선 수범해야 한다. (74.1.1 新年辭)

第 8 節 10 月 維 新

朴 正熙大統領은 72년 10월 17일 南北對話를 뒷받침하고 激變하는 國際情勢에 能動的으로 對處해 나가며, 民族主體力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全國에 非常戒嚴을 宣布하고 일련의 維新的 改革을 단행하기 시작했다. 特別宣言은 ① 72년 10월 17일 하오 7시를 期해 國會를 解散하고 政黨 및 政治활동의 中止등 현행 헌법의 一部條項 効力を 停止시킨다. ② 一部効력이 정지된 憲法조항의 기능은 非常國務會議에 의해 遂行되며 非常國務會議의 기능은 現行憲法の 국무회의가 掌한다. ③ 非常國務會議은 72년 10월 27일까지 祖國의 平和統一을 指向하는 憲法改正案을 公告하며, 이를 공고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國民投票에 붙여 確定시킨다. ④ 憲法改正案이 확정되면 개정된 憲法節次에 따라 늦어도 금년 年末이전에 憲政秩序를 正常化시킨다는 것등 6개 항이다. 朴大統領은 10월 17일 오후 6시 靑瓦臺에서 國務會議을 召集, 維新的 改革을 단행하려는 자신의 決斷을 국무위원들에게 披瀝했고 국무회의는 곧 이어 盧載鉉 육국참모총장을 戒嚴司令官으로 하는 非常戒嚴令 宣布를 議決했다. 維新的 改革의 出發信號가 되는 이 特別宣言이 발표되자 在鄉 軍人會, 商工會議所, 以北五道民會등 各界 各層에서 잇따른 支持聲明이 나와 적극 뒷받침 했다 10月維新의 근본의도는 特別宣言에서 밝힌 公約事項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그 내용은 ① 國民의 日常生業과 활동에는 아무런 지장이나 變動도 없다. ② 모든 公務員은 國民에 대한 公僕으로서의 使命感을 새로이 하고 맡은바 職責에 加一層 충실한다. ③ 政府는 國民의 명량한 生活를 보장하기 위해 社會秩序 확립에 格別한 관심을 기울이며 經濟活動의 자유를 확고히 保障한다. ④ 새마을운동을 國家施策의 최 우선 과업으로 정하여 이 운동을 통해 모든 不條理를 自律的으로 是正하는 社會氣風을 함양하며, 과감히 福祉均霑정책을 구현한다. ⑤ 政府의 모든 對外公約은 계속 遵守 履行될 것이며, 특히 外國人의 투자는 더욱 獎勵되고 보장된다. ⑥ 體制改革이 진행중이라도 南北對話는 계속 推進하겠다는 것이 政府의 입장이라는 등의 6개 항목의 政策指標를 提示했다. 朴大統領은 特別宣言에서 「이번 조치가 南北對話의 적극적인 展開

와 周邊情勢의 급변하는 사태에 能動的으로 대처하기 위한 一大維新改革이라고 말하고, 이는 결코 한낱 政權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國權을 수호하고 나아가서는 榮光스러운 統一과 中興을 이룩하려는 실로 우리 民族의 運命과도 直結되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오히려 正常的인 방법으로 改革을 試圖한다면 混亂만 더욱 심해질 뿐더러 南北對話를 뒷받침하고 급변하는 周邊情勢에 對應해 나가는데도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에 부득이 國民의 正當性을 대표하는 大統領으로서 非常措置를 통해 體質改革을 斷行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朴大統領은 “이와같은 非常措置를 취하는 것이 절대로 代議民主體制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民主制度를 강화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면서 나는 지금 우리 民主體制에 그 스스로를 지켜나가며 더욱 發展할 수 있는 活力素를 불어 넣어주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南北對話를 굳게 뒷받침해 주므로써 平和統一과 繁榮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이 改革을 斷行한다”고 말했다. 政府는 非常措置의 첫 단계로서 10월 2일 中央對策協議會를 개최하고 改憲案에 대한 國民投票실시와 관련된 節次法의 내용등을 검토했는데 여기서는 憲法改正案을 작성할 때 平和統一을 指向하는 國民의 意志를 뚜렷하게 반영하고 우리나라의 民主體制가 계속 維新 發展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緊要한 能率의 極大化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문제 등이 검토되었다. 이어 10월 23일에는 非常國務會議法과 國民投票에 관한 特別法 및 同施行令과 選舉管理委員會에 관한 特別法 및 同施行令이 非常國務會議의 議決을 거쳐 公布되어 改憲國民投票 실시에 대비한 모든 法的 뒷받침을 끝냈다.

(1) 緊急措置宣布

朴正熙大統領은 74년 1월 8일 憲法 제53조에 의한 大統領 緊急措置를 宣布했다. 이날 하오 5시를 기해 發効된 긴급조치는, ① 憲法을 否定, 反對, 歪曲, 또는 誹謗하거나, ② 憲法의 改正 또는 폐지를 主張, 發議, 提案, 또는 請願하거나, ③ 流言蜚語를 날조 流布하는 등 一切의 행위를 禁하고 위반자와 이 緊急措置를 비방한 자를 令狀 없이 逮捕, 拘束, 押收, 搜索하여 새로 설치되는 非常軍法會議에서 審判, 15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했다. 아울러 이 措置에서 금한 行爲를 勸誘, 煽動, 宣傳하거나 放送, 報道, 出版, 기타 방법으로 他人에게 알리는 一切의 言動도 금했다. 朴大統領은 특별담화에서 “一部 人士들과 不純分子들은 작년 말부터 부질없는 선동과 惡意的인 流言蜚語를 유포시키면서 社會混亂을 조성하여 憲政秩序인 維新體制를 否定, 이를 전복하려 들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것은 다름 아닌 維新體制를 뒷받침하고 있는 全國民의 正當性에 대해 挑戰이요, 國家의 基本秩序와 安全보장을 위태롭게 하는 重大한 위협이기 때문에 이같은 긴급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緊急措置 제 1호의 내용은, ① 大韓民國憲法을 否定, 反對, 歪曲 또는 誹謗하는 一切의 행위를 禁한다. ② 大韓民國憲法의 改正 또는 폐지를 主張, 發議, 提案, 또는 請願하는 一切의 행위를 禁한다. ③ 流言蜚語를 捏造 流布하는 一切의 행위를 禁한다. ④ 前 1. 2. 3號에서 禁한 행위를 勸誘, 煽動, 宣傳하거나 放送, 報道, 出版, 기타 방법으로 이를 他人에게 알리는 一切의 言動을 禁한다. ⑤ 이 措置에 위반한 者와 이 조치를 誹謗한 者는 法官의 令狀 없이 逮捕, 拘束, 押收, 搜索하며 15년이하의 징역에 處한다. 이 경우에는 15년이하의 資格停止를 併科할 수 있다. ⑥ 이 조치에 違反한 者와 이 措置를 비방한 者는 非常軍法會議에서 審判處斷한다. ⑦ 이 措置는 1974년 1월 8일 17時부터 施行한다는 것 등이다.

(2) 維新憲法 및 國民投票

政府는 10.17 特別宣言이 있는지 열흘만인 72년 10월 27일 前文 및 12章 126條 附則 11條의 憲法 改正案을 非常國務會議 議決, 이날자로 公告했다. 이 憲法案은 祖國의 平和統一과 韓國의 民主主義의 土着化를 指向하려는 維新的 改革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며 前文 및 本文에서 祖國

의 平和統一을 指向할 의사를 명백히 하고 國民의 主權的 受任機關으로서 統一主體國民會議을 新設하고 이 會議에서 大統領을 간접 選출하도록 했다. 統一主體國民會議에서 選출되는 大統領의 任期는 6年으로 하고 大統領은, ① 緊急措置權, ② 國會解散權, ③ 國會議員 3분의 1의 統一主體國民會議에 대한 推薦權, ④ 重要 政策의 國民投票 回附權 등 權限을 갖는다. 立法府인 國會議員의 任期는 6년이고 會期는 定期會와 臨時會를 합하여 年 150日을 초과하지 못하고 國政監査權은 監査院에 주었다. 또 法院組織에 있어서는 各級法官을 大法院長의 提請에 의해 大統領이 임명토록 했고, 違憲與否 彈劾 및 政黨의 解散 문제를 다룰 憲法委員會를 新設토록 했다. 公告된 憲法改正案은 단순히 일부 憲法條項의 改正이라는 次元을 넘어서 새로운 憲法의 體格이라는 性格을 띄고 있어 「維新憲法案」으로 부르기로 했다. 朴大統領은 談話에서 維新憲法案이 平和統一을 指向하며 能率을 極大化하여 國力을 조직화하고 安定과 繁榮의 基底를 굳게 다져나감으로서 民主主義制度를 우리에게 가장 알맞게 土着化시킬 수 있을 것임을 강조하고 현재 수 행중인 一大 維新的 政策은 우리들의 安定과 繁榮, 民族의 生存權을 지켜나가기 위한 救國의 大課業이라고 강조했다. 또 府政가 제출한 憲法改正理由書에는 “이 案이 國力의 分散과 浪費를 止揚하고 이를 組織化하여 能率의 極大化를 期하며, 民主主義의 韓國的 土着化를 가능케 하는 維新的 改革을 斷行하는 것만이 國家의 安全과 祖國의 平和의 統一을 기약하는 唯一한 路徑을 確信한다”고 밝히고 主要한 특징으로 6개 항을 들었다. ① 祖國의 平和의 統一이라는 歷史的 使命 完遂를 指向하였으며, ② 民主主義의 韓國的 土着化를 期하였고, ③ 國力을 組織化하고 能率을 極大化할 수 있도록 統治機構와 關係制度를 개혁하였고, ④ 政治, 經濟, 社會, 文化 등 모든 面에서 安定을 유지하고 繁榮의 基底를 확고히 하였으며, ⑤ 國民의 基本權을 우리나라 實情에 알맞게 保障하였고, ⑥ 民族의 活路를 開拓하므로써 國際社會에서 우리나라의 榮光을 드높이고, 恒久的 世界平和에 이바지 할 것을 다짐하였다. 維新憲法案에 대한 國民투표는 72년 11월 21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全國 1만 402개 投票所에서 일제히 실시되었다. 이번 國民投票에는 全國 유권자 1,567만6,395명 중 1,441만714명이 참가, 91.9%라는 前例없는 높은 投票率을 보였으며, 그중 91.5%인 1,318만6,559명의 贊成을 얻어 壓到的인 支持로 可決되었다. 反對票는 110만6,145표 棄權 126만5,686표, 無效 11만8,012표였다. 江原道內에서는 總 85만1,004명 중 97%인 82만6,398명이 투표하여 97.1%라는 전국에서도 보기드문 높은 投票率을 보였다. 그중 95.8%인 79만1,601명이 贊成票를 던졌고, 反對는 2만9,715표에 불과했는데, 특히 이번 國民投票은 과거처럼 親與 지역이나 親野의 傾向의 지역이 없고 都市와 農村간 의 두드러진 差異도 없었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 全國을 통해 投, 開票 전 과정에서 아무런 不祥事도 없었다는 것이 特記할 만한 일이다. 朴大統領은 維新憲法案이 國民투표에서 壓到的인 지지로 確定된데 대해 談話를 발표하고, “이번에 표시된 國民 여러분의 절대적인 支持는 祖國의 平和統一과 繁榮을 이룩하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民族史의 進運을 개척해 나가려는 國民모두의 同感 같은 강력한 意志와 열망의 發願이라고 보고 그 歷史的 意義를 높이 評價한다”고 말했다. 中央選舉管理委員會는 11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投票결과를 公表하고 이를 大統領에게 通報했으며 大統領은 25일 維新憲法을 公布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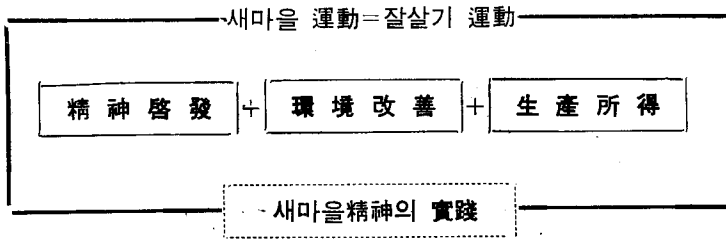
第9節 새마을運動의 意義

(가) 새마을運動의 概念

(1) 새마을運動의 意義

○ 새마을運動은 마을에 사는 사람끼리 勤勉, 自助, 協同하는 새마을精神을 啓蒙하고 이

精神을 行動으로 옮겨 生活 環境을 改善하고 所得增大를 期하므로서 보다 나은 生活을 이룩하려고 努力하는 잘 살기 運動이라고 定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새마을 運動의 定義를 좀 더 具體的으로 풀이 하면,

첫째 : 새마을 運動의 基本單位는 ‘마을’이다. 우리의 마을은 오랜 歷史를 통하여 강한 傳統性을 가지고 있고 同質性을 바탕으로 한 鄉土愛가 깊이 뿌리박고 있다. 따라서 다른 어떤 地域單位보다 강한 共同體意識이 作用하고 있어 協同團結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 새마을 運動의 主體는 ‘마을’ 住民이다. 마을 住民의 마음가짐과 行動方式도 重要하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住民의 集團이야말로 참된 主體이며, 이 運動의 核心이 되는 것이다. 政府나 公務員은 이 運動을 뒷받침하는 支援者요, 協助者일뿐 이 運動의 主體는 어디까지나 마을 住民이기 때문에 이 運動은 民間主導型으로 展開되어야 한다.

셋째 : 새마을 運動의 內容은 새마을精神의 啓發과 그 實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새마을精神이란 잘 살기 위해 필요한 정신으로 우리들의 精神的인 缺陷을 反省하여 自覺과 奮發을 바탕으로 精神姿勢를 바로잡는 ‘새마음 갖기’에서 出發하며, 이러한 精神은 잘살기 위해 그대로 實踐하고 行動할 때 眞正한 새마을運動이 推進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새마을運動은 理論보다 實踐을 重視하는 行動哲學이라 할 수 있다. 새마을精神을 行動으로 옮기는 일들을 要約하면,

- ① 올바른 國民倫理와 國家紀綱의 確立
- ② 生活態度的 合理化와 環境의 改革
- ③ 增産과 所得增大로 富強한 國家建設 等을 들 수 있다.

넷째 : 새마을運動의 窮極的 目的은 ‘잘 살아 보자’는데 있다. 나와 마을이 잘 살고 나아가 民族과 國家가 富強해져서 自由롭고, 平和롭게 生活할 수 있어야 한다. 잘 산다는 것은 精神的으로 健全하고 經濟的으로 富裕해야 하는 것이다.

(2) 새마을運動의 必要性

- 不條理除去……國民倫理 國家機綱의 確立,
- 貧困의 追放……均衡있는 經濟建設
- 平和的 統一……自由民主主義의 實現

(가) 國民倫理 國家紀綱의 確立

우리 겨레는 오랜 歷史와 빛나는 文化的傳統을 이어왔으며 花郎五戒, 三綱五倫에 바탕을 둔 健全한 民族倫理로 燦爛한 精神文化를 꽃피워 왔다. 그러나 近世에 들어 事大主義 思想과 國民精神의 解弛로 異民族의 植民統治아래 들어갔고 우리의 固有文化를 抹殺하려는 彈壓下에 우리

第2編 政 및 行政

겨레의 傳統的 價値觀念이 흔들리고 精神文化는 짓밟힐 수 밖에 없었다. 8.15 이후에는 西歐의 物質文明이 無分別하게 들어옴에 따라 우리는 아무런 準備도 없이 그 眞髓를 消化하기보다는 그 外形만을 模倣하여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對한 價値基準조차 모호하였다. 이와 같은 現象은 國土分斷으로 南北에 異質的인 體制를 갖추게 되면서 더욱 混亂을 加重하게 되었다. 더욱이 6.25動亂으로 國土는 荒廢하고 社會 經濟秩序가 極度로 混亂하여 온갖 不正, 不條理가 蔓延하였다.

5.16 이후 近代化 課業 推進과 동시에 새로운 國民道義의 確立을 위하여 여러가지 角度에서 努力해 왔으나 아직도 우리 社會에서 不正과 不義, 不條理가 完全히 除去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祖上의 빛나는 精神的 文化的 傳統을 오늘에 되살려 새時代에 알맞게 發展시키고 아무리 새 것이라도 우리의 實情에 맞도록 消化하므로써 새로운 國民紀綱을 確立해 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正直하고 부지런한 사람만이 잘 사는 正義로운 社會를 建設해 나가야 하겠다.

새마을精神 啓發

國家紀綱確立 + 民族 主體意識 培養

(나) 均衡있는 經濟建設

오랜 歷史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나라는 近代化作業의 着手이 늦었기 때문에 後進國家의 隊列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落後된 祖國을 하루속히 近代化시키고 빠른 時日內에 國力을 培養하기 위하여는 開發戰略으로 工業化에 먼저 置重할 수 밖에 없었다. 1962년부터 1971년까지 1,2次 5個年計劃의 成功的인 推進으로 年平均 10%의 높은 經濟成長率을 나타냈으나 그 結果는 農村의 相對的인 落後로 都市와 農村의 所得隔差가 더욱 벌어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1972년부터 시작한 第3次 5個年計劃에서는 農漁村經濟의 革新的開發을 基本目標의 하나로 定하고 期間中 2兆원 이상의 直 間接 投資를 計劃하고 있다. 그러나 農漁村開發은 政府의 計劃만으로는 成功할 수 없고 이를 받아 들이는 農漁民들의 姿勢와 努力이 무엇보다도 重要的 關鍵이 된다. 落後되고 停滯된 農漁村을 近代化하고 活氣를 불려 일으키는 것은 무엇보다도 農漁民들이 스스로 잘 살아야겠다는 意慾과 굳은 意志를 가지고 勤勉, 自助, 協同하는 努力을 다하여야 投資效果가 倍增되고 農漁村開發은 더욱 促進化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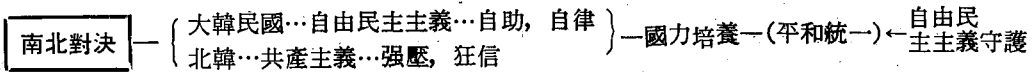
1,2次 5個年計劃(工業化 置重)→높은 經濟成長 年平均 10%(都, 農의 격차해소)

3次 5個年計劃(農漁村 集中投資)【勤勉, 自助, 協同의 새마을 運動 積極 參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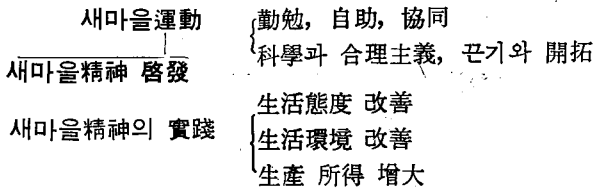
(다) 自由民主主義의 實現

우리는 他律에 의해 國土가 分斷된 채 單一民族으로서의 統一國家를 成就하지 못하고 있다. 南北간의 전혀 相反된 理念과 體制는 6.25의 悲劇을 招來하였으며 다시는 同族相殘의 慘狀이 일어나서는 안되겠기에 分斷된 國土는 平和的으로 統一되어야 한다. 戰爭再發을 抑制하면서 祖國을 平和的으로 統一하는 일은 우리 民族이 當面한 至上課業이며 오늘에 사는 우리世대의 神聖한 使命이다. 이 統一은 自由民主主義를 前提로 한 統一이어야 함은 勿論이며, 그러기 위하여는 우리의 國力을 培養하여 잘 살기 競爭에서 自由民主主義體制의 優越性을 보여 주어야 한다. 새마을운동은 自覺과 奮發에 의한 自律的인 運動이어야 하며 그 推進過程에서 自由民主主義方式을 마을

사람들에게 敎育, 訓練하고 日常生活化하게 된다. 보다 잘 사는 마을을 만들기 위하여는 住民들이 協同의 努力으로 解決하여야 할 일들을 한자리에 會同하여 議論하고 마을共同的 利益을 爲하여 些少한 利害對立을 理解와 說得으로 妥協 克服하므로써 協同, 團結하는 새마을 運動의 實際 推進過程이야말로 眞正한 住民自治 即 民主主義의 뿌리를 全國 坊坊曲曲에 심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새마을운동은 平和統一을 보다 앞당겨 達成하기 위한 國力培養運動인 同時에 우리의 自由民主主義體制가 共產主義體制에 比하여 얼마나 더 優越한 制度인가를 立證하는 自助, 自律의 運動으로 반드시 必要한 運動인 것이다.



(라) 새마을運動의 內容



(마) 새마을精神 啓發

① 勤勉, 誠實

우리는 다른나라보다 近代化作業이 늦게 着手되었고 現在는 共產主義와 對決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우리나라의 自然資源은 다른나라보다 豊富하지 못하다. 그러면서도 農村은 年中 5個月 이상의 農閑期가 있다. 이러한 與件을 克服하고 富強한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남보다 더 부지런히 일하고 誠實하게 實踐해 나가야 하며 부지런한 사람이 잘 살게 되는 社會經濟秩序를 우리의 努力으로 實現시켜 나가야 한다. 勤勉, 誠實은 곧 우리 마을을 잘 살게 하고 國力을 培養하는 源泉이며 活力素이다.

② 自助, 自立

自國의 利益만을 追求하는 國際社會의 激浪속에서 祖國의 獨立을 守護하고 民族의 中興을 成就하기 爲하여는 무엇보다 民族主體性의 確立이 必要하며 이것은 國民 個個人의 自主, 自助, 自立精神이 바탕이 될 때 더욱 굳건해지는 것이다. 自助, 自立精神이야말로 依他心에서 벗어나 우리 마을을 잘 살게 하고, 事大性向을 排斥하고 自主獨立의 기틀을 튼튼히 하는 根幹이 된다.

③ 協同, 團結

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두사람이 힘을 합치면 그 以上の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 協同에 있어서는 1+1=2가 아니고, 1+1=20α이다. 協同은 生命體의 原初的인 秩序이며, 共同運命體는 協同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 우리 民族은 옛부터 '두레' '품앗이' 등으로 協同하는 美風이 있었으며, 이를 오늘에 되살려 協同의 利點을 生活化해 나가야 한다.

④ 科學과 合理主義

富의 創造는 自然資源에 人間의 努力이 作用하여 이루어진다. 오늘날 産業化된 社會에서는 科學技術의 應用없이는 急速한 經濟成長과 所得增大를 이룩할 수 없다. 事物의 理致에 맞도록 思考하고 行動하는 合理主義와 科學技術을 익히고 應用하는 生活態度를 길러 나가야 한다.

第2編 政治 및 行政

⑤ 끈기와 開拓

잘 살기 위한 새마을運動은 우리가 잘 살게 될 때까지 어떠한 試鍊과 難關이 있더라도 꾸준히 克服해 나가는 끈기와 開拓精神을 生活觀으로 삼아야 한다.

(바) 새마을精神의 實踐

① 生活態度 改善

새생활運動으로 展開하고 있는 이 事業은 物質的이 아닌 精神的인 側面에서 우리의 生活態度를 올바른 方向으로 定立해 나가기 위한 運動이다. 우리의 生活態度를 改善하기 위하여는, ① 非生産的인 因習은 버리고, ② 固有의 美風良俗은 그대로 지켜나가며, ③ 時代의 發展에 따라 새로운 價値觀을 發見하여 實踐해 나가는 3가지 方向으로 定立할 수 있다.

△ 버릴 것—非生産的 因習 追放

●迷信 ●賭博 ●술주정 ●노는 땅, 노는 사람 ●密造酒, 密屠殺, 盜伐

△ 찾을 것—美風良俗 勸獎

●禮節바른 生活 ●信義있는 生活 ●清掃하는 習慣 ●國旗崇尚(國家觀 鼓吹)

△ 가질 것—꾸준히 찾아서 實踐

●家庭儀禮準則 지키기 ●遵法精神 生活化 ●儉素 貯蓄

② 環境改善 事業

●새마을 가꾸기 ●小河川 가꾸기 ●農路開設 ●簡易給水施設 ●지붕 改良 ●農漁村電化 ●마을通信施設 ●國土 가꾸기

③ 生産 所得事業

●새마을 協同事業(集團栽培 堆肥增產 營農時限制 病虫害防除等) ●農家工產品開發(새마을工場)
●마을基金 및 共同財産 造成 ●農業構造改善(耕地整理 農業用水) ●共同生産施設의 擴大
●造林 및 養苗

※ 위의 事業等은 새마을運動의 一般的인 例示에 不過하며 時期와 地域에 따라 必要에 依하여 追加 또는 削除할 수도 있으며 原則的으로 住民들의 總意에 依하여 決定되는 것이다. 즉 現段階에서 各地域社會別로 가장 時急하고 우리 生活周邊에 近接해 있으며, 實踐하기 쉬운것 부터 하나씩 着實히 밀고 나가야 할 것이다.

(사) 새마을運動의 始發 및 展開

① 背 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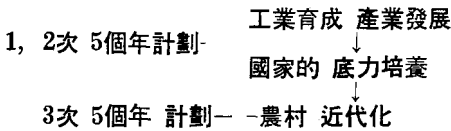
※ 우리의 國土는 總面積……992萬9천ha中 山은 67%인 666萬7천ha 農耕地는 23%인 229萬ha 道路 河川等 기타가 10%인 97萬2천ha로 되어 있어 國土의 大部分이 山地이고 耕地面積은 戶當 0.9ha로서 그 規模가 極히 零細하다. 國民生活의 據點인 마을과 都邑은 農村마을 3萬 4,655마을, 小都邑 1,464도읍, 中都邑以上 41個로 構成되어 이들 마을과 都邑은 4萬 42個의 大小河川과 778個 幹線道路로 連結되어 있다.

마을과 都邑을 가꾸고 河川과 道路를 整備하며 山을 푸르게 가꾸는 것이 곧 새마을運動의 對象이 되고 있다.

※農家 所得은(1970年 全國 平均) 戶當平均 25만5천원으로 都市勤勞層의 平均所得보다 훨씬 뒤떨어지고 있으며 農家 所得中 農業 所得은 78%이고 農外 所得은 22%에 不過하여 所得構造에서 落後性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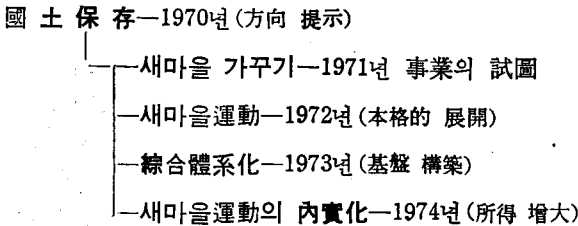
※ 結論的으로 우리의 農村은 荒廢된 國土, 原始的인 道路, 非衛生的인 住居環境, 協同基盤과 福祉施設의 貧弱, 빈약한 所得源泉 등이 우리가 解決해야 할 現實的 課題가 되고 있다.

※ 이제 與件은 成熟되었으며 62~71년까지 10년간 1, 2次 5個年計劃을 통한 高度의 經濟成長은 農漁村에 集中 投資할 수 있는 國家底力을 培養시켰음이 새마을運動을 불러 일으키는 現實的 狀況의 背景이 되었다. 朴大統領의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마을은 우리의 손으로 가꾸어나간다는 勤勉, 自助, 協同精神을 불러 일으켜 땀흘려 일해야 하겠다’는 말은 그때로 우리의 現實的 要請이 된 것이다.



② 推進 經緯

새마을運動은 朴大統領의 새마을 構想에서 出發하였다. 朴大統領은 1970年 5月 6日 國土保存에 關한 指示에서 “이땅은 祖上들의 뼈가 묻혀 있고 우리가 또한 묻혀야 할 땅이며, 우리의 子孫萬代가 지켜 나가야 할 삶의 보금자리이기 때문에……” 國土를 알뜰히 가꾸고 保存해 나갈 것을 擔부하였다. 이러한 指示에 따라, ㉠ 71年 全國 모든 마을을 對象으로 새마을 가꾸기 事業을 實施하여 住民의 自助意慾을 點火했고, ㉡ 72年 새마을運動으로 發展하여 農村 基礎環境을 改善시켰으며, ㉢ 73年 政府의 모든 支援施策을 綜合 體系化하여 새마을運動의 基盤을 確固히 構築하므로써 汎國民運動으로 昇華시켜 展開해 나가고 있다.



③ 沿革과 方向提示

우리나라에서 近代的 意味의 農村運動이 비롯된 것은 1958年 地域社會 開發事業에서 부터의 일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農村運動은 地域開發事業으로, 혹은 農村指導事業으로, 또는 再建國民運動이나 農協運動等 實로 多元的으로 推進되어 왔지만, 모두 이렇다할 結實을 거두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오늘의 새마을運動은 여러가지 意味에서 이제까지의 農村運動과는 二理念和 指標를 달리하고 있다. 朴大統領에 의하여 提唱된 새마을運動은 오늘날 우리 國民들이 處한 歷史的 狀況에서 發端되었으며 純粹하고도 獨自的인 韓國的 農村運動이며 汎國民運動인 것이다.

第 9 章 民主政治와 選舉

第 1 節 選舉는 民主政治의 바탕

1948년 5월 10일 「유엔」 韓委 監視下에 처음으로 國會議員選舉를 實施한 以來 객관적인 여건 과 일부 政治人들의 물지각 및 國民의 정치수준 未及으로 선거제도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다. 그러나 選舉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民主政治가 불가능한 이상 선거의 公正性만은 항상 우리의 至上課題가 되어 왔다. 勿論 선거자체가 민주주의라고는 볼 수 없으나 民主主義는 선거의 公正에서 비로소 可能한 것이며 公明選舉를 가능케 할 여건 확립의 方向에서 이룩될 수 있는 것이다.

選舉란 國民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주권 행사 의 하나인 동시에 평화적 政權 交替를 이룩하는 유일한 方法인 것이다. 선거를 통해서 민주주의의 발전을 도모하려면 무엇보다 政黨制度가 발전하여 그들이 장차 책임을 遂行해야 할 政策을 國民앞에 미리 공개하여 선택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선거가 自由롭고 公正하게 실시되어야 하며 公明선거가 행하여지려면 國民 즉 選舉人의 意思가 自由로워야 하고 나아가서 선거를 관리하는 機關 즉 선거관리위원회가 公正한 선거를 執行하고 따라서 다른 모든 기관들이 이에 적극 協助해야 할 것이다.

第 2 節 選舉와 施行

(1) 江原道 第2選舉區 選舉管理委員會

江原道 第2選舉區 選舉管理委員會는 原州市 一山洞 原州市 廳內에 所在하며 1963年 2月 7日 江原道 第2地域區 選舉管理委員會로 創設되어 原州市 原城郡을 管轄區域으로 하다가 1973年 1月 29日 江原道 第2選舉區 選舉管理委員會로 改編됨에 따라 原州市, 洪川郡, 橫城郡, 原城郡을 管轄區域으로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選舉管理態勢를 完備하고 選舉制度를 研究하며 効律인 政黨 事務管理委員을 9名으로 하며 37個의 投票區를 두고 各 投票區마다 5人의 委員이 있다. 歷代 委員長은 初代 李 南珪 2代 金 龜南, 3代 宋 基成, 4代 宋 基成, 5代 崔 奎鳳委員長等이다.

(2) 原城郡 選舉管理委員會

原城郡 選舉管理委員會는 原州市 觀雪洞 1452番地에 位置하며 1963年 2月 7日 原城郡 廳內에서 原城郡 選舉管理委員會로 設立되었다가 1971年에 臨時 原州文化院에 事務室을 貸與하고 있다. 1974年 1月 16日 現 廳舍로 移轉하므로써 오늘에 이르고 있다. 選舉管理態勢를 完備하고 選舉制度에 상시 주력하고 있는 이 委員會는 選舉管理委員을 7名으로 하여 46個의 投票區를 두고 各 投票區마다 2人의 委員이 있다.

歷代 委員長은 初代 河 承烈, 2代 李 英俊, 3代 李 建浩, 4代 張 熙穆, 5代 南 潤鎬, 6代 安 鍾赫, 7代 金 奎福, 8代 尹 載植, 9代 尹 載植, 10代 閔 秀炯委員長 等이다.

이제 우리 選舉史에 點綴되어 온 大統領選舉(副統領選舉 包含)와 歷代 國會議員選舉 및 地方自治選舉를 거쳐 5.16 以後의 3次에 걸친 國民投票 및 國民會議代議員選舉를 살펴 보고자 한다.

第3節 大統領 및 副統領選舉

(1) 憲法の 制定

1948年 2月 27日 유엔 小總會는 가능한 지역내에서의 총선거를 실시하여 政府를 수립하도록 결정하였고, 美軍政은 5월 10일에 선거를 실시하게 하였다. 1947年 3월 17일에는 軍政法令 제 175호로서 임시 立法議院에서 制定한 국회의원 선거법이 公布되었는데 親日派에게 選舉權과 被選舉權을 인정하지 않았고 선거인의 자진등록제를 규정하는등 미국식 선거제도를 채택하였다. 이리하여 실시된 5.10선거는 南韓의 모든 政黨, 社會團體가 참여한 것은 아니었다. 그래도 국민대다수의 투표에 의하여 5월 31일 역사적인 初代 國會가 開院을 보게 되었다. 制憲國會는 2년의 任期를 가진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었는데, 그 대부분은 無所屬이었고 韓國民主黨이 한개 정당으로서 다수의 議席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金九, 金奎植등은 總選을 거부했기 때문에 李承晩博士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었다. 제헌국회는 議長에 李承晩이었고 副議長에 申翼熙, 金東元을 각각 선출했다. 이리하여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위한 기초로서 헌법과 정부조직법 등을 제정하기 위하여 6월 3일에 憲法起草委員 30名과 專門委員 10名으로 헌법기초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 기초위원회는 兪鎮午案을 原案으로 하고 權承烈案을 참고안으로 하여 草案을 작성하였다. 兪鎮午의 原案은 ①國會를 兩院制로 하고 ②議員 內閣制 ③大法院에 法律의 違憲審査權을 부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起草委員會의 討議過程에서 李承晩博士의 意見에 따라 ①單院制 國會 ②大統領中心制로 변경되었다. 그리하여 많은 修正案이 나와 憲法制定이 어려운 지경에 처했으나 당시 國內外의 여건으로 보아 8월 15일까지는 政府樹立을 世界에 宣布하여야 할 필요를 느껴서 헌법안의 審議는 일사철리로 진행되었다. 그리하여 6월 30일에 第1讀會, 7월 11일에 第2讀會, 7월 12일에 第3讀會를 마쳐서 國會를 통과, 7월 17일 국회의장이 署名하여 公布하므로써 即日 施行되었다.

(2) 初代 正·副統領選舉

국회는 7월 20일 헌법 제 53조 ① 大統領과 副統領은 國會에서 無記名 投票로써 각각 선거한다. ② 前項의 선거는 在籍議員 3分の2 以上の 출석과 出席議員 3分の2 以上の 찬성투표로서 當選을 決定한다. 단 3分の2 以上の 得票者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 2인에 대하여 決選投票를 行하여 多數得票者를 당선자로 한다는 規定에 따라 申翼熙副議長 司會下에 初代大統領 및 副統領選舉를 실시하였다. 이때 선거는 재적의원 198名 중(議員定數는 200名이었으나 제주도의 2名은 治安관계로 선거가 연기되었음) 196名이 참가 無記名 비밀투표로 施行되었다. 大統領選舉에서는 李承晩 180票 金九 13票, 安在鴻 2票, 無効 1票(徐載弼표로서 그는 외국國籍 保有者로 무효가 되었음)로서 李承晩이 제 1차 투표에서 절대 다수표를 얻어 초대대통령에 당선되었다. 한편 副統領選舉는 재적의원 197名에 의하여 제 1차 투표를 한 결과 李始榮 113표, 金九 65표 曺晚植 10표, 吳世昌 5표, 張澤相 3표, 徐相日 1표로서 당선 득표자가 없기 때문에 최고득표자 2名인 李始榮과 金九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한 결과 李始榮이 당선되었다. 그리하여 7월 24일 初代大統領 및 副統領 취임식이 있었으며 그해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의 수립이 國內外에 宣布되었다.

(3) 第2代 副統領選舉

初代 副統領 李始榮은 李大統領의 非民主的 統治에 반대하여 임기 1년여를 남겨놓고 1951년 5월 14일에 辭退를 하여 5월 16일 第2代 國會에서 第2代 副統領選舉가 있었다. 재적의원 210名中 在席議員 151名에 의하여 실시된 제 1차 투표에서는 金性洙 66표, 李甲成 53표, 咸台永 17표, 張澤樞

第2編 政治 및 行政

11표, 池青天 2표, 金昌淑 1표, 無効 1표로서 당선자가 없어 제2차 투표에 들어갔다. 그러나 2차 투표에서도 金性洙 68표, 李甲成 65표, 咸台永 10표, 張澤相 5표, 池青天 2표, 金昌淑 1표로서 역시 당선자를 내지 못하였다. 따라서 최고득표자인 金性洙와 李甲成 2인에 대한 결선투표를 한 결과 金性洙 78표 無効 1표로서 金性洙가 第2代副統領으로 당선되었다. 그러나 金性洙 부통령 역시 그 이듬해 5월에李大統領의 독재와 비민주적 처사에 반대하여 임기전에 사퇴하였다.

(4) 第2代大統領 및 第3代副統領直接選舉

(가) 選舉前의 情勢

第2代國會(1950년 8월 30)의 勢力分布는 李承晩大統領으로 하여금國會에서의 再選을 어렵게 하고 있었다. 따라서 李承晩은 任期滿了를 8個月餘 남겨둔 1951년 11월 30일 대통령 직선제와 兩院制를 骨子로 하는 憲法改正案을國會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다음 해인 1952년 1월 18일에 표결 결과 재석의원 163名 中 可 19표, 否 143표, 기권 1표로 부결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이른바 5.26 정치파동이 발생하였다. 院外自由黨이 주동이 되어 임시首都 釜山을 비롯한 各地에서 改憲否決反對民衆大會가 열리고 國會議員 召選運動도 展開되어 政局은 극심한 惡循環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그해 4월 17일 院內에서는 民主國民黨 院內自由黨의 殘留派들이 中心이 되어 郭尙勳議員 外 122名의 運籌로 內閣責任制 개헌안을 국회에 냈으며 政府는 이에 맞서 5월 14일 부결된 直選制 改憲案을 多少 修正하여 다시 국회에 제출하므로써 政府와國會가 激突하게 되었다. 그후 약 한달반 동안에 걸쳐 非常戒嚴宣布, 딱벌베 白骨團테모, 徐珉濂議員 재구속, 國會議員 50名이 탄 버스를 헌병대에 연행, 반독재호헌구국선언대회의 수라장, 李大統領 저격미수사건, 金性洙부통령 사임 등 韓國政治史에 一大 汚名을 남긴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났다. 드디어 6월 12일에는 張澤相 국무총리가 이끄는 新羅會가 中心이 되어 政府와國會에서 제출된 두 개헌안을 拔萃 綜合한 제3의 개헌안을 내기에 이르렀다. 그 주요내용은 ① 대통령 및 부통령의 직접선거 ② 兩院制 ③ 국무총리의 國務委員 提請權 ④ 國務院(內閣)不信任權 認定등 네가지였다. 이 拔萃改憲案은 7월 4日 살기등등한 공포분위기가 議事堂 안팎을 감도는 가운데 협박적인 起立表決로서 在籍 183名 中 166名이 참석한 가운데 可 163표, 기권 3표로 억지 가결되어 7월 7일자로 公布했다. 이에 따라 政府는 1952년 8월 5일을 선거일로 결정 공포하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李大統領의 계속 집권의 길이 트이게 되었다.

(나) 選舉前의 樣相

自由黨은 선거법이 公布된 다음 날인 7월 19일 大田에서 全黨大會를 열고 大統領候補에 李承晩 副統領候補에 李範奭을 지명했다. 그러나 당시 李大統領은 族靑系의 指導者 李範奭대신 咸台永을 意中の 人物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고, 선거운동 기간중에는 공공연하게 咸台永候補(무소속)를 支持하고 당선에 注力하였다. 野黨인 民主國民黨은 大統領候補에 李始榮 副統領候補에 趙炳玉을 추대하여 自由黨에 맞섰다. 그밖에 大統領候補로는 曹奉岩, 申興雨 兩人이 副統領候補로는 錢鎮漢(大韓勞總) 鄭基元(自由黨合同派) 咸台永(무소속) 李甲成(自由黨合同派) 白性郁(自由黨) 任永信(自由黨合同派) 등이 출마했으나 그 중 錢鎮漢을 除外하고는 모두 李박사의 정치포선을 支持하고 나서는 형편이었다. 선거기간중 특기할 것은 경찰이 선거운동에 간섭하고 있다는 비난이 자유당 공천자 李範奭 부통령후보에 의해提起된 점이다. 드디어 8월 3日 자유당은 張澤相 국무총리와 金泰善 내무장관이 경찰을 동원하여 咸台永을 支持하고 李範奭의 반대운동을 하고 있다는 성명을 내기에 이르렀다. 한편 선거운동기간이 너무나 짧아 현직 대통령에게는 유리했지만 새로운 人物에겐 움지일 時間的 여유가 전혀 없었다. 直選制改憲案이國會를 통과한 것이 7월 4日, 公布된 것이 7월 7일이므로 이에 따른 正, 副統領選舉法을

불과 10일 사이에 제정하여 18일자로 公布했으나 선거의 준비기간은 실질적으로 17일간 밖에 되지 않았다(선거일은 8월 5일). 선거법에는 선거일은 선거일 40일전에 公布되어야만 한다고 規定했으나 52年度 선거에는 例外規定을 두었다.

(5) 大統領 選舉

自由黨의 李承晚, 民國黨의 李始榮, 무소속의 曹奉岩, 申興雨 등 4명이 立候補했다. 이때 全國의 선거인수는 유권자의 88%에 해당하는 727만5,883명이었고, 98만3,545명이 기권자로 나타났다. 原州는 邑·面이 한개의 개표구로서 구 시청자리인 邑事務所에서 실시했고, 選舉人數는 5만1,919명이었으며 유효표는 4만966표였다. 이때 原州에서의 得票관계는 曹奉岩이 1,756표, 李承晚이 3만6,178표, 李始榮이 1,609표, 申興雨 1,423표였다. 全國得票는 李承晚후보가 유효투표 02만 684표의 74.6%에 해당하는 523만8,769표의 압도적 다수표를 얻어 大統領에 推選되었다. 차점인 曹奉岩 후보는 79만7,504표, 李始榮후보는 76만4,715표, 申興雨 후보는 21만9,696표를 각각 얻었다. 이때까지 動亂이 계속중에 있었기 때문에 江原道內에선 漢水以南에만 선거가 實施되고 收復地區는 除外되었다.

(6) 副統領 選舉

自由黨의 李範奭(公薦), 李甲成 民主國民黨의 趙炳玉, 朝鮮民主黨의 李允榮, 女子國民黨의 任永信, 大韓勞動總聯盟의 錢鎭漢, 무소속의 咸台永, 白性郁, 鄭基元 등 9명의 候補者였다. 投票者數는 大統領선거투표를 던져 한 뒤에 따로 했으므로 大統領선거 당시의 투표자 725만 5,883名보다 5,001명이 적은 727만882名이었으며 기권자수는 그 차의만큼 늘어난 것이다. 개표결과로는 무소속의 咸台永후보가 유효투표 713만3,297표의 41.3%에 해당하는 294만3,813표를 얻어 自由黨공천 李範奭후보를 約 113만표나 앞서 부통령에 당선되었다. 차점자인 李範奭은 181만5,692표, 民主國民黨의 趙炳玉 후보는 57만5,260표 自由黨의 李甲成후보는 50만여표, 그밖의 다른 후보들은 이보다 훨씬 뒤떨어졌다.

이때 原州의 경우는 大統領選舉와 큰 차의없는 투표율이었으나 득표관계에 있어서는 다른地方보다 族靑이 훨씬 많은 得票를 했다는 것이 특이한 實情이었다. 유효표 4만1,812표에 李範奭이 3만522표라는 압도적인 득표를 했고 차점으로 錢鎭漢후보가 1,145표였으며 李甲成이 991표로서 3위의 득표자였고, 그 외는 이하에서 비슷했다. 이로써 全國에서 族靑活動이 그 어느지방 보다도 컸다는 사실이 들어났던 것이다. 당시 李範奭의 事務長으로 李容萬이었다.

(7) 第3代 大統領 및 第4代 副統領 直接選舉

(가) 選舉前의 情勢

자유당이 대통령 三選許容을 骨子로 하는 改憲(4捨5入으로可決)으로 李대통령으로 하여금 영구집권의 길을 터놓은 다음 실시된 선거였다. 당시 집권당인 자유당은 영구집권을 위해서는 두번 밖에 連任할수 없게 되어있는 헌법을 고쳐서 이대통령에게 종신집권의 길을 터 주려고 血眼이 되었다. 자유당은 1954년 9월 6일 대통령의 三選以上 허용하는 내용과 국민투표 제도의 도입등을 골자로 한 헌법개정안을 국회본회의에 제출했다. 野黨측은 전국적인 반대운동을 일으키면서 院內에선 必死的인 지연작전을 폈다. 이에 자유당은 速決主義로서 議事진행을 강행하여 모든 讀會조차 생략한채 11월 27일 表決에 들어갔다. 이 개헌안은 표결 결과 在籍 203名 중 可 135표, 否 60표, 기권 7표로서 改憲線에서 단 1표가 모자라서 否決되고 말았다. 그러나 자유당 간부들은 「在籍議員 303名의 3分의2는 數學的 算出方式으로는 135,333...이나 零點이하의 숫자인 0.333은 1名으로 다룰수 없으므로 결국 4捨5入을 하면 203名의 3分의2의 線은 135名이 된다」는 奇想天外의 억지 理論을 생각해 냈던 것이다. 그

第2編 政治 및 行政

리하여 이들 후인 11월 29일에는 본會議을 다시 열어 議政史上 처음으로 與, 野議員들이 壇上에서 난투극을 벌이고 야당의원들이 총퇴장한 가운데 여당의원만으로 翻覆否決 動議를 在席 125名중 可 123표, 기권 2표로 可決시켜 버렸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국회안에서는 야당계 人士들에 의해 護憲同志會라는 원내교섭단체가 구성되어 新黨운동의 母體가 되었으며 그 다음해인 1955年 9月 19일에 民主黨으로 正式 발족하기에 이르렀다. 선거제도는 4사5일 개헌으로 두번밖에 連任할 수 없었던 李 承晩대통령에게 다시 집권의 길을 터주었을 뿐 선거제도는 2代때에 비해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

(나) 選舉戰의 樣相

자유당은 3月 6日 제7차 臨時代議員大會를 열고 대통령후보에 李 承晩總裁 副統領候補에 李 起鵬中央委議長을 각각 지명했다. 그러나 李총재는 처음에는 이번 선거에는 出馬하지 않기로 결심했다는 의사를 표명했었다. 그런데 자유당을 비롯한 산하단체들은 李총재의 再出馬를 요구하는 전국적인 운동을 매일같이 벌였다. 결국 그는 일반이 예측한대로 3月 25日 그의 뜻을 翻意하고 再出馬를 결심하기에 이르렀다. 야당인 民主黨은 진통을 겪은 끝에 3月 29日 전당대회에서 大統領候補에 申 翼熙 副統領候補에 張 勉을 지명하고 戰列을 가다듬었다. 그밖에 창당을 서두르던 加進黨도 대통령후보에 曺 奉岩 부통령후보에 朴 己出을 각각 지명했다. 대통령후보를 내지 않고 부통령선거에 나선 尹 致英(대한국민당) 李 允榮(朝民黨) 무소속에 李 鍾奭, 白 性郁, 李 鍾泰 등은 한결같이 李박사의 政治路線을 지지하고 나섰다. 자유당은 外廓단체, 산하단체인 국민회 勞總 婦人會등을 총망라한 조직을 선거운동에 총동원하는 한편 전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직원 종교계에까지 손올랜처 支持공작을 전개했다. 또 한편으로는 李 承晩 李 起鵬의 업적을 담은 기록영화를 만들어 전국 각지를 순회 上映하는 동시에 黨소속 국회의원 전원과 中央委員들을 망라한 遊說班이 全國주요 도시를 누벼 지금까지 보지 못한 선전과 地方조직망의 強化를 꾀해 지지를 호소했다. 때를 같이한 原州에서도, 예에 없는 선거 선전공세로해서 每日같이 먹자판이 되었다. 창당 반년밖에 안된 民主黨은 선동적인 선전으로 조직력의 弱勢를 카바하면서 宣傳戰으로 機先을 잡으려 했다. 民主黨에서는 與黨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이용하여 「못살겠다 갈아보자」는 선거구호를 내세워 주로 人口가 集中된 大·中도시에서 폭로전술로 일관했다. 原州民主黨의 소위 극성당원들은 白布로 족끼를 지어 입고 앞뒤에다 赤色으로 「못살겠다 갈아보자」라고 써서 입고, 확정기는 리야카에다 신고 거리를 다니며 구호를 외치고 호소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선거전이 絶頂에 이르렀을 무렵 서울의 한강 白沙場에서 30만 군중을 모은 공전의 大政治集會를 끝내고 湖南地方 유세에 나섰던 民主黨의 申 翼熙대통령후보가 5月 5日 腦溢血로 急逝함으로서 양상은 급변했다. 한때는 民主進歩 양당간에 共同戰線이 모색되기도 했으나 霧散되고 말았다.

(다) 大統領 選舉

民主黨의 申 翼熙후보의 急逝는 政勢를 급변시켜 이 승만대통령 3選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선거인수는 1955年 9月 1日 현재 조사한 2,152만6,374名の 44.6%인 960만 6,870名, 투표자수는 선거인수의 94.4%에 해당하는 906만7,063名이었다.

原州의 경우는 原州市와 原城郡으로 두개의 개표구로 나누어졌다. 原州市의 선거인수는 3만1,344名에 有効표는 2만912표, 無効표가 6,836표, 기권표가 3,596표나 되었다. 득표수는 李 承晩이 1만 6,210표였고 曺 奉岩이 4,702표였다. 原城郡의 경우도 선거인수 4만254名에 비하여 有効표는 3만2,737표로서 투표율은 95.4%였으며 득표수는 李 承晩이 2만7,855표, 曺 奉岩이 4,881표였다. 原州市 原城郡의 무효표가 많이 나왔다는 것은 故申 翼熙후보에 대한 追慕票로 추산된다. 그런데 강원도에서는 자유당의 이 승만후보가 총 유효투표 70만9,663표의 92.2%인 64만4,693표를 얻

어 2대에 이어 자유당의 牙城이 되었다. 그러나 收復地區 7개郡이 처음으로 선거에 참여하게 된 것과 대부분 申翼熙의 追慕투표로 간주되는 무효표가 유효표수의 10%가 넘는 7만9,710표가 나왔다는 사실은 주목할만한 일이었다.

(라) 副統領 選舉

제4대 부통령 선거에는 自由黨의 李起鵬, 民主黨의 張勉, 朝鮮民主黨의 李允榮, 大韓國民黨의 尹致瑛, 進歩黨의 朴己出, 무소속의 李範奭, 白性郁 李鍾泰 등 8名이었다. 선거전은 선거 10일을 앞두고 民主黨의 申翼熙대통령후보가 急逝함으로서 李大統領의 3選이 거의 결정적인지라 자연 選舉戰의 초점이 副統領선거전으로 쏠렸다. 여당인 자유당은 대통령과 부통령은 같은 정당에서 나와야 政局의 안정을 기할 수 있다고 했고 야당인 民主黨은 申翼熙후보의 急逝로 政權交替의 꿈은 사라졌지만 副統領에는 야당후보를 뽑아 자유당의 독재를 막고 실질적인 정권교체를 이룩해 보자고 국민에게 호소했다. 처음에는 8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쳤으나 선거도중 朴己出(進歩黨) 李鍾泰(무소속)가 사퇴하여 결국 6명이 경합을 했다. 개표결과 민주당의 張勉후보가 유효투표 총수의 46.4%에 해당하는 401만2,654표를 얻어 부통령에 당선됨으로서 선거사상 처음으로 대통령과 부통령이 각기 다른 정당에서 나와 國政運營에 복잡한 문제를 남게 했다. 강원도에서는 李起鵬이 61만1,704표에 비해 張勉은 10만3,493표 밖에 못얻는 절대다수표를 자유당 후보에게 던져 주었지만 원주는 예외였다. 原州市의 경우는 民主黨의 張勉이 1만2,030표 자유당의 李起鵬이 1만1,352표였고 그의는 대개 1,000표를 넘지 못했다. 그러나 원성군은 달랐다. 자유당의 李起鵬 2만2,236표 민주당의 張勉이 차점으로 9,720표 밖에 얻지 못했다.

(마) 正副統領 選舉

3.15正副統領선거는 第4代 大統領 및 第5代副統領 直接選舉에 해당한다. 그러나 歷史上 類例 없는 不正선거를 치루었기 때문에 國會의 決議로 무효가 됐고, 취임전에 4.19 학생의거가 일어나 자유당 정권이 무너지고 말았다.

개표결과는 단일후보인 李承晩이 총투표수의 88.7%에 해당하는 963만3,376표를 얻었다. 原州 原城에서는 투표결과 原州市의 경우 유효투표 87.2%에 해당하는 3만2,149표가 나왔고 原城郡의 경우는 유효투표를 92.8%에 해당하는 4만2,978표라는 많은 지지표를 단일후보인 李承晩이 차지하였고 副統領선거는 原州市 15개 투표구에서 투표한 투표수 3만6,775표에 李起鵬이 2만8,209표의 절대적인 다수표가 나왔고 原城郡은 36개 투표구에 투표자수 4만6,311에 李起鵬이 4만765표를 얻었으므로 99.5%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이 선거는 모두 무효가 되고 말았다.

(8) 第4代 大統領 間接 選舉

(가) 選舉前의 情勢

4.19학생의거로 李承晩대통령이 下野함에 따라 정세는 급변하였다. 이와같은 국민여론의 압력에 부딪치자 國會는 6月 15日 국가의 權力構造를 종래의 大統領中心制에서 內閣責任制로 바꾸는 헌법개정안을 可 203표 否 3표라는 압도적 다수로 통과시킨 다음 自進해산 하고, 7月 29日 5代民議員과 初代參議員을 뽑는 역사적인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선거결과 民主黨은 民議院 233席 중 3分の2가 훨씬 넘는 175席을, 參議院 議席 58席 중 31席을 각각 차지하여 절대다수의 제1당이 되었다. 自由黨을 비롯한 郡小政黨 무소속을 전부 합해야 民主黨議席의 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러자 民主黨내에서는 고질적인 新舊派의 對立으로 끝내 兩派로 분열되고 말았다. 이때 民主黨의 新派는 대통령에는 舊派의 尹潽善 국무총리에는 自派의 領袖인 張勉을 내정 舊派의 尹潽善을 대통령으로 당선시켜 국무총리 경쟁에서 탈락시키려고 했다. 반면에 舊派는 대통령에 尹潽善 국무총리에 金度演이나 또는 대통령에 張勉 국무총리에 金度演을 내세울 작정이

었다.

(나) 選舉制度

1960년 6월 15일 憲法改定으로 大統領中心制에서 內閣責任制로 바뀌자 크게 달라져 大統領을 國會에서 선거하게 되었다. 헌법상 大統領의 地位는 國家의 元首이며 國家를 代表하는 상징적인 存在가 되었다. 大統領은 兩院合同會議에서 선거하고 在籍 國회의원 3分の2 이상의 得票로 당선된다. 1차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때는 2차투표를 행하고 2차투표에서도 당선자가 없을 경우 재적의원 3分の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過半數의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고 규정되고 있다. 이때의 선거결과, 1960년 8월 12일 7.29선거에 의해 선출된 民議院 및 參議院의 兩院合同會議가 열려 제4代 大統領 선거를 실시했다. 이때 民議院의 在籍議員은 定數 233名중 투표함의 燒却 파괴 및 풍랑등으로 선거결과가 종결되지 않은 13개區를 제외한 220名 參議院의 재적의원은 定數 58名중 앞서의 13개 사고지구와 선거결과가 아직 밝혀지지 않아 당선이 확정되지 아니한 15名을 제외한 43名으로서 재적의원 총수는 263名인데 이중 259名이 大統領 선거에 참가했다. 투표결과 1차투표에서 尹 潛善 208표, 金 昌淑 29표, 卞 榮泰 3표, 白 樂濬 3표, 許 政 2표, 金 度演 1표, 金 炳魯, 朴 順天, 羅 容均, 李 哲承, 劉 沃祐, 金 始顯, 각 1표 무효 6표로서 尹 潛善이 압도적 다수표를 얻어 第 2共和國의 大統領으로 당선되었다.

(9) 第5代 大統領直接選舉

(가) 選舉前의 情勢

제5대 大統領선거는 5.16혁명으로 憲政이 중단된지 2년7개월만에 민정 이양을 위한 선거라는 데 역사적 의의가 있다. 이는 62년 6월 朴議長의 8.12성명에 근거를 둔 大統領 중심제와 단원제를 골자로한 헌법개정안이 최고회의의 의결을 거친다음 12月 17日 국민투표에 붙여져 유효투표의 78.78%의 찬성을 얻어 확정, 公布된데 따라 시행된 것이다. 이와같은 가운데 朴議長은 民政참여 의사를 굳혔다. 또 야당 진영은 離合集散과 국민의당 파동을 비롯한 陣痛을 겪은 끝에 戰列도 채 가다듬지 못하고 총선거에 임했다. 즉 民政黨을 일단「국민의당」에 통합했으나 야당 단일 大統領후보 지명의 事前 협상에 실패하자 따로 떨어져 나왔고 국민의당은 非民政系와 金炳魯 수석대표 위원을 따르는 일부 民政系代議員 만으로창당대회를 가짐으로서 야당진영이 크게 약화된 가운데 선거전에 임했다. 이로써 民主, 自由, 自民, 民政, 正民會, 秋風會, 正義黨 등 群雄割據時代를 만난 채 선거를 치르게 되었다.

(나) 選舉의 機相

朴正熙최고회의 의장은 1963년 8월 30일 豫編後 民共主和黨에 入黨 다음 날자로 民主共和黨의 大統領후보 지명을 수락했다. 朴議長은 차기 民政은 반드시 혁명이념을 계승하여 형명정부가 못다한 과업을 기어이 완수해야 하며 민주 공화당만이 5.16혁명의 이념계승을 기치로 들고나온 唯一한 정당임을 분명히 했다. 民政黨은 6월 12일 임시 전당대회에서 大統領후보에 尹 潛善을 지명하였다. 선거결과에 있어서는 民主共和黨의 朴正熙 民政黨에 尹 潛善, 국민의 당에 許 政 自由 民主黨의 宋 堯讚, 正民會의 卞 榮泰, 新興黨의 張 履爽등 7名이 立條補選으나 許 政과 宋 堯讚 두 후보는 선거도중에 사퇴하고 말았다.

이 때의 선거인수는 1962년 11월 10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의해 조사한 人口數 2,627만8,025人의 49.4%인 1,298만5,015名의 투표자는 선거인 총수의 85%인 1,103만6,175名으로서 종전의 다른 선거에 비하면 투표율이 낮아진 편이다. 原州市와 原城郡의 경우는 먼저 原州市 총선거인수 4만2,931名에 投票人數는 3만7,061名이었으며 原城郡은 선거인수 4만9,959名에 투표인수는 4만 5,335名이었다. 개표결과는 민주공화당의 朴 正熙후보가 유효 투표총수의 46.6%인 470만2,640

표를 얻어 차점자인 民政黨의 尹 潛善후보를 15만6천표 차로 누르고 제5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原州市와 原城郡에서의 득표는 朴 正熙후보가 1만857표를, 그리고 尹 潛善후보가 2만1,228표 吳 在 泳이 1,110표, 卞 榮泰후보는 882표를 얻었으며 原城郡에서는 朴 正熙후보가 1만6,871표, 尹 潛善후보가 1만7,319표를 얻게 되었으니 결국 原州市 原城郡에서는 朴 正熙후보 보다 尹 潛善후보가 1만819표를 더 얻은셈이 된다. 이때부터 原州는 더욱 野黨都市로 알려지게 된 것이다.

(10) 第6代 大統領 直接選舉

67년 5월 3일에 있던 제6대 대통령선거는 공화당의 박정희후보와 신민당의 윤보선후보가 63년에 이어 두번째로 대결한 선거이다. 이에 앞서 韓日問題와 越南派兵問題라는 커다란 정치적 이유를 놓고 시국관의 차이로 離合集散을 거듭했던 在野勢力은 67년의 再決戰을 눈앞에 두고 일단 하나로 뭉치는데 성공했다. 재야세력의 양대산맥을 이루었던 民衆, 新韓 양당은 67년 3월 7일 서울 시민회관에서 合黨宣言大會를 갖고 新民黨으로 正式發足を 보았다. 尹 潛善총재와 朴 順天 民衆黨대표위원은「민중당과 신한당은 新設統合의 방법으로 合黨한다」는 합당결의서에 서명하고 대통령 후보에는 윤보선 당대표위원에는 유진오를 선출하여 지도체제를 확립하고 戰列을 가다듬었다. 앞서 민중당은 66년 10월 22일 재야인사중 유진오를 맞아들여 대통령후보로 지명했으나 合黨과정에서의 합의사항에 따라 후보를 포기하는 대신 당수직을 맡게 된 것이다. 공화당은 갑작스런 야당통합이 이루어지자 67년 2월 2일 서울장충체육관에서 대통령 후보지명 제4년차 전당대회를 열고 현직 대통령인 박정희총재를 대통령후보로 다시 지명하여 總選體制를 갖추었다. 선거전은 초반전에서 공화당이 1.2차 경제개발계획의 成果를 PR하고 물가상승억제, 주택난 해결, 실업자구제, 중소기업 육성등을 내용으로한 국민을 잘 살게 하기 위한 百가지 公約등 정책방향을 제시한데 反해 신민당은 도시 중심의 遊說를 통해 獨裁, 腐敗, 特權, 隸屬을 四大秕政으로 지목하고 三大公敵이라고 규정한 腐敗分子 情報政治 政權交替의 必要性을 力說했다. 共和, 新민 양당은 1차유세에서 다 같이 人身攻擊이 人氣가 없음을 파악하고 政策對決의 방향을 굳혔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국민전체를 위한 巨視的인 안목에서 이기보다는 당장의 인기에 迎合하려는 地域公約을 남발하여 커다란 문제점이 되었다. 選舉에는 共和黨의 朴 正熙 新民黨의 尹 潛善을 비롯하여 大衆黨의 徐 珉濂, 韓國獨立黨의 錢 鎭漢, 民衆黨의 金 俊淵, 統韓黨의 吳 在 泳, 正義黨의 李 世 鎮등 7名이 입후보했으나 그중 徐후보는 選舉도중 사퇴했다. 이때 선거인수는 66년 10월 1일 現在 常住人口調査에 의한 人口數 2,917만4,190名の 47.8%에 해당하는 1,393만5,093名 투표인수는 유권자 총수의 83.6%인 1,164만5,215名으로서 10.15선거제 보다도 더욱 낮은 투표율을 보였다.

原州의 경우는 강원도 제2지역선거구로 原州市와 原城郡이 포함되어 1개지역 선거구로 하고 개표는 市와 郡이 따로 했으며 투표구는 市가 16개소 郡이 40개소로 하였다. 선거인수는 4만 6,845名이었고 투표수는 4만557표였고 郡은 선거인수 5만2,435名에 투표수는 4만8,059표가 나왔다. 득표관계는 民主共和黨의 朴 正熙후보가 1만9,474표 新民黨의 尹 潛善후보가 1만7,677표를 얻어 결국 朴 正熙후보가 1,797표를 앞지르게 되어 한때 野黨都市라고 하던말파는 달라졌다. 原城郡도 역시 박정희후보가 윤보선후보 보다 1,280표를 앞지른 2만1,309표대 2만29표였다. 이렇게 해서 이번 선거에서는 공화당의 박정희후보가 유효투표 총수의 51.4%인 568만8,666표를 얻어 차점자인 윤보선후보를 116만2천여표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누르고 대통령에 再選되었다. 이번선거를 통한 강원도의 경우는 朴후보가 42만9,589표, 尹후보가 34만9,807표로서 63년도 선거 때의 45%對 55%의 野黨色이 54%對 46%로 뒤바뀐 것이다. 이것은 共和黨의 조직이 前보다 많이 補強되었고 또 지난번 선거때보다 政治的인 안정과 또 處遇改善으로 軍隊票가 與로 기운에서

第2編 政治 및 行政

은 것으로 해석되었다. 강원도내 20개 市郡中 尹후보가 이진곳은 寧越, 平昌, 橫城 세곳뿐인데의 그중, 寧越, 平昌 두곳은 10.15선거 때의 朴후보 우세지역에서 野가 우세로 바뀌었다는데서 주목되었으며 마침내 國會議員候補 公薦內定者가 交替되는 波動까지 겪어야 했다.

(11) 第7代 大統領 直接選舉

(가) 선거전의 정세

공화당은 총선거를 1년여 앞두고 3선개헌안을 발의, 통과시키고 10월 17일 국민투표를 통해 유효투표수의 65.1%의 찬성을 얻어 확정시킴으로서 대통령 3선의 길을 터놓았다. 야당인 신민당은 院內 外를 통해 3선개헌안의 발의 및 국회통과와 국민투표에서 반대운동을 전개했으나 끝내 沮止에 실패했다. 더구나 신민당은 국민투표를 앞둔 중요한 시기에 兪 鎮午당수가 신병 치료차 日本에 가있었고 국민투표에서 예상의외 참패를 당하자 失意에 차 있었다. 이러한 때에 金 泳三 元내총무는 11월 8일 「40代 旗手論」을 내걸고 71년 대통령선거에 내세울 대통령후보 지명전에 나서겠다고 선언하여 신민당은 물론 신민당을 에워싼 政局에 커다란 충격을 던졌다.

金 泳三총무의 40代 旗手論은 확실히 지금까지 보수야당의 전통을 지녀온 신민당의 체질개혁에 속진제가 되었다. 뒤이어 金 大中, 李 哲承, 兩氏도 같이 指名戰에 나설것을 선언하여 70년 9월 29일 임시 전당대회를 통해 대통령후보를 지명할때까지 치열한 각축전을 벌였다. 지명대회 결과는 많은 사람의 예상을 뒤엎고 柳黨首가 추천한 金 泳三의원 대신 金 大中的원이 指名되었다. 공화당은 3월 17일 장충체육관에서 제 5차 정기전당대회를 열고 박 정희총재를 만장일치로 7대 대통령후보로 지명하고 각지구 선거대책 위원장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나) 선거 결과

4.27선거에는 공화당의 朴 正熙 新民黨의 金 大中을 비롯하여 國民黨의 朴 己出, 統社黨의 金 哲民 衆黨의 成 輔慶, 自由黨의 李 鍾潤, 正義黨의 陳 福基 등 7명이 입후보했으나 그중 金 哲, 成 輔慶은 선거도중 사퇴했다. 선거인수는 전국적으로 총 1,555만 2,236명이며 그중 1,233만 7,282명이 투표하여 79.8%의 투표율을 나타냈다.

原州市와 原城郡의 경우는 선거인수 4만6,845명에 투표수는 4만557표와 5만2,435명의 선거인 중 투표수는 4만8,059표로서 과히 낮은 비율은 아니었다. 개표결과로는 공화당의 박 정희후보가 유효투표 총수의 53.2%인 634만2,828표를 얻어 차점자인 신민당의 金 大中후보를 94만6,928표 차로 누르고 제7대 대통령에 3선되었다. 金후보는 유효투표수 1,192만3,218표의 45.2%인 539만5,900표를 얻었다. 郡小政黨후보는 陳 福基 12만2천표, 朴 己出 4만3천표 李 鍾潤 1만7천표를 얻었을 뿐으로 전부 합해야 20만표에도 미달된다. 原州市의 경우는 朴 正熙후보가 2만2,636표, 金 大中후보가 1만9,345표, 그리고 朴 己出후보 143표, 李 鍾潤 51표, 陳 福基 330표였고, 원성군은 朴 正熙후보 2만6,674표, 金 大中후보 1만4,305표, 朴 己出후보 235표, 李 鍾潤후보 106표, 陳 福基후보 54표로서 市郡같이 공화당의 박 정희후보가 압도적이었으며 차점의 金 大中을 제외하고는 전부가 2천표도 안되는 분산표였다. 이렇게 해서 與黨이 우세하여 共和黨의 完勝으로 끝났다.

(12) 第8代 大統領 間接選舉

美國 日本 蘇聯 中共등의 冷戰에서 對話로의 轉換을 계기로 한 國際情勢의 急變과 國內적으로 7.4共同聲明에 의한 南北對話등은 平和統一을 指向하는 維新憲法을 擬게하였다. 朴大統領은 10.17宣言에서 憲政을 一時 中斷하고 祖國의 平和의 統一指向과 韓國의 民主主義 確立을 위한 유신헌법안을 국민투표에 廻附하도록 하였다. 모든 政黨 및 政治活動이 中止된 상태에서 11월 21日 국민투표는 실시되어 국민의 압도적인 支持(91.5%)를 얻어 第4共和國憲法은 확정되었다. 이 憲法附則 제1조에 따라 統一主體 國民會議代議員選舉法이 72년 11월 25일 公布 施行되었다. 또

그해 12월 15일에 代議員選舉가 행하여졌고 12월 23일에는 국민회의에서 제 8대 대통령 間接選舉가 實施되었다.

(가) 候補者登錄 및 選舉結果

任期6年の 大統領候補 資格은 국회의원 被選舉權이 있고 선거일 現在 계속해서 5年以上 국내 거주자로서 만40歲 이상인 者로 되었다. 또한 候補登錄에는 統一主體國民會議 代議員 200名이상의 추천이 要件으로 規定되었다. 第8代 大統領候補에는 朴正熙大統領이 72년 12월 22일 國民會議 郭尙勳 代議員등 515명의 추천으로 등록해서 單一候補가 되었다. 12월 23일 서울 長春체육관에 모인 國民會議 代議員들은 국회의원법 規定에 따라 討論없이 무기명투표에 들어갔다. 單一候補이기 때문에 贊 反만 묻는 투표에서 박정희후보는 재적의원 2,359명(全員參席)중 찬성 2,357표 무효 2표라는 역사적인 지지로 第4共和國의 初代 大統領에 당선 되었다.

第4節 地方自治와 選舉

地方自治는 民主政治의 理念上 필연적인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民主政治란 國民의 自治를 의미하며 地方自治는 民主政治의 教室로 看做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地方自治制는 舊憲法(1948년 7월 17일公布) 제96조 제1항의 「自治團體는 法令의 範圍內에서 그 自治에 관한 行政事務와 國家가 위임한 行政事務를 處理하며 財産을 管理한다」는 規定에 따라 1949년 7월 4일 法律 제32호 地方自治法이 제정 공포됨으로서 그해 8월 15일 全國적으로 地方自治制가 실시되게 되었으나 1950년 6.25動亂으로 不得已 지연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52년 4월 25일 우리나라 最初의 地方選舉가 實施되었으나 原州는 當時 江原道廳이 臨時 駐在하고 있었다. 당초의 이 地方選舉는 市, 邑, 面, 議員選舉(4.25)와 道議員選舉(5.10)를 實施하게 되었으나 春川, 洪川, 春城등 市郡은 未收復地區여서 그 外의 市郡에서만 邑, 面議員選舉가 實施되었다. 그러나 地方選舉라고 하더라도 1960년 第2共和國時代의 그것과는 달리 道知事는 任命制였고 市 邑 面長은 地方議會에서 選出하게 되어서 事實上 國民들의 直接選舉는 邑, 面議員選舉 뿐이었다. 그후 1956년 2월 10일 全文 662條 附則으로 된 地方自治法 改定案이 國會를 통과 함으로서 2次 市, 邑, 面長選舉가 施行케 되었다. 原州에서는 市長, 面長選舉 및 市, 面會議員選舉를 8月 8日 실시하였다. 이리하여 原州市 및 原城郡의 地方自治制가 그 形態를 갖추게 되었다. 그후 4년이 지난 1960년 12월 26일에 실시된 市長 및 面長選舉가 있었고 그해 12월 12일에는 또 第2代 道議員選舉가 있었다. 그리고 2代 市議員과 3代 面議員選舉는 12월 19일에 실시되었다. 그후 5.16革命으로 말미암아 地方自治制는 中斷되고 말았다. 한편 道知事選舉는 4.19義舉로 地方自治法이 개정되어 종래 任命制이던 서울特別市長과 각 道知事를 주민들이 직접 선거하게 됨에 따라 1960년 12월 29일 실시 되었다. 이것이 史上 처음 있는 選舉라고 한다. 이 때에 서울特別市長 만은 「自書式」 투표제도를 채택한 것이 또한 흥미였다고 한다. 道知事 選舉制度의 특징은 ① 선거권은 만 20歲로 낮추고 ② 被選舉權을 만 30歲以上으로 하며 ③ 市 道 선거위원회는 區와 市, 郡, 단위로 合同演說會를 개최하여야 하고 ④ 후보자는 개표구 마다 한번씩의 개인연설회를 가질 수 있고 ⑤ 市 道 선거위원회는 후보자가 제출하는 원고와 비용에 의하여 선전문서를 작성 每世帶 및 不在者에게 1회 무료우편으로 발송하며 ⑥ 후보자는 선거구내에서 발생하는 일간신문 2종에 한하여 1회씩 선거에 관한 광고를 게재할 수 있고 ⑦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자동차와 확성기는 1대에 한하도록 했다. 그리고는 이상에서 허용된 방법외에는 어떠한 선거운동이나 비용의 지출도 할수 없도록 선거운동 방법을 엄격하게 제한하였다. 그밖에는 대체로 국회의원 선거법을 준용하였다. 이때 강원도의 선거지역은 收復地區 7개 郡을 제외한 13개 市 郡 전역이며 투표구수는 426개 소였

第2編 政治 및 行政

고 原州 原城이 51개 투표구였다. 이때의 原州市의 총 人口數는 7만6,411名이고 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3만4,738名인데 道知事 선거에 실질적 투표자수는 1만4,577名 이었고 原城郡은 총 인구수 7만794名에 투표할 수 있는 유권자 수는 4만734名인데 투표자 수는 1만9,908名 밖에 안 되었다. 이와 같이 투표율이 낮은 것은 12월에 들어서만도 4차례의 선거를 치루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인식이 무관심 상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날씨가 춥고 눈이 내리는 日氣不順까지 겹친데서 온 현상으로 分析된다.

(1) 第1代 道知事選舉 候補者別 得票數

1960. 12. 29 施行

성명	성별	나이	소속정당	기호순위	득표수	비고
金 振 伯	남	45	무소속	1	사퇴	명주군 사람
黃 虎 鉉	남	49	〃	2	61,488	평창군 사람
崔 運 澈	남	51	〃	3	40,762	명주군 사람
李 昌 根	남	49	〃	4	38,325	춘천시 사람
鄭 鳳 教	남	51	〃	5	11,872	명주군 사람
朴 永 祿	남	38	민주당	6	62,147	原州에서 民主黨 공천으로 出馬(원주사람)
安 相 漢	남	54	신민당	7	56,436	춘천시 사람

(2) 第1代 市長選舉

1956년 8월 8일 實施한 第1代市長선거에는 吳 亨善이 既得權者로 當選되었다. (當時 原州邑長에서 市로 昇格하게 됨으로 市長으로 當選된 것임)

(3) 第2代 市長 選舉

1960년 12월 26일 실시된 第2代 市長選舉에는 元 寅植(民主黨) 卓 勳(無所屬) 張 潤(無所屬)이 立候補함으로 치열한 경쟁이었으나 中間에서 卓 勳이 辭退함으로서 元 寅植과 張 潤 2名の 열전이 었다. 투표결과 元 寅植 1만714표로서 當選이 확정되고 張 潤이 8,256표를 얻어 결국 2,458표의 차이로서 낙선의 고배를 맛 보게 되었다.

(4) 地方議會 議員選舉

(가) 第1代 道議員 選舉

江原道內에서 道議員選舉는 1956년 8월 13일에 실시한 것이 처음이었다. 그보다 앞서 있었던 52년 5월 10일 당시는 6.25동란으로 道廳이 春川으로 收復해 들어가지 못하고 임시로 原州에 머물러 있었을 뿐 아니라 漢水以北은 戒嚴令아래 있었기 때문에 선거를 실시하지 못했다. 그후 1956년 8월 13일에 실시된 선거구역은 춘천, 강릉, 원성, 정선이 1개구 原州, 춘성, 횡성, 영월, 평창, 울진이 2개구 홍천, 명주, 삼척이 3개구로서 議員定數는 25人이었다. 이때 原州市는 제 1 제 2로 선거구를 나누었는데 제 1선거구는 명륜, 개운, 원동, 평원동, 단구동, 중앙, 일산, 인동, 등 8개동이고 제 2선거구는 학성, 단계, 태장, 우산, 봉산, 단구일부동 6개동이다. 原城郡은 一圓을 1개구로 하였다. 原州市 제 1투표구에서는 무소속의 趙 漢珪와 자유당의 洪 長洙가 出馬하였다가 중도에서 洪 長洙가 辭退함으로 趙 漢珪가 無投票當選이 되었고, 제 2투표구에서는 자유당의 張 基喆과 자유당의 安 明漢이 대결해서 7,007표를 얻은 安 明漢이 當選되고 張 基喆은 4,922표를 얻어 次點이 되고 말았다. 한편 原城郡투표구에서는 金 興培와 李 秉圭의 立候補로 열전 끝에 1만7,383대 1만5,111표로 불과 2,272표차로 金 興培가 當選되고 李 秉圭는 낙선의 고배를 마시었다. 이렇게 해서 原州 原城에서 第1代 道議員으로 趙 漢珪, 安 明漢, 金 興培가 當選 확정 되었다.

(나) 第2代 道議員 選舉

1960년 12월 12일에 실시되었다. 선거구역은 ① 原州市의 경우 제1투표구는 仁洞, 中央洞, 平原洞, 一山洞, 園洞, 明倫洞, 開運洞, 丹邱洞 등 8개 등에 人口數 3만4,726명에 有權者數 1만7,241명이다. 原州 제2투표구는 鶴城1區洞, 鶴城2區洞, 丹溪洞, 牛山洞, 台庄1區洞, 台庄2區洞, 鳳山1區洞, 鳳山2區洞, 杏邱洞 등 10개 洞에 人口數 4만1,685명에 有權者數 1만7,407명이다. ② 原城郡의 경우 原城 제1선거구는 所草面, 好楮面, 板富面, 神林面 등 4개 면이고 제2투표구는 地正面, 文幕面, 富論面, 貴來面, 興業面 등 5개 면인데 人口數는 3만7,828명에 有權者數는 2만758명이고 제1투표구는 人口數 3만2,966명에 有權者數 1만9,767명이다. ③ 原州市 第1투표구에서는 白完基, 朴達昱, 金善福, 趙英泰, 黃庚五, 金成峰 등 6명이 立候補해서 白完基 3,453표를 얻어 當選되고 民主黨의 金善福이 2,491표를 얻어 次點에 머물렀고, 原州 제2투표구에서는 金寅植, 金基鉉, 申泰俊, 安明漢 등 4명의 候補者에서 民主黨의 金寅植이 4,287표를 얻어 當選되고 無소속의 金基鉉이 3,685표를 얻어 次點에 머무르고 말았다. ④ 原城郡 제1투표구에는 金榮一, 宋炳漢, 劉在昌, 白瓊鉉 등 4명이 나와 無소속의 金榮一(神林)이 6,189표를 얻어 當選되었고 白瓊鉉이 4,511표를 얻어 次點이 되었다. 原城 第2투표구에는 李寶雨, 元濟益, 李容瑣, 徐廷高, 申元澈 등 5명의 候補者中 元濟益(興業)이 5,853 표로 當選되고 文幕에 徐廷高이 3,920표를 얻어 次點에서 머물렀다. 이렇게해서 原州市에서는 白完基, 金寅植, 原城郡에서는 金榮一, 元濟益이 第2代 道議員으로 選當확정 되었다.

(다) 初代邑面議會議員選舉

地方議會

初代 地方議會議員 關係에 對하여는 原州郡 當時였으므로 原州邑 議會와 原州郡內 各面議會的 議長과 副議長에 限해서 記錄한다.

原州邑 議會

議長 朴忠模 副議長 朴台熙

原州郡 各面議會

所草面議會

議長 李秉圭 副議長 文基猷

好楮面議會

議長 金世源 副議長 李在琬

地正面議會

議長 金鍾奭 副議長 李秀東

文幕面議會

議長 郭漢奎 副議長 黃義奭

富論面議會

議長 劉承仁 副議長 李桂榮

貴來面議會

議長 金承吉 副議長 金鍾一

興業面議會

議長 李昌壽 副議長 金鍾星

板富面議會

議長 朴斗緒 副議長 李大善

神林面議會

議長 李然雨 副議長 郭萬溟

第2編 政治 및 行政

(라) 第1代 市議會 議員選舉(1956년 8월 8일 施行)

1956년 8월 8일에 실시한 第1代 市議員 선거는 6개 선거구로 나누어서 1개 선거구에서 2명내지 3명씩을 선출해서 15명으로 구성하였다. 이때 당선된 第1代 市議會 議員은 제1선거구 趙昌植, 任壽喆, 제2선거구 金成峰, 韓永熙, 金生洙, 제3선거구 朴永祿, 白完基, 李秉武, 제4선거구 沈命澤, 李殷成, 제5선거구 邊斗元, 鄭海均, 제6선거구 金金鳳, 李贊禧, 金永台등 15명이 당선 확정 되었다.

投票狀況 集計一覽(1956. 8. 8)

선 거 구 명	제 1선거구	제 2	제 3	제 4	제 5	제 6		
총 인 구 수	11,635	12,971	10,120	13,161	9,569	18,955		
선거인명부등재자	투표자수	유 효	3,585	3,787	3,281	4,163	3,181	5,315
		무 효	192	85	69	155	89	149
		계	3,777	3,872	3,359	4,318	3,270	5,464
		기 권 자 수	759	883	671	865	753	1,295
계	4,536	4,755	4,030	5,183	4,023	6,759		
인 구 대 선 거 인	% 39.0	37.0	40.0	39.0	42.0	36.0		
투 표 율	% 82.0	81.0	83.0	83.0	81.0	80.0		
유 효 투 표 율	% 95.0	97.0	97.0	96.0	97.0	79.0		

(마) 第2代 市議會 議員 選舉에 當選者

(1960. 12. 19. 施行)

選舉區名	姓 名	年 齡	姓 別	住 所	職 業	所屬政黨	得 票 數
제 1 선거구	金 鎭 赫	37	남	明 倫 洞	商 業	新 民 黨	1,178표
	金 進 鎭	44	〃	〃	營 業	무 소 속	1,163표
제 2 선거구	崔 鍾 泰	30	남	園 洞	言 論 人	제 향 군 인 회	1,130표
	洪 周 杓	37	〃	明 倫 洞	請 員 業	무 소 속	1,130표
	韓 永 熙	36	〃	〃	典 業	〃	1,085표
제 3 선거구	金 生 洙	36	남	平 原 洞	商 業	民 主 黨	1,375표
	林 弘 植	37	〃	〃	運 輸 業	무 소 속	1,307표
	鄭 亨 燮	36	〃	〃	商 業	民 主 黨	1,368표
제 4 선거구	權 五 哲	44	남	台 庄 洞	商 業	무 소 속	848표
	曹 圭 燾	48	〃	丹 溪 洞	農 業	무 소 속	792표
제 5 선거구	金 善 珩	38	남	鶴 城 洞	商 業	民 主 黨	1,241표
	邊 斗 元	36	〃	〃	農 業	무 소 속	1,867표
제 6 선거구	申 東 善	43	남	台 庄 洞	會 社 員	民 主 黨	1,349표
	金 亨 燮	38	〃	鳳 山 洞	農 業	무 소 속	1,273표
	金 甲 洙	36	〃	〃	無	무 소 속	1,337표

(바) 第2代 面議會委員選舉(1960. 12. 19. 施行)

第2代 地方議會 議員 選舉때는 原州郡이 原城郡으로 改編된 以後였기 때문에 面議會 議員으로 當選된 議員名單만 調査 記錄하기로 한다. 選舉結果에 對하여는 記錄하지 못한다.

1. 好楮面議會 議長 宋炳漢 副議長 洪性學 議員 安在均 金世源 李奈薰 崔光昊

		李亨九 李秉義 宋榮奎 鄭珍玉 李俍淵 以上 11名
地正面議會	議長	尹壽鶴 副議長 權炳益
	議員	趙鍾烈 鄭顯冕 李鍾求 元吉常 李康烈 朴鍾奭 沈宜成 元英孫 10名
板富面議會	議長	李大善 副議長 元峻常
	議員	李文浩 李鍾會 朴斗緒 李容俊 林完壽 沈春植 金大成 池蓮春 蔡榮萬 以上 11名
興業面議會	議長	李有忠 副議長 韓龍熙
	議員	吳衡燮 李觀成 元貞植 具滋宣 崔鍾大 金承錄 尹陽鎬 洪顯禹 10名
富論面議會	議長	黃在潤 副議長 千壽榮
	議員	沈春澤 安相祐 鄭寅昊 申元淳 李根元 金英洙 李得興 李浩根 10名
所草面議會	議長	崔聖烈 副議長 辛在舜
	議員	李秉義 李亨燮 朴進浩 崔應夏 金東遜 柳福圭 金宣烈 李千錄 尹容炳 金榮玉 以上 12名
文幕面議會	議長	蔡準儀 副議長 黃義爽
	議員	金東吉 郭建榮 元義植 申龍澈 安鳳植 郭魯聖 尹正萬 許震李 貞教
貴來面議會	議長	朴盛天 副議長 朴長元
	議員	金宜壽 韓在完 安興福 趙聖得 韓應鎬 李起亮 孫晉興 金昌根 趙鍾大
神林面議會	議長	趙能允 副議長 朴泰根
	議員	羅泰淑 金起福 沈宜喆 金漢基 金慶鎮 權益建 李沅再 金熙永 黃德基

第5節 國民投票

國民投票은 일반국민이 특정한 事項에 관하여 投票로 국가의사의 成立에 참가하여 民主政治의 目的을 실현하기 위한 국민참여의 하나의 形成이다. 국민투표의 諸形式으로서는 國民拒否, 國民表決, 國民發案, 國民意思表示등이 있으나 우리나라 헌법개정의 경우 국민투표(헌법126조)는 위의 國民表決의 一方式인 憲法國民表決이다. 우리나라의 憲法 제126조는 「①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公告하여야 하며, 公告된 날로부터 60일 以內에 국민투표에 붙여야한다. ②국민투표에 붙여진 憲法改正案은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헌법개정이 확정된다」고 규정함으로써 국민투표를 헌법개정의 필수적인 要件으로 하고 있다.

(가) 제5차 헌법개정 국민투표

1962년 12월 17일에 실시된 국민투표는 내각책임제에서 대통령중심제로의 헌법개정안에 대한 것이었다. 이것은 형식상으로는 제5차 헌법개정이었으나 실질상으로는 제3공화국 헌법의 제정이란 할 수 있다. 구헌법에 대한 전면 개정인 점에서 그 특색을 찾을 수 있다.

이 개헌투표의 原州地區 결과는 76%로서 찬성율이 조금 낮은 편이었다.

第2編 政治 및 行政

原州 原城의 경우를 보면 原州市 有權者數 4만3,029名인데 투표자는 3만4,881名이었고 原城郡은 有權者 4만7,525名에 투표자는 4만3,738名이었다. 이때 찬 반은 원주시 찬표 2만6,611표였고, 반대표는 7,433표였다. 原城郡은 찬표 3만4,501표였고, 반대표는 8,247표였다.

(나) 三選改憲 國民投票

제7대 국회에서는 여당이 개헌선을 유지하게 되자 개헌여부가 관심의 초점이 되었다. 여당은 대통령의 제속집권을 가능케 하기 위한 三選 금지규정을 완화하는 개헌안을 1969年 8月 7日 국회에 제출하였고 9月 14日 國會에서 통과되어 10月 17日에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可決되었다. 原州에서는 7.25대 대통령의 개헌에 대한 담화가 있는 후 9月 2日 국민투표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투표 결과로는 제2지구 즉 原州市와 原城郡의 찬 반 결과는 2만794표와 2만6,367표였고, 반대표는 1만3,079표와 9,151표였다. (1969. 10. 17 施行)

(다) 維新憲法 國民投票

박정희대통령은 1969. 10. 17 「正常的인 方法이 아닌 非常措置로서 南北對話의 적극적인 전개와 주변정세의 급변하는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體制改革을 단행하기」 위하여 약 2개월간의 헌법 1부 조항의 효력을 中止시키는 비상조치를 국민앞에 선언하였다. 이 선언에서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 및 정치활동을 중지시켰으며 국회의 권한은 非常國務會議가 수행하도록 하였다. 또 조국의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헌법개정안을 公告하고 이를 국민투표에 회부하도록 하였다. 72年 10月 26日 비상국무회의는 헌법안을 의결하고 이를 27일에 公告하였으며 11月 21日에 국민투표를 실시하였다. 이 憲法案은 有權者 91.9%의 投票과 91.5%의 찬성으로 국민투표에서 확정되었다. 제2지역 개표구인 원주 원성에서는 아무런 사고없이 투표를 끝냈으며 하오 7시부터 원주시청과 원성군청 개표소에서 밤새워 개표했다. 이번 국민 투표에는 原州市 투표인수 4만8,493名에 투표수는 4만6,487표였으며 찬성표 4만2,444표에 반대표는 불과 3,672표 밖에 없었으며 原城郡은 52개 투표구에 투표인수 4만1,777名에 투표수는 4만905표였으니 찬성율만도 91.3%와 94.6%라는 비율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민투표의 성격차의에서 나온 것이라고도 볼수 있다. 지난 69년이나 이번이나 투표의 대상이 개헌안이었으나 당시의 양상은 정당 대 정당의 대결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與 野의 치열한 선거전을 수반했던데 反해 이번 국민투표는 國家와 民族의 進路에 대한 선택이었다. 따라서 각 투표구별로 볼때 잘한곳 못한곳이 없는것이 투표결과로 나타났다. 과거처럼 親與의 지역이나 親野의 경향의 지역이 없고 도시와 농촌의 차이도 크게 없었던것이 주목할만한 일이었다.

(라) 統一主體國民會議 代議員選舉

統一主體國民會議는 국민의 총의에 의한 국민적 조직체로서 조국통일의 神聖한 使命을 가진 국민의 주권적 受任기관이다(헌법35條). 통일주체국민회의는 프랑스의 국민공회와 같은 國權의 유일한 최고기관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국민 총의의 표현기관으로 看做되어 통일정체 심의권 대 통령선거권 국회의원선거권(대통령추천케이스)등을 가진 국가권력의 행사기관이다. 이 통일주체국민회의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가권력의 1부를 행사하는 최고기관중의 하나이다. 유선헌법이 확정된 후 처음인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선거가 1972年 12월 15일 상오 7시부터 原州市와 原城郡 각 투표구에서 투표를 했고, 밤을 새워서 개표를 하여 당선자를 골라냈다. 原州市는 2區로 나누어 제1구에서는 宋喆淳, 金成峰, 金龍雲, 제2구에서는 咸在馴, 趙壽英, 崔堉錫 등 6名이 당선확정되고 原城郡에서는 所草 金益善, 好楮에 李文揆, 地正에 韓昌愚, 文幕 許泳, 富論 沈相基, 貴來 韓龍九, 興業 盧承哲, 板富 朴萬守, 神林 金弘基 등 9名이 當選確定됨으로 原州地區에서 15名의 代議員이 選出되었다.

第6節 國會議員選舉

(1) 制憲國會議員選舉

(가) 選舉前의 情勢

韓國문제는 47년 9월 17일 유엔총회 正式議題로 채택 11월 14일 유엔監視下에 총선거 實施 및 유엔臨時委員團派遣을 위한 美國측 提案이 43對 0 棄權 6으로 可決되었다. 호주, 캐나다, 自由中國, 엘살바돌, 佛蘭西, 印度, 필리핀, 시리아, 우크라이나(不參) 등으로 구성된 유엔臨時韓國위원단은 48년 1월 8일 서울에 到着 총선거 실시준비에 着手했다. 그러나 委員團의 北韓入境이 蘇軍政당국에 의해 거부되자 小總會는 選舉實施가 가능한 南韓만의 選舉를 치루게 되어 역사적인 5.10 선거가 施行된 것이다. 이러한 유엔의 決議가 있자 李承晩을 中心으로한 大韓獨立促成 國民會와 韓民黨 등 反託 反共勢力은 金九의 韓獨黨을 除外하고는 이에 贊同했고 左右合作의 中間 右翼세력은 냉담했으며 南勞黨을 비롯한 共產主義者들은 적극 反對하고 나섰다. 그동안 유엔 韓委會는 統一된 民主主義政府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전체국민의 意思를 반영키 위해 李承晩, 曹晚植, 金性洙, 金奎植, 金九, 許憲, 金斗奉, 朴憲永, 金日成 등을 협의의 대상자로 정하고 접촉을 벌이려했다. 그러나 蘇軍政 당국의 入境拒否로 曹晚植, 金日成, 金斗奉과는 접촉할 수가 없었고 許憲, 朴憲永은 逃避中이어서 접촉하지 못했으며 金九, 金奎植은 3월 12일 可能한 地域內의 選舉不參을 正式聲明하고 南北협상에 들어갔다.

(나) 選舉制度

選舉는 48년 3월 17일 美軍政法令 제175호로 公布된 全文 57條의 國會議員選舉法에 依해 施行되었다. 이는 軍政下의 立法議院議員 選舉法을 골자로 해서 만든 것이므로 韓國人 자신의 意思가 많이 반영된 것이다.

(다) 立候補狀況

5.10 選舉에는 國民會等 48개 政黨 社會團體에서 948名의 候補者가 나와 平均 4.9對 1의 競爭을 보였다. 그중 國民會가 235人을 내세웠고 기타 43개 政黨 社會단체가 10人이내의 후보자를 냈고 단 1名만의 후보자를 낸곳이 26개에 이르러 政黨社會團體의 亂立相을 보였다. 그뿐 아니라 무소속의 總立候補者數의 44%인 417名으로서 絕對多數를 차지하여 政治的不安定을 반영하고 있다. 原州의 境遇 1개 選舉區에 元達鎬, 趙軫九, 李定浩, 洪範憲의 4名이 立候補하여 4對 1의 치열한 競爭을 보였다. 그중 國民會출신이 2名 무소속 출신이 2名이고, 年令은 元達鎬가 56歲로 最年長者이고, 洪範憲는 32歲로 最年少者였다.

選舉結果로는 無所屬의 洪範憲가 24,001票로 當選이 되었고, 次点으로는 李定浩가 8,386票, 趙軫九가 5,246票, 元達鎬가 5,080票의 順位였었다. 이때 洪범회는 원주의 族청세력에 힘입음.

(2) 第2代國會議員選舉

(가) 選舉前의 情勢

선거를 앞두고 韓民黨을 中心으로 大同青年團, 國民黨의 一部를 흡수하여 新發足한 民主國民黨 50년 1월 27일 무소속 一部와 제휴하여 內閣責任制 改憲案을 國會에 냈다. 이를 계기로 國會안팎에서는 갖은 우여곡절끝에 3월 14일 表決에서 在席 179名中 可 79票, 否 33票, 棄權 66票 무효 1票로서 否決되었다. 한때는 李大統領에 依해 選舉延期 意思를 비친 談話까지 나와 憲政이 심각한 危機에 빠지기도 했으나 드디어 5월 30일 選舉日로 決定 公告함으로써 解消되었다. 第2代國會議員 選舉에는 制憲議員선거에 不參했던 南北協商派 및 中道系列 등 公산당을 제외한 모든 右翼陣營이 참여했다. 이 選舉는 처음으로 韓國政府가 管理 執行하는 選舉라는데 큰 意義

가 있었다.

(나) 選舉制度

制憲國會에서 새로이 제정된 國會議員選舉法에 의거하여 처음으로 실시된 것이다. 5.10선거 때에 비해 달라진점은 다음과 같다.

選舉權 被選舉權=反民族행위자에 對한 選舉權 被選舉權制限을 解除하고 현역軍人, 法官, 檢察官, 審計官, 監察員, 경찰관에게는 被選舉權을 制限했다.

立候補狀況= 국내 모든 政黨社會團體가 참여하여 定數 210名에 對해 총 2,029名이 입후보 함으로서 平均競爭율은 무려 10.5對 1 이라는 역대선거중 가장엄청난 경쟁을 보였다.

原州의 境遇는 1個 選舉區에 尹吉重, 李定浩, 洪範憲, 咸基燮, 韓基駿등 5名이 立候補하여 5對 1의 競爭을 보였다. 4名이 무소속이었고, 1名만이 國民黨出身이었고 選舉結果로는 무소속의 尹吉重이 制憲議員이었던 洪範憲를 누르고 12,768票로 당선이 확정되었다. 次点에는 洪範憲로 12,049票, 咸基燮이 6,132票, 韓基駿 5,270票, 李定浩 4,990票의 順位였었다.

(3) 第3代國會議員 選舉

(가) 選舉前의 情勢

自由黨은 선거를 앞두고 族靑勢力을 完全히 몰아내고 종래의 「李範奭체제」에서 「李起鵬체제」로 完全히 方向轉換을 하였다. 이와 아울러 조직을 強化하는 한편 우리나라 選舉史上 처음으로 議員候補者 公薦制를 채택하고 이어 院內 第1野黨인 民主國民黨도 公薦후보를 내세움으로서 政黨政治의 기틀을 마련했다. 野黨의 중추세력인 民國黨은 2代大統領選舉에서의 敗北과 국회에서의 勢力弱화를 만회 하기위해 體系를 革新派인 申翼熙委員長을 中心으로 體質改善을 斷行했다. 이때 舊韓民黨系의 金性洙, 白南薰, 趙炳玉, 徐相日등은 고문의 지위로 물러났다. 또 各選舉區마다 公薦후보를 내세워 自由黨에 對決하였다. 選舉制度는 2代대에 비해 하나도 달라진 것이없다. 선거의 관심은 過然 自由黨이 改憲線을 民國黨이 改憲沮止線을 확보하느냐에 달렸으며 선거자유분위기 문제가 크게 論難되었다.

(나) 立候補 狀況

自由黨과 民主國民黨을 비롯한 14개 政黨이 참가하여 총 1,207名의 立候補者를 내세워 평균 5.9對 1의 競爭율을 보였다. (國會議員定數 203名이었음)

原州의 境遇는 1개 選舉區에서 4名이 立候補하였다. 候補者는 다음과 같다. 元貞鎬, 韓基駿, 咸在勲 尹吉重으로 4對 1의 競爭率을 보였다. 소속별로는 무소속이 3名이었고, 自由黨이 1名이였다.

選舉結果로는 自由黨立候補者인 咸在勲이 2代議員이었던 尹吉重候補를 누르고 25,582표로 當選이 確定되었다. 次点에는 韓基駿이 9,070표, 尹吉重 8,392표, 元貞鎬 4,148표의 順位였었다.

(4) 第4代國會議員 選舉

(가) 選舉前의 情勢

自由, 民主兩黨은 獎忠壇 集會妨害事件(57. 5. 25)과 晉州市長 選舉不正事件(57. 10. 15) 등을 둘러싸고 激昂된 분위기속에서도 심각한 內的鎮痛을 겪었다. 즉 自由黨은 李起鵬 中心의 主流와 非主流로 民主黨은 舊民國黨의 舊派와 興士團 韓民黨系의 新派로 갈라져 黨主導權을 싸고 경쟁이틀 벌리고 있었다. 그 결과 自由黨에서는 反主流派인 李忠換등 6議員을 除名했고 民主黨에선 舊派의 金俊淵등이 脫黨하는 소동을 일으켰다. 그 후 與野는 院內에서 1년3개월餘에 걸친 끈질긴 협상을 통해 協商選舉法을 마련 58년 1월 1일 국회를 통과시켰다. 그밖에 革新政

黨으로 發起를 서둘던 進歩黨은 58년 1월 12일 曹 奉岩委員長등 3名이 돌연 國家保安法 違反嫌疑로 구속되고 2월 25일 登錄取消되어 결국 같은 保守政黨인 自由 民主兩黨의 對決이 되었다.

(나) 選舉 制度

與野協商으로 이룩된 選舉法改正은 公明選舉를 위한 細部的인 사항까지 規定하여 法 자체로서는 거의 完全한 형태를 갖추었다.

(다) 立候補 狀況

총 814名이 立候補함으로서 議員定數 233名에 대해 평균 3.2배의 경쟁이었다. 이는 歷代選舉中 가장 낮은 것으로서 비록 무소속이 많기는 하지만 이때에 이르러 政黨政治의 기틀이 잡혀간다는 것을 뜻한다.

原州의 境遇는 從前에 1個 選舉區였으나 原州市 승격으로 原城郡이 분리되어 2個의 選舉區를 갖게 되어 原州市로 立候補者의 이름은 朴 忠模, 咸 在勳, 李 重淵, 韓 慶洙, 張 壹淳 5名이 立候補하여 5對 1의 치열한 競爭을 보였다. 所屬別로 보면 民主黨公薦이 1名 自由黨公薦이 1名 無所屬 3名의 順으로 選舉에 臨했다. 選舉結果로는 民主黨公薦을 받은 朴 忠模가 自由黨公薦者인 3代議員이었던 咸 在勳을 물리치고 11,703표를 得票하여 當選이 確定되었고 次点에는 咸 在勳 10,878표, 李 重淵 2,792표, 張 壹淳 2,144표, 韓 慶洙 1,409표의 順位였었다.

原城郡의 境遇로는 1個의 選舉區에 洪 範憲, 朴 永祿, 車 益教로 3對 1의 競爭을 보였다. 所屬別로 보면 自由黨公薦 1名, 民主黨公薦 1名, 無所屬의 順으로 選舉에 臨했다.

選舉結果로는 自由黨公薦을 받은 洪 範憲가 17,685票로 當選되었고 次点으로는 民主黨公薦者인 朴 永祿이 12,739票 車 益教가 4,862票의 順位였었다.

(5) 第5代民議員 및 初代參議員 選舉

(가) 選舉前의 情勢

4.19義舉로 自由黨政權이 무너지고 許 政의 過渡內閣이 섰다. 이러한 소용돌이 속에서 自由黨議員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第四代國會는 빗발치는 국민여론의 壓力에 눌려 6월 15일 內閣責任制를 골자로 하는 憲法改正案을 通過시키고 이어 6월 22일 民·參議員選舉法을 通過시킨 후 任期도 채우기 전에 自進解散하고 말았다. 이에 따라 過渡政府는 5代民議員選舉와 初代參議員選舉를 7월 29일 同時에 實施한다고 公告했다. 4.19義舉로 自由黨政權이 무너지자 잠시 政治의 眞空狀態가 생기고 政局의 再編成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더구나 지금까지 짓눌렸던 政治的自由가 일시에 氾濫하자 새로운 政黨이 여기 저기서 생겨났다. 그중 특히 社會大衆黨등 社會主義政黨이 눈에 띄게 많이 생겨났고 또 無所屬出馬者들이 大舉 늘어났다. 그러므로 7.29 총선거는 民主黨과 革新政黨간의 4월革命的 完遂와 統一問題를 爭點으로 불붙는 攻防戰을 벌였다.

(나) 選舉 制度

第4代國會 막바지에 通過된 民·參議員選舉法은 4월革命的 影響을 받아 選舉不正의 要素를 여러면에서 제거한 새로운 것이었다.

民議院議員選舉 第5代國會議員選舉는 選舉史上 처음으로 民議員과 參議員을 同時에 選舉했다. 民議員選舉는 4.19 學生의거로 自由黨이 하루아침에 무너짐에 따라 唯一한 野黨이던 民主黨이 全國의인 組織과 基盤을 利用하여 主導權을 잡은 가운데 進行됐다.

(다) 立候補 狀況

民議員定數 233名에 대해 총 1,563名이 등록했으나 458名이 곧 사퇴하여 실제 選舉戰에 臨한 立候補者數는 1,518人으로 6.5對 1의 競爭이었다. 이선거에는 民主黨의 205名을 비롯한 14개政黨團體가 參加했으나 10名 이상의 후보를 낸 곳은 6개에 지나지않고 무소속이 전체의 64.4%인

1,010名이나 政治過熱현상을 반영했다.

原州市의 境遇로는 1個의 選舉區에 朴忠模, 李重淵, 趙漢珪, 張一淳, 安明漢, 咸在勳等 6名이 立候補하여 6對 1의 치열한 競爭을 보였다. 所屬別로 본다면 民主黨公薦 1名, 民主黨 1名, 社會大衆黨 1名, 無所屬 2名, 自由黨 1名이었다.

選舉結果로는 民主黨公薦을 받은 4代議員이었던 朴忠模가 8,772票로 再當選되었고 自由黨의 咸在勳이 5,777票로 次點 趙漢珪 4,991票, 李重淵 3,962票, 張一淳 5,585票, 安明漢 998票의 順位였었다.

原城郡의 境遇로는 1個의 選舉區에 尹吉重, 金圭源, 朴永祿, 金興培, 韓基駿, 李鍾金の 6名으로 6對 1의 치열한 競爭을 보였다. 所屬別로 보면 社會大衆黨公薦 1名, 民主黨公薦 1名, 民主黨 1名, 無所屬 3名の 順으로 選舉에 臨했다.

選舉結果로는 社會大衆黨公薦을 받은 尹吉重이 8,750票로 當選이 되었고 次點으로는 民主黨公薦者인 朴永祿이 8,173票, 韓基駿 7,373票, 金興培 5,878票, 李鍾金 2,794票, 金圭源 2,085票의 順位였었다.

(6) 初代參議員選舉

歷史上 처음으로 實施되는 初代參議員選舉는 大選舉區制아래 制限 連記名制였다. 選舉區域은 서울特別市와 道를 單位로 하여 2名내지 8名을 뽑았으나 被選舉權 年令은 30歲 이상이라는 것 외에는 民議員 選舉의 境遇와 별다른 것이 없었다.

(가) 立候補 狀況

參議員定數 58名에 대해 201名이 立候補하여 3.5對 1의 경쟁으로서 民議員選舉의 境遇보다는 훨씬 낫다. 이 選舉에는 무소속이 115名으로서 가장 많이 나왔고 民主黨이 60名 自由黨이 11名 社會大衆黨 7名 韓國社會黨 2名 韓獨黨 1名 기타단체 5名이었다. 강원도에는 參議員定數 4名에 대해 12名이 立候補하여 3對 1의 競爭이었다. 政黨別로는 民主黨이 4名 無所屬 8名이었다. 原州로서는 그當時 人的資源이 不足한 點이었던지 參議員으로 立候補한 사람이 없어 大端히 遺憾스러운 點이었다.

(7) 第6代國會議員 選舉

(가) 選舉前의 情勢

大統領選舉에서 근소한 차이로 이긴 共和黨은 院內安定勢力 確保를 위하여 指導體制의 改編을 통한 黨組織의 強化를 추진했다. 民政, 民主, 國民 自民等 野黨은 大統領選舉에서의 敗北을 雪辱하기 위해 選舉法 改正鬭爭을 共同 전개함으로써 野黨분을 노리는 한편 對與宣傳攻勢를 취했다. 院內安定勢力 確保가 당장 긴박해진 共和黨은 當選위주의 公薦原則아래 黨外人士를 대거 抱擲하여 公薦했다. 이때문에 도리어 內部 갈등이 드러나 一部黨員 및 落薦者가 大舉脫黨 하기에 이르렀다. 野黨측은 國會議員選舉에서만은 與黨候補와 맞싸우기 위해 單一候補를 내세워야 한다는 輿論이 돌았으나 政黨간의 感情對立과 黨略이 앞서 끝내 失敗하고 말았다. 投票日을 며칠 앞두고 選舉戰이 絕頂에 이르렀을때 63년 11월 23일 美國의 「존 F·케네디」 대통령 暗殺 悲報로 政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를 계기로 與·野는 故人에 對한 吊意를 表하기 위해 24시간 동안 選舉運動을 中斷하게 되어 過熱狀態는 冷却되고 選舉運動은 맥빠진 格이 되었다.

(나) 選舉 制度

5.16 革命後 民政移讓을 위해 制定된 國會議員選舉法은 우리나라 選舉史上 처음으로 地域區와 全國區를 채택하는 등 커다란 制度의 變革을 가져왔다.

(다) 立候補 狀況

定數는 地域區 131名 全國區 44名인데 비해 立候補者는 地域區 871名 全國區 154名 都合 1,001名으로서 競爭率은 地域區가 6.5對 1 全國區 3.5對 1의 비율이었다. 政黨別로는 共和黨이 地域區에서 131名, 全國區에서 31名, 都合 162名이 立候補했고 野黨인 民政黨이 地域區 131名, 全國區 30名, 都合 161名이 나왔다.

原州의 境遇는 第2地域區로 原城을 包含하여 立候補者 金鍾卓, 金圭源, 成在勳, 金寅植, 朴永祿, 安明漢, 文昌模等 7對1의 競爭率을 보임으로서 亂立相을 보였으며 所屬別로 보면 新民會 1名, 自由民主黨 1名, 국민의黨 1名, 保守黨 1名, 民主黨 2名, 民主共和黨 1名의 7名이 選舉戰에 突入하였다.

選舉結果로는 民主黨으로 立候補한 朴永祿이 20,107票로 當選되었고 次點에는 民主共和黨의 文昌模가 17,127票, 成在勳이 12,664票, 安明漢이 2,340票, 金寅植 1,920票, 金圭源 1,243票, 金鍾卓 830票의 順位였었다.

(8) 第7代國會議員 選舉

(가) 選舉의 情勢

5.3 大統領選舉에서 壓勝한 共和黨은 그餘勢를 몰아 代國會에서도 壓勝을 目標로 弱體地區에 對한 集中的인 支援을 하기로 했다. 新民黨은 이에 對해 5.3 선거의 無效·不法·鬭爭을 벌이면서 過半數線을 目標로 選舉運動을 펴나갔다. 共和黨은 朴大統이 더욱 建設할 수 있는 院內 安定勢力을 確保케 할 것을 呼訴하면서 大統領選舉에 시소를 벌린 畿湖 및 湖南地方에 대한 集中的인 支援遊說을 벌였다. 新民黨은 獨裁의 危險을 막기위한 견제세력의 必要性을 力說했다. 野黨은 이번 선거에서 實質的 單一野黨인 新民黨으로 뭉쳤으나 落薦者들이 大部分 郡少政黨의 公薦을 얻어 立候補함으로써 地域에 따라서는 新民黨공천자가 이들 때문에 苦戰을 겪은 곳도 있다. 選舉戰이 白熱化함에 따라 각지에서 有權者買收에 關한 추문으로 金權選舉의 印象을 깊게 했다. 또 全地域을 通해 各種地域事業公約에 지나치게 熱을 올려 마치 地方議員選舉戰같은 印象마저 주었으며 政府高官들의 地方出張이 부쩍 늘어났다. 또 各地에선 行政權의 선거간섭이 더욱 露骨化하고 있다고 지적되었으며 막바지에 이르러서는 與野를 幕論하고 飲食物提供, 黑色宣傳 戶別訪問等이 盛行해 墮落風潮를 드러내고 말았다. 드디어 兪鎮午 新民黨首는 막바지인 6월 6일, 6.8 選舉는 史上 類例없는 亡國의인 不正選舉라고 規定짓고 이대로 간다면 新民黨은 國會議員 登錄拒否도 不辭할 것이라고 밝히기에 이르러 選舉분위기는 極度로 緊張했다.

(나) 選舉 制度

最高會議에서 制定公布한 選舉法은 여러가지 運用上의 問題點이 생겨서 6代國會에 들어 改正論議가 활발해졌다. 6代國會는 마지막 定期國會 開會中인 66년 12월 2일 與野間의 끈질긴 協商을 通해 國會議員選舉法 改正案을 通過시켰다.

(다) 立候補 狀況

全國 131個 地域區에서 702名 全國區 119名(定數44名)이 각각 立候補하여 地域區는 5.4對 1 全國內는 2.7對 1의 경쟁이었다. 共和黨이 地域區 131名 全國區 31名 都合 162名이고 新民黨은 地域區 131名 全國區 32名 都合 162名이 立候補했다.

原州의 境遇는 第2地域區로서 原城을 包含하여 朴炅秀, 朴永祿, 金鎬赫, 鄭鉉祐, 洪淳哲等 5對 1의 競爭을 보였으며 所屬別로는 自由黨 1名, 新民黨, 韓國獨立黨 1名, 民衆黨 1名, 民主共和黨 1名의 5名이 立候補하였다.

選舉結果로는 新民黨으로 立候補한 朴永祿이 33,470票로 再選되었고 次點에는 民主共和黨의 洪淳哲이 28,719票, 鄭鉉祐 1,427票, 金鎬赫 1,178票, 朴炅秀 940票의 順位였었다. 또한

第2編 政治 및 行政

原州는 新民黨의 朴永祿이 再選되었다. 그뿐아니라 共和黨은 道支部事務局長이던 金龍鎬가 全國區 16번으로 國會에 進出하게 되어 實質的으로 原州에서 國會議員 2名을 낸 셈이 된다.

(9) 第8代國會議員 選舉

(가) 選舉前의 情勢

4.27選舉는 朴正熙候補가 總 624萬票를 얻어 相對인 新民黨의 金大中候補를 94萬票차로 눌러 이긴 가운데 끝났다. 이에 대해 金大中候補는 勿論 新民黨은 4.27選舉를 全面不正으로 黨論을 決定지고 敗北을 認定하려 들지 않았다. 그뿐아니라 民主守護 國民協議會가 國會議員選舉 보이콧을 提議하고 新民黨이 이를 條件附로 받아 들임으로서 한때 긴장감이 들게 했다. 그러나 이어 新民黨이 全國區後遺症으로 일어난 이른바 珍山波動에 휘말리게 되어 주춤해졌다. 그후 柳黨首의 退陳과 金弘壹黨首 權限代行的 취임으로 가가스로 波動을 수습한 新民黨은 숨돌릴 사이도 없이 總選舉戰에 뛰어들게 되어 共和 新民 兩黨間에 「安定持續」과 「獨走건제」의 對決戰을 벌였다. 共和黨은 國會議員選舉에서는 지난 8.6選舉때와 같은 後遺波動을 없애기 위해 되도록 選舉過熱을 避하려는 움직임이 역력히 나타났다. 대체로 共和黨은 院內安定勢力的 確保를 呼訴했고 新民黨은 與黨의 獨走를 견제하려면 野黨議員을 國會에 많이 보내야 한다고 맞섰다. 그러나 막바지에 가서는 곳곳서 善心 野遊會 行樂bum이 일고 有權者들이 金品을 強要하는 일이 나타나는가 하던 買票人身攻擊의 되살아나 분위기가 흐려지기도 했다.

(나) 選舉制度

共和 新民 兩黨은 7代國會 막바지인 70년 12월1년여의 協商끝에 選舉關係法 改正에 合意 法改正을 보았다.

(다) 立候補狀況

全國 153개 地域區에서 576名 全國區에서 121名(定數53名)이 각각 立候補하여 地域區에서 3.7對 1 全國區에서 2.4對 1의 경쟁을 이었다. 이는 67년 6.8 選舉때에 비해 亂立相이 훨씬 줄어든 것이나 농촌보다 都市地域區에선 여전히 亂立했다. 共和 新民兩黨은 153개 全地域區에 모두 공천후보를 내세웠으며 그밖에 國民黨은 122名 大衆黨은 53名 民衆黨 35名 統社黨 60名이었다. 全國區는 共和 40名, 新民 30名 외에 國民 14名, 大衆 7名, 民衆 13名, 統社 14名이 등록했다. 지난 6.8선거때는 共和 新民외에도 9개 政黨이 參加했으나 이번에는 兩大黨외에 4개 政黨이 參加하여 그만큼 政黨政治가 기틀을 잡았음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이번 亦是 共和 新民 兩大黨의 對決로 始終했으며 그밖에 一部地區에서 落薦者가 고개를 들었을 뿐이다. 이번 選舉에는 참가한 政黨의 총수가 6개이기 때문에 경쟁을 가장甚하다는 곳이 6對 1인 셈이며 共和 新民 양당 후보만 나온 곳이 13개區에 이른다. 또 여성 候補者는 6名(지역구1 전국구5)이었다. 原州의 境遇는 第2地域區로 原城郡을 包含하여 立候補者 金龍鎬, 朴永祿, 朴昞秀, 金景鎭等 4對 1의 競爭을 보였고 所屬別로는 民主共和黨 1名, 新民黨 1名, 國民黨 1名, 大衆黨 1名이 選舉戰에 臨했다. 選舉結果로는 民主共和黨으로 立候補한 金龍鎬가 35,503票로 當選되었고 次點으로는 新民黨의 朴永祿이 33,651 朴昞秀가 810票, 金景鎭이 177票의 順位였었다.

候補者別得數一覽

(1) 制憲國會(1948年 5月 10日 施行)

(原州市·原城郡)

選區	姓名	性別	年齡	住 所	職 業	學 歷 及 經 歷	所屬政黨團體名	得票數	備考
原州市 (4名)	元達鎬	男	56	原州郡地正面長峴里	社會事業	日本中央大學商科卒, 延專教授	無 所 屬	5,080	
	李定鎬	男	44	原州邑中央洞	商 業	京城師範卒, 教員	大韓獨立 促成國民	8,386	
	趙軫九	男	53	原州邑鳳山洞	國民會支 部	普成專門卒, 立法議院議員	"	5,246	
	洪範憲	男	32	興業面沙堤里	社會事業	日本中央大學卒, 私立中學設立	無 所 屬	24,001	當選

候補者別得票數一覽

(2) 第2代國會(1955年 5月 30日 施行)

選區	姓名	性別	年齡	住 所	職 業	學 歷 及 經 歷	所屬政黨團體名	得票數	備考
原州市 (5名)	尹吉重	男	34	原州郡文幕面文幕里	辯 護 士	大卒, 高文合格, 國會法制調查局長	無 所 屬	12,768	當選
	李定浩	男	46	原州邑中央洞	商 業	京城師範卒, 教師	國 民 會	4,990	
	洪範憲	男	34	興業面沙堤里	中學校長	大卒, 國會議員	黨 無	12,049	
	咸基燮	男	54	原州市中央洞	農 業	高農卒, 郡守	無 所 屬	6,132	
	韓基駿	男	43	富倫面	"	城大卒, 延專教授	"	5,270	

候補者別得票數一覽

(3) 第3代國會(1964年 5月 20日 施行)

選區	姓名	性別	年齡	住 所	職 業	學 歷 及 經 歷	所屬政黨團體名	得票數	備考
原州郡 (4名)	尹吉重	男	37	서울特別市鐘路區昌成洞117의1	民議院議員	高文合格, 民議院議員	無 所 屬	8,392	
	韓基駿	男	49	原州郡富論面魯林里813	農 業	城大卒, 大學教授	"	9,070	當選
	咸在勳	男	36	原州邑一山洞97	無 職	法專卒, 邑長	自 由 黨	25,582	
	元貞鎬	男	44	"	農 業	中卒, 面長 9年	無 所 屬	4,178	

候補者別得票數一覽

(4) 第4代國會(1958年 5月 2日 施行)

選區	姓名	性別	年齡	住 所	職 業	學 歷 及 經 歷	所屬政黨團體名	得票數	備考
原州市 (5名)	朴忠模	男	63	原州市一山洞 120	醫 師	京城醫專4年卒, 道評議員, 邑議會議長	民主黨 (公薦)	11,703	當選
	咸在勳	男	40	" " 298	民 議 員	京城法學專門學校卒, 原州郡內務課長, 原州邑長	自 由 黨 (公薦)	10,878	
	李重淵	男	46	" " 111	農 業	延禧專門學校商科 3年卒, 原城郡守	無 所 屬	2,792	
	韓慶洙	男	47	서울特別市永登浦區黑石洞192	新 聞 社 社 長	東京上智大學新聞學科 3年卒, 韓國新聞評論協會會長	"	1,409	
	張壹淳	男	29	原州市鳳山洞2區935~1	教 育 事 業	서울大學校藝術大學 3年修了	"	2,144	
原城郡 (3名)	洪範憲	男	40	原州市一山洞 95	"	日本中央大學法學部3年科程卒, 初代國會議員, 內務部次官	自 由 黨 (公薦)	17,685	當選
	朴永祿	男	36	" 園洞 山19	民主黨原 城郡黨委 員	春川農業學校農業科第5學年卒, 原州市議會議員	民 主 黨 (公院)	12,739	
	車益教	男	40	原城郡富論面興湖里32	無 職	延大文學院卒(政治外交科), 國民大學待遇教授	無 所 屬	4,862	

候補者別得票數一覽

(5) 第5代國會(1960年 7月 29日 施行)

選區	記號	姓名	性別	年齡	住 所	職 業	學 歷 及 經 歷	所屬政黨	得票數	備考
原州市 (6人)	1	朴忠模	男	66	原州市一山洞 120	民 議 員	京城醫專卒, 民主黨道黨部最高委員	民主黨	8,772	當選
	2	張壹淳	男	31	鳳山洞2區935의1	育英事業	서울大藝術大3年修了, 社大黨創黨準備委員	社會黨	3,585	
	3	安明漢	男	45	鶴城洞 224	商 業	滿州商大卒, 泰昌運輸社長	無 所 屬	998	
	4	李重淵	男	48	園洞 31	農 業	延禧專門卒, 原城郡守	民主黨	3,962	
	5	趙漢珪	男	38	仁洞 25	無 職	서울微文中卒, 民主黨道黨副委員長	民主黨	4,991	
	6	成在勳	男	42	〃 〃 40	〃	京城法專卒, 3代民議員, 自由黨道黨副委員長	自由黨	5,777	次點
原城郡 (6人)	1	韓基職	男	55	서울特別市東大門區崇仁洞72의46	農 業	京城大學卒, 學校長, 社長會	無 所 屬	7,373	
	2	李鍾金	男	26	原城郡好楮面光橋里 242	〃	國學大4年中退, 大韓雄辯協會江原道嶺西東部理事	〃	2,794	
	3	李圭源	男	55	서울特別市中區乙支路3街209	工 業	善隣商高卒, 서울市會議員	民主黨	2,085	
	4	金興培	男	43	原州市園洞 272	無 職	春農卒, 郡畜產課長, 道議員	無 所 屬	5,878	
	5	尹吉重	男	43	서울特別市西大門區礪磣洞20의5	辯 護 士	日大卒, 高大大行政司法合格, 2代民議員	社會黨	8,750	當選
	6									

候補者別得票數一覽

(6) 第6代國會(1963年 11月 26日 施行)

地區	記號	政黨名	候補者姓名	性別	年齡	本籍	住 所	職 業	學 歷	經 歷	得票數	備考	
第二原城郡·原州市 (7名)	2	新民會	金鍾卓	男	37	江源	原州市一山洞 146	商 業	專 卒	新民會道黨委員長	830		
	3	自由民主黨	金圭源	男	59	〃	서울特別市中區乙支路3街209	建設業	高 卒	市議員	1,243		
	6	守望黨	成在勳	男	46	〃	서울特別市鍾路區三清洞157의65	無 職	專 卒	第3代民議員	12,664		
	7	保守黨	金寅植	男	30	忠北	原州市鶴城洞 997	商 業	大中退		道議員	1,920	
	8	民主黨	朴永祿	男	41	江源	〃 園洞 山19	無 職	高 卒		道知事	20,107	當選
	9	民政黨	安明漢	男	48	〃	〃 鶴城洞 264	會社員	大 卒		道議員	2,340	
	12	民主共和黨	文昌模	男	56	서울	〃 樂園洞 194	病 院	專 卒		大學長	17,127	次點

候補者別得票數一覽

(7) 第7代國會(1967年 6月 8日 施行)

地域區名	記號	政黨名	候補者姓名	性別	生年	本籍	住 所	職 業	學 歷	經 歷	得票數	備考	
第2地域區 (原州市·原城郡) (5名)	2	自由黨	朴炅秀	男	38.1 2.28 (28)	江源	原州市園洞 249	會社員	東洋通信大學農林學科卒	綜合新聞取材部長	940		
	3	民衆黨	鄭鉉祐	男	1938 8.16 (28)	〃	〃 中央洞130	言論人	中央大政治外交學科卒 同大學院卒	原州新聞記者, 京畿每日新聞會長, 同黨地區黨委員長	1,427		
	6	新民黨	朴永祿	男	1922 3.25 (45)	〃	〃 園洞 山19	國 會議員	高大經營大學院修了	江源道知事, 國會議員	33,470	當選	
	7	民主共和黨	洪淳哲	男	1911 5.22 (56)	〃	〃 一山洞 50	醫 師	세브란스醫專	大韓青年團原州團長, 自由黨原州市黨委員長, 同道黨副委員長, 國民運動原州支部長, 同地區黨委員長	28,719	次點	
	8	韓國獨立黨	金鎬赫	男	1923 9.2 (43)	慶北	〃 明倫洞 28	無 職		原州市議會議員, 民政黨地區黨委員長, 同黨地區黨委員長	1,178		

候補者別得票數一覽

(8) 第8代國會(1971年 5月 23日-施行)

地域名	記號	政黨名	候補者姓名	生年 月日	本籍	住 所	職 業	學 歷	經 歷	得票數	備考
第2地域選舉區 (原州原城) (4名)	1	民主共和黨	金龍鎬	男 1920 12.16 (50)	江源	原州市平原洞277	國會議員	京城法學專門學校卒業	民主共和黨江原道支部事務局長, 第七代國會議員	35,503	當選
	2	新民黨	朴永祿	〃 1922 3.25 (48)	〃	서울市城北區三仙洞5街150~7	〃	高麗大學校經營大學院修了	新民黨運營委員	33,651	次點
	3	國民黨	朴昞秀	〃 1938 12.28 (32)	〃	原州市一山洞299	無職	東洋通信大學農機甲學校卒業	國民黨發起人, 國民黨江原道第2地區黨委員長, 國民黨江原道黨常務委員會議長	1810	
	4	大衆黨	金景鎮	〃 1922 10.17 (48)	京畿	原州市一山洞232-32	商業	陸軍學校卒業, 陸軍機甲學校卒業, 英東고등학교 졸업	大衆黨中央黨常任委員	177	

候補者別得數一覽

(9) 第9代國會(1973年 月 日 施行)

地域名	政黨名	候補者姓名	生年 月日	本籍	住 所	職 業	學 歷	經 歷	得票數	備考
原城橫城洪川(原州) 第2地區 (3名)	民主共和黨	金龍鎬	男 1920 12.19 ()	江源	原州市平原洞277	國會議員	京城法學專門學校卒業	民主共和黨江原道支部事務局長, 第7, 8代國會議員	22,246	
	新民黨	朴永祿	〃 1922 3.25 ()	〃	서울市城北區三仙洞5街150의7	〃	高麗大學校經營大學院修了	新民黨運營委員	47,134	
	民 統	梁德仁	〃 ()						4,729	

(原州市 原城郡의 得票數임)

第 10 章 行 政

第 1 節 指 標

(1) 原 州 市 政 指 標

(1974년도)

「서로 믿고 협조하여 원주발전 이룩하자」

1. 솔선하는 유신자세
3. 새마을로 향토개발

2. 신뢰받는 행정

(2) 原 城 郡 政 指 標

1. 自主性的 提高
3. 地域의 綜合開發
5. 行政의 能率化

2. 所得增大
4. 文化生活의 向上
6. 勝共態勢의 強化

III (3) 行 政 區 域 (原 州 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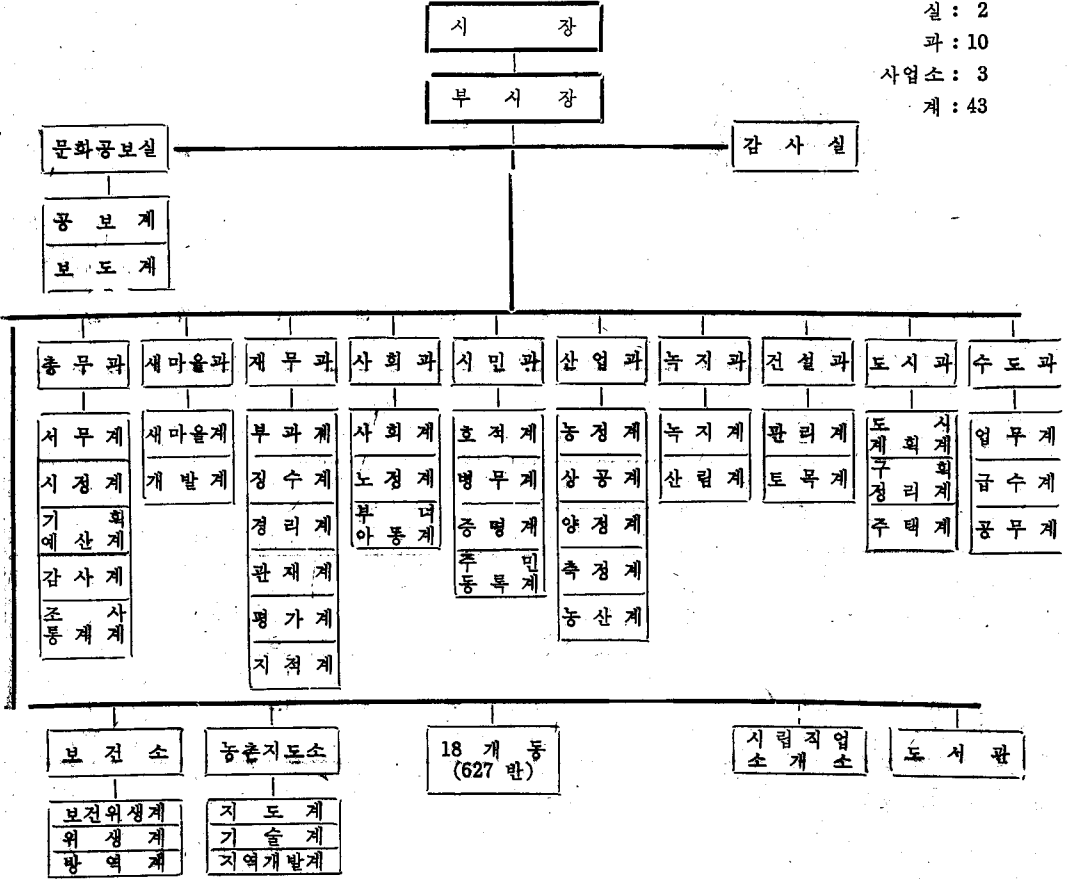
區 分 洞 別	洞 所 在 地	行 政 區		面 積	區 分 洞 別	洞 所 在 地	行 政 區		面 積
		自 然 部 落 數	班 數				自 然 部 落 數	班 數	
中平原洞	中平原洞 120	2	46	0.51	牛山洞	牛山洞 82	13	31	9.97
園仁洞	園仁洞 160-1	2	53	0.97	台庄一洞	台庄一洞 725	3	30	4.34
開運洞	開運洞 126	4	47	3.76	台庄二洞	台庄二洞 1240	13	35	6.63
明倫洞	明倫洞 90	3	47	2.50	杏邱洞	杏邱洞 185	6	21	10.27
丹邱洞	丹邱洞 715	4	36	4.78	鳳山一洞	鳳山一洞 1058	3	30	0.88
一山洞	一山洞 33	3	40	1.31	鳳山二洞	鳳山二洞 903	4	53	8.25
鶴城一洞	鶴城一洞 223	3	40	0.73	觀雪洞	觀雪洞 625-3	12	23	23.14
鶴城二洞	鶴城二洞 2-207	2	33	2.43	盤谷洞	盤谷洞 1366-2	9	24	17.06
丹溪洞	丹溪洞 150	4	24	3.70	茂實洞	茂實洞 328	8	14	10.50

(4) 行 政 區 域 (原 城 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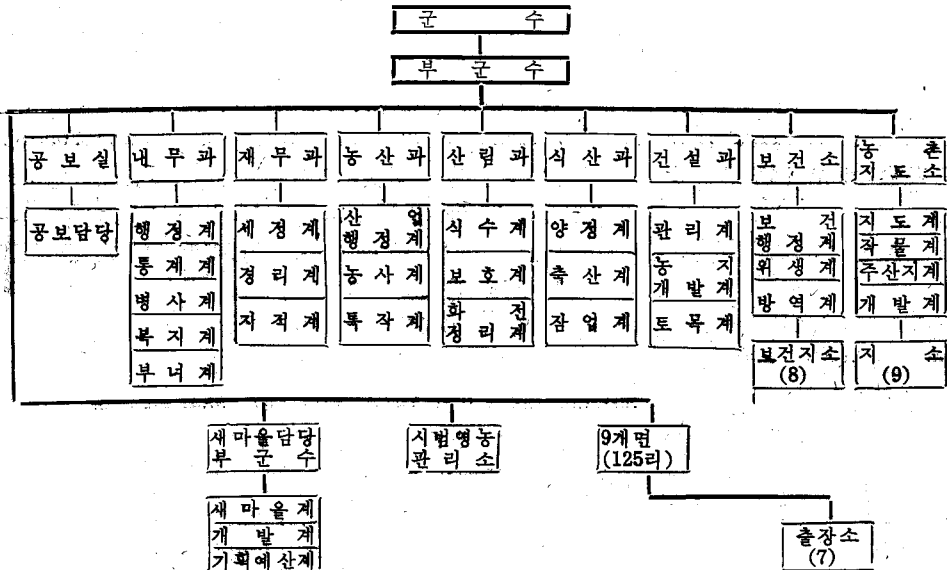
區 分 面 別	面 所 在 地	出 張 所	行 政 區				面 積
			洞 里 數	自 然 部 落 數	班 數	法 定 條 例	
所 草 面	平庄里 786-1	1	8	14	64	77	85
好 楮 面	珠山里 522	1	7	11	33	51	66.5
地 正 面	良峴里 853	1	7	11	31	51	88.5
文 幕 面	文幕里 252	1	9	15	48	121	102
富 論 面	法泉里 1449	1	6	13	34	54	80
貴 來 面	운남리 586-3	1	5	12	33	36	74
興 業 面	興業里 586	1	4	12	36	51	56.5
板 富 面	原州市 觀雪洞	1	2	7	22	34	68.8
神 林 面	神林1里 519-5	1	7	14	43	63	128

(5) 행정 기 구(원주시)

실 : 2
 과 : 10
 사업소 : 3
 계 : 43



(6) 행정 기 구(원성군)



第2編 政治 및 行政

(7) 원주시 공무원 현황

구 분	계	3 급		4 급		5 급		기능직	고용원	별정직	
		감	을	감	을	감	을				
합 계	314	2	14	60	39	63	104	3	10	19	
본 청	계	146	2	12	35	17	30	37	3	9	1
	국 가 지방	8	1		1	3	2	1			
사업소	계	24		2	7	4	5	5		1	
	국 가 지방	11		1	3	3	2	2			
동 : 지방	13		1	4	1	3	3		1		
합 계	144			18	18	28	62			18	

(8) 원성군 공무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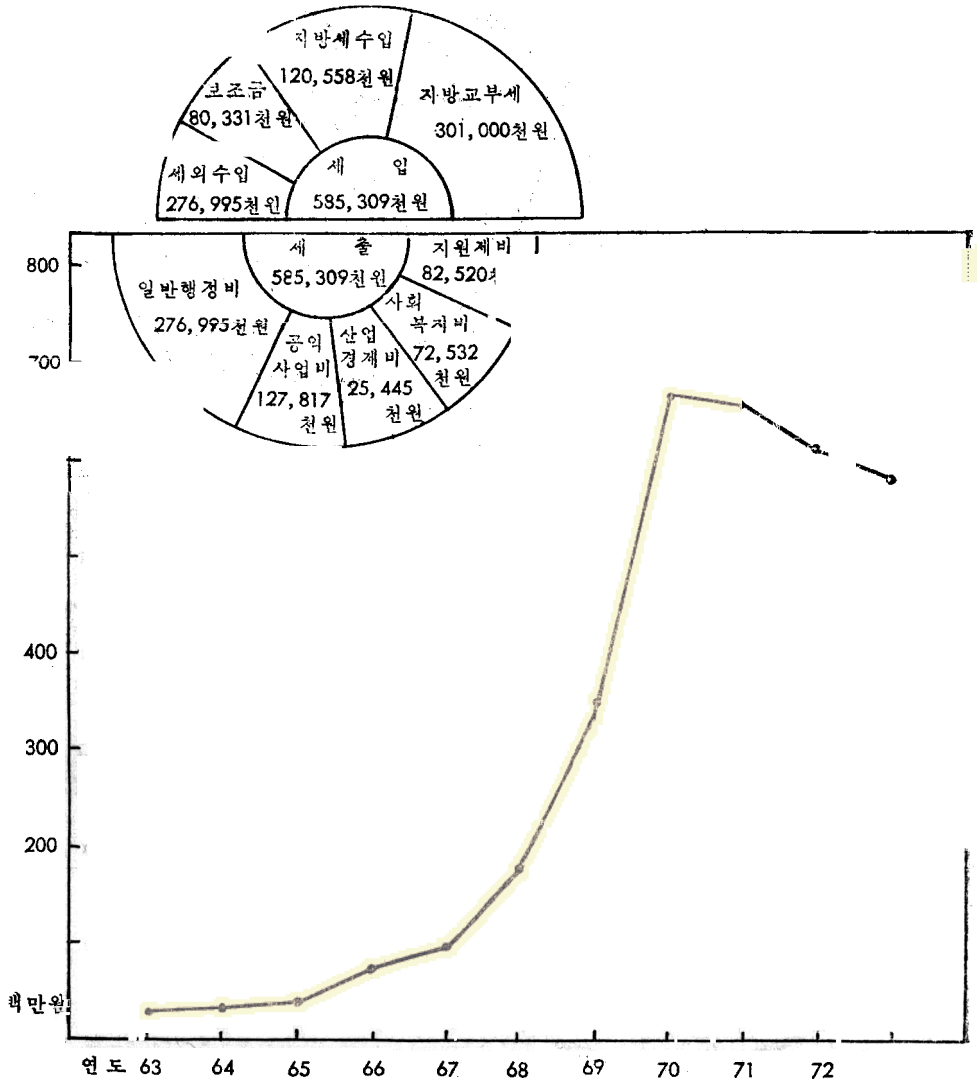
구 분	계	3 급		4 급		5 급		기능직	고용원	별정직
		감	을	감	을	감	을			
합 계	281	1	8	28	54	80	84	1	15	10
본 청	58	1	7	15	8	12	9	1	4	1
사업소	11		1	3		3	4			
출장소	179			9	37	57	58		9	9
시범영농관리소	28			7		8	13			
합 계	5			1	2				2	

第2節 財 政

原州市가 市地方自治制로 처음 運營되었던 1962年度 原州市 總 決算額은 39,358,970원으로 이것을 100으로 보면 1973年度の 豫算은 585,309,000원으로 130%에 該當됨으로 12年間に 約 13倍가 向上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을 人口로 對比하면 1962年度 原州市 人口는 52,000名인데 1973年度에는 128,037名으로 人口는 240%가 上昇하였고 豫算은 130%가 增加된 셈으로 市民所得의 向上을 意味한다. 한편 原城郡을 보면 原城郡이 郡地方自治制로 처음 運營되었던 1962年度 總 決算額은 21,611,068원으로 이것을 100으로 보면 1974年度の 豫算은 518,162,000원으로 160%에 該當됨으로 12年間に 約 16倍가 向上되었다고 하겠다. 이것을 人口로 對比하면 1962年度 原城郡 人口는 48,000名인데 1973年度에는 77,902名으로 人口는 160%가 上昇하였고 豫算은 130%가 增加된 셈으로 역시 市民所得이 向上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73年度 原州市 豫算規模에 있어 歲入決算內譯을 보면 稅收入 421,558,000원 補助收入 80,331,000원 其他 收入 83,420,000원 都合 585,309,000원인데 歲出決算額도 585,309,000원이니 거의 100% 執行을 하였다. 또한 1973年度 歲入面에서 稅收入이 421,558,000원으로 1962年度の 38,711,182원보다 382,846,818원 (約 180%)가 增加되었고 交付金은 301,000,000원으로 1962年度の 647,788원보다 299,352,212원 (約 478%)의 增加를 보여주고 있으며 稅收入이 總 歲入의 72%에 해당한다. 그리고 1973年度 歲出決算額을 보면 585,309,000원으로 一般行政費가 276,995,000원인 約 47%, 産業經濟費가 25,445,000원으로 4.3%, 建設事業費가 127,817,000원으로 21.8%, 社會福祉費가 72,532,000원으로 12.3%, 지원제費가 82,520,000원으로 使用하고 있다. 한편 原城郡 1973年度 原城郡 豫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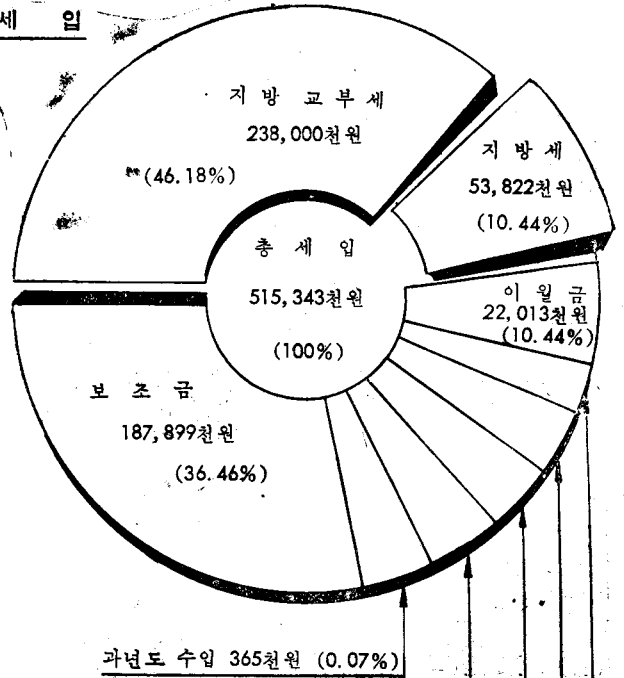
規模에 있어 歲入決算內譯을 보면 稅收入 291,822,000원, 補助收入 187,899,000원 其他 收入 25,622,000원, 都合 515,343,000원인테 歲出決算額도 501,761,000원이니 96% 執行을 하였다. 또한 1973年度 歲入面에서 稅收入이 291,822,000원으로 1962年度의 21,499,988,000원보다 270,322,012원(約 1200%)가 增加되었고 交付金은 3,430,000원으로 1962年度의 111,080원 보다 3,318,920원(約 3000%)의 增加를 보여주고 있으며 稅收入이 總歲入의 56.62%를 차지하고 있다. 1973年度 歲出決算額을 보면 501,761,000원으로 一般行政費가 175,371,000원인 約 35% 産業經濟費가 124,328,000원으로 25% 建設事業費가 136,740,000원으로 27%, 社會福祉費가 46,728,000원으로 9%, 支援費가 18,594,000원으로 4% 使用하고 있다. 1973年度 原州市 原城郡 歲入 歲出 總括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1973년도 세입 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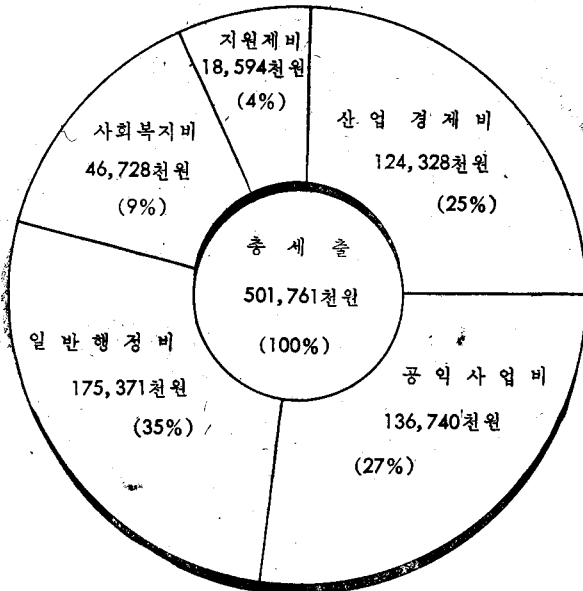


(2) 1973년도 원성군 세입 세출

세 입



세 출



잠수입 2,500천원 (0.48%)

재산수입 2,984천원 (0.57%)

교부금 3,430천원 (0.66%)

사용료 및 수수료 4,330천원 (0.84%)

(3) 원주시 일반회계 세입 결산현황

(1974年 末現在)

구 분	예 산 액	과 목 별 비율	결 산 액	과 목 별 비율	예 산 대 결 산 비 율
1 9 6 9	337,619,000	100	333,508,000	100	
1 9 7 0	715,754,000	100	673,037,000	100	
1 9 7 1	689,690,000	100	674,907,000	100	
1 9 7 2	612,600,000	100	569,895,000	100	
1 9 7 3	585,309,000	100	583,214,000	100	
지 방 세	120,588,000	20.5	124,141,000	21.2	
채 산 수 입	60,144,000	10.34	58,134,000	9.97	
사용료및수수료	13,733,000	2.33	13,585,000	2.33	
이 월 금	5,000	—	—	—	
지 방 교 부 세	301,000,000	51.43	301,000,000	51.43	
보 조 금	80,331,000	13.74	77,816,000	13.34	
교 부 금	6,931,000	1.27	6,831,000	1.17	
과 년 도 수 입	826,000	0.01	330,000	0.05	
기 부 금	2,000	—	—	—	
전 입 금	1,000	—	—	—	
지 방 채	3,000	—	—	—	
잡 수 입	1,775,000	0.33	1,377,000	0.23	

(4) 원성군 일반회계 세입 결산현황

(1974年 末現在)

구 분	예 산 액	과 목 별 비율	결 산 액	과 목 별 비율	예 산 대 결 산 비 율
1 9 6 9	230,060,000	100	214,213,000	100	88.9
1 9 7 0	293,713,300	100	285,286,683	100	68
1 9 7 1	389,374,000	100	385,035,042	100	96
1 9 7 2	669,781,000	100	648,827,821	100	82
1 9 7 3	518,162,000	100	515,342,740	100	99.4
지 방 세	50,779,000	9.79	53,821,695	10.44	106
채 산 수 입	2,464,000	0.47	2,984,395	0.54	121
사용료및수수료	4,022,000	0.77	4,330,303	0.84	10.76
이 월 금	22,017,000	4.24	22,012,600	4.27	99.9
지 방 교 부 세	238,201,000	45.97	238,000,000	46.18	99.9
보 조 금	194,577,000	37.62	187,898,603	36.56	102.5
교 부 금	3,346,000	0.64	3,430,574	0.66	102.5
과 년 도 수 입	311,000	0.06	364,879	0.07	117.3
기 부 금	—	—	—	—	—
전 입 금	1,000	—	—	—	—
지 방 채	2,000	—	—	—	—
잡 수 입	2,442,000	0.46	2,499,691	0.41	102.3

第2編 政治 및 行政

(5) 원주시 일반회계 세출 결산현황

(1974年 末現在)

구 분	예 산 액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예 산 잔 액
일반 행정비계	276,995,000	276,995,000	267,268,000	9,727,000
행정비	153,453,000	153,453,000	101,027,000	52,426,000
재경비	25,219,000	25,219,000	24,909,000	310,000
재산비	85,439,000	85,439,000	78,893,000	6,546,000
공보비	12,882,000	12,882,000	12,439,000	443,000
공익 사업비계	127,817,000	127,817,000	122,121,000	5,696,000
건설비	107,912,000	107,912,000	104,295,000	3,617,000
안전관리비	13,265,000	13,265,000	13,213,000	52,000
산업 경제비계	25,445,000	25,445,000	24,546,000	899,000
농업비	2,955,000	2,955,000	2,881,000	74,000
도시계획비	4,640,000	4,640,000	4,613,000	27,000
상공비	1,903,000	1,903,000	1,839,000	64,000
축산비	2,449,000	2,449,000	2,130,000	319,000
사회 복지비계	72,532,000	72,532,000	66,529,000	6,003,000
사회사업비	30,178,000	30,178,000	24,822,000	5,356,000
보건비	23,800,000	23,800,000	23,370,000	430,000
지원 계비계	82,520,000	82,520,000	81,237,000	1,283,000
대출금	17,037,000	17,037,000	16,170,000	867,000
지방채	27,067,000	27,067,000	27,067,000	0
예비비	416,000	416,000	—	416,000
농촌진흥비	5,344,000	5,344,000	5,313,000	31,000
농지개발비	6,483,000	6,483,000	6,202,000	281,000
청소년위생비	18,554,000	18,554,000	18,337,000	217,000
합 계	585,309,000	585,309,000	561,701,000	23,608,000

(6) 원성군 일반회계 세출 결산현황

(1974年 末現在)

구 분	예 산 액	예비비지출액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예 산 잔 액
일반 행정비계	178,660,000	358,000	179,024,000	175,371,182	3,652,818
행정비	140,933,000	358,000	141,291,000	139,969,877	1,321,123
재경비	10,346,000	—	10,346,000	10,267,147	78,853
재산비	13,329,000	—	13,329,000	11,326,835	2,002,165
공보비	14,058,000	—	14,058,000	13,807,323	250,677
공익 사업비계	138,173,000	322,000	138,495,000	136,740,269	1,754,731
건설비	134,538,000	95,000	134,633,000	132,896,469	1,736,531
안전관리비	3,635,000	227,000	3,862,000	3,843,800	18,200
산업 경제비계	128,434,000	500,000	128,934,000	124,327,524	4,606,476
농림비	128,272,000	500,000	128,772,000	124,165,574	4,606,426
상공비	162,000	—	162,000	161,950	50
관광비	—	—	—	—	—
사회 복지비계	52,628,000	—	52,628,000	46,728,436	5,899,564
사회사업비	24,096,000	—	24,096,000	19,170,975	4,925,025

구 분	예 산 액	예비비지출액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예 산 잔 액
보 건 비	28,532,000	—	28,532,000	27,557,461	974,539
지 원 제 비 계	20,261,000	—	20,261,000	18,593,658	1,667,342
진 출 금	8,372,000	—	8,372,000	8,372,000	—
지 방 채	10,231,000	—	10,231,000	10,211,658	9,342
예 비 비	1,658,000	—	1,658,000	—	1,658,000
합 계	518,162,000	1,180,000	519,342,000	501,761,069	17,580,931

(7) 원주시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현황

회계별	구 분	예 산 액 (A)	결 산 액					
			세입 (B)	B/A	세출 (C)	C/A	이월금(D)	D/A
상수도사업		66,835,000	67,649,000	101	65,695,000	98	1,954,000	0.02
새마을금		3,148,000	2,964,000	94.2	2,364,000	75.1	600,000	19.1
주택관리		43,173,000	40,698,000	94.3	40,591,000	94	107,000	9.4
지봉개량		12,104,000	11,213,000	92.6	10,170,000	84	1,043,000	8.6
공업단지조성		33,001,000	31,436,000	95	31,197,000	94.5	239,000	0.7
토지구획정리		5,146,000	5,327,000	103.5	5,011,000	97.4	316,000	6.1
대여양곡		5,806,000	5,676,000	97.8	5,652,000	97.3	24,000	0.4
계		169,213,000	164,963,000	96.9	160,680,000	91.4	4,283,000	17.39

회계별	구 분	예 산 액 (A)	결 산 액					
			세입 (B)	B/A	세출 (C)	C/A	이월금(D)	D/A
대여양곡관리		408,000	399,961	99	302,800	75	97,161	24
농촌진흥특별관리		14,724,000	11,733,804	80	10,387,452	71	1,346,352	9
지봉개량		41,500,000	39,958,374	96	34,279,955	83	5,678,419	14
주택관리		30,716,000	23,672,820	77	23,670,425	77	2,395	0.008
계		87,343,000	75,764,959	87	68,640,632	79	7,124,327	8

第3節 行政機關

(1) 原州稅務署

原州稅務署는 原州市 鳳山洞 1130—8番地에 자리잡고 있으며 1934年 5月 1日 機構改革時 稅務監督局에 이속되어 있다가 1943年 12月 31日 職制令 解止로 江原道에 移屬되었고 政府樹立과 同時에 春川司稅廳에 編入되었으나 司稅廳統合으로 서울司稅廳에 編入되었으며 1950年 6.25. 事變으로 避難地區 各市에서 分散執務를 實施하였다.

1951年 6月 收復後 再執務를 하다가 1967年 9月 1日 機構改編으로 中部地方國稅廳에 編入하여 原州市, 原坡郡, 橫城郡을 管轄하며 署長以下 總務課, 直稅課, 間稅課가 있으며 行政係, 徵收係, 調查係, 管財係, 營業稅係, 法人稅係, 間稅1係, 間稅2係로 區分되어 있다. 具體的인 業態別 稅收現況은 鑛山業, 製造業, 販賣業, 金融業, 運送保管業, 不動產業, 建設業, 목욕탕 및 理髮, 美容業, 飲食店,

第2編 政治 및 行政

其他 서비스業, 娛樂室, 料理店 등이 있으며 1951年 以後 歷代 署長으로는 初代 權 瀾相, 2代 鄭 烽文, 3代 柳 量鉉, 4代 韓 鍾洙, 5代 鄭 烽文, 6代 申 洪哲, 7代 韓 容錫, 8代 李 炯基, 9代 金 浩相, 10代 李 達休, 11代 曹 源 等이다.

(2) 原州 警察 署

原州警察署는 原州市 鳳山 1洞 1104—1番地에 所在하며 1945年 10月 原州警察署 新設로 發足하고 原城郡 9個面에 警察官駐在所를 設置하였으며 1946年 4月 11日 警務部令에 依據 第2 管區 警察廳 第8區 警察署로 警察官署 名稱을 改稱하고 面所在地에 位置한 駐在所를 支署로 呼稱하였다가 1948年 8月 15日 第2管區 警察廳 第8區警察署 名稱을 廢止하고 江原道警察局 原州警察署로 改稱하였으며 6.25動亂으로 戰略的인 後退를 하였다가 1951年 2月 28日 收復한 後 廳舍를 新築하여 業務를 代行하다가 1964年 11月 26日 現位置에 廳舍를 新築 移轉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完璧한 勝共態勢와 健全한 社會秩序確立 信賴받는 奉仕行政으로 이 고향 治安을 擔當하고 있는 警察署는 原州市 18個洞에 台庄, 驛前, 中央, 明倫, 鳳山, 丹邱等 6個의 派出所와 原城郡에 板富, 神林, 貴來, 富論, 文幕, 地正, 好楮, 所草, 興業等 9個의 支署를 두고 있으며 444坪의 建坪에 警務課, 保安課, 警備課, 搜查課, 情報課等 5個課를 두어 治安業務를 擔當하고 있다. 交通事故 防止 및 團束, 민유총포 및 火藥團束, 靑少年善導, 乞人 浮浪兒善導, 迷兒 家出者團束, 犯罪團束 등이 고향의 不條理를 除去하고자 不徹晝夜 警戒態勢에 萬全을 期하고 있는 이 곳의 歷代 署長은 初代 俞 震文, 2代 鄭 三龍, 3代 黃 鶴性, 4代 崔 善門, 5代 劉 奇洙, 6代 秦 學萬, 7代 張 秉遠, 8代 尹 宗漢, 9代 李 雲龍, 10代 金 再柱, 11代 金 倉起, 12代 朴 東憲, 13代 朱 鳳觀, 14代 李 秉禧, 15代 韓 千洙, 16代 盧 英世, 17代 金 廷周, 18代 金 源湧, 19代 金 廷周, 20代 張 周鈺, 21代 金 東興, 22代 李 華禎, 23代 張 相烈, 24代 吳 炳麟, 25代 閔 英基, 26代 鄭 時煥, 27代 柳 宗烈, 28代 金 涓銓, 29代 李 性儀, 30代 李 光洙, 31代 張 世準, 32代 李 鳳萬, 33代 宋 齊根, 34代 朴 秉勳, 35代 韓 王燮, 36代 朴 用孚, 37代 金 振壽, 38代 蔡 虎錫, 署長 等이다.

(3) 原州 消防 署

原州消防署는 原州市 中央洞 207番地에 位置하며 1970年 5月 7日 大統領令 第 4752號에 依據 原州消防署로 開署되었으며 1972年 1月 25日 江原規則 第 663號로 原州消防署 直轄派出所 承認을 받아 오늘에 이르고 있다. 豫防하는 消防像을 具現하고자 努力하고 있는 消防署는 18個洞을 對象으로 111.73km²의 面積을 不徹晝夜 警戒하고 있으며 保有車輛으로는 大型 펌프차 3臺, 무인 방수포 사다리 1臺가 있고 施設物로는 급수탑 2臺, 消火栓으로는 公設 60個, 私設 215個가 있으며 原州의 年 火災 發生件數는 74件에 달하고 있다. 歷代 署長은 初代 文 泰燮, 2代 林 在先, 3代 陳 重煥署長으로 되어 있으나 消防署로 開設되기 이전에도 義勇消防隊 義勇消防署 等으로 原州의 消防擔當은 잘 되어 있었다. 義勇消防隊長으로는 박 화순, 박 태희, 김 영덕씨 등이 수고를 하였다.

(가) 소 방 현 황

		대 상 수	업 무 량	소 방 차 1 대 당
면	적	111.73km ²	2.53km ²	18.65km ²
동	회 수	18동	0.45동	3동
호	수	15,887호	3.97호	2,648호
인	구 수	127,777명	3,144명	21,295명

(나) 소방 시설 현황

단위 : 대

(1974年 末現在)

구 분 년도별	총 수	소 방 자 동 차			일 반 차 량 수	
		펌 프	탱 크	사 방 다 리 차	절 차	선 견 차
69	3	1	1	—	1	—
70	4	1	1	—	2	—
71	6	2	2	—	2	—
72	6	2	1	1	1	1
73	6	2	1	1	1	1

(다) 화재 발생 현황

구 분 년도	인 원 별			인 명 피 해		피 해 액		손 실		
	실 화	방 화	기 타	계	사 망	사 상	계	동 산	부 동 산	동 수
74	68	1	5	30	8	22	48,135,000	10,420,400	60	763.3

(라) 화재 원인별 현황

원인별 년도	아동기	유류	전기	담배	양초	성냥	봉화	난로	약품	자연발화
73	11	1	1	1	1	2	2			1
74	2	4		1	1			3	1	
비 고	-9	+3	-1			-2	-2	+3	+1	-1

(마) 화재 시간별 현황

시간별 년도	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73	11		2					1				11		2	1		1	2				1	
74	19	1	2	2	1			1	1	1					2	1		1	1	1	1		1
비 고	+8	+2		+2	+1				+1	+1		-11		+2	+1	+1	-1	-1	+1	+1	-1	+1	

(바) 화재 동별 현황

동별 년도	계	태장-동	태장-동	우산-동	단계-동	학성-동	학성-동	일산-동	원-동	중앙-동	평원-동	봉산-동	봉산-동	개운-동	명륜-동	인행-동	행구-동	단구-동	완설-동	가현-동	반곡-동	
73	7			1		2	1		1	1				1								
74	19					2	2			5		1		3		1	1	3	1			
비 고	+12			-1		+1		-1	+4		+1		+2		+1	+1	+3	+1				

第2編 政治 및 行政

(사) 화재 발생 건수

구분 년도	발생 건수	소실 면적	화재 발생 별									인명구조			손 추 정 액
			주 택	관 공 서	회 사	흥 행 장	점 포	학 교	공 장	창 고	교회 및 사찰	기 타	사 망	부 상	
69	102	200	31	—	—	—	—	—	—	—	—	71	1	8	3,674,500
70	14	67.9	10	—	—	—	3	—	—	—	—	1	—	—	204,900
71	27	75.9	12	—	—	—	8	—	2	—	—	5	8	20	5,107,100
72	11	—	6	—	—	—	2	—	—	1	—	2	1	—	2,195,200
73	12	341.2	3	—	—	2	—	1	3	—	—	3	—	2	

(4) 原州 遞信廳

原州遞信廳은 原州市 鶴城 2洞 213番地에 位置하고 있으며 1973年 6月 28日 地方遞信官署職制와 遞信廳 名稱, 位置 및 管轄區域에 關한 規定에 依하여 1972年 8月 1日 原州電信電話局 廳舍에서 開廳하였다. 地方遞信官署 職制 第4條의 規定에 依하여 郵便換, 郵便貯金, 定期通信, 國民生命保險에 關한 事務를 管掌하며 原州市와 春川市, 江陵市, 束草市, 麟蹄郡, 華川郡, 春城郡, 洪川郡, 橫城郡, 平昌郡, 襄陽郡, 旌善郡, 三陟郡, 寧越郡의 江原道 一圓을 管轄하고 廳長揮下 總務課, 郵政課, 專務課, 會計課, 監查官이 있고 一般郵遞局 94個所와 電信電話局 3個所, 無線電信局 1個所, 電信電話建設局 1個所 以下 別定郵遞局 42個所 軍事郵遞局 15個所 無線電信局分局 1個所 電信建設局分局 1個所 등이 있다. 歷代 廳長으로는 初代 신 언모, 2代 오 황근, 現在 3代로 이 범상廳長이 在任하고 있다.

(5) 原州 電信 電話局

原州電信電話局은 原州市 鶴城洞 213番地에 所在하며 1968年 11月 15日 遞信部令 第307號에 依하여 原州電信電話局으로 發足하여 原州郵遞局 廳舍에서 新廳舍로 移轉하였으며 1969年 1月 12日 自動電話 S.T 2回線을 開通하여 業務를 開始하였다. 1972年 12月 26日 對 서울 M/W 24回線이 開通되었고 1973年 12月 30日 對 春川 手動 즉시회가 되었고 1975年 3月 7日 200回線이 增設됨으로서 總 4,400回線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迅速 正確한 電信電話에 關한 業務를 管掌하고 있는 電信電話局은 原州市內 一圓 및 原城郡 一部 地域을 管轄區域으로 庶務課, 業務課, 技術課의 3課 10係로 構成되어 있다. 電信業務는 音響電信 2台, 印刷電信 2台, 모사電信 2台, 市外電話 2台, 託送 1152台와 原州驛의 直通電話 1台, 文幕外 9個地域의 市外電話施設이 있으며 年 59,941件을 發信하고 127,860件을 中繼하며 67,410件을 着信으로 總 255,215件을 取扱하고 있다. 또한 市內電話는 4,400回線으로 加入電話가 4,208台, 公衆電話가 39台이며 市外電話는 서울 春川을 비롯하여 33區間으로 127回線을 保有하고 있으며 年 1,285,929件을 接受받고 186,776件을 中繼하여 總 1,472,705件을 100% 疏通시키고 있는 電信電話局은 2,143坪의 垆地에 建坪은 1,479坪이고 歷代 局長은 初代 위 영환, 2代 이 용덕, 3代 정 용섭, 4代 서 명환, 5代 이 해운, 代 김 인수 局長 等이다.

(6) 原州 郵遞局

原州郵遞局은 原州市 仁洞에 位置하고 1912年 3月 21日 原州郡 原州邑에 原州郵便所로 發足하였다가 1948年 8月 15日 原州郵遞局으로 改稱되었으며 1950年 6月 30日 6.25事變으로 業務를 中斷中에 廳舍가 燒失되었다. 1950年 10月 1日 原州邑 中央洞에 臨時事務所를 設置하고 業

務를取扱하다가 1958年 2月 13日 垜地 413坪 建坪 228坪의 現場所로 廳舍를 增築 移轉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地方通信官署 設置法 第5條에 依據 郵便, 換金, 郵便貯金, 定期通信, 國民生命保險 및 郵便年金에 關한 事務를 管掌하고 있는 郵遞局은 原州市 및 原城郡 1圓을 管轄區域으로 庶務課, 通信課等 2課 6係에 傘下管署로 黃屯分局, 板富分局, 電信電話 分局과 一般 郵遞局 3(貴來文幕, 新林) 軍事郵遞局2 (502軍事, 81軍事), 別定 郵遞局5, (好楮, 興業, 所草, 富論, 地正) 등이 있다.

郵票類 販賣所는 97個所이며 原州 原城의 郵遞筒은 62個, 郵遞函은 24個이고 私書函은 保有數가 48個中 貸與數가 29個이며 1日 集配區 走行距離는 820.3km로 郵便物 接受는 年 2,580,446通이고 配達은 2,647,048通이다. 中繼는 2,540,143通이며 郵便換은 26,434件에 380,078,573원이 發行되고 至今은 44,776件에 517,550,701원이며 郵便貯金은 107,706件에 182,482,366원이 豫入되었고 換金은 16,272件에 427,255,364원이다. 歷代 局長은 初代 金鳳洙, 2代 安炳浩, 3代 元鳳勳, 4代 金載溟, 5代 金永善, 6代 崔河秘, 7代 金明德, 8代 韓忠男, 9代 李琮德, 10代 崔泰錫, 11代 曹萬煥, 12代 金相雨, 13代 金相雨, 14代 徐丙煥, 15代 鄭完模, 16代 鄭完模, 17代 鄭完模, 18代 金相範, 19代 金忠烈, 20代 金忠烈, 21代 申作雨, 22代 申作雨, 23代 朴永煥, 24代 朴永煥, 25代 李昌漢, 26代 魏英煥, 27代 田玉植, 28代 田玉植, 29代 張成龍, 30代 張成龍, 31代 張成龍, 32代 崔成薰, 33代 吳智律, 34代 金充植局長 等이다.

(7) 原州 援護 支廳

原州州 開運洞 122의 1番地에 位置하고 있는 原州地方援護支廳은 1961年 7月 5日 軍事援護廳 設置法 公布에 依하여 61年 8月 5日 서울支廳 原州出張所로 創設되었고 62年 4月 16日 軍事援護處로 昇格 改編됨에 따라 서울地方援護廳이 原州支廳으로 改稱되었으며 1972年 2月 15日 大統領令 第 6005號로 原州地方援護支廳으로 다시 改稱되어 原州市, 原城郡, 橫城郡, 驪州郡, 寧越郡, 楊平郡 等 1個市 5個郡 2個邑 44個面の 援護對象者들에게 各種 補償金給與, 除隊軍人 및 援護對象者 定着貸付, 援護對象 子女教育 保護, 職業輔導, 傷痍者 醫療管理, 援護對象者 團體教導, 技術教育 및 委託教育, 重傷痍者 特殊援護 等の 임무를 다하고 있다. 援護受惠 對象者로는 遺族과 傷痍軍警 特援除隊軍人이 있으며 年金受給權者, 諸手當受給權者, 教育保護對象者, 醫療保護對象者, 職業輔導對象者, 정착 대부 수혜자, 자립금 수령자, 독립 유공자, 기금 수혜자, 재일학도의용군, 월남 귀순자로 나누어진다. 기타 지원으로는 금융지원과 인허가지원, 취로지원, 의료지원이 있으며 일반 지원으로는 취업지원, 자영사업지원, 생계비지원이 있다. 친절과 공정으로서 원호대상자의 복리를 증진하여 복지사회 건설에 이바지 한다는 處訓아래 지청장 휘하 관리과, 원호과, 회계과의 3個과로 나누며 자력계, 교도계, 원호계, 직보계, 급여계, 대부계로 구분되어 있다. 대부 수혜자로는 총 대상자 2,537名中 總 貸付者 886名의 30%로서 취업도 各官署와 國營 企業 또는 일반 企業와 학교 등지에 진출시키고 있으며 初代 李成龍支廳長을 비롯하여 2代 崔永基, 3代 黃善圭, 4代 朴貞桂, 5代 朴奉七, 6代 金完基, 7代 朴基碩, 8代 朴鍾泰, 9代 白炯龍, 10代 李千雨 支廳長 等이 歷任하고 있다.

(8) 江原道 重機 事業所

江原道 重機事業所는 原州市 台庄洞 809번지 -3에 所在하며 1964年 10月 13日 大統領令 第 2260號에 依해 建設部 重機工場 原州地域整備工場으로 發足하였다가 1972年 12月 16日 法律 第 2371號로 建設部 重機事業特別會計法 廢止 法律에 依해 內務部로 移管되었으며 1972年 12月 30日 江原道 조례 第 714號에 依해 1973年 1月 1日 江原道 重機事業所로 發足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災害對策事業, 道路建設事業, 새마을 事業, 其他 地域開發 等 各市郡에서 施行하는 建設工事業에

第2編 政治 및 行政

重機를 대여하고 使用料를 徵收하는 業務를 담당하고 있는 이 事業所는 管理係, 整備係, 補給係에 109名의 職員이 있으며 1,552坪의 垆地에 建坪은 179坪이고 불도자 9臺, 크레인 2臺, 담푸추럭 12臺, 로타 14臺, 트레일러 및 추럭트랙타 4臺, 썬비스 추럭 2臺, 엔벤네스카 1臺, 썸 4臺, 其他 重機 23臺 등 總 118臺의 重機를 保有하고 있다. 年間 實績을 보면 관영 대여가 62,241件, 民間 대여가 13,318件이고 重機使用料 徵收現況은 조정액이 12,972,379원 수납액이 88,095,657원이며 역대 소장은 初代 金鍾奭, 2代 金龍學이다.

(9) 환지대행측량사무소

原州 환지대행측량사무소는 原州市 中央洞 60—2번지에 위치하고 1971年 5月 8日 原州市 指定 대행 측량사 조례 第4條의 규정에 의거 原州市 指定 측량사로 認可를 받아 오늘에 이르고 있다. 原州市 都市計劃事業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실시하므함서 도시계획 사업에 원활을 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原州市 一圓을 측량구역으로 하고 측량 종류는 토지구획 정리지구 내 환지 예정지 분할 및 환지 예정지 지정 측량과 기타 原州市의 위탁업무를 맡고 있으며 소장으로는 김인술이다.

(10) 中部營林署

中部營林署는 原州市 園洞 79番地에 위치하며 1937年 京城營林署로 新設되었고 1946年 春川營林署로 改稱되어 春川市로 移轉되었다가 1950年 서울로 復歸하여 서울營林署로 改稱되어 1972년까지 23年間 서울에서 江原道 嶺西地方과 京畿道 一部의 國有林을 經營 管理하다가 1967年 山林廳 開廳과 同時에 全北 南原 茂州 江原道 寧越 一部와 慶北 北部地方의 요존 國有林을 新設된 安東營林署로 移管하였고 1969年 舊制 管理所가 國有林 經營單位로 統合됨에 따라 春川, 原州, 洪川, 麟蹄 등 4個管理所와 그傘下 國有林의 保護管理단을 專擔하는 15個 保護擔當區와 2個의 養苗事業場을 두게 되었다. 1972年 本署가 江原道 原州市로 移轉되고 其名稱도 中部營林署로 變更한 이후 오늘에 이르고 있다. 國內에 88만여 요존 國有林을 經營 管理하기 爲하여 中部 東部 南部等 3個 營林署와 그 管下에 11個 管理所가 있는 가운데 그 중 한 곳이 原州에 있는 이 營林署는 國土保安, 山林經營, 學術研究, 史蹟 有形文化財의 保護, 其他 公益上 國家에서 保存할 必要가 있는 요존 國有林을 優良한 苗木으로 生産 造林하고 이를 가꾸어 國有林資源을 造成하며 收穫期에 達한 立木을 持續的으로 生産하며 펄프 ګ목 등 産業用材로 供給하고 國有林에 大韓山林 實態調査를 實施 科學的인 經營計劃을 編成 執行하는 한편 山불, 盜伐 등 山林事故의 豫防과 團東 슬나방 슬인 흑과리 등의 山林病虫害 防劑等 國有林의 保護管理를 그 任務로 하고 江原道 嶺西地方과 京畿道 楊平 加平等地에 散在한 國有林 361,000ha를 管轄하고 있으며 26個所에 675ha의 채종림에서 잣나무 낙엽송 등의 種子 15,000여kg를 채취하여 施設과 規模가 國內 第一을 자랑하는 楊平 春川等 2個 養苗事業場 41만餘m²의 苗地에 성묘 1,200만본을 生産 供給하고 있다. 또한 麟蹄郡等 10個 團地 15,000餘ha에 示範 經營團地를 造成 技術과 人力 豫算을 集中投入하여 집약적 山林經營의 본보기를 실현하므로써 自體經營의 내실화를 기함과 아울러 민유림 경영을 先導 示範하고 있는 營林署는 187名의 職員이 있으며 現在 署長으로 한 승환署長이 在任하고 있다.

(11) 中部營林署 原州管理所

中部營林署 原州管理所는 原州市 丹邱洞 171—2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1937年 京城營林署 原州管理所로 발족하여 1946年 春川營林署 原州管理所로 改稱하고 1950年 다시 서울 營林署 原州管理所로 改稱하였으며 1969年에 機構改編으로 인하여 관리소 통합과 보호구를 新設하였으

며 1972年 中部營林署 原州管理所로 改稱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기구는 소장 밑에 管理係, 保護係, 經營計劃係, 事業係와 山林保護區, 橫城保護區, 龍門保護區, 楊平養苗 事業場으로 구성되며 관할 구역은 原城郡 5個面과 寧越郡 2個面, 橫城郡 7個面, 楊平郡 10個面, 驪州郡 1邑으로 하여 5個郡과 25個 邑面을 관할하며 國有林 경영계획, 國有林 자원조성, 國有林 산물생산, 國有林 보호 관리를 任務로 하여 일하고 있다. 機構改編 이후의 역대 소장은 初代 김 우동, 2代 박 용길, 3代 이 성호, 4代 김 낙동 등이다.

(12) 原州 專賣署

原州專賣署는 原州市 鶴城 2洞 213—7番地에 자리하고 있으며 1921年 朝鮮煙草 專賣令 實施 당시 龍仁 煙草院 매팔組合 原州營業所로 發足を 보았다. 그 후 1931年 7月 1日 販賣業務가 官營으로 變更됨에 따라 원 매팔組合을 廢止하고 專賣局 京城支局 原州販賣所로 改稱하였으나 1946年 10月 1日 官署名 變更으로 因하여 原州專賣署로 되었으며 1973年 12月 10日 現 廳舍를 竣工하여 오늘에 이른다. 原州市와 原城郡 一圓에 牛山洞, 鳳山洞, 台壓洞, 杏邱洞, 觀雪洞, 丹邱洞, 所草面, 興陽里, 衣冠里, 高山里, 新坪里, 地正面, 文幕面, 富論面, 貴來面, 興業面, 神林面, 송계(黃屯)에 荷置場을 두고 있으며 署長을 爲始하여 次席, 庶務係, 販賣係, 小賣人, 荷置場을 거쳐 담배販賣에 主力하고 있으며 原州市에 268個所, 原城郡에 197個所, 荷置場 18個所를 두고 있다. 74年度 販賣 現況을 보면 總 數量 13, 559, 114匣에 90, 303, 653이라는 數字를 나타내고 있다. 歷代 署長으로는 初代 原田(日人), 2代 영지사령(日人), 3代 안 상기, 4代 배 기환, 5代 윤 경구, 6代 元 鳳薰, 7代 이 장호, 8代 구 춘희, 9代 홍 경덕, 10代 박 재운, 11代 최 인복, 12代 남 상교, 13代 장 기세, 14代 유 도섭, 15代 박 춘교, 16代 장 기세, 17代 이 준학, 18代 윤 상배, 19代 박 노익, 20代 이 원재, 21代 석 대식, 22代 유 도섭, 23代 장 원선, 24代 윤 상배 等이다.

(13) 農水産部 江原道 農業統計事務所

농수산부 강원도 농업통계사무소는 原州市 開運洞 261—1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農業政策 遂行에 필요한 자료를 신속 精確하게 수집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하였으며 1961年 혁명이후에 농수산부에서 全國 표본 지역을 설정하여 농가경제와 농산물 생산비에 대한 조사를 처음 실시 하였고 식량작물 생산량 조사에 대하여서는 1966年 각 市 郡에 전담 조사원을 1名씩 배치하므로써 본격화 했으며 1968年에 기구의 확장으로 각 邑面에 농업통계 직원을 각 1名씩 駐在케 하여 농업통계 및 생산에 주력하였으며 1973年 2月 1日 字 農수산부 방침에 따라 농업통계관실 산하에 各 道 농업통계 사무소와 市 郡 농업통계 출장소를 신설하여 오늘에 이르며 모든 조사는 조사계획서에 의거하며 관할구역은 原州市 18個洞과 原城郡 9個面이고 原州市에 52個와 原城郡에 246個 조사구를 대상지역으로 하여 농가경제조사원 2名 양곡소비량 조사원 1名 포함하여 12名의 직원이 일하고 있으며 전직원은 통계공무원으로서의 사명과 긍지를 갖고 통계의 기본목표인 신속과 정확을 기한 조사에 임하고 있다. 역대 소장은 金 南祚이다.

(14) 國立 農産物檢査所 原州出張所

農産物檢査所 原州出張所는 原州市 鶴城 2洞 213—9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농산물의 품질 향상과 개선을 촉구하여 공정 원만한 거래와 소비의 합리화를 기하고 나아가서는 국민경제의 발전과 정부의 식량 자급시책에 기여할 수 있는 검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1915年 道 穀物檢査의 規則을 제정하고 1917年 同規則을 改正 미두 검사소를 설치하며 1932年 朝鮮 穀物檢査令 制定으로 朝鮮總督府 穀物檢査所 인천지소 원주출장소로 개칭 淸정, 평창, 영월군 관내 일원을 분할함과 동시에 본부령 제호 淸정출장소를 신설하고 淸정군, 평창군 관내 일원을 분할하였고

第2編 政治 및 行政

1935年 蕘성출장소 폐지에 따라 蕘성, 평창군을 통괄하고 1938年 본부령 제호로 蕘성출장소를 신설하고 蕘성, 평창군 관내 일원을 분괄하였다. 1944年 전시 식량통제 조치로서 식량관리령 공포에 따라 강원도 농산부에 이관 원주 식량검사소 출장소로 개칭 1946年 군정법 第 111號로 원주곡물 검사소로 개칭하고 1949年 법률 제 49호로 농산물 검사법 제정 大統領令 第 53號로 농림부 농산물 검사소 서울지소 원주 출장소로 개칭하고 1958年 법률 제 478호로 同法 개정 농산물 검사소로 개칭 1962年 법률 第 1228號로 동법개정 국립농산물 검사소 원주출장소로 개칭하여 현재에 이르고 농산물의 검사에 있어 능률적이고 과학적이고 공정한 검사를 기본방침으로 하여 일하고 있다. 흔히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모든 일이 잘 된다는 말이 있드시 농산물검사의 목적에 명시된 바와 같이 농산물의 생산도 중요하지만 수확 후의 조제와 가공이 더 없이 중요한 것으로 생각 하며 수검과정에서 조제가공 불량으로 인한 수검 농민의 손해는 상당히 큰바 이에 대한 인식이 아쉽다. 원주 원성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검사 종목은 벼, 쌀, 보리, 쌀보리, 밀, 보리쌀, 들린보리, 콩, 옥수수, 누에고치, 가마니 새끼 등이고 정 영수 所長이 현재 유임하고 있다.

(15) 原州驛

原州驛은 原州市 鶴城 2洞 425번지에 위치하고 1940年 4月 1日 楊平 原州間이 개통됨과 더불어 鐵道局 현업기관 설치령 第 23條에 의해서 原州驛이 설립되었고 서울 방면으로만 第 1次의으로 개통하게 되었다가 1942年 4月 1日 中央線이 全通되면서 交通의 中心地로 발전하였다. 6, 25 동탄으로 驛舍가 소실되어 假驛舍로 이전하여 업무를 대행하다가 1956年 12月 30日 건평 37, 422m²의 역사를 신축하였고 1969年 1月 22日 6, 561m²의 역사를 증축하여 현재까지(CTC)가 新設되었고 1966年 中央線 電鐵을 착공, 1968年 10月 10日 電鐵이 完工되었으며 1973年 6月 中央線 電鐵이 개통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起點 慶州로부터 274. 550km 終點 濟涼里로부터 108. 4km에 위치하고 線路位置 경주를 지점으로 274. 550km에 있는 原州驛의 열차운행은 1日 上行 화물열차가 30회 下行 화물열차가 30회에 達하고 있으며 1日 평균 승차 인원은 2, 125명 하차인원은 2, 262명으로 혼잡을 이루고 있다. 소화물도 취급하고 있는 이 역의 1日 평균 소화물량은 295kg이고 휴대화물은 96, 739kg, 소화물은 8, 515kg이며 종사하는 驛夫는 47名이다. 구내 총 면적은 52, 269m²이고 驛舍건평 439. 82m²이며 대합실 면적은 20, 413m², 역전 광장 면적은 109, 990 m², 여객홀의 길이는 260m, 폭 9. 3m로 1개가 있으며 화물 설비로는 屋內가 544m², 옥외가 1, 539 m², 작하장 249m², 보관창고 15m²이고 화물자동차 21대, 손수레 23대가 보유하고 있다. 역대 역장은 初代 신 현명, 2代 오 흥자, 3代 김 영태, 4代 이 병익, 5代 김 형배, 6代 이 태산, 7代 최 문행, 8代 조 명환이다.

(16) 良峴驛

原城郡 地正面 良峴 1里 860番地에 위치하고 있는 良峴驛은 1939年 4月 1日 開通을 보았으나 6. 25事變으로 廢鎖되고 收復後 垆地 122, 150m², 建坪 58m², 待合室 20m²의 新築을 보았고 68年 10월에 CTC設置를 完工하였다. 慶州로부터 287. 1km 濟涼里로부터 95. 6km인 이 驛은 하루約 3백餘名의 손님이 乘下車를 하며 貨物이 63, 旅客이 21차레나 이 기점을 通過한다고 한다. 朴희준驛長과 20餘名의 從事員들이 일하고 있는 驛 周邊에는 향나무로 環境整理가 잘 되어 있다.

(17) 桐華驛

桐華驛은 原城郡 文幕面 桐華 3里 24番地에 위치하며 1941年 中央線 開通과 더불어 設立되었

다. 6.25事變으로 驛舍가 燒失된 후 다시 現 驛舍를 新築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기점인 慶州로부터 383.9km 淸涼里로부터 98.8km에 위치한 이 驛은 1日 平均 乘車人員이 160名, 下車人員 150名이며 1日 列車 回數는 貨物 60輛, 旅客 21輛이 이 驛을 通過하고 있다. 艮峴驛과 萬鍾驛 사이에 있는 桐華驛의 從事員은 9名이며 建坪은 20坪이고 現在 이 강면驛長이 在任하고 있다.

(18) 雉 岳 驛

雉岳驛은 原城郡 板富面 金垵 3里 260番地에 位置하며 1956年 7月 11日 雉岳驛 信號場으로 認可를 받았다가 1958年 1月 1日 雉岳驛으로 昇格하였으며 1966年 7月 19日 中央線 CTC가 設置되었다. 1970年 1月 1日 列車 回數增加로 上下 各線 124m의 線路를 延長하였으며 1973年 6月 通信施設을 地下로 埋設하였다. 雉岳驛은 海拔 465m나 되고 驛을 中心으로 上下 兩側 4km의 直線隧道와 2km의 또와리터널 길아천橋樑(一名 百尺橋라고 함)이 있는 이 驛은 起點 慶州로부터 255.4km 淸涼里로부터 127.6km에 位置하고 1日 이 驛을 通過하는 列車는 貨物 78回 旅客 6회이고 1日 乘下車人員은 約 30餘名이다. 28.450坪에 5坪의 待合室이 있고 從事人員은 12名이며 歷代 驛長은 初代 신 창현, 2代 손 청열, 3代 조 희락, 4代 권진, 5代 조 채하, 6代 길 재균, 7代 송 재덕, 8代 이 종호, 9代 유 원중, 10代 박 광세, 11代 이 명기, 12代 장 재상, 13代 김 창기, 14代 이 석윤, 15代 이 정구驛長 等이다.

(19) 盤 谷 驛

盤谷驛은 原州市 盤谷洞 7班 126번지에 位置하며 中央線이 開通된 1941年 3月 1日 설립되었다. 역 부근에 개나리가 많아서 일명 개나리驛이라고도 하는 盤谷驛은 기점 慶州로부터 265km 중점 淸涼里로부터 117km에 있으며 1日 승차인원 30名 하차인원 20名이고 管制區域은 盤谷에서 유교(원주쪽)이며 소화물은 취급하지 않고있다. 驛建坪은 7,484m² 대할실 면적은 2,784m²이고 직원은 10名으로 역대 驛長은 初代 고 신균, 2代 신 창현, 3代 유시 활, 4代 장 재령, 5代 김 규열, 6代 신 상운, 7代 박 광세이다.

(20) 江原道 地方國土管理廳

江原道 地方國土管理廳은 原州市 丹邱洞에 所在하며 1961年 10月 2日 太白山地域 國土建設局으로 寧越에 設置되어 江原道 一圓과 慶北 一部를 管轄하다가 62年 1月 15日 榮州로 이전하였으며 62年 2月 27日 太白山 國土建設局으로 다시 開局하여 66年 11月 8日에는 속초축항사무소를 設置하고 管轄구역을 추가 慶北 一部와 1市 5郡을 管轄하게 되었다. 그후 73年 2月 25日 목호 축항 사무소를 부산 항만관리청에 이관하고 75年 6月 18日 지방건설관서 직제개정에 따라 江原道 地方國土管理廳으로 개편됨과 동시에 洪川, 旌善, 江陵 國道유지 건설사무소와 原州하천관리 건설사무소를 설치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도로, 항만, 하천, 간척, 공업용 수도, 상수도 공사의 조사, 설계, 시행 및 단지 조성, 도시 조성공사의 조사 설계 시행과 국토계획 국토지사의 조성을 하며 도로, 하천, 해면의 관리를 임무로 하고 있는 이 관리청의 관할구역은 江原道 一圓의 4市 15郡에 總面積 15,477km²을 管轄구역으로 하며 소속 건설사무소는, 홍천, 강능 정선국도유지 건설사무소와 原州하천관리사무소, 속초축항사무소가 있다. 또한 이 廳의 기구를 보면 5個의 소속 건설사무소와 1室 3課 8係로 구성되어 있으며 종사하는 인원은 120名에 現在 廳長으로는 정 훈씨가 재임하고 있다.

第2編 政治 및 行政

(21) 한국도로공사 원주도로관리사무소

한국도로공사 원주도로관리사무소는 原城郡 所草面 長陽里 1397番地에 위치하며 1971年 12月 1日 嶺東高速道路 開通과 同時에 設立되었다. 高速道路 유지 관리 및 부대사업으로 주변 환경 정리에 온 힘을 기울이는 이 事務所의 관장구역은 신갈지점 56.5km에서부터 남한강교 동관 104km인 경기도 여주군 강천면 적금리부터 횡성군 우천면 우항리까지이다. 또한 기구를 보면 事務所 소속으로 原州영업소, 새말영업소, 文幕영업소 등 3個 영업소가 있고 보수과, 관리과에 4계로 편성되어 있다. 불철주야 고속도로상의 위험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노력하는 이 사무소의 종사인원은 87名이며 現在 所長으로는 韓 樂源이 재임하고 있다.

(22) 春川測候所 原城分室

春川測候所 原城分室은 原州市 觀雪洞 1500 番地—2에 위치하며 1971年 9月 春川測候所로부터 原城分室로 認可를 받아 설립되었다. 測器를 가지고 觀測을 하여 이 고장의 日氣豫報를 傳하고 있는 이 分室은 垆地 500坪에 건평 12坪이며 종업원은 2名이고 現在 崔 秉順所長이 재임하고 있다.

(23) 江原道 種畜場 原州分場

種畜場 原州分場은 原州市 盤谷洞 山 20番地에 위치하고 있으며 1932年 7月 原州 種畜場으로 독립하여 1940年 道 訓令 제 7호에 의하여 原州 種畜場 처무규정을 제정하고 1962年 4月 農村振興院에 소속됐으며 1966年 11月 단구등에서 현 위치로 이전하였고 1969年 8月 조례 제 481호에 의해 江原道로 소속 되었으며 1971年 2月 原州 種畜場職制를 제정하고 1972年 12月 조례 제 715호에 의거하여 江原道 種畜場 原州分場으로 개편하였으며 1973年 6月 규칙 제 742호에 의하여 정원 규칙을 개정하였고 33,69ka, 말 5.66ka, 임야 6.9ka, 잡종지 2.6ka, 기타 2.29ka로 되어 있고 소(홀스타인 한우) 34마리와 산양(자-빈) 47마리, 돼지(버크샤, 험프사, 렌드레스, 두룩저지) 115마리, 닭(백색네구용) 1219마리를 사육하며 우량종축의 생산 보급, 토지 및 가축의 생산성 극대화 농가소득 개발사업의 추진, 실용성있는 실험연구, 사업추진 경영개선으로 수입증대 도모 등을 운영 목표로 하여 9名의 직원이 일하고 있다. 기구를 요약해보면 場長과 分場長 밑에 庶務담당과 사업담당으로 區分하고 있다.

(24) 原州 市立屠畜場

原州 市立屠畜場은 原州市 丹邱洞 200番地에 위치하며 原州場날과 橫城장에서 소, 돼지를 구입하여 屠殺하는 일을 맡고 있다. 이 태회가 관리하는 이 屠畜場은 年間 소 2,000頭, 돼지 5,000頭를 도살하며 도살전 傳染病의 감염 여부와 생체검사 해체검사를 하여 이상이 없는 고기만 各精肉店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종사원은 屠夫가 12名, 운반부가 12名이며 면적은 垆地 1,000坪에 건평 70坪이다. 原州市民의 1日 소고기 소비량은 소 3마리에 달하고 있다.

第4節 司法과 行政機關

(1) 司法制度의 變遷史

牧, 府, 郡 縣의 守令은 오늘날의 判檢事의 職權을 아울러 行使하였다. 그러므로 管内의 行政에 關聯한 가벼운 범죄 및 訴訟事件을 취급했을 뿐 아니라 殺人犯까지도 處斷하였다. 裁判은 보통 守令이 終審하게 되었으나 判決키 어려운 것은 一件書類를 觀察使에게 보내서 그 裁判에 따라 結審하게 되었으므로 이 경우에 있어서는 觀察使를 終審으로 하는 2審制로 볼 수 있는 것이었다. 被告側에는 「議訟」이라 하여 判決에 대한 不服, 곧 控訴 上告할 것을 許하였으며 혹은

布政樓上的 申聞鼓를 치기도 하고 혹은 南門樓上的 鍾을 치기도 하여 그 冤을 監司에게 訴하는 便法도 있었다. 이때에는 特히 執事廳의 職員이 直訴의 事由를 監事에게 上達하였다. 무릇 重大한 事件에 관하여는 觀察使, 司憲府, 國王에의 次序로 3회에 걸쳐 그 審理를 요구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것은 곧 慎重을 期하려는 제도였다. 國王에의 上訴는 이것을 「擊錚」이라 하였으니 國王 便殿 밖의 差備門에 있는 錚을 치는 것이었다. 上訴할 수 있는 事件은 死刑, 父子嫡庶 및 良賤의 확인에 限하였다. 그런데 大概의 경우는 書類만으로서 처리하였고 原 被告를 監營 또는 서울에 출두케 하는 일은 國事犯 등 重大事件 이외에는 거의 없었다. 民事訴訟의 수속은 반드시 書面으로서 할 것으로 定해져 있었다. 그런데 事件은 흔히 田宅, 奴婢에 관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審理方法은 原 被告가 訟廷에서 서로 구두변론을 하고 그 기간은 50일로 하였는데 이유 없이 30일 이상을 訟廷에 나오지 아니한 者는 敗訴의 言渡를 받게 되었었고 同一事件에 대하여 3次까지는 起訴할 수 있었으나 3訟中에 그 敗訴를 당한 者는 다시 訴出함을 許하지 않았었다. 重刑囚 및 重病者 또는 死刑囚를 除한 外에는 親喪 때에는 잠시 그 拘禁을 풀어주는 制度도 있었고 大赦도 자주 있었으며, 地方에서는 觀察使의 上申에 依하여 各各 釋放시키는 일도 있었다. 判결의 典據로서는 國初以來 唯一의 法典인 經國大典, 續經國大典, 大典通編, 大典會通 등을 사용하여 왔으며 大明律, 欽欽新書 등 까지 참조하였으나 最近世에 刑法大典이 編成되면서부터는 이것을 專用하였었다. 刑罰의 種類는 笞, 杖, 流, 竄, 禁 錮(終身刑) 및 死刑(絞斬)의 7種과 罰金刑이 있었으며 모두 判決의 執行을 速히 하는 것이 普通이었다. 徒刑囚는 대개 官衙의 雜役, 官船의 船夫, 驛遞의 雜役, 製鹽, 製鐵 등 官業의 勞役に 服하였다. 이렇게 逮囚된 者는 未決囚와 證人들이 大部分이었는데 2年 或은 3年에 걸친 長期 囚監者가 많았었다. 囚監者의 衣食은 官給의 方法도 있었으나 自辨이 常例이고 私食制度도 있었다. 原州에 設置되어 있는 春川 地方法院 原州支院과 春川地方檢察廳 原州地廳에 對한 沿革은 다음과 같다.

(2) 治安制度의 變遷史

(가) 舊 韓末까지의 警察制度

舊 韓末 高宗 元年 以前까지에는 警察이란 語句를 使用한 일은 없었다. 그러나 警察 기능을 담당한 各時代의 機關은 實質的으로 存在하였다. 刑事警察을 담당한 것이 兵房廳이요 檢察事務를 담당한 것이 捕盜廳으로서 오늘날 警察에 相當한 機關으로 道の 監營과 郡의 郡衙에 所屬되어 있었다. 風教에 관한 犯罪와 浮浪者 團束은 捕盜廳이 담당하였는데 防犯方法으로 五家作統의 制度를 실시하여 각종 범죄가 한 부락에 발생하면 所管구역의 統長, 里長, 鄉長, 郡守에 이르기까지 連帶責任을 지게하여 따라서 都邑의 명칭도 강등 변경시키기도 하였다. 그리고 방법조치의 하나로 外來客의 留宿報告制를 실시하였다. 西紀 1897年(光武 1年)에 경참이라는 기관칭호를 처음으로 쓰게 되었으나 裁判所, 警察, 監獄의 混合制度이었으며 軍隊도 경찰의 一翼을 담당하였다. 府尹, 郡守와 같은 行政官도 判, 檢事, 警察 등 지무를 兼帶하여 犯罪搜查 및 刑事執行에 관여하였다. 西紀 1905年(光武 9) 己巳 2월에 韓日協約에 依한 日本人 警察 顧問本部를 서울에 두고 各道에 그 支部 各部에 分遣所를 설치하여 경찰 사무에 관여하였다. 西紀 1908年(융희 2) 7월에 警察官의 官制를 變改하여 各道에 警察部를 두고 警察署를 증가시키는 同時에 警官을 양성하였으나 隆熙 4年 6월에 倭敵에게 이것마저 完全히 警察權을 빼앗겨 舊 韓國警察은 終焉을 고했다.

(나) 倭政下의 警察制度

倭帝가 침략을 개시하면서 서울에 警務總監府, 各道에 警察部, 府와 郡에 警察署, 駐在所, 憲兵分隊, 分遣所를 두고 憲兵將校를 警視에 準士官과 下士를 警部に 任用하여 武斷政治를 敢

第2編 政治 및 行政

行했던 것인데, 1919年 己未年(大正 8)의 獨立宣言後 소위 文化政治라는 美名下에 警察制度에 多少의 改革을 加하여 各道에 警察部를 두는 同時에 그 機關의 範圍를 擴張하였다. 이때에 原州에도 警察署를 다시 設置하고 各面에 駐在所를 두었다. 그 후 1923年과 그 다음해인 1924年(大正 13) 12月의 兩次に 걸친 整理 結果 많은 減員이 있었다. 그런데 1897年(光武 1年)에 原州警察署를 新設하고 裁判權과 警察權을 混合式으로 하였고 軍隊도 刑事警察과 刑의 執行에 關여하였다. 1910年(융희 4)에 倭敵이 警察權을 장악하였는데 原州警察署 소속에 巡査 駐在所는 文幕 貴來, 富論, 所草, 神林, 興業이었다. 警察權이 倭敵에게 넘어간 後 原州에 憲兵大隊를 두고 無斷 政治를 하다가 1919年 己未獨立宣言後 憲兵隊는 폐지하고 다시 警察署를 두고 日本人 署長을 配 置하였으며 各面에 駐在所를 두어 日人 首席을 配置하였다.

(3) 春川地方法院 原州支院

原州에 裁判所가 新設된것은 1895年 5月 10日 勅令 第 114號로 原州裁判所가 새로 신설되었다. 그후 1899年 1月 1日字 法律 第 10號로 原州區 裁判所로 되었다가 1909年 12月에 統監府가 司法權 및 監獄事務의 委任을 받게 되자 原州에도 統監府令 第 28號로 原州邑 上洞(現 原州市 園洞)에다 裁判所를 新築하였다. 그후 1914年 4月 1日字 總令 第 25號로 京城地方法院 原州支院으로 되었다가 1947年 1月 1日字 軍政法令 第 12號로 春川地方法院 原州支院으로 되었으며 다시 1947年 4月 1日字 軍정법령 제 7호로 春川地方審理院 原州支院으로 이름이 바뀌었다가 1948年 6月 1日字 軍정법령 제 192호에 의하여 春川地方法院 原州支院으로 還元되었다. 大韓民國 政府樹立後 1957年 1月 1日字 法律 第 400號로서 合議部 支院으로 昇格됨으로 1971年 2月 10日에 原州市 鶴城洞 1008番地에다가 垆地 1,559.5坪에 580坪의 現代式 建物로 廳舍를 新築 移轉하므로 現在에 이르고 있으며 역대 支院長은 다음과 같다.

初代 金潤洙 2代 權五奎 3代 申道淳 4代 安鍾植 5代 李雲根 6代 李南珪 7代 金龜南 8代 宋基成 9代 崔奎鳳 10代 尹相穆 (在現)

(4) 春川支方檢察廳 原州支廳

檢察 原州支廳은 1895年 5月 10日字 勅令 第 114號로 原州裁判所內에다 檢事分局을 두었다가 1914年 4月 1日字 總令 第 25號에 의하여 京城地方法院 原州檢事分局으로 되었다. 그後 1946年 1月 1日字 軍政法令 第 12號에 依據하여 春川地方檢察廳 原州支廳으로 되었으며 1957年 1月 1日字 法律 第 40號로 合議支廳으로 昇格하였다. 1971年 2月 10日 法務施設 造成計劃에 依하여 原州市 園洞 97番地 舊 廳舍로부터 原州市 鶴城 1洞 1008番地에 垆地 1,559.5坪에다가 地下 1層 地上 3層 延建坪 516坪의 新廳舍로 移轉하였으며 歷代 支廳長은 다음과 같다.

1代 유재희, 2代 홍순일, 3代 이윤근, 4代 신득준, 5代 김달기, 6代 송익근, 7代 이재희, 8代 유병익, 9代 김병두, 10代 정윤, 11代 황진영, 12代 조희채, 13代 나호진(현재)

第3編 社 會

第1章 福祉事業 及 保健機關

第2章 社會團體

第1章 福祉事業 및 保健機關

第1節 保健行政의 歷史

時代가 發達함에 따라 醫療施設도 함께 發達되어 왔다. 李朝時代에는 國民에 대한 醫療시설로서 惠民局, 惠民署가 있었으나 日政때에는 大韓醫院이 創立되어 衛生行政을 담당하였고, 韓日 新協約이 締結되자 衛生行政은 日本의 文物과 함께 침투되었다. 그러다가 解放이 되면서 基督教 布教의 目的을 겸한 外國의 宣教師들이 洋醫를 불러들여 음으로서 醫療시설은 급진적으로 發展되었다. 그러던 原州에 最初의 洋醫로서 病院을 開設한 이는 1913년 美國人 宣教師 앤더슨 (Anderson)씨였는데, 이 분이 原州에 온 動機는 잘 알수 없지만 監理教 宣教師로서 基督教 布教의 目的을 겸한 것이었음은 周知의 事實이다. 當時 우리나라는 美國 監理教와 美國 長老教, 그리고 캐나다 聯合教會가 各各 協商끝에 宣教地區를 서로 나누어 布教하기로 決定해 江原道와 서울 및 中部地方은 美國 監理教의 宣教地域으로 決定을 보아 當時 原州에 이미 들어와 있던 美國 長老教 宣教師가 美國 監理教의 宣教權과 宣教部 부지 일체를 1909년에 양도 하므로서 現 一山洞 170番地(基督病院 北쪽에 있는 赤벽돌 洋屋집)에 앤더슨 부처가 1912년에 부임하고 2層洋屋을 짓고 住宅兼 病院으로 使用하다가 本格的으로는 1913년 11월 15일(다음해에 1次 世界大戰이 일어 났음)에 一山洞 116번지 現 朴 忠模 宅 附近에 17病床의 設備 現代病院다운 病院을 開設한 것이 原州地域 洋醫院의 효시가 아닌가 생각된다. 病院 이름은 建築基金의 一部를 喜捨한 스위든 監理教의 이름을 따서 “스위든 감리교 병원”이라 하였으며 앤더슨 自身の 記錄에 依하면 總 工事費 6,600弗이 들었으며 開設 첫해 患者總數는 1,029名 이었고 이들이 낸 治療費 總額은 44弗로서 全體의 約 32%를 患者 自身들이 負擔했다고 한다. 앤더슨은 1921년까지 7年間 계속 運營하다가 美國으로 歸國, 다시 1925年 2月 23日 亦是 美國 監理教 宣教師인 맥마니스 (Dr. S. E. Mcmanis)가 와서 1933년까지 8年間 醫療事業을 하다가 1933年 現 三山醫院 朴 忠模에게 660원을 받고 病院을 賣渡하게 되니 韓國人으로는 最初로 原州에서 醫療事業을 한 사람으로 朴 忠模를 꼽겠다. 그러나 朴 忠模가 原州에서 醫療事業을 始作한 것은 1931年 평원동(現 금성 호텔 부근)에서 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宣教師 맥마니스의 뒤를 이어 一山洞 監理教病院으로 옮기었고 그 다음해 평원동에 대림의원이 생겼고 또 그 다음해인 1935년에 洪 淳哲이 原州에 와서 原城醫院을 짓고 醫療事業을 하게 됨으로서 原州에 本格的인 洋醫에 依한 醫療事業이 始作되었다고 할수 있겠다. 1942年 1月 道立 原州病院이 開設됐고 1945年 光復後 6.25動亂을 거쳐 原州에는 많은 醫院이 開設되었으며 1959年 原州 聯合基督病院이, 1970年 聖바로로 병원이 開設되어 現在 原州에는 病院이 3個所, 醫院이 20個所, 치과의원 6個所, 한의원 9個所, 조산원 3個所와 保健所가 있으며 原城郡은 保健所와 醫院이 1個所로 人口 約 9萬名에 醫師는 公醫 4名뿐으로 原城郡民의 醫療는 大部分이 原州市 病醫院에 依存하고 있는 實情이다. 한편 病醫院에 比해 醫師數를 보면 모두 71名이나 이 외에 原州一帶 駐屯部隊의 軍醫官數까지 합치면 100名이 훨씬 넘는 數에 達하리라고 본다. 參考로 原州市民과 醫師의 比를 보면 人口 128,037名中 醫師 1人當 1,524名 꼴로서 서울 다음가는 數字라 하겠다. 이것을 外國과 比較하여 보면 所謂 先進國들은 大개 醫師 1人當 人口 1,000名 以內로 美國이 670名, 캐나다 820名, 西獨 650名, 日本 930名 등으

第3編 社 會

로 나타나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醫師 1人當 2,241名뿐이며 서울은 1,157名으로 가장 적고 忠北이 9,490名으로 가장 많으며 江原道는 7,208名으로 나타나 있다. 한편 原州周圍의 原城郡은 醫師 1人當 1,940名으로 나타나 이를 原州, 原城을 합쳐보면 醫師 1人當 2,720名이라는 數字가 나오는데 그래도 前述한 忠北이나 全北地域보다는 월등히 그 比가 良好한 편이다. 다시 말해서 이 地域住民들은 다른 地域에 比하여 現代醫學의 惠澤을 많이 받고 있는 셈이라 하겠다. 또한 의료품 現況을 보면 原州市가 藥局 36個所, 藥種商이 36個所, 賣藥請業者가 14個所, 漢藥房이 22個所등 都合 78個所로서 病院과 더불어 이 地域民의 保健向上에 큰 役割을 하고 있으며 原城郡은 藥局 1個所, 藥房 16個所, 漢藥房 10個所등 都合 29個所가 있다. 이 地域의 의료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이 통계는 74년도 통계이다)

(1) 의료 기구 현황

(1974年 末現在)

구 분 시 · 군	업 태 별 분 포				업 태 별 분 포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조산원	제 조 업 자				약국	약 중 상		약 업 판매업	
					의료품	의료 용기	위생 자료	화장품		양약	한약		
원 주 시	69	6	9	3	1	1	—	—	36	14	22	5	
원 성 군	3	—	1	1	—	—	—	—	1	16	10	2	

第2節 社 會 福 祉 事 業

(1) 社會福祉事業과 그 發達

오늘날 社會團體는 그 性格과 活動分野가 매우 광범하고 다양하다. 그 動因과 組織의 形態, 당초 結成目的과 活動樣相등이 複雜微妙해가고 있다. 社會團體는 그 社會 그 時代相을 反映한다고 한다. 社會體制와 時代의 潮流思潮에 매우 敏感하고 制約을 받지 않을수 없으며 또한 經濟文化의 한 尺度로 나타나기도 한다. 組織面에서 보면 國際의인 組織이 있는가 하면, 全國單位 組織의 支派가 있고 小地域 또는 特殊層을 대상으로 하는 自然發生的인 親睦클럽까지도 이에 包含시키지 않을 수 없다. 社會의 分化現象에 따라 社會團體의 概念조차 包括的인 意味로 變質되어 가고 있다. 순수한 친목을 취지로 발족된 모임이 政治的 혹은 社會的 重要 이슈가 등장할 때 그 主導團體로서의 機能을 떠맡게 되는 일이 흔히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常設機構를 가진 團體와 任意團體로서 부정기 모임의 클럽까지도 그 活動內容에 있어서는 社會運動의 범주안에 들어가게 된다. 純粹한 親睦團體들도 社會奉仕活動을 하며 때로는 社會的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기도 한다. 이 地方 社會團體는 社會奉仕를 표방하는 團體와 特殊職業人이나 宗教人을 中心으로 한 親睦과 社會 奉仕團體 그리고 女性團體 靑少年善導團體등으로 大別하며 각종 民間團體가 있다. 이들 社會團體는 60年代 後半부터 急激히 증가했다. 8.15解放 직후에도 各種 任意團體가 雨後竹筍처럼 生成되었으나 그 대부분이 政治團體의 방계조직으로서의 구실을 했을뿐 순수성을 지니지 못했다. 그러다가 6.25事變이 일어나면서 各種團體는 자연 정비되고 50年代 前半期까지 社會團體나 社會運動이란 극히 적은 一部分에 局限되었다. 이 時期에는 難民救護와 戰爭孤兒收容등 오늘날의 厚生問題가 社會運動의 性格을 띠었다. 54年度까지만 해도 原州에는 臨時 道廳이 설치되고 35,668名의 避難民이 이곳 原州 9個 收容所에 수용되어 있었으며 전쟁고 아들을 위한 育兒院, 保育院, 無依託老人을 爲한 養老院등 厚生施設이 설치되고 그 收容人員이 수백명에 達했던 만큼 難民救護는 社會的으로 가장 큰 問題였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社會的인 구호운동이 各界各

層에서 벌어졌다. 물론 救護糧穀等 行政의인 支援이 컸으나 그것 만으로는 民族的 受難을 이겨 낼 수 없었다. 스스로가 難民이면서 다른 難民을 돕는 이와, 團體가 나오고 宗教 및 外援團體를 통한 救護事業이 活發했으며 戰爭未亡人 유엔兵士를 대상으로 한 倫落女性 善導문제 등 社會의 큰 試練속에서 當面한 民生과 戰後復舊 秩序恢復을 위한 노력이 社會運動의 主流를 이루었다. 따라서 오늘날과 같은 安定된 社會속에서 多樣한 社會運動은 期待조차 할수 없었다. 50年代 後半期부터 赤十字社 婦女活動과 靑少年 善導運動이 軌道에 올라 서서히 擴大되고 社會 各種 클럽이 派生되었다. 60年代 초반까지 孤兒入養이나 一般家庭에의 委託, 浮浪兒단속 및 善導, 未亡人 問題, 要保護對象 女性(倫落女性)問題 등이 사회 문제였다. 64年 5月 再建國民運動이 純粹 民間機構로 개편되면서 生活改善과 마을金庫, 婦女金庫運動, 自治災害復舊團組織, 鄉土再建事業, 姉妹部落結緣, 災害救護事業등을 主導하게 됐다. 그후 농번기 託兒사업이 始作되었으며 現在에는 綜合的인 社會改革 啓蒙團體인 國民運動을 비롯하여 女性團體인 어머니會, 婦人會, 女性貯蓄會, YWCA, 赤十字婦女봉사대, 主婦教室등과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 협의하는 女性團體協議會등이 있고 靑少年 團體로는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BBS연맹, 청소년 적십자(RCY), 어린이 Y등이 있다. 이밖에 社會團體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YMCA, 靑年會議所(JC), 로타리클럽, 라이온스클럽, 와이즈멘스클럽, P. T. P 새人間聯盟과 이들의 협의체인 民間團體協議會가 있으며 소규모 친목회등이 조직되어 있다. 한편 厚生施設을 보면 6.25動亂 이후 戰災孤兒 收容을 시발점으로 많은 施設이 갖추어졌으나 점차 정리되어 73年末에는 10個所로 줄어 들었다. 收復 直後인 1954年度 이地方 厚生施設은 避難民收容所가 9個所로 原州第1收容所, 原州第2收容所, 瑞谷收容所, 興業第1收容所, 興業第2收容所, 貴來收容所, 富論收容所, 文幕收容所, 地正收容所가 있었으며 育兒院으로는 聖愛育兒院, 心鄉育兒院, 慈信保育院, 原州保育院, 鶴林院 등 5個所로 聖愛育兒院이 220名을 收容하는 규모가 가장 컸다. 此外 養老院으로는 永信養老院이 있었으며 江原道立 原州母子院등이 45년부터 10年사이에 세워진 施設들이다. 그러나 73年末 現況을 보면 育兒院이 5個所, 養老院이 1個所, 敬老堂 3個所로 되어 있으며 道內에서 唯一한 癩病患者들의 集團收容所가 3個所나 있어 患者들의 自活의 터전을 마련해 주고 있다. 이상과 같은 社會團體 및 厚生施設을 보면 다음과 같다.

(2) 厚生시설 수용자 현황

구분 시설명	사업종류	수용인원			직원 수			시설 현황					년간 입퇴 소자					
		계	남	녀	계	남	여	수용인원	수용실수	수용실면적	수용실수	입 소 자			퇴 소 자			
												계	남	여	계	남	여	
성애원	육아사업	110	40	70	9	1	8	120	15	277 ²	3	29	22	7	16	9	7	
자신보육원	"	107	46	61	6	3	3	100	13	271 ¹⁹	3	33	18	15	10	10	-	
신혜원	"	87	40	47	9	3	6	100	13	175	2	28	11	17	32	20	12	
심향육아원	"	116	58	58	9	3	6	130	21	251 ³	3	5	4	1	22	14	8	
상애원	양노사업	73	44	29	3	2	1	80	16	277	3	40	23	17	28	16	12	

(3) 社會福祉事業機關

(가) 聖愛育兒園

聖愛育兒園은 原州市 觀雪洞 1389번지에 위치하고 1944年 11月 1日 元 鴻默에 依해서 11명의 孤兒를 收容하고 原州育兒園이라 칭하였다가 1946年 7月 1日 原州聖愛園으로 認可를 받고 1947年 4月 1日 美國人 설박하씨로부터 지원을 받아 園舍를 신축 하였다가 그후 6.25 사변으로 잠시 慶尙北道 善山으로 옮겼으며 1952年 11月 6日 善山으로 부터 原州로 다시 옮기므로 현재에

第3編 社 會

이르고 있다. 매년 世界 基督教宣明會 主催 聖經暗誦大會에 出戰하여 최우수상을 획득하고 있는 이 育兒園은 남자 34명 여자 70명等 總 104명이며 1,000坪의 垆地에 建坪은 175坪이고 재단으로 桑田 9,037坪, 林野 10,004坪, 畚 931坪 田 1,115坪으로 果樹園地를 造成하여 自治運營하고 있다. 이 孤兒園은 江原道內에서 第1번저 始作하였고 이제까지 約 8백명이 社會로 進出하였다. 이 孤兒園의 역대 園長은 初代 元 鴻默, 2代 崔 仁淑이다.

(나) 慈信保育院

慈信保育院은 1951年 7月 27日 江原道 社會課長으로 부터 戰災孤兒收容所를 引受하여 戰災孤兒 270名을 收容하였다. 1952年 7月 1日 慶尙北道 善山에서 原州聖愛園 收復으로 建物및 收容兒童 全員을 引受받고 同年 8月 17日 原州市 台庄洞에 慈信保育院을 設立하였다. 1953年 3月 31日 江原道知事로 부터 厚生施設 認可를 받고 1956年 12月 13日 社會部長官으로 부터 財團法人 慈信保育園으로 認可를 받아 現在에 이르고 있으며, 그후 1964年 3月 2日 江原道知事로 부터 兒童福祉法에 依한 兒童福祉 施設을 認可받았다. 現在 院兒數는 男子 40名과 女子 68名의 院兒와 6名의 教育員이 있으며 設立以後의 사항을 보면 就職 57名, 入學 23名, 軍入隊 37名, 父母引導 116名, 緣故引導 141名, 結婚 93名, 其他 43名, 總 510名의 退院兒童이 있다. 院訓으로는 생각하는 어린이, 기도하는 어린이, 열심있는 어린이로 삼고 教育하고 있다. 歷代 院長은 金 基鉉이다.

(다) 原州信愛園

原州信愛園은 原州市 台庄 2洞 395번지에 위치하고 1952年 4月 당시 陸軍 第 519憲兵大隊 軍牧으로 있던 앤더슨에 의해서 放浪兒의 집으로 설립되었다가 1954年 8月 22日 李 辛鶴에게 인계되었고 1967年 10月 1日 보사부로 부터 재단법인 信愛園으로 인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전쟁고아 10名이 수용되면서 부터 설립된 信愛園의 원아수는 남자 34名, 여자 45名이고 종사원은 6名이다. 垆地 637坪에 建坪 166坪이고 사회진출 원아들 현황을 보면 상업, 軍將校, 교사, 양재, 이용, 회사원, 결혼, 직업보도 등의 1線에서 희망찬 내일을 살고 있으며 李 辛鶴원장이 재임하고 있다.

(라) 心鄉育兒院

心鄉育兒院은 原州市 茂實洞 887번지에 위치하고 1953年 7月 21日 李 在春에 의해 전쟁고아 240名이 수용되면서 心鄉育兒院으로 건립된 후 1955年 5月 7日 위원 민간단체인 세계기독교 宣明會에 가입하고 1956年 4月 11日 직영 心鄉製紙工業社를 건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도하며 씩씩하고 명랑한 인격도야에 힘쓰며 애정결핍에서 오는 모든 육구불만을 사랑으로서 일상생활에 명랑화를 기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이 육아원은 4세에서 17세까지 남자 51名 여자 60名의 아동이 있으며 3,000坪의 垆地에 논이 6,220坪, 밭이 1,236坪, 임야 6경4란6묘보, 운동장이 500坪이다. 원아들에게 급식할 식량을 자급자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이 육아원은 원생으로 사회에 진출한 현황을 보면 공무원, 군장교, 간호원, 회사원, 운전수, 재단사, 이발사 등이 있으며 院長으로는 현재 이 재춘이 재임하고 있다.

(마) 相愛園

相愛園은 原州市 丹邱洞 92番地에 위치하고 1952年 11月 18日 金 賢植과 뜻을 같이하는 몇사람이 모여 開設하고 1955年 6月 1日 현 위치로 移轉하였으며 1958年 2月 10日 保健社會部長官으로 부터 財團法人 相愛園으로 設立 認可를 받아 오늘에 이르고 있다. 無依無託한 老人들로서 男子 65歲以上 女子 55歲以上의 老人들을 收容하고 있으며 相愛園은 養老人數 男子 39명, 女子 30名이 있으며 1,200坪의 垆地에 建坪은 330坪이고, 20個의 방이 있다. 社會福祉法人으로서 이 고장에 唯一하게 存在하는 養老院의 從事員은 6名이며 金 賢植 院長이 在任하고 있다.

(바) 大韓老人會 原州市支會

大韓老人會 原州市支會는 原州市 平原洞에 위치하고 1965年 7月 9日 당시에 原州市長으로 있던 韓 東錫에 의해서 설립되었다가 1974年 9月 30日 사단법인체로 認可를 받고, 現 名稱으로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時調部, 漢詩部, 文化討論部로 구성되어 있는 이 會는 70名의 會員이 있으며 건평은 18坪이고 특히 야간을 이용하여 國民學校 아동으로 부터 大學生에 이르는 청소년들에게 禮儀, 道德, 教養 등을 가르치고 있다. 講師는 李 永洙老人이고 學生數는 150名에 달하고 있다. 역대 책임자로는 初代 咸 奭鎭, 2代 安 俊成, 3代 鄭 昌周이다.

(사) 台庄 敬老堂

한국노인회 태장분회는 原州市 台庄 2洞에 위치하고 1969年 9月 17日 몇몇 회원들이 모여 설립하였다. 台庄 2洞, 가현동, 牛山洞 1帶와 長陽里 1部 老人들이 모여 장기, 바둑, 시조로 消日하고 있으며 회원은 75名이고 역대회장은 初代 權 鳳洙, 2代 洪 大珮, 3代도 洪 大珮이 유임하고 있다.

(아) 南部 敬老堂

남부경노당은 原州市 開運洞 233—3번지에 위치하고 1971年 10月 25日 원 세옥, 이 일섭의 100餘名이 협력하여 설립하였다. 건평 40坪에 80名의 회원이 있는 이 경노당은 원 세옥을 회장으로 선출하고 개운동 일대 새마을사업에 앞장서고 있으며 하천에서 돌치우기, 마을앞 골목길 쓸기, 마을 도랑 치기 운동을 벌여 회원 모두가 출선 수범하고 있다.

(자) 丹邱 老人會

韓國老人會 丹邱分會는 原州市 丹邱洞에 위치하고 1972年 9月 20日 홍 윤식의 垆地를 회사받아 당시 第 1軍需支援 司令官인 윤 봉주少將의 지원으로 현전물을 신축하고 1972年 3月 15日 경노회 추진위원회를 조직하여 위원장에 최영환이 선출되었다. 1973年 9月 30日 각 기관장 및 유지들로 부터 협조를 얻어 부록담 진기시설등 부속시설을 완결하고 1975年 3月 15日 大韓老人會 丹邱分會로 개편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原州地區 敬老堂中 제일 규모가 큰 이 경노당의 垆地面積은 53坪 건평 20坪으로 회원은 32名이고 최영환이 現 會長으로 있다.

(차) 敬天園

敬天園은 原城郡 板富面 瑞谷里에 位置하며 1958年 癩病患者들이 集團部落을 形成하고 組合을 設立하므로써 創設되었다. 癩病을 治療하며 自活을 하고자 努力하고 있는 敬天園組合員은 總 180世帶에 640名의 組合員이 있으며 210棟의 建物과 4,898坪의 논과 밭 116,923坪의 林野를 所有하고 있는 한편 育牛園地를 造成하여 3萬餘首의 닭과 100餘마리의 돼지, 토끼등을 길러 一般 住民들 못지않게 生活하고 있다. 協同心이 強해 協同組合 運營이 어느곳 보다도 잘 되고 있으며 患者들 大部分이 病은 完治되었으나 社會大衆을 避해 이곳에 繼續 머무르면서 農業보다는 市場性이 높은 畜産에 힘쓰고 있다.

(카) 星樂園

星樂園은 原城郡 好楮面 萬鍾里에 位置하고 있으며 1955年 創設 以來 167世帶에 320名의 癩病患者들이 自活하고 있는 곳이다. 이곳에는 123棟의 建物과 820坪의 논, 1,880坪의 밭이 있고 44,320坪의 林野가 있으며 自活하는 業種으로는 市場性이 높은 畜産을 主業으로 하고 있는데 家畜으로는 닭 20,000首, 돼지 150餘頭, 양, 토끼 등이 있어 이를 收入源으로 協同自活의 터전을 닦고 있다. 癩病患者들이 이곳 原州로 오게된 것은 1955年에 政府施策으로 한 것이며 따라서 癩患者 臨時 集團收容所로 誘致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星樂園은 一般患者들의 收容所로 指定되었다.

(타) 大明園

大明園은 原城郡 好塔面 萬鍾里에 位置하며 1955年 創設以來 110世帶에 180名이 自活하고 있다. 이곳이 敬天園과 星樂園의 두 곳과 다른 점은 全部 軍人癩患者만을 收容하고 있는 것이 特色인데 大明園 患者들은 除隊後에도 계속 머무르고 있으며 이곳도 亦是 畜産을 하여 自活하고 있다. 家畜을 主業으로 2萬餘首의 닭과 150餘頭의 돼지를 비롯하여 소, 양, 토끼 등을 飼育하고 있다.

(하) 大韓赤十字 原州奉仕館

本 奉仕館은 原州市 鶴城 2洞 206番地-6에 위치하고 있으며 1967年 12月 赤十字 保育院으로 認可를 받아 극빈가정의 夫婦가 就業을 하는 子女들을 돌보는 일을 맡아 왔다. 1974年 4月 1日 부로 大韓赤十字 原州奉仕館으로 改編되어 現在 赤十字 婦女奉仕隊, 青年奉仕隊, 老人福祉會, 諮問委員會, RCK, 原州詩友會 등의 모임을 가지고 있으며 갑작스런 災難에 依한 응급구호, 軍경위문, 불우청소년 돕기 등과 廳舍를 이용하여 原州管内에 65歲 이상인 男子老人들을 대상으로 敬老事業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결혼식장을 무료로 제공하는 등 社會全般의 共益을 위한 많은 奉仕活動을 전개하고 있으며 역대 대표자는 初代 李 基男 2代 李 啓潤이 就任하고 있다.

(가) 봉산 1동 어린이놀이터

봉산 1동 어린이 놀이터는 原州市 鳳山 1洞 26番地에 위치하며 1968年 原州市에서 設립하였다. 鳳山洞, 台庄洞, 平原洞 等地의 어린이에게 놀이터가 되고 있는 이 놀이터의 면적은 250坪이며 1日 平均 500~600명의 어린이가 이용하고 있다. 시설로는 그네가 6개, 시소가 4개, 미끄럼틀이 1개, 팽팽이 1개가 있으며 오 태식이 관리하고 있다. 원주로서는 단하나 밖에 없는 어린이놀이터이다.

第3節 醫 療 機 關

(1) 原州 道立病院

原州 道立病院은 原州市 園洞 220번지에 위치하고 1942年 1月 原州市 開運洞에서 設立되었다가 6. 25動亂으로 燒失되었으며 1951年 4月 2日 收復과 同時에 韓國病院이란 名稱으로 戰時醫療任務를 遂行하여 오다가 同年 8月 18日 서울 세무란스病院이 收復途中 臨時滯留되어 一時 移讓되었었으며 1952年 1月 4日 CACK의 支援으로 原州市 鳳山洞에 假廳舍를 建立하고 救護病院으로 개발중이었다가 1960年 1月 5日 現 場所에 廳舍를 新築移轉하여 現在에 이르고 있다. 道民의 保健衛生에 必要한 醫療施設을 提供하고 있는 이 病院은 질병의 진료, 질병에 따른 임상학 연구, 其他 疾病의 診療에 必要한 일들을 맡고 있으며 庶務課, 內科, 外科, 産婦人科, 藥製科, 病理檢査室, 放射線室을 두어 原州市, 原城郡, 橫城郡의 極貧對象者들을 無料 診療하고 있다. 새마을 巡廻診療를 年 24回이상 實施하고 있는 이 病院의 現在 院長으로는 이 성구가 在任하고 있다.

(2) 原州 聯合基督病院

原州 聯合基督病院은 原州市 一山洞 170番地에 位置하고 1912年 美國人 宣敎師 앤더슨에 依해서 現 位置에 2層洋屋을 建立 住宅兼 病院으로 使用한 것이 始初이며 原州 聯合基督病院으로 開設한 것은 1957年 11月 15日 建物を 起工하고 1959年 10月 3日 原州 聯合基督病院 奉獻式을 舉行하여 同年 11月 7日 개원식을 거행하고 同年 11月 9日 開院하여 患者治療를 實施하므로써 오늘에 이르고 있다. 宗教, 國籍, 階級, 政黨, 治療費 담당능력의 差別없이 의료를 要하는 患者에게는 基督敎의인 사랑과 慰安의 精神으로 治療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이 病院은 耳鼻咽喉科, 眼科, 小兒科, 外科, 整形外科, 産婦人科, 麻醉科, 齒科, 內科, 臨床病理室, 放射線科, 物理治療室, 藥局, 社會事業科, 總務課, 看護員科를 두어 全國을 對象으로 重患者를 治療하고 있다. 防疫科 治療를 위한 科學的 研究를 장려 實施하고 保健 治療에 關한 啓蒙運動도 아울러 하고있으며 이 고장의 保健

向上에 寄與하고 있는 이 病院의 歷代 病院長은 初代 文昌模博士, 2代 金永宇博士, 3代 金世煥博士이며 創立 理事로는 한 영선, 김 흠광, 김 기호, 박 석남, Drmarray Drewiss, Miss. Bourns, Drobb Miss. Maw이다.

(3) 聖바로病院 原州分院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위하여 또 病든 사람을 위하여 정성을 다하고 알뜰한 奉仕를 目的으로 한다는 이 病院이 原州市 開運洞 255-8番地에 2層鐵筋 콘크리트 建物로 자리잡고 있다. 天主教 原州敎區長 池 學淳主敎의 要講으로 貧困하고 醫療施設이 미비한 原州地區 保健向上을 위해 가톨릭醫大附屬 聖바로病院의 分院으로서 財團法人 天主教 善罷修道院 維持財團에 依해 1970年 10月 7日 開設된 聖바로病院 原州分院은 흥 순자修女를 院長으로 他國이나 他機關의 援助없이 不遇하고 貧困한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나누어 주고자 하는 살트르 성바로修女會 目的에 따라 運營되며 開院 이래 外來 診療所에서는 極貧者를 完全無料로 診療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每週 水曜日엔 病院診療를 철체하고 山間僻地 無醫村을 찾아 巡廻診療를 하는 한편 서로 奉仕하고 協助하는 精神을 길러주는 啓蒙도 아울러 하고 있다. 現在 이 病院은 入院室이 없으나 重患者 또는 手術을 要하는 患者에게는 市內 他病院에 依賴하고 原州地方에서 診療하기 어려운 患者는 서울에 있는 성바로病院으로 移送하여 完治를 圖謀하고 있으며 院長에서 醫師, 看護員, 藥師, X-線技士, 臨床病理技士, 庶務擔當에 이르기 까지 살트르 성바로회 修女들로 構成되어 있는 것이 特色이며 小兒科와 內科를 두고 있다. 본 病院은 앞으로 계속 無醫村을 巡廻하며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하여 정성과 알뜰한 奉仕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4) 醫 院

(1975. 5. 1 현재)

대 동 소 아 과	박달옥	일산동	60년 10월 13일	서 울 의 원	김이승	중앙동	69년
문 이 비 인 후 과	문창모	학성동	64년 1월 21일	중 앙 의 원	이관영	일산동	57년 10월 1일
정 산 부 인 과	정종진	중앙동	72년 6월 27일	성 신 의 원	조연순	개운동	70년 2월 27일
청 산 의 원	고실녀	중앙동	53년 2월 20일	김 내 과	김학규	중앙동	60년 4월 30일
인 화 의 원	호문영	일산동	64년 5월 1일	자 해 의 원	박진희	중앙동	57년 7월 1일
동 산 의 과	강형운	중앙동	58년	삼 성 의 원	박종만	학성동	61년 7월 9일
이피부비뇨기과	이수영	일산동	72년 4월 17일	진 내 과	진철현	중앙동	74년 4월
박 의 과	박만수	중앙동	63년 8월 17일	안 과	박은호	일산동	75년 1월 1일
성 모 안 과	이복순	학성동		나 의 원	박충모	중앙동	59년 8월 14일
신 생 내 과	전정훈	중앙동	58년 8월 22일				

(5) 藥 局

(1975. 5. 1 현재)

동 서 약 국	이상준	명륜동	49년 4월 8일	지성당 약 국	이혜경	봉산동	73년 5월 22일
영 진 "	이태성	학성동	64년 9월 7일	부 흥	이호윤	중앙동	66년 9월 21일
도 미 "	강호석	명륜동	64년 1월 27일	풍 년	박종탁	일산동	66년 3월 27일
삼 성 "	이윤재	학성동	74년 3월 11일	원 일	유승호	학성동	70년 5월 25일
이 화 "	이현찬	중앙동	64년 5월 19일	김	김재욱	봉산동	73년 9월 29일
원 성 "	최익형	중앙동	62년 12월 13일	후 생	신정섭	태장동	64년 9월 1일
현 대 "	윤세강	학성동	67년 1월 11일	동 일	우중병	평원동	63년 9월 10일
정 원 "	이정원	중앙동	71년 12월 6일	상 도	이병현	학성동	70년 10월 15일
우 리 "	이원걸	학성동	64년 8월 25일	제 일	라기정	중앙동	67년 2월 21일
모 범 "	이창열	학성동	69년 7월 15일	혜 성	이길원	학성동	73년 11월 21일
동 신 "	손숙자	중앙동	72년 2월 2일	하 나	이석태	중앙동	69년 8월 18일

第3編 社 會

정 일 약 국	김용수	중앙동	67년 8월 17일	원 창 약 국	장인수	일산동	73년 10월 29일
계중당 "	백원기	일산동	73년 5월 22일	가 정 "	정인자	명륜동	73년 12월 3일
부 부 "	변충구	개운동	73년 6월 13일	중 앙 "	강용석	중앙동	74년 6월 10일
동 창 "	이창선	일산동	72년 11월 29일	대 영 "	정학래	태장동	74년 6월 18일
조 "	조정행	태장동	71년 4월 21일	창 성 "	조중래	중앙동	74년 6월 28일
쌍다리 "	권태민	봉산동	72년 5월 16일	광 신 "	박만자	우산동	74년 8월 12일
고바우 "	강경미	개운동	72년 8월 7일	강 "	강영악	인 동	74년 9월 12일
성 모 "	정진원	우산동	73년 8월 20일	성 보 "	우동진	인 동	74년 11월 1일
아 는 "	송광호	태장동	73년 6월 14일	광신당 "	장인현	우산동	74년 11월 9일
보 당 "	이동재	관철동	72년 4월 17일	문 "	문재영	원 동	75년 1월 11일

(6) 齒科醫院 覽

서울 치과 의원	박준원	중앙동		나 치 과 의 원	나호용	중앙동	64년 8월 25일
고려 "	심성욱	중앙동		남 "	남형우	중앙동	71년 6월 18일
경북 "	송현중	중앙동		현대 "	박희세	중앙동	72년 9월 24일

(7) 漢醫院 覽

계 한 의 원	제광수	원 동	57년 7월 1일	성 신 의 원	이만주	학성동	69년 5월 15일
농계 "	김운기	원 동	57년 12월 16일	한 일 "	한명우	일산동	69년 12월 12일
서울 "	안주성	평원동	68년 6월 13일	안 흥 "	황현구	가현동	71년 10월 18일
중앙 "	이병윤	학성동	68년 6월 5일	대 동 "	이용식	개운동	72년 6월 5일

(8) 助産院 一覽

장 조 산 소	장춘영	중앙동	56년 6월 24일	김 조 산 소	김창숙	인 동	57년 12월 30일
임 "	임금순	봉산동	52년 10월 1일				

(9) 시술소일람

한일침술시술소	한중현	학성동	65년 3월 11일	서울집골시술소	홍중근	원 동	74년 9월 4일
중앙안마원	이명영	일산동	73년 11월 7일				

(10) 藥房 覽

최 산해	최진구	중앙동	59년 4월 8일	덕 성 약 방	박봉기	우산동	72년 4월 17일
홍 지성	손희재	명륜동	59년 4월 8일	신 생 "	박국자	관철동	72년 4월 17일
고 심월	김홍기	단구동	62년 8월 20일	평 안 "	이희식	중앙동	59년 4월 8일
	심효식	중앙동	59년 4월 8일	화 성 "	강기섭	태장동	70년 11월 19일
	심의인	중앙동	59년 4월 8일	천혜당 "	김경희	봉산동	59년 4월 8일
	이태운	중앙동	59년 4월 8일	성 신 "	김은순	가현동	72년 4월 17일
	손광출	일산동	72년 1월 11일				

(11) 漢藥房 覽

	손의재	명륜동	59년 4월 8일	대 화 한약방	염태호	인 동	62년 12월 5일
	심경래	중앙동	61년 4월 8일	공 주 "	박상덕	중앙동	59년 5월 5일
	김직경	중앙동	61년 6월 15일	삼화당 "	정상철	원 동	67년 5월 15일
	김석기	일산동	63년 8월 21일	신홍당 "	우상재	명륜동	63년 1월 15일
	황호좌	태장동	59년 4월 8일	불 로 "	이규재	중앙동	59년 4월 8일

순흥당	한의원	안영철	중앙동	59년 4월 8일	재생당	한의원	전이봉	봉산동	59년 9월 28일
이화당	"	안희진	중앙동	74년	장수당	"	엄재현	관철동	72년 4월 17일
효성당	"	정효섭	개운동	72년 10월 14일	익수당	한약방	우기준	가현동	72년 4월 17일
수보당	"	서찬성	학성동	67년 5월 15일	대 동	"	이태연	가현동	72년 4월 17일
장춘당	"	배인환	평원동	72년 5월 13일	광 동	"	안경호	단계동	72년 4월 17일
동화당	"	이병진	학성동	62년 10월 23일					

(12) 제약회사 및 원주지점 일람

동인당약업(주)	최진구	중앙동	66년 2월 14일	강성 약품 상사	강기섭	중앙동	74년 6월 12일
동아제약원주지점	김충환	학성동	72년 8월 29일	대화건제약업사	염기원	인 동	71년 7월 29일
동 화 약 품 원 주 영 업 소	김흥기	평원동	74년 7월 11일	삼 성 제 약 소	김영철	중앙동	74년 7월 31일

◎ 의로기 상회

합성의로기구상회 강순철 일산동 67년 8월 29일

第4節 水道 및 電氣

(1) 水 道

上水道 施設은 市民文化의 尺度인 同時에 保健, 衛生, 防火 및 産業面에 있어서 重要不可缺의 要素이다. 原州의 上水道는 1957年度에 當時 給水區域內 人口 25,000名 이었던바 30,000名을 計劃給水人口로 하여 1日 4,000T(확장공사로 現在는 10,000T)을 生産할 수 있는 施設로 市管內 鳳山川에 集水井 一基와 集水埋渠를 施設하여 汙流水를 水源으로 하고 水源池 一隅에 淨水場을 設置 緩速濾過池 250m³ 3池를 施設, 여기에서 淨水하여 送水管 口徑 250mm 延長 1,350m를 附設하고 40馬力의 송수기 3대, 15馬力의 취수기 2대를 利用 Jagal 펌프로 市內 明倫洞 180m 高地에 配水池를 設置 이곳에 揚水貯溜하고 配水池에서 850m³(확장공사로 現在는 2,350m³) 1池로 配水幹線을 통해서 自然流下式으로 市中에 配水하는 方法으로 되어 있으며, 그후 牛山洞에 第2의 配水池를 設置하여 먼두리 住民의 食水難을 해결하였다. 現在 給水實態를 보면 1日 平均 10,000m³를 生産하여 給水人口 65,000名에게 1日 平均 7,000m³를 給水하고 있으나 急激한 都市의 發展과 人口의 膨脹으로 모든 設備를 增設하여야 한다. 74年度 現在의 施設狀況은 다음과 같다.

(2) 上水道 施設 現況

구분	수 원 지 규 모				배 수 지		펌 푸 장			
	시설	정수장	여과지	정수장	지타시설	수	용적	용도	마력	대수
내역	수량	3井	緩速	2池	변전시설	2池	850m ³ ×1 1,500m ³ ×1	送水 펌	345	9台
	규격	1.0m 7.0m 1.2m	250m ³ ×3 200m ³ ×4	4,000m ³ ×1 6,000m ³ ×1	3,300V 2個所			取 水 펌	80	7台
	방법	복류수 취	완속		용량 300KW×1 150KW×1			기 뢰 진	15	4台
계		250m ³ ×3 200m ³ ×4	2池	10,000m ³	450KW	2池	2,350m ³		440	20台

(3) 上水道管 施設 現況

名 稱	管 徑	延 長	名 稱	管 徑	延 長
配水管	250m/m	21,450m	給水管	13m/m	57,207m
"	200	2,850	"	20	18,987
"	150	6,175	"	25	8,740
"	100	2,300	"	40	6,079
"	75	4,398	"	50	5,078
"	50	1,300	"	75	265
送水管	250	1,350			
"	300	1,350			

(4) 原州水源池

원주수원지는 原州市 開運洞 27번지에 위치하며 1954年 7月 21日 生産量 4,000톤계획으로 給水人員 30,000명 규모의 수원지를 착공하여 1957年 10月 1日 준공하였다. 1968年 10月 1日 第1次 확장공사에 착수 이듬해인 1969年 10月 15日 준공하여 2,000톤을 더 증산하게 되었으며 1971年 10月 1日 2次 확장공사로 4,000톤을 증산하게 됨으로서 현재는 10,000톤의 식수를 原州市民에게 給水하고 있으며 原州市 水道課에서 관리하고 있다.

(5) 原州排水池

原州排水池는 原州市 明倫洞 山 2번지에 위치하며 1954年 7月 21日 850톤 규모의 탱크지를 착공 1957年 10月 1日 준공하고 1971年 10月 1日 第1次 증설공사로 1,500톤 규모의 탱크지를 착공하여 1973年 2月 30日 준공하게 됨으로서 총 2,350톤의 탱크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原州市 水道課에서 관리하고 있다.

(6) 電 氣

(가) 韓電 原州營業所

韓國 電力株式會社 淸州支店 原州營業所는 原州市 中央洞 198번지에 所在하며 1932年 4月 大田 電氣株式會社 原州支店으로 發足 1937年 8月 南鮮 合同電氣株式會社 大田支店 原州出張所로 合併하고 1946年 10月 南鮮電氣株式會社 原州支店으로 개칭되었으며 1947年 10月 南鮮電氣株式會社 淸州支店으로 이속되었다. 그후 1961年 7月 韓國電力株式會社 忠北支店 原州出張所로 變更되었다가 1965年 1月 韓國電力株式會社 忠北支店 原州營業所로 昇格한 후 1970年 7月 韓國電力株式會社 淸州支店 原州營業所로 개칭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고장의 電力供給및 판매와 電化事業으로 新增設, 改補修, 農漁村 電化工事, 設計및 監督을 하고 있는 이 영업소는 營業課, 工務課에 庶務係, 販賣係, 내선계, 수금계, 공무계, 배선계, 보수제등이 있으며 洪川出張所를 비롯하여 橫城, 文幕, 甲川, 瑞石出張所가 있고 台庄駐在所가 있으며 文幕, 台庄에 變電所가 있다. 1日 수용현황을 보면 一般住宅은 119,796등에 135KW, 一般動力은 287호에 8,493KW, 産業用은 1,5623燈에 14,465KW, 街路燈은 28호에 175KW로 총 32,471호에 30,101KW의 電力이 供給되고 있으며 이곳에 從事하는 人員은 53명에 垆地는 280坪, 建坪은 96坪이다. 主要 수요처를 보면 原州電鐵, 九屯電鐵, 太陽발전, 1軍司令部, 38師團, KMAG, 한일전기 등이 있으며 역대소장은 初代 정한기, 2代 한광희, 3代 장창희, 4代 이승석, 5代 신대선, 6代 전태영, 7代 전종진, 8代 김영근, 9代 이창문, 10代 최관준, 11代 지영락, 12代 최이환이다.

(2) 原州變電所

원주변전소는 原州市 台庄 1洞 703-2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1935年 11月 南鮮合同電氣株式

會社 大田支店 原州 S/S로 66/22, 750×3, 22/3.3, 200×3으로 설립하여 1946年 10月 南鮮電氣株式會社 原州支店으로 되었다가 1947年 5月 南電 淸州支店 原州營業所 原州 S/S로 되었으며 1950年 6. 25전란으로 시설이 전파(22KV 수전)되었고 1954年 12月 MTV 22/33, 200×3, 용변하고 1956年 2月 戰災復舊 完了(66KV 수전)하였으며 1961年 6月 22/33, 500×3→ 66/3.3, 750×3, 代替하였고 1968年 8月 66/33 750×3→ 66/3.3, 1500×3, 代替하였으며 1968年 12月 66KV변전선 회선(ACSR) 7/45 증설(66kv 수전장치 井2시공)하고 1969年 5月 1日 原州營業所 산하에서 제천 S/S 관내로 편입하고 1969年 12月 16日 66/22, 750×3→ 66/22 3φ 6000×1 代替되고 1971年 9月 20日 66/3.3 1,500×3→ 66/3.3, 3φ, 6000×1 代替되었으며 1972年 2月 28日 66/229Y, 6000KVA×1, 증설하고 1973年 6月 23日 堤川變電所에서 原城變電所로 편입하여 현재에 이르며 發電所로 부터 堤川변전소를 거쳐 萬鍾의 原城변전소에서 66,000V로 수전하여 原州市內 1圓과 台庄 2洞 대화지에 第2수원지 및 橫城 洪川方面과 原城郡 文幕方面에 공급하고 있으며 예방 보수의 徹底와 事故의 근절을 기본방침으로 하여 일하고 있다. 역대 소장은 初代 李 駿鎬, 2代 金 仁涉, 3代 金 洪經, 4代 李 種學, 5代 趙 健相, 6代 洪 興燮, 7代 申 大容이다.

第2章 社會團體

第1節 鄉土團體

(1) 原州雉岳클럽

原州雉岳會는 原州市 中央洞 62番地에 所在하며 1961年 10月 1日 安炳奭을 비롯하여 地方有志 몇몇이 모임을 갖고 相互間的 親睦과 團結로서 地域社會의 福祉向上을 위하여 獻身하자는 目的 아래 發足하였다. 不遇兒童에게 獎學金을 支給하고 國威를 宣揚한 原州의 젊은이들을 도우며 養老院에서 餘生을 쓸쓸히 지내는 老人들을 慰問하는 등 各가지 地域社會 福祉向上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이 會는 現在 會員 26名이며 歷代 會長은 初代 安炳奭, 2代 朴 孝相, 3代 崔 鎮求, 4代 李 鍾穆, 5代 林 弘植, 6代 韓 永熙이다.

(2) 原州 薔薇會

원주장미회는 原州市 一山洞 基督病院內에 사무실을 두고 1966年 5月 몇사람의 장미 愛好家가 모여 金 駿亮 회장을 선출하므로써 발족되었다. 原州市花로 선정된 장미를 가꾸고 사랑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장미 기르는 재미와 방법을 연구하며 이웃간에도 알리는 한편 나아가서는 매마른 내고장 내강산을 아름다운 동산으로 만들어 모든 사람의 정서생활을 돕고 영혼 순화운동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자는 목적아래 발족한 이회는 매년 5월 내지는 10월에 장미 전시회를 실시하고 原州 장미제를 주관하며 장미 재배의 연구등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 현재 김 세환 박사를 회장으로 10餘名の 회원이 있으며 회원들이 가지고 있는 장미로는 대개 하이부릿드티(H. T.)가 약 50餘種 후로리반다(FI)가 약 60餘種 300그루 넝쿨장미 및 미니어처어 제통 등 모두 합해서 1,000여그루가 있다. 역대 회장에는 初代 金 駿亮 2代 金 世煥이다.

(3) 圓友會

原州 圓友會는 原州國民學校 제37회 동창생들로 구성되어 있다. 1970年 11月 1日 원주국민학교 제37회 졸업자 24명이 모여 창립을 본 원우회는 등글고 원만하며 끝없고 변함 없는 벗들의 모임이라는 뜻으로 원우회라고 그 명칭을 밝히고 회원 상호간에 상부상조하며 건전한 심신의 육성과 근면하고 성실한 생활의 실행과 굳건하고 안정된 경제터전의 마련으로 향토사회에 봉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974년도에는 原州市 鶴城洞 所在 義兵將 李 殷讚公의 追慕碑 주변정화와 조경사업을 한 바 있다. 會長은 辛 在林, 副會長 金 明洙, 總務 金 鍾完 등이다.

(4) 永進會

永進會는 原州市 開運洞 146—9番地에 位置하고 1974年 11月 3日 原州 雉岳早起蹴球會 原州 台庄早起蹴球會, 原州 畜産協同組合 早起蹴球會 등 3個 早起蹴球會가 統合하여 永進會로 創立을 봄으로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會員 相互間的 理解와 協力을 바탕으로 한 親睦과 健康한 體力 向上을 위하여 每日 早起蹴球을 行하며 나아가서는 地域社會發展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하는 이 會의 會員數는 39名이며 各種 早蹴大會에 出戰하여 좋은 成果를 거두는 한편 새마을奉仕 早起清掃 實施 스포츠 啓蒙等的 活動을 活潑히 展開하고 있다. 金 景洙가 現 會長으로 在任하고 있다.

(5) 大韓 佛敎曹溪宗 原州 佛敎學生會

大韓佛敎曹溪宗 原州 佛敎學生會는 原州市 鶴城洞 法雄寺內에 있으며 1972年 7月 2日 創立되었다. 大概 軍人家族 學生들로 構成되어 있어 花郎精神의인 護國思想이 透徹한 이 會의 會員數는 約 100名이고 年例行事로 慈善音樂會 및 바자회와 水災民돕기 등의 行事を 벌이고 있으며,

현재 이 임수가 會長으로 在任하고 있다.

(6) 精進會

原州市內에 居住하는 長年層으로 고장 발전에 뜻을 두고 國民總和와 自助 自立의 새마을運動을 하면서 民族中興의 時代的 使命을 다하기로 다짐을 든 張松模를 會長으로 한 22名의 會員으로 구성된 精進會는 1975年 2月 21日에 發足을 하고 13萬 原州市民이 다같이 維新總和를 이루고 國家施策을 理解하며 參與意識을 높이는데 橋梁의 役割을 하는 旗手를 만들기 爲하여 每戶當 1名式 受講하도록 鄉土練修院을 運營하기로 하였다. 75年度에 第5期에 걸쳐 262名의 男女 練修生을 輩出하였는데 長期事業으로 繼續될 것이다. 每期마다 男女間 60名을 選拔하여 原州文化院에서 1週日式 練修를 하며 原州市에서 練修生 選拔을 支援하고, 其外 들어가는 費用은 一切 精進會에서 부담하므로 地域社會에 큰 도움을 준다.

精進會 機構는 會長 張松模, 副會長 吳在鳳, 呂雲學, 總務部長 趙應淳, 財務部長 鄭上澈, 涉外部長 陳浩錫으로 구성되어 있다.

(7) 原州 YMCA

原州 YMCA는 原州市 一山洞 159番地에 位置하며 1973年 12月 3日 創立되었다. 市民을 위한 文化, 教育, 體育, 캠프, 宣敎, 레크리에이션 등의 活動을 벌이고 있는 이 原州 基督教青年會의 現在 會員은 一般會員 106名 看護 Y클럽 75名 尙志大學 Y클럽 34名 등 總 215名이다. 18歲以上 이면 性別에 關係없이 宗教 國籍等 모든 것을 超越해서 會員이 될 수 있으며 新聞配達員 慰勞會, 市民論壇, 어린이 잔치, 市民과 함께 自轉車 타기, 託兒所 運營, 主婦大學, 聖誕節 바로맞기運動, 養老院訪問等 各種活動을 活潑히 展開하고 있는 이 會의 現在 會長으로는 文昌模가 在任하고 있다.

(8) 原州 貨物車主 親睦會

原州 貨物車主 親睦會는 原州市 平原洞 33번지 原州 各方面 貨物取扱所內에 위치하고 1961年 12月 18日 옥로양조장 건물內에 事務室을 열어 설립되었다. 原州 各方面 貨物取扱所를 運營하면서 相互間의 親睦을 도모하고 事業을 하는데 서로 禮儀를 지켜 다같이 잘 살아 보자는데 뜻을 두고 모인 이 會의 會員數는 22名이고 現在 會長은 李在和가 재임하고 있다.

(9) 原州雉岳山岳會

原州山岳會는 1964年에 在原 山岳同好人 12名으로 創立하여 雉岳山 登山路 開拓에서부터 山岳運動을 展開하여 이제는 많은 會員과 同好人들로서 每年 年末에 烽火祭와 10월에 雉岳山祭를 實施하고 登山大會 競步大會등을 實施하여 體力단련과 親睦을 圖謀하고 있다. 歷代 會長에는 初代 李重淵 2代 崔鎮求 3代 黃柱益 4代 金景山 5代 黃柱益이 再任하고 있다.

(10) 原州 雉岳樹石會

樹石會는 探石과 愛石同好人들이 모여 1975年 2月 13日 原州文化院에서 創立하였다. 會員相互間의 親睦과 探石을 目的으로 하는 이會는 每週 週末이면 探石에 나간다. 1975年 8月 16日에 第1回 樹石展示會를 가진바 있다. 會員은 26名이며 會長에는 黃柱益이 在任하고 있다.

(12) 原州 낚시회

원주 낚시회는 낚시 동호인들이 모여 1963年에 發足하였고 매년 전국 낚시대회와 도단위 대회등을 개최하여 낚시터가 많은 원주에 의지 낚시터를 유치하고 있다. 회장에는 계속 김수만이 유임하고 있다.

(13) 早起山友會

이 早起山友會는 글자그대로 아침 일찍이 산에 오르는 同好人의 모임이다. 每日 아침 5時면 어김없이 登山을 하는 이會는 會員이 100名이나 된다. 매일 아침에 1時間式 登山을 하면 健康

에 좋다고 하여 熱意가 大端熱하다. 회장에는 金潤洙다. 1970년에 鄭雨澈에 依해 發足된 이 會는 수시로 競步大會도 主催한다.

第2節 社會運動團體

(1) 反共聯盟 原州 原城支部

반공연맹 원주 원성지부는 原州市 一山洞 1번지 原州 文化院內에 事務室을 가지고 있으며, 1967年 10月 15日 反共聯盟法 市, 郡支部 설치 규정에 의하여 발족하게 되었으며 27個 指導委員會에 會員이 1,086名이 있고 반공이론의 확립, 반공운동의 지도와 협조, 국민 반공사상의 선도, 반공요원의 훈련을 목적으로 하여 교원교육 좌담회, 반공행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역대 지부장은 第1代 安光勳, 2代 元寅植, 3代 金成峰으로 현재에 이르며 事務局長에는 金寅植이다.

(2) 國際勝共聯合 原州市 原城郡支部

國際勝共聯合 原州市 原城郡支部는 原州市 園洞山 5番地에 위치하며 1968年 이전까지는 승공계몽단 江原道支部 原州市 原城郡支部로 活動하다가 1968年 1月 13日 서울聯合이 발단함에 따라 발족을 하게 되었다. 分斷 조국의 勝共統一과 전세계의 共產主義의 비논리성을 논리적으로 비난하고 그에 대한 代案을 가지고 세계에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나가 勝共統一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때에 전 시 국민에게 반공교육을 하여 民族思想武裝에 최선을 다함을 목적으로 매년 各洞, 面, 자연부락, 직장, 학교, 군부대에 이르기 까지 市郡民 승공사상 교육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역대 지부장은 初代 金 觀해, 2代 鄭 善호, 3代 朴 仁열, 4代 文 권용, 5代 이 흥순이다.

(3) 再建國民運動 原城郡委員會

再建國民運動 原城郡委員會는 原州市 一山洞 1번지 原州 文化院內에 事務室을 가지고 있으며 1964年 8月 5日 再建國民運動 規定 13條에 의거하여 발족하였고 會員은 委員會에 29名과 청년회에 1,393名 부인회에 145名 金庫會員에 2,122名이 있으며 유신과업 완수, 국력 조직화, 새마을운동 영속화를 목적으로 하여 국가원수 지도이념 생활화, 정부시책 실적구현, 도민 조직화와 협동화, 유신이념 구현도 강화와 지역개발 공헌등으로 原城郡을 관할구역으로 일하고 있다. 역대 위원장은 1代 李 昌洙, 2代 金 興培, 3代 元 흥기, 4代 金 英一이다.

(4) 韓國勞動組合總聯盟 原州地區協議會

本會는 原州市 中央洞 46번지 勞動會館안에 있으며 재원지구 근로자의 基本權利守護 및 생활수준의 향상 교육계몽의 선도를 목적으로 1969年 4月 1日 한국노동총연맹 원주지구협의회로 발족하여 9개의 散別 勞動組合에 26개의 분회가 결성되어 각 분회의 대표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기구는 議長 1名 副議長 3名 理事 5名 監事 3名 事務局長 1名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노동자들의 공익을 위하여 年 1回 定期總會 및 수시로 이사회와 의장단회의를 개최하고 年 1-2회의 노동조합법 및 근로기준법에 대한 교육과 식당, 숙박, 이발소를 운영하여 노동자에게 염가로 봉사하고 또, 미 조직 분야에 대한 노조 결성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初代에 원 유상, 2代 全 성택, 3代 文 병직이 협의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원주 노동조합 현황

(1974年 末 현재)

지부조합명	구 분	조 합 원 수			적 원 수			설립년월일
		계	남	여	계	남	여	
합	계	1,353	997	356	34	23	11	
금융노조	강원은행 분회	24	13	11	2	1	1	73. 6. 15
"	국민은행 분회	20	13	7	1	1	—	61. 9. 28
"	제일은행 분회	23	13	10	2	2	—	63. 2. 1
전대노조	원주 분회	14	14	—	1	1	—	60. 6. 13
"	원료 공장 분회	15	15	—	2	1	1	67. 12. 1

체신노조	원전신건	신신건	화국분	회	101	46	55	2	1	1	69. 3. 20
"	원주원	주주체	국국연	합분회	124	93	31	2	1	1	60. 6. 13
운수노조	강원지	부원	원주	분회	72	72	—	2	1	1	61. 3. 16
"	원주	군화	분회	—	35	35	—	1	1	—	61. 3. 16
금속노조	강원지	부원	원주	분회	29	29	—	1	1	—	70. 5. 25
운수노조	강원지	부원	원주	분회	95	95	24	2	1	1	61. 3. 26
택시노조	강원지	부원	원주	택시 분회	58	58	—	2	1	1	69. 9. 27
자동차노조	대동	창신	운수	분회	75	67	8	2	1	1	63. 1. 20
"	대동	신운	수	분회	182	127	55	2	1	1	69. 3. 24
"	대동	신운	수	분회	125	125	—	2	1	1	66. 7. 12
금속노조	강원지	부원	원주	신흥공업	53	53	—	1	1	—	70. 5. 4
섬유노조	원주	원정	부	분회	196	17	179	2	1	1	64. 3. 9
전력노조	원주	주	부	원주 분회	66	66	—	4	4	—	61. 9. 22
의기노조	원주	주	분	회	46	46	—	1	1	—	63. 3. 21

(5) 싱글 병글회

싱글병글회는 原州市 園洞 31번지에 所在하며 1971年 1月 2日 李重淵에 依해 原州 MBC 放送을 通해 運動을 展開하기 시작하여 原州市內 各機關長 有志等 300餘名의 大幅的인 支持를 얻어 同年 7月 24日 싱글병글회 創立總會를 열어 任員選出을 하므로써 오늘에 이르고 있다. 健全하고 活達한 國民精神의 涵養과 國民이 모두 웃으며 일하는 기풍을 조성하여 明朗한 社會를 이룩하고 웃는 民族性을 길러 어떠한 어려움도 웃음으로 克服할 수 있는 슬기와 勇氣를 培養해주는 것을 目的으로한 이會는 滿 13歲以上의 男女녀 누구나 會員이 될 수 있어 現在는 全國에 7,000餘名의 會員이 있으며, 웃음에 對한 研究와 發表, 웃음의 씨를 國民의 가슴에 심어주는 일, 웃음을 막는 一體의 條件을 배제하기 위한 일, 國民의 情緒生活 指導, 言語 淨化運動等의 事業을 벌이고 있다. 李重淵 會長이 在任하고 있다.

(6) 原州 로타리클럽

로타리클럽은 1963年 6月 5日 창립되었으며 봉사의 이상으로 결합된 사업인 또는 전문직업인들이 가치있는 사회활동과 도덕적 수준을 높이고 자기 직업을 사회봉사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며 세계적 우의를 통해 국제간의 이해와 친선과 평화를 증진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데 있어 그것이 진실한가? 모두에게 공평한가? 호의와 우정을 두텁게 하는가? 모두에게 유익한가? 라는 표어아래 일하고 있다. 역대회장은 다음과 같으며 月 1회씩의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다.

代	雅號	姓	名	代	雅號	姓	名
初代	野聲	文	昌 模	2代	가현	金	潤 洙
3代	원산	김	희 택	4代	東竹	康	享 雲
5代	울당	김	창 수	6代	野聲	文	昌 模
7代	송당	朴	孝 相	8代	清陂	韓	昇 龍
9代	東寶	金	鍾 洛	10代	素岩	嚴	昌 崙
11代	義岩	安	光 勳				

(7) 原州 와이스멘스클럽

國際 와이스멘스클럽 한국지구 중부지방 原州클럽은 原州市 一山洞 文耳鼻咽喉科에 事務所을 두고 1969年 5月 26日 原州 中央禮式場에서 春川 알파클럽의 한 석기 와이즈멘을 필두로 文昌模 博士等 지방회원 15名의 참석리에 창립총회를 가지므로 해서 발족되었다. 1970年 3月 8日 國際本部의 콰아터신청을 내고 등년 국제본부로 부터 콰아터를 받아 콰아터의 밤을 原州靑年館에서 개최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회원간의 상호 친목을 돈독히 하며 政治 및 宗派를 超越하

第3編 社 會

여 봉사하며 善良한 市民으로서 자기 의무를 다하고 地域社會에 봉사함을 목적으로 하는 이 클럽은 職業少年學校 支援, 鶴林園 支援, 原州青年館 지원 등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활동등을 비롯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으며 현재 한 준규회장과 15명의 회원이 있다.

역대 회장은 初代 文昌樸, 2代 이창호, 3代 沈宣仁, 4代 이정교, 5代 金興培, 6代 朴泰根, 7代 한준규이다.

(8) 피플 투 피플 原州클럽

피플 투 피플 原州클럽(People to people club)은 原州市 一山洞 基督病院內에 사무실을 두고 1966年 10月 25日 원주청년관에서 피플 투 피플 현장의 밤을 한국인 24名, 미군인 21名, 중국인 2名, 캐나다인 1名 등 모두 58名이 모여 발족되었다. People to people 原文 그대로 국민대 국민의 민간 친선외교를 목적으로 하는 친선클럽으로 1956年 미국 아이젠하워 前 大統領에 의해 창시되었으며 해외클럽으로는 한국이 첫번째 가입국이 되었고 전 江原道知事 朴環遠에 의해 한국에서 발족되었으며 原州클럽은 1966년에 발족하여 初代 會長에 白完基가 就任하므로써 클럽의 창립을 보게 되었다. 그동안 본회는 月 1회 정기 친선모임을 갖는 외에 외국인회원 가정초대와 原州市 장미제를 주관하였고 姊妹都市인 美國 로아노크시와 姊妹事業活動의 핵심적 역할을 하여 왔다. 1972年 10月 17日 한국 피티피클럽 본부가 창설되어 국제본부와 긴밀한 유대하에 국내조직이 확장되자 原州클럽도 그동안의 침체기간을 벗어나 다시 재조직되어 현재는 김세환 박사를 회장으로 하여 한국인 27名 외국인 22名 등 모두 49名의 회원이 있다.

(9) 原州 青年會議所

原州 青年會議所는 1967年 11月 22日 原州 聯合基督病院 도서실에서 춘천 JC를 스폰서로 하고 창립되었다. JC본연의 이념을 같이 하는 청년들의 정열로 자립적 자발적 실천적으로 복지사회 건설과 세계의 평화를 이룩하자는데 뜻을 두며, 지도 역량 개발, 지역 사회 개발, (봉사) 세계와의 우호를 목표로 하여 봉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JC 재활원 설치 엘드회 창립을 하였으며, 시민들의 국가에 대한 숭양심을 위해 原州市에 태극기 1,500매 기증 原城郡 所草面 長陽리에 있는 民俗文化인 天下大將軍 地下女將軍像을 사인보드로 高速道路進入路에 설치하고 향구동 신월랑 부락의 마을회관 건립에 있어 노력봉사하였고 原州市 平原洞 하수구 복개(30m) 조성공사가 현재 진행중이며 기독교 병원 산재 환자를 위해 재활 직업보도를 실시하여 봉제완구등을 만들어 미국 Loanoke J.C에 송부하여 400弗을 받은바 있다. 역대 대표자로는 初代 김종림, 2代 김종림, 3代 신승진, 4代 송순석, 5代 박순동, 6代 김영수, 7代 김현기, 8代 장완순이다.

(10) 原州 라이온스클럽

原州市 中央洞 119-3番地에 위치한 이 클럽은 1965年 2月 23日 國際 라이온스클럽 第309-A地區 原州 라이온스클럽이 李仁夏를 會長으로 選出하므로 發足を 보았다. 누구나가 入會할 수 있는 이 國際클럽은 男子에 限하여 會員이 될 수 있다. 한때 有名無實하게 되었던 이 클럽은 74年 6月 27日 23名의 會員이 再發足を 보아 朴恒均會長을 中心으로 社會奉仕클럽으로 職業少年學院生들과 姊妹結緣을 맺어 物心兩面의 도움을 주고 있다.

第3節 女性團體

(1) 韓國婦人會 原州市支會

韓國婦人會 原州市支會는 原州市廳 社會課內에 있으며 1968年 6月 8日에 創團되었다. 婦女子의 資質向上을 위한 敎養講座와 消費者 保護運動, 食生活改善 啓蒙運動, 救護慰問, 社會奉仕와 靑少年 및 不遇女性 善導等의 많은 事業을 하고 있는 이 會는 18歲 以上の 女性으로 現在 19個洞

分會에 630명의 會員이 있다. 또한 主要行事 內容을 보면 71年 2月 各洞 豫備中隊와 姉妹結緣 各軍部隊 慰問公演, 各洞分會 親善排球大會, 어머니잔치 등이 있고 會長으로는 조수영이 在任하고 있다.

(2) 韓國婦人會 原城郡支會

原城郡廳 內務課 婦女係에 籍을 두고 있는 韓國婦人會 原城郡支會는 1968年 6月 8日에 創團되었다. 69年 6月 8日에는 文幕面 文幕里에 垆地 50坪 建坪 30坪의 婦女會館을 建立하였고 各面單位로 分會를 設置하였다. 18歲以上の 女性으로서 所定の 入會節次에 依하여 會員이 될 수 있으며 現在 2,629명의 會員이 每年 定期的으로 孤兒院과 養老院을 慰問한다. 主要事業 內容을 보면,

- (1) 婦女子의 資質向上을 爲한 教養講座
- (2) 消費者 保護運動
- (3) 食生活 改善 啓蒙運動
- (4) 救護慰問 社會奉仕
- (5) 靑少年 및 不遇女性 善導
- (6) 家庭儀禮 實踐啓蒙을 하고 있다.

初代 會長에는 안기남, 2代 남보금 등이다.

(3) 女性貯蓄生活 原城郡支會

女性貯蓄 原城郡支會는 原城郡廳內에 所在하며 1968年 6月 8日 設立되었다. 家庭經濟의 安定과 向上을 圖謀하고 全女性의 貯蓄生活培養을 위한 凡國民的인 貯蓄運動을 推進하는 것을 目的으로 現在 會員은 630名이며 年間 口座數는 2,492에 契約高는 3천2백십3만5천원이고 拂込額은 1백십4만7천2백십3원이며 歷代 會長은 初代 안기남, 2代 문갑희 등이다.

(4) 原州 Y W C A

原州 YWCA는 原州市 一山洞 166번지 監理會館안에 있으며 1967年 5月 6日 YWCA運動에 찬동한 몇몇이 모여 創立되었다. 젊은 女性들로 하여금 하느님이 創造主임을 믿게하여 온 人類는 하느님 안에서 한 兄弟됨을 認定하게 하고 救世主인 예수의 教訓을 自己生活에 實踐하게 하므로서 平和와 正義의 社會를 建設함을 目的으로 하는 이 클럽은 基督教運動의 強化, 勤勞女性의 福祉向上, 女性의 法的地位向上, 女性의 意識化教育, 消費者 保護運動等, 多樣한 運動을 벌이는 同時에 聖經研究班, 未婚女性을 위한 규수반, 主婦大學 講座等을 클럽活動으로 하며 會員은 平生會員 25名, 成年會員 130名, Y틴會員 200名이 있고 會長에는 이희주가 在任하고 있다.

第4節 軍警團體(在鄉)

(1) 在鄉軍人會 原州聯合分會

재향군인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군인정신의 양양과, 군사능력을 증진하여, 조국의 독립과 자유 수호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 在鄉軍人會 原州市 聯合分會는 1952年 2月 1日 재향군인 중앙회 창립과 더불어 설립되었으며 18개 洞分會에 班數가 136個班이고 組의 數가 520個組에 8,408명의 會員으로 구성되어 있다. 本會는 1969年 1月 7日 會館을 건립하였으며 극빈 파월가족돕기, 불우회원 돕기, 복귀 무력도발에 대처할 수 있는 정신무장을 강화하기 위한 총력안보계도 실시, 예비군 사기양양등, 지역사회를 위해 힘쓰므로서 74年 4月 5日에는 국무총리 공로 표창장을 받기도 하였다. 또한 本會는 회원조직 기능강화로 후방 군사력을 증강하고, 총력안보계도로 반공 전력배양에 힘쓰며, 自活 自立 協同으로 회원 복리증진을 꾀하고 地域社會發展을 위한 봉사정신을 발휘하여 鄉軍相을 확립하고 있으며 역대 대표자는 初代 이기곤, 2代 이태우, 3代 박창수 4代 김창남 5代 권규상 6代 한동석, 7代 이인하 8代 이동진 9代 박효상 10代 박효상 11代 박효상 12代 박효상 13代 박효상이다.

第3編 社 會

(2) 在鄉軍人會 原城郡支部

在鄉軍人會 原城郡支部는 原州市 一山洞 1番地에 位置하며 1961年 12月 16日 原城郡 聯合分會 再建準備委員會를 組織하여 1962年 1月 30日 原城郡 參事會議을 開催하고 聯合會長에 원 영길을 選出하므로서 設立되었다. 在鄉軍人 相互間의 親睦을 圖謀하고 鄉土建設, 社會奉仕, 會員福祉 및 自立對策事業, 軍人精神의 昂揚과 軍事能力을 增進하며, 祖國의 自由平和 守護에 貢獻함에 있어 서 總力安保運動, 弘報活動, 새마을事業支援과 關聯團體와의 紐帶를 強化함을 目的으로 하는 이 會는 九分會 101班, 363組, 4,996名의 會員으로 構成되어 있으며 各種 弘報活動 各種大會等 많은 일을 하고 있다. 支部의 代表者는 郡守가 自動적으로 支部長이 된다.

歷代 支部長은 初代 원 영길, 2代 韓 東錫, 3代 李 仁夏·4代 李 東晉, 5代 원 영길, 6代 金 昌林, 7代 劉 弼相, 8代 金 景山, 9代 盧 承哲等이다.

(3) 大韓傷痍軍警會

大韓傷痍軍警會, 大韓戰歿軍警遺族會, 大韓戰歿軍警未亡人會는 原州市 鶴城 2洞 203—2番地에 位置하고 1963年 원호대상자 단체설립법 제정 공포 법률 1,389호, 개정공포법 2,564호에 의해서 설립되었다. 상부상조하고 자활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상이군경회 原州市 分會 會員은 103名이고 原城郡分會 會員은 57名이며 전몰군경유족회 原州市分會 會員은 210名에 原城郡分會 會員은 78名이고 전몰군경 미망인회 原州市分會 會員은 108名에 原城郡分會 會員은 45名이다. 원호처 국고보조에 의존하여 운영하고 있는 이 단체의 分會長은 상이군경회 原州市分會長에 최 인하, 原城郡分會長에 노 응호, 전몰군경 유족회 原州市分會長에 권 익수, 原城郡分會長에 李 兼華이며 전몰군경미망인회 原州市分會長에 조 동년 原城郡分會長에 성 강용이다.

(4) 在鄉警友會

재향경우회는 1971年 4月 8日자로 설립되었으며 血盟의 戰友同志로서 現職과 前職 警友의 友好를 도모하고 民警親善을 기하여 승공통일 성업완수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조직되었다. 현재 789名의 회원으로 14개의 분회가 있으며 국정협조 및 반공사상 계도로서 최일선 지도자로 일하고 있다. 역대 대표자는 初代 이 구현, 2代 김 성열, 3代 안 광훈이 현 6代에 이르도록 재임하고 있다.

第5節 保健團體

(1) 社團法人大韓藥師會 江原道支部 原州市分會

社團法人 大韓藥師會 江原道支部 原州市分會는 原州市 牛山洞 50—2番地에 所在하며 倭政時代에는 朝鮮藥師會가 있었고 1955年 1月 24日 社團法人 大韓藥師會로 正式 認可를 받아 75年 3月 13日 地域內에서는 原州市藥師會라 呼稱할 수 있도록 改編되었다. 51名의 會員이 國民保健向上과 藥學에 關한 研究發展에 寄與하며 藥師 權益擁護와 倫理確立을 爲主로 每年 保健의 달에는 原州市 醫師會와 合同으로 極貧者 및 援護對象者에게 無料投藥도 實施하며 會員의 資質向上을 위하여 藥學 세미나도 갖는다.

歷代 會長으로는 初代 李 相俊(東西藥局), 2代 申 泳徹(前 亞細亞藥局), 3代 宋 基奐(前 東邦藥局), 4代 李 泰成(現 永進藥局), 5代 姜 戶錫(現 都美藥局), 6代 安 寅赫(前 現代藥局), 7代 禹 鍾炳(現 東一藥局), 8代 張 仁憲(現 廣信堂藥局)會長等이다.

(2) 大韓助產協會 原州分會

大韓助產協會 原州分會는 原州市 中央洞 274番地에 所在하며 1946年 9月 16日 張 春榮, 조 남해, 盧 順烈等에 依해 設立되었다. 날로 새로워지는 知識과 技術을 向上發展시키고 相互間의 親

睦을 圖謀하고 德性を 涵養하고 같은바 職分을 完遂하여 國家保健事業에 積極獻身함을 目的으로 하는 이會의 會員數는 開業助産員 3名 未開業 助産員 20名等 總 23名으로 無醫村과 姊妹結緣을 맺어 巡廻 妊産婦 健康과 嬰幼兒相談 家族計劃 啓蒙等 많은 일을 하고 있다. 歷代會長은 初代 盧 順烈, 2代 金 好子, 3代 安 有純, 4代 張 春榮이다.

(3) 原州市 漢藥協會

原州市 漢藥協會는 原州市 中央洞 71—10番地에 位置하며 1956年 孫 義在에 依하여 在原藥種商人의 모임을 갖음으로서 設立되었다. 會員 相互間의 親睦을 圖謀하고 道協會로부터 講師를 招聘하여 漢藥製品 品質 및 漢藥材, 栽培技術을 習得하고 있는 이協會는 23名의 會員이 있으며 地域住民의 健康과 所得增大에 힘쓰고 있다.

歷代會長은 初代 孫 義在, 2代 崔 鎮求, 3代 沈 亨來等이다.

第6節 公益法人團體

(1) 原州市 地籍協會 出張所

大韓地籍協會 江原道支部 原州出張所는 原州市 中央洞 177—1番地에 位置하며 1938年 3月 30日 設立되었다. 財團法人體로서 原州市 管內 地籍 測量業務를 代行하고 있는 이出張所는 三角測量, 復舊測量, 區劃整理, 耕地整理 測量, 이동지 測量, 공유수면 干拓地測量, 其他 圖面조계의 業務를 擔當하며 從事하는 人員은 8名이고 現 出張所長으로는 태 장성이 在任하고 있다.

(2) 韓國糧穀加工協會 原城郡支部

韓國糧穀加工協會 原城郡支部는 原州市 中央洞 45番地에 位置하며 1962年 11月 原城郡 糧穀加工組合으로 發足하였다가 1973年 6月 28日 社團法人體로 中央會에 正式登錄하므로써 韓國糧穀加工協會 原城郡支部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糧穀加工業의 劃期的인 發展과 會員의 福利를 增進하며 國家食糧增産施策에 積極 寄與함을 目的으로 이會의 會員數는 105名으로 無許可 團束으로부터 會員들의 被害를 防止하여 주는 일과 隨時로 總會와 理事會를 열어 會員의 權益擁護에 힘쓰고 있으며 現在 支部長에는 李 鎬晚이 在任하고 있다.

(3) 原城郡 食品環境聯合組合

原城郡 食品環境聯合組合은 原州市 平原洞 190番地에 位置하고 1965年 4月 15日 原城郡 食品環境聯合協會로 發足を 하였다가 1970年 4月 10日 原城郡 食品環境聯合組合으로 變更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業者 相互間의 連絡과 親睦을 圖謀하며 關係機關과의 協助를 代行하고 있는 이組合은 4坪의 事務室에 理髮業者 49, 美容業者 4, 宿泊 8, 食堂 42, 簡易선술집 40, 製油 8個 所 環境組合이 61名, 食品組合이 90名으로 總 151名의 組合員이 있다. 衛生檢査協助, 無許可團束 協助, 有能 및 模範業者表彰等, 關係機關과의 協助를 이루어 組合員에게 惠澤을 주고 있는 이組合의 歷代 組合長은 初代 環境—장 태환, 食品—이 춘질, 2代 박 기사, 3代 함 태성 등이다.

(4) 原州市 糧穀商組合

原州 糧穀商組合은 原州市 中央洞에 所在하며 1969年 4月 15日 設置되었다. 米穀流通秩序를 確立하여 穀價安定을 期하고 官民紐帶를 가져 官으로부터 糧穀을 收買하여 組合員들에게 分配하는 일등을 擔當하고 있는 이組合의 組合員數는 160名에 達하고 있다.

歷代 代表者는 初代 咸 在克, 2代 咸 在克, 3代 咸 百慶, 4代 崔 孝澈, 5代 박 문흥, 6代 崔 孝澈等이다.

(5) 韓國自動車檢査代行公司 原州營業所

韓國自動車檢査代行公司 原州營業所는 原州市 觀雪洞 1547번지에 位置하며 1962年 6月 12日

原州地區 自動車 2級 檢査場으로 設立되었다가 1975年 1月 1日 各地區마다 個人이 運營하던 것을 現 自動車 整備事業 協業管理所의 名稱으로 統合하여 業務를 開始하므로써 오늘에 이르고 있다. 自動車 檢査課程의 不正 不條理를 제거하여 事故없이 安全한 運行을 할 수 있는 自動車가 되도록 檢査의 단진을 期하고 있는 이 營業所는 1,800台의 車輛을 對象으로 繼續檢査, 新規檢査, 構造變更檢査를 實施하며 500坪의 垆地에 建坪은 100坪이고 從業員은 6名이다. 過去의 一部 沒知覺한 要員에 依해 恣行되던 不條理한 檢査行爲는 이 營業所가 發足하므로 一切 排除되었으며 所長으로는 嚴 泰東이 在任하고 있다.

(6) 原州地區 自動車整備事業協業管理所

원주지구 자동차정비사업협업관리소는 1974年 1月 15日 設立되었으며 정부시책에 호응하고 협동정신을 양양하여 업체간의 경쟁을 없이하며 완전한 정비로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김 응순을 소장으로 운영위원은 4名(유 원균, 우 봉순, 계 덕수, 강 덕순)이며, 地方奉仕事業으로도 原州 아마추어 복싱연맹을 적극 후원하고 있다.

(7) 原州 司法書士 合同事務所

原州 司法書士 合同事務所는 原州市 鶴城洞에 위치하고 1974年 12月 2日 창립되었다, 合同事務所의 통합관리를 보면 司法書士의 品位保存과 부당한 事件誘致 禁止 및 권익을 보장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립된 이 사무소는 3개의 사무소가 있으며 각 사무소에 1名의 常務委員이 있다. 회장으로는 창립 이후 현재까지 박 창훈씨가 재임하고 각 사무소별 사법서사는 다음과 같다.

사무소 : 손 경옥 · 유 순남 · 안 병석 · 정 대식

사무소 : 강 길수 · 김 영하 · 박 창훈 · 안 동일 · 최 병길

사무소 : 지 세완 · 오 영세 · 원 창목 · 석 상균 · 박 기창

(8) 大韓職業寫眞師協會 原州支部

大韓職業寫眞師協會 原州支部는 原州市 中央洞 212番地에 所在하고 1960年 5月 15日 이 고장 職業寫眞師들이 모여 創立總會를 가짐으로서 設立되었다. 職業寫眞師相互間의 親睦을 圖謀하고 營業의 公正을 期하기 위한 目的으로 設立된 이 支部는 現在 43名의 會員으로 構成되어 있다. 至今까지의 協會長은 未詳이나 最近에 協會長을 맡았던 사람은 남 철희 · 최 규택 · 김 운옥등이다

(9) 韓國易理學會 江原道支部

社團法人 韓國易理學會 江原道支部는 原州市 中央洞 125番地에 所在하며 1972年 8月 17日 文 敎部長官의 認可를 얻어 設立되었다. 觀相, 四柱, 姓名學, 風水地理, 五行이나 陰陽說이 위주 가된 業種인 이 支部는 周易을 10年 以上 研究하고 中央易理學術院에 資格審査를 거쳐야만 正 會員이 될 수 있고 이 事項의 課程에 있는자를 準會員으로 하여 正會員 47名 準會員 813名으로 總 860名이며 原州 原城에는 正會員 16名 準會員이 24名이 있다. 體質的으로나 先天的으로 精 神分析學으로 단신으로써 적절한 사람들에게 춤 장구등을 가르치기도 하는 이 支部는 李 崇寧 會長이 在任하고 있다.